

연구보고 2009-14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장명림
이윤진
이정림
이미화
전혜정
민현숙
박수연
이세원
김주연
정주희
송윤정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정부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감소시켜야 할 책무성을 인식하고, 취약계층 영유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국가사업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영유아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드림스타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하나센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영유아를 위한 지원은 아직도 미흡하다.

취약계층 가정 지원에 있어서는 영유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이외에도 부모 자신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영유아와 부모를 동시에 연계 지원하는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 영유아 시기의 부적절한 양육 경험은 이후의 사회 정서적인 문제 행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 부모들은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시범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시범적용에서는 정부부처 사업의 전달체계를 활용하였으며, 사업간 연계를 통해 인적자원을 활용하였다. 2009년에 수행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0년에는 영유아 지도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통합지원 모형의 시범적용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2011년에는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확정·보급할 예정이다.

본 연구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교육과 문화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영유아와 그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 시범적용에 참여해 주신 지원사업의 영유아 담당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9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기존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내실 있고 체계성 있게 취약계층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시범적용해 보고자 함.
 -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 중 취약전 영유아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현황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사업들 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협력 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 내용

- 취약계층 가정 및 영유아의 일반 특성 분석
 - 저소득층 가정 부모 및 영유아의 특성
 - 북한이탈주민의 일반 현황 및 가정 특성
- 국외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특성 및 효과 분석
- 국내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 조사 및 요구 분석
- 프로그램 개발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개발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시범적용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확정 및 정책적 제언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저소득층 가정 조사
 - 북한이탈주민 가정 조사
- 원외 위탁연구 용역
 - 취약계층 가정(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원외 프로그램 원고 의뢰
 - 영아용·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동화책을 이용한 유아 개념학습 활동
- 가정유형별 육아지원 모형 특성화 및 시범적용
- 포커스그룹 면담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라. 연구의 범위 및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 기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 내에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 첫째,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 둘째, 영유아에게는 바람직한 교육적 발달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셋째, 부모에게는 부모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 영유아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넷째, 교사 및 전문인력에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료와 연수를 제공하고,
 - 다섯째, 지역 내 영유아 대상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 통합적인 육아지원 모형임.

□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정부부처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그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음.

정부부처명 (담당과)	사업명	전달체계	담당 인력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센터	보육교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교육청 및 학교	유아교육 복지전문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사업	교육청 및 지역단설공립유치원	희망유아 교육사
통 일 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정착지원사업	하나센터 (복지관에 위탁)	사회복지사

□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3년차로 추진될 예정이며,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9년(1차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 2010년(2차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 2011년(3차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및 보급

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의 이론적 기초

가.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 및 영유아의 특성

-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는 불안정한 취업, 열악한 주거환경, 가족관계, 양육태도 및 행동 등에서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의 경우, 건강 상태가 불량해지기 쉽고,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며,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음.
- 지적 능력과 언어능력 발달 수준이 다소 낮았으며,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에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북한이탈주민의 일반 현황 및 가정 특성

-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입국자가 남성 입국자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였음.
- 전반적으로 복잡한 가족관계를 보이며, 특히 탈북이후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해 가족갈등, 가족해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탈북과정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언어발달이 늦음.

다. 통합적 육아지원의 필요성

- 영유아 지원의 필요성
- 부모 지원의 필요성
- 가족 지원의 필요성
-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

3. 국외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가.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 헤드스타트(Head Start)
- 슈어스타트(Sure Start)
- 베스트스타트(Best Start)

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효과 및 시사점

-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부모의 참여 유도 및 지원이 필수적임.
- 중앙정부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체계 협력이 중요함.

4. 국내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가.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 정부 지원 사업
 - 드림스타트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 지자체 및 민간주도 사업
 - 위스타트
 -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 SB7시소와그네

나.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 사업 현황

- 정부 지원 사업
 -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내용
 - 하나원
 - 하나센터
- 공공 지원 사업
- 민관협력사업: 정착도우미

5.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 및 요구 분석

가. 저소득층 가정 양육실태 및 요구 분석

- 실태조사 요약 및 시사점
 -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위한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함.

-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양육자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며 주양육자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가족유형별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소득수준별로 가장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에 속하는 가정의 영유아의 지도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문인력 설문조사 요약 및 시사점

- 영유아 지원으로는 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부모 및 가정 지원형태에 차이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부모 교육은 거의 실시하지 못하기도 함.
- 전문인력이 스스로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가정의 특성상 필요한 내용의 부모교육 자료가 있다면 전문인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

나. 북한이탈주민 가정 양육실태 및 요구분석

실태조사 요약 및 시사점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대부분 남한에서 태어났으며 2006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들은 영유아들의 신체영역과 언어영역이 다른 발달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 남한 입국 이전에 북한 또는 제3국에서 탁아소나 유치원 경험이 있는 영유아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이용방식은 하루 8시간 이용의 종일제가 대부분이었음.
-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70.1%, 아동양육 및 교육이 15.6%로 나타남.

전문인력 면담조사 요약 및 시사점

-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문화된 지원기관과 인력이 필요함.

- 하나원 퇴소 이후 정착지부터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전담하여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 담당 인력의 활동이 요구됨.

6.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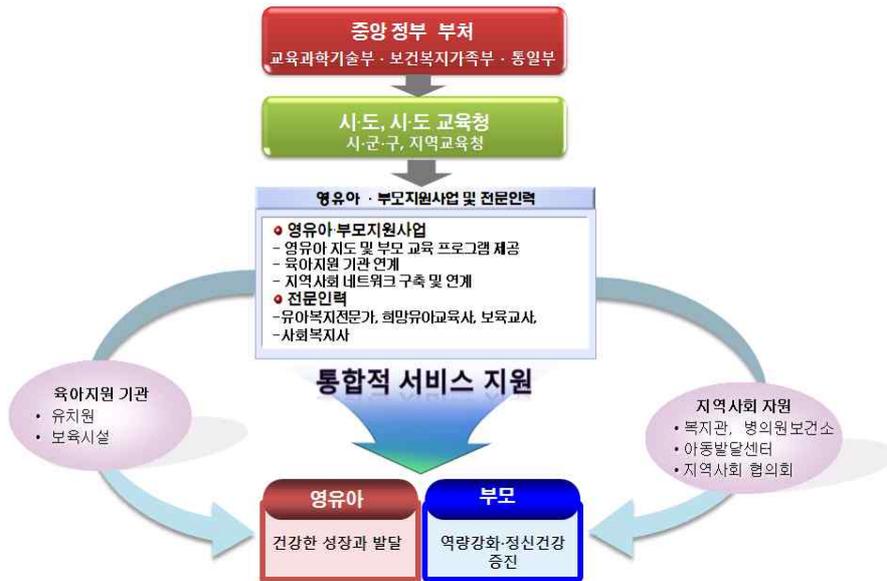
가.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방향

-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전달체계와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함.
- 영유아 및 부모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 통합적 육아지원 기본 모형을 개발한 후, 가정유형별 특성화 방안을 모색함.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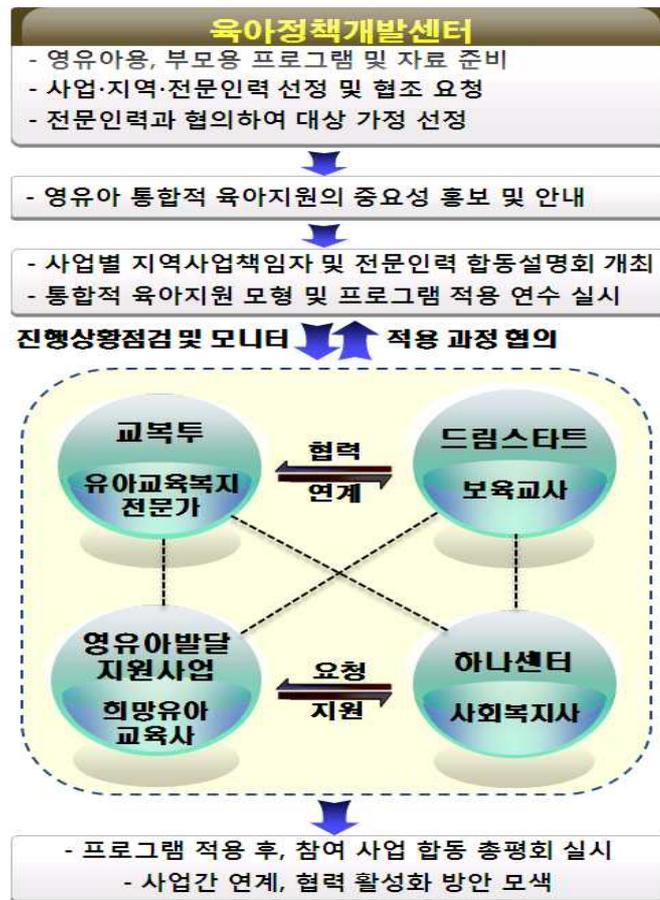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모형은 [그림 1] 과 같음.



[그림 1]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절차 및 방법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절차는 다음 [그림 2] 와 같음.



[그림 2]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절차

나. 통합적 육아지원 프로그램 시범적용

- 시범적용 대상 선정
- 시범적용 추진 관계자 설명회 개최

- 영유아와 부모 대상 진단 검사 및 조사
- 프로그램 구성 및 실제에 대한 교사 연수
- 프로그램 적용 및 과정 관리
- 결과분석 및 시사점 추출

7.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가.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의 건전한 전인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정신건강과 영유아 양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저소득층 가정 유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함.

나.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 체계적인 육아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할 전문기관 및 인력배치가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 부모 대상의 맞춤형 부모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의 취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양육을 지원해야 함.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최초의 집단 교육 장소인 하나원에서부터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지도가 제공되어야 함.

다. 정책 제언

- 정부부처의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 지원 사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육아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의 일반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전국 확대 적용이 필요함.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6
4. 연구의 범위 및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19
II.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의 이론적 기초	21
1.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 및 영유아의 특성	21
2. 북한이탈주민의 일반 현황 및 가정 특성	28
3. 통합적 육아지원의 필요성	36
III. 국외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44
1.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44
2.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효과 및 시사점	60
IV. 국내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67
1.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67
2.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 사업 현황	105
V.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 및 요구 분석	127
1. 저소득층 가정 양육실태 및 요구 분석	127
2. 북한이탈주민 가정 양육실태 및 요구	185

VI.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239
1.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239
2. 통합적 육아지원 프로그램 시범적용	243
VII.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286
1.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286
2.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288
3. 정책 제언	290
참고문헌	292
부록	303

표 차례

〈표 I-3- 1〉 저소득층 가정 조사대상	8
〈표 I-3- 2〉 저소득층 가정 표집 방법	9
〈표 I-3- 3〉 저소득층 가정 부모용 질문지 문항	9
〈표 I-3- 4〉 영유아 프로그램 전문인력 조사대상 및 방법	10
〈표 I-3- 5〉 영유아 프로그램 전문인력 조사 항목	11
〈표 I-3- 6〉 북한이탈주민 가정 표집	12
〈표 I-3- 7〉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에 관한 질문지 문항	12
〈표 I-3- 8〉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 및 가정에 관한 질문지 문항	13
〈표 I-3- 9〉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 전문인력 조사 항목	14
〈표 I-3-10〉 대상가정 선정	17
〈표 I-3-11〉 정부부처 취약계층 지원 사업별 전달체계 및 전문인력	19
〈표 II-1- 1〉 영유아 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2007~2009)	21
〈표 II-1- 2〉 연도별 교육비·보육료 지원 단가	22
〈표 II-1- 3〉 농어업인 자녀 교육비·보육료 지원 단가	23
〈표 II-2- 1〉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입국 변화	28
〈표 II-2- 2〉 연령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추이변화	29
〈표 II-2- 3〉 재북 학력별 입국 현황	29
〈표 II-2- 4〉 입국 후 학력 현황	30
〈표 II-2- 5〉 북한이탈주민 학령기별 현황	31
〈표 II-2- 6〉 입국 후 경제수준	31
〈표 II-2-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 분포	32
〈표 II-3- 1〉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계기관 및 사업내용	41
〈표 II-3- 2〉 인천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실무협의체 목록	42
〈표 IV-1- 1〉 드림스타트 통합 서비스 내용	70
〈표 IV-1- 2〉 드림스타트 시범지역 현황	70
〈표 IV-1- 3〉 드림스타트 구성원의 주요업무	71
〈표 IV-1- 4〉 영유아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평가도구	77
〈표 IV-1- 5〉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	77

〈표 IV-1- 6〉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78
〈표 IV-1- 7〉 다문화가정 부모영유아 통합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78
〈표 IV-1- 8〉 위스타트 마을 추진주체 구성 및 기능	82
〈표 IV-1- 9〉 전국 위스타트 운동 사업장 현황: 23곳(2009년)	85
〈표 IV-1-10〉 위스타트 팀구성원 및 주요 업무	86
〈표 IV-1-11〉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아동교육 프로그램 목표·내용·교수방법	89
〈표 IV-1-12〉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부모 지원 프로그램 사례	90
〈표 IV-1-13〉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사례	92
〈표 IV-1-14〉 삼성어린이집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93
〈표 IV-1-15〉 제공된 서비스 영역	95
〈표 IV-1-16〉 지역유형별 서비스 제공현황	96
〈표 IV-1-17〉 사례 아동 현황	97
〈표 IV-1-18〉 이용 대상자 수	97
〈표 IV-1-19〉 이용 대상자 가족 유형	98
〈표 IV-2-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요내용	105
〈표 IV-2- 2〉 하나원 교육생 생활일과표	108
〈표 IV-2- 3〉 하나센터 표준 프로그램	113
〈표 IV-2- 4〉 하나센터: 표준 지역적응교육 프로그램 일정표	114
〈표 IV-2- 5〉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개요	117
〈표 IV-2- 6〉 방화 6 종합사회복지관 개요	119
〈표 IV-2- 7〉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개요	121
〈표 IV-2- 8〉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사업 계획서	123
〈표 V-1- 1〉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128
〈표 V-1- 2〉 부모의 근로 특성	129
〈표 V-1- 3〉 가족유형 및 소득계층	130
〈표 V-1- 4〉 경제적 특성	131
〈표 V-1- 5〉 주택 특성	132
〈표 V-1- 6〉 영유아 특성	134
〈표 V-1- 7〉 가족유형별 영유아 하루일과	136
〈표 V-1- 8〉 소득계층별 영유아 하루일과	136
〈표 V-1- 9〉 가정에서 보호자 없이 영유아들끼리만 지내는 시간	137

〈표 V-1-10〉	일상생활 중 영유아 지도 및 관리	138
〈표 V-1-11〉	영유아에게 일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일수	139
〈표 V-1-12〉	영유아와 함께 책 읽은 빈도	140
〈표 V-1-13〉	영유아와 함께 만들기 또는 그리기 활동 빈도	141
〈표 V-1-14〉	영유아에게 글자 또는 수를 가르치는 빈도	142
〈표 V-1-15〉	영유아와 함께 놀이터에 가거나 신체운동을 한 빈도	143
〈표 V-1-16〉	최근 6개월간 도서관에 간 경험	143
〈표 V-1-17〉	최근 6개월간 인형극, 뮤지컬 관람 경험	144
〈표 V-1-18〉	최근 6개월간 미술관, 박물관, 고궁 방문 경험	145
〈표 V-1-19〉	최근 6개월간 놀이공원, 동물원에 간 경험	146
〈표 V-1-20〉	양육에 관한 인식 및 기대	147
〈표 V-1-21〉	육아정보 제공자 및 습득경로	148
〈표 V-1-22〉	영유아의 연령별 주양육자	149
〈표 V-1-23〉	영유아의 연령시기에 따라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자	149
〈표 V-1-24〉	영유아를 양육하면 느끼는 어려움	150
〈표 V-1-25〉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	151
〈표 V-1-26〉	소득계층에 따른 어머니의 자존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점수의 차이	152
〈표 V-1-27〉	소득계층에 따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점수의 차이	152
〈표 V-1-28〉	소득계층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점수의 차이	153
〈표 V-1-29〉	부모가 인지하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 인식의 차이	154
〈표 V-1-30〉	걱정되는 영유아 발달 영역	155
〈표 V-1-31〉	영유아 문제행동	156
〈표 V-1-32〉	영유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157
〈표 V-1-33〉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	158
〈표 V-1-34〉	교육·보육기관 이용 종류	161
〈표 V-1-35〉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재원시간	162
〈표 V-1-36〉	기관별 교육비 실제 납부비용	163
〈표 V-1-37〉	교육·보육기관의 비용 부담정도	163
〈표 V-1-38〉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164
〈표 V-1-39〉	교육보육기관 선택 시 고려점	164
〈표 V-1-40〉	교육·보육기관외 이용 교육 수	165

〈표 V-1-41〉	교육·보육기관 외에 이용하는 기관 교육 프로그램 정부 지원 여부	165
〈표 V-1-42〉	교육·보육기관 외에 이용하는 방문 교육 프로그램 정부 지원 여부	165
〈표 V-1-43〉	총 교육비 지출비율	166
〈표 V-1-44〉	정부로부터 교육·보육기관 교육비 지원 수혜 여부	167
〈표 V-1-45〉	정부로부터 교육·보육기관 교육비 지원 도움 정도	168
〈표 V-1-46〉	정부로부터 교육·보육기관 교육비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	169
〈표 V-1-47〉	정부·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지원 서비스 수혜여부	169
〈표 V-1-48〉	받고 있는 영유아 지원 서비스 종류	170
〈표 V-1-49〉	영유아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170
〈표 V-1-50〉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171
〈표 V-1-51〉	사업수혜별 육아지원 서비스 필요도	172
〈표 V-1-52〉	가족유형별 육아지원 서비스 필요도	173
〈표 V-1-53〉	소득계층별 육아지원 서비스 필요도	174
〈표 V-1-54〉	수혜여부별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176
〈표 V-1-55〉	사업수혜여부별 육아지원 서비스 필요도	177
〈표 V-1-56〉	전문인력의 일반적인 특성	178
〈표 V-2- 1〉	어머니 탈북년도	186
〈표 V-2- 2〉	어머니 제3국 체류경험	187
〈표 V-2- 3〉	어머니 남한입국 전 총 체류기간	188
〈표 V-2- 4〉	어머니 입국시기	188
〈표 V-2- 5〉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북한에서의 학력과 직업	189
〈표 V-2- 6〉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북한에서의 양육경험	190
〈표 V-2- 7〉	북한이탈주민 부모 취업상황(현재)	191
〈표 V-2- 8〉	주택소유형태	192
〈표 V-2- 9〉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193
〈표 V-2-10〉	결혼상태	194
〈표 V-2-11〉	동거 가족 수(본인 포함)	194
〈표 V-2-12〉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출생년도(220명)	195
〈표 V-2-13〉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의 출생년도(178명)	196
〈표 V-2-14〉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의 성별	196
〈표 V-2-15〉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의 남한 입국시기	197

〈표 V-2-16〉 남한 입국 시 어머니 동반 여부	198
〈표 V-2-17〉 북한에서 탁아소 및 유치원 경험 여부	198
〈표 V-2-18〉 제3국에서 탁아소 및 유치원 경험 여부	199
〈표 V-2-19〉 하나원에서 유아방(보육실) 경험 여부	200
〈표 V-2-20〉 하나원에서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경험 여부	200
〈표 V-2-21〉 지난 1년간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의 건강상태	201
〈표 V-2-2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여부	201
〈표 V-2-23〉 부모가 인지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발달 수준	202
〈표 V-2-24〉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가장 우려되는 발달영역	203
〈표 V-2-25〉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주양육자	203
〈표 V-2-26〉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미취업 이유(1순위)	204
〈표 V-2-27〉 모 취업 시 자녀양육의 어려움(1순위)	205
〈표 V-2-28〉 육아정보 습득 경로	206
〈표 V-2-29〉 긴급한 경우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	207
〈표 V-2-30〉 현재 육아지원기관 이용여부	207
〈표 V-2-3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	208
〈표 V-2-32〉 육아지원기관 하루 이용시간	208
〈표 V-2-33〉 육아지원기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점(1순위)	209
〈표 V-2-34〉 육아지원기관에 보내는 이유(1순위)	211
〈표 V-2-35〉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만족도	211
〈표 V-2-36〉 북한에서의 아동양육방식	213
〈표 V-2-37〉 남한에서의 아동양육방식	214
〈표 V-2-38〉 자신의 아동양육방식	214
〈표 V-2-39〉 현재 가족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1순위 기준)	215
〈표 V-2-40〉 아동양육의 어려움	216
〈표 V-2-41〉 아동양육의 어려움_아동의 남한말 구사 능력	216
〈표 V-2-42〉 아동양육의 어려움_사교육비/양육비를 부담하기에는 낮은 경제력	217
〈표 V-2-43〉 아동양육의 어려움_양육방식 관련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	219
〈표 V-2-44〉 아동양육의 어려움_북한이탈주민 부모라는 선입견	220
〈표 V-2-45〉 아동양육의 어려움_특이한 말씨 등으로 인해 남한친구 사귀기 어려움	221
〈표 V-2-46〉 아동양육의 어려움_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음	222

〈표 V-2-47〉 아동양육의 어려움_아동의 학습지도 어려움	223
〈표 V-2-48〉 하나원에서의 양육관련 부모교육 경험여부	224
〈표 V-2-49〉 하나원에서의 양육관련 부모교육 내용(복수응답 기준)	224
〈표 V-2-50〉 하나원에서의 양육관련 부모교육 도움정도	225
〈표 V-2-51〉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수혜여부	226
〈표 V-2-52〉 현재 지원받고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 종류(복수응답 기준)	226
〈표 V-2-53〉 아동육아지원 서비스 만족도	227
〈표 V-2-54〉 육아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228
〈표 V-2-55〉 육아지원 서비스 수혜 의향	229
〈표 V-2-56〉 희망하는 육아지원서비스 종류	229
〈표 V-2-57〉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인력 현황	231
〈표 VI-2- 1〉 시범적용 전문인력 및 참여 영유아(저소득 가정)	244
〈표 VI-2- 2〉 시범적용 전문인력 및 참여 영유아 (북한이탈주민가정)	245
〈표 VI-2- 3〉 영아 및 부모 프로그램 적용 실제 차시의 예	248
〈표 VI-2- 4〉 유아 및 부모 프로그램 적용 실제 차시의 예	248
〈표 VI-2- 5〉 프로그램 총괄표	249
〈표 VI-2- 6〉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의 구성	251
〈표 VI-2- 7〉 영아용 기본생활습관	251
〈표 VI-2- 8〉 영아용 언어인지발달	252
〈표 VI-2- 9〉 영아용 사회정서발달	253
〈표 VI-2-10〉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구성	256
〈표 VI-2-11〉 유아용 언어영역	256
〈표 VI-2-12〉 유아용 인지영역	259
〈표 VI-2-13〉 유아용 사회영역	262
〈표 VI-2-14〉 유아용 정서영역	262
〈표 VI-2-15〉 부모 양육역할수행 수준 검사지의 구성	269
〈표 VI-2-16〉 개별지도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271
〈표 VI-2-17〉 집단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271

그림 차례

[그림 I-3-1]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체계 ...	18
[그림 I-4-1]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	20
[그림 II-2-2]	남북한 학제 비교	30
[그림 IV-1-1]	드림스타트 추진체계도	68
[그림 IV-1-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추진체계	74
[그림 IV-1-3]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추진체계	76
[그림 IV-1-4]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체계도	88
[그림 IV-1-5]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추진체계	94
[그림 IV-1-6]	SB7시소와그네 사업 추진체계	100
[그림 IV-2-1]	하나센터사업의 흐름도	112
[그림 V-1-1]	영유아의 하루일과	135
[그림 V-1-2]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론모형	158
[그림 V-1-3]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최종모형: 경로와 표준화 계수	159
[그림 V-1-4]	이용 보육시설 종류	161
[그림 V-1-5]	재원 유치원 종류	161
[그림 VI-1-1]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240
[그림 VI-1-2]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절차	243
[그림 VI-2-1]	영아 지도 프로그램 활동 예시	255
[그림 VI-2-2]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활동 예시	264
[그림 VI-2-3]	동화책	265
[그림 VI-2-4]	달 달 무슨 달 활동지의 예	266
[그림 VI-2-5]	어디로 숨을까 활동지의 예	267
[그림 VI-2-6]	우산이 필요해 활동지의 예	268
[그림 VI-2-7]	개별지도용 만2세 부모교육 활동지 예(부모용)	273
[그림 VI-2-8]	개별지도용 만2세 가정방문자용 활동지 예(가정방문자용)	274
[그림 VI-2-9]	집단용 부모교육 활동지 예	275

부록 표 차례

〈부표 V-1-1〉 가족유형에 따른 대상 영유아 양육의 어려운 점	305
〈부표 V-1-2〉 소득계층에 따른 대상 영유아 양육의 어려운 점	305
〈부표 V-1-3〉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	306
〈부표 V-1-4〉 소득계층에 따른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	306
〈부표 V-1-5〉 가족유형별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307
〈부표 V-1-6〉 소득계층별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30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학생이 타고난 능력, 지능, 성취동기 등의 개인적 요소 뿐 아니라 부모가 속해 있는 사회 계층 차이로 인한 사회적 요소도 존재한다. 즉 교육격차는 학생 개인 변인이 아닌 가정 변인, 즉, 소득, 학력, 직업, 계층과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 및 문화적 환경과 같은 지역 변인에 의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erguson, 1991; Halpern, 2000).

국가와 사회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감소시켜야 할 책무가 있으며, 학습능력 격차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과 빈곤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초등학교에서의 출발선을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전에 조기 개입,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수립·실천하고 있으며,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호주의 베스트스타트 등이 잘 알려진 사례이다.

취약계층은 경제적, 정치적, 문체적, 심리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으로(변중임 외, 2007), 저소득층 가정, 농어촌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을 포함할 수 있다(조윤영·김정호, 2008).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저소득층 가정 및 영유아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농어촌 가정을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강화', 장애인 가정을 위한 지원으로 '2009년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유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최근 국내 취약계층 집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매해 3,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북한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교류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지원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는 언어와 인지가 뒤떨어지고, 우울, 분노와 같은 정서적 문제가 많으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문제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성 및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조기 중재로 언어와 인지 발달에 효과가 있었고 문제행동 예방과 사회적 비용절감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종단적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중재의 시기가 어릴수록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조기헤드스타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05a).

최근 국내에서도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지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위스타트와 기업이 주관하는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와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제2회 국정과제세미나에서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0~2세 빈곤아동 밀집지역 아동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주도 복지서비스 수혜율은 8.9% 수준에 불과하여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더욱이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에서 다음의 내용들이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이미화·이윤진·이정림, 2009).

첫째,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기본학습능력 및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

둘째, 저소득층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부모의 역량 강화, 부모-영유아 관계 개선 및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셋째, 저소득층 영유아 문제행동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 미흡하다.

넷째, 저소득층 지원 사업 진행과 관련된 전문직 지도교사의 재교육 및 관리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때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취약계층 영유아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가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취약계층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을 구안하고 이를 현장에 시범적용해 보고자 한다.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구성요소로는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전달체계, 영유아용 및 부모용 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 중 취약계층 영유아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현황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범적용에도 포함함으로써 사업들 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협력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취약계층 가정 및 영유아의 일반 특성 분석

- 저소득층 가정 부모 및 영유아의 특성
- 북한이탈주민의 일반현황 및 가정 특성

나. 해외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특성 및 효과 분석

- 외국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개황, 목적, 사업 추진 및 서비스 전달체계, 주요 사업 내용, 주요 평가 항목 및 성과 등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함.
 - 외국 사례: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호주의 베스트스타트
- 외국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추출

다. 국내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 국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특히, 취학전 영유아 및 가정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함.
-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 정부 지원 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아동센터’ 등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 위스타트,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SB7시소와그네 등
-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 사업 현황
 - 통일부의 일반 지원 정책
 - 통일부의 하나센터 운영·지원 사업

라.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 조사 및 요구 분석

- 가구특성

- 교육정도, 경제적 특성 등
- 주양육자 특성
 - 아동과의 동거 여부, 취업여부, 근무형태 등
 - 주양육자의 정신건강,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 아동특성
 - 아동의 건강, 영양, 식생활, 안전 등
 - 아동발달특성
 - 하루일과
- 육아지원기관 특성
 -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여부, 기관유형,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등
 - 개인교육 이용 유형 및 비용 등
-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
 - 정부 육아지원 사업 이용 만족도
 - 육아지원 서비스 만족도, 필요도 등
- 전문인력의 의견 및 요구

마. 프로그램 개발

-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 동화책을 활용한 개념학습 활동 자료(유아용)
- 부모용 프로그램(검사지, 소집단용, 개별지도용)

바.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1)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구성 요소 선정

가) 전달체계

-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 통일부의 하나센터 사업

나) 프로그램

- 영아용 개별지도 프로그램
- 유아용 개별지도 프로그램
- 동화책을 이용한 개념학습 활동(만5세 대상의 학습준비도 향상)
- 부모교육 프로그램
 - 가정의 양육 환경과 부모의 양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 개발
 - 개별지도용 부모교육 프로그램
 - 집단용 부모교육 프로그램

다) 전문인력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유아교육복지전문가,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희망유아교육사
- 드림스타트 사업의 보육교사
- 하나센터의 사회복지사

라) 사업간 연계 및 자원 활용

- 취약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간 상호 연계·활용토록 하는 방안
 - 영유아 지도 전문인력 연계·지원
 - 사업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2)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적용 방안 제시

- 정부 사업 전달체계 관리자(지역 사업 책임자) 사전 협의 실시
- 부모 및 유아 지도 전문인력 대상 연수 및 설명회 개최
 - 저소득층 가정 및 영유아의 특성 이해 및 접근법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의미와 특성

- 프로그램 적용 방법 및 유의점 등
- 일정한 기간 프로그램 적용
- 프로그램 적용 후 합동평가회 개최
- 사업간 연계·협력

사.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시범적용

- 시범적용 대상 선정
- 시범적용 추진 관계자 및 설명회 개최
- 영유아와 부모 대상 진단 검사 및 조사
- 프로그램 구성, 교사 연수 실시
- 프로그램 적용 및 과정 관리
 - 대상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부모 역량 수준별
- 영유아와 부모 대상 사후 검사 및 조사
-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추출

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확정 및 정책적 제언

-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 통합적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 취약계층 가정 및 영유아의 일반적인 특성 분석
 - 저소득층 가정 및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영유아

- 국내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 지원 사업
 - 정부 지원 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아동센터’, 통일부의 ‘하나센터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 위스타트,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SB7시소와그네 등
- 외국의 지원 사업 사례 및 효과 분석 연구
 -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호주의 베스트스타트 등
-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관련 정부부처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관련 선행연구 수집 및 분석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등 선행연구 수집 및 분석

나.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1) 저소득층 가정 조사

가) 저소득층 가정 부모 및 영유아 조사

- 조사 시기: 2009년 7월~8월
- 조사대상 및 방법: <표 I-3-1> 내용 참조
 -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각 사업 센터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여 사업 대상가정 부모 명단을 확보하여 동의를 구한 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지역은 정부의 상기 세 가지 사업이 모두 투입·실시되고 있는 지역 및 취학전 영유아 프로그램 전문가¹⁾가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한정함. 이에 조사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저소득 밀집 지역으로 정하였음.

1) 영유아 프로그램 전문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유아교육복지전문가’, 영유아 기본 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희망유아교육사’, 드림스타트 사업의 ‘보육교사’를 말함.

〈표 1-3-1〉 저소득층 가정 조사대상

구분	대상자	대상수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 영유아의 부모	209명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지원사업 대상 영유아의 부모	39명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의 부모	211명
일반저소득 ²⁾	저소득 가정 (수급자/차상위) 영유아 부모	210명

주: 조사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 한정함.

○ 조사지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지역>

-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
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가나다순)
- 경기: 고양시, 안산시, 의정부시, 평택시
-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지역>

- 서울: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 경기: 구리시, 성남시, 안양시, 화성시
- 인천: 강화군,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

- 서울: 성북구
- 경기: 시흥시
- 인천: 계양구, 동구

○ 표집 방법: <표 1-3-2> 내용 참조

2) 일반저소득 가정은 정부 지원 사업 가정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포함한 것임.

〈표 1-3-2〉 저소득층 가정 표집 방법

구분	사업명(활동)	표집방법
교육과학 기술부 지원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지원사업	1)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프로젝트조정자들과 자문회의 및 협조공문 발송 2)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교육청에서 각 해당 지역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사업대상 영유아명단과 부모 연락처,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부모들의 동의를 받은 후 취합 3)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교육청에서 각 해당 지역청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영유아 명단 및 관련 정보를 수합한 후 본 센터에 전달 4) 전문조사기관에 대상 명단을 제공 5) 조사원들이 각 대상가정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 후 가구방문 조사 실시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지원사업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교육청 장학사의 협조를 통해 희망유아교육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의 명단을 받음
보건복지 가족부 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1) 보건복지가족부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에 명단 협조 요청을 위한 협의회 개최 및 공문발송 2) 보건복지가족부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의 협조를 얻어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에서 해당 지역의 드림스타트센터에 명단 및 시범사업 협조 요청 공문 발송 3) 해당지역 드림스타트센터 중에서 본 연구의 참여를 원하는 센터들에서 사업대상 영유아명단과 부모 연락처,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보내줌 4) 전문조사기관에 대상 명단을 제공 5) 조사원들이 각 대상가정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조사에 응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구방문 조사 실시
일반저소득	비용지원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접지역 동에 대한 정보 제공 2) 전문조사기관에서 가구 방문 조사

○ 주요 조사 항목: <표 1-3-3> 항목 참조

〈표 1-3-3〉 저소득층 가정 부모용 질문지 문항

영역	항목
가구특성	- 가구원특성(가구구성원, 대상아동과 관계, 성별, 연령, 교육정도, 장애 및 질병여부, 혼인상태, 음주 및 흡연 정도 등) - 가구의 경제적 특성(주택 소유 유무 및 형태, 월평균 근로소득 및 지출액, 부담 되는 지출 항목, 경제적 수준 등)

(표 계속)

영역	항목
주양육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동거여부, 취업여부, 주양육자의 종사상 지위, 근무형태 - 취업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운 점 - 아동 지도 및 관리 정도, 낮 시간동안 활동, 대상아동 양육의 어려운 점 - 주양육자 정신건강,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 영유아 양육 현황 - 영유아와의 활동 - 영유아에 대한 기대 및 신념
아동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영양, 식생활, 안전 - K-CBCL(영유아용 문제행동증후군 검사지 1.5~5세) - 하루일과
육아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여부, 이용기관 종류, 선택 시 고려사항, 이용시간, 교육·보육 지원현황 - 기관 만족도, - 기관 비용 및 부담정도 - 기관 미이용 이유 - 개인 교육 종류 및 비용
육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 현황, 아동 연령대별 양육지원 요구도 - 영유아 양육의 어려움 - 육아지원 서비스 수혜여부 및 종류 - 아동지원사업 만족도, 미이용 이유 -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만족도, 필요도

나) 영유아 프로그램 전문인력 조사

- 조사 시기: 2009년 6월~8월
- 조사대상 및 방법: <표 I-3-4> 내용 참조

〈표 I-3-4〉 영유아 프로그램 전문인력 조사대상 및 방법

구분	대상자	대상 수	조사방법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지원사업	유아교육복지전문가	4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우편 및 면담조사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	희망유아교육사	5	"
드림스타트 사업	보육조정자 또는 보육교사	4	"

주: 조사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 한정함.

- 주요 조사 항목: <표 1-3-5> 항목 참조

<표 1-3-5> 영유아 프로그램 전문인력 조사 항목

영역	항목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 학력, 전공 - 근무지역 - 소지자격, 사업종사경력연수, 근무시간 - 담당 아동 수, 연령 - 교육장소, 지도집단 구성방법, 가정방문여부 및 총 가정수 - 주당지도횟수, 주당 아동지도 소요시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매뉴얼 사용 여부 - 프로그램 매뉴얼 필요도, 요구도 - 프로그램 실시 상 어려운 점 - 부모 지원 여부 및 내용
사업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내용 - 업무만족도 - 사업수행의 어려운 점, 문제점 - 사업요구도
연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된 연수경험 여부 - 연수교육만족도 - 연수교육내용 요구도

2) 북한이탈주민 가정 조사

가)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 및 영유아 조사

- 조사 시기: 2009년 7월~8월
- 조사대상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및 영유아기를 남한에서 보낸 아동의 부모 또는 실제 주양육자 1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방법
 - 일선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상담·관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협조 하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동의를 얻어 부모명단을 확보한 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가구방문 조사를 실시함.

○ 표집 방법

- 현재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서울 노원구의 K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의 H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의 G종합사회복지관과 B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 부평구의 S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곳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함.

〈표 1-3-6〉 북한이탈주민 가정 표집

지역		종합사회복지관(협조가구수)	표집방법
서울	노원구	K종합사회복지관(27가구)	- 해당 구(區)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동(洞)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가구명단을 확보함. - 또한, 사회복지사가 설문지 협조요청을 구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설문대상 가구가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직접 소개해서 대상아동을 확보함.
	양천구	H종합사회복지관(41가구)	
	강서구	B종합사회복지관(30가구) G종합사회복지관(14가구)	
인천	부평구	S종합사회복지관(14가구)	

○ 조사지역

- 조사지역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및 인천 부평구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함.

○ 주요 조사 내용 및 항목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육아현황
-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의 특성 및 요구
-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회복지사의 아동지도 실태 및 요구
- 조사항목은 <표 1-3-7>, <표 1-3-8>, <표 1-3-9> 참조

〈표 1-3-7〉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에 관한 질문지 문항

영역		문항 내용
아동 특성	입국 전/하나원에서의 기관경험	- 출생년도, 성별, 출생국가, 출산장소 - 남한입국시기, 입국 시 부모동반여부 - 북한에서 탁아소 또는 유치원 경험여부 - 제3국에서 탁아소 또는 유치원 경험여부 - 하나원에서 생활 시 유아방(0~만2세 대상) 또는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만3~5세 대상) 경험여부 및 만족도

(표 계속)

영역		문항 내용
육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 주양육자, 육아정보처, 육아에 있어 실제 도움을 주는 사람 - 아동의 하루 일과 - 어머니 취업여부, 미취업의 이유, 취업모의 육아의 애로점 - 아동의 생활지도, 건강·안전, 발달정도 등
육아지원 기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기관 종류, 이용이유, 이용방식(반일제, 연장제, 종일제), 정부 지원 육아지원비용 종류, 비용부담 정도, 만족도, 하원 후 아동의 주요 활동 - 사교육 이용정도
	미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이용 이유, 낮 시간 아동이 지내는 장소 및 주요 활동 - 사교육 이용정도
아동에 대한 기대 및 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및 미래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자신감 및 행복감 - 미래 영유아의 교육기대수준 - 영유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표 1-3-8〉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 및 가정에 관한 질문지 문항

영역		문항 내용
육아지원	남북한 양육방식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 - 부모 자신의 양육방식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경험 여부,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도움 정도 - 현재 가족의 가장 힘든 점, 영유아 양육의 어려운 점 - 현재 지역사회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양육지원 서비스 종류 및 만족도 - 향후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시 지원기간·시간·방식 프로그램
부모 및 가구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아동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생년월일 - 탈북 및 입국시기, 체류했던 제3국 및 체류기간 - 최종학력(북한, 남한), - 직업(북한, 남한)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직업의 근무시간형태, 월평균소득 - 장애·질병 유무 - 주택소유형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현재 결혼상태, 동거 가족 수
부모가 경험한 북한의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서 출산장소, 주양육자, 탁아소 및 유치원 경험여부, 탁아소 및 유치원 이용 시기

나)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 전문인력 조사

- 조사 시기: 2009년 4월~6월
- 조사 방법: 심층면접조사
- 주요 조사 항목: <표 1-3-9>참조

〈표 1-3-9〉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 전문인력 조사 항목

영역	항목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 학력, 전공 - 근무지역 - 사업종사 경력년수, 근무시간
프로그램	- 영유아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여부 및 내용 -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 매뉴얼 필요도, 요구도 - 프로그램 실시 상 어려운 점
사업수행	- 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 지역사회 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수행 내용 - 업무만족도 - 사업수행에서 어려운 점, 문제점 -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서의 요구사항
협조사항	- 탈북 및 북한 가정 및 영유아 관련자료 수입처(원) - 영유아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의 규모와 파악가능 여부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취약계층 가정의 가구특성 및 주양육자 특성, 아동특성, 육아지원의 요구도 및 필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가족유형별, 소득계층, 연령, 입국 시기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예측되는 변인들 간의 이론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였다.

다. 원외 위탁연구 용역

- 용역과제명: 취약계층 가정(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용역기간: 2009년 3월~8월
- 용역기관 및 책임자: 이화여자대학교 김희진 교수
- 주요 내용
 - 부모의 영유아 양육 요소 및 지표 개발(가정 양육환경 및 부모의 영유아 양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 포함)
 - 취약계층 가정 부모의 영유아지도 프로그램(가정방문 개별지도용)
 - 취약계층 가정 부모의 영유아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기관 소집단용)
- 과업지시 특이사항
 - 프로그램은 1세션 10차 시분으로 총 2세션용으로 개발(주 1회 적용, 20주차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실제 취약계층 가정(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실제 적용 및 검증 필수 포함.

라. 원외 프로그램 원고 의뢰

- 원고 의뢰 프로그램
 - 영아용,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 동화책을 이용한 개념학습 활동
- 원고 의뢰 기간: 2009년 9월
- 주요 내용
 - 취약계층 가정(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연령별(영아용, 유아용) 발달 지도 프로그램
 - 만5세의 학습준비도 향상을 위한 동화책을 이용한 개념학습 활동
- 원고의뢰 특이사항
 - 프로그램은 1세션 10차 시분으로 총 2세션용으로 개발
 -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영유아 발달 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가정의 환경 및 영유아 특성에 알맞게 개별지도용으로 재구성하는 작업 포함

마. 가정유형별 육아지원 모형 특성화 및 시범적용

1) 가정유형별 육아지원 모형 특성화

- 저소득층 가정 육아지원 모형
 - 전달체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 프로그램: 저소득층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 전문인력: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유아교육복지전문가,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희망유아교육사, 드림스타트 사업의 보육교사임.
- 북한이탈주민 가정 육아지원 모형
 - 전달체계: 통일부의 하나센터 사업
 - 프로그램: 저소득층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용)
 - 전문인력: 하나센터의 사회복지사,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희망유아교육사 연계 지원

2) 프로그램 시범적용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대상,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 가정을 지역별로 2~4가정씩 선정함.
- 통일부의 하나센터사업 대상 5가정(서울, 대구 지역), 인천 지역 북한이탈주민 1가정을 선정함.
- 대상가정 선정: <표 I-3-10>참조
- 시범적용 절차
 - 시범적용 지역과 대상가정을 선정
 - 시범적용을 실시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연수 실시

- 영유아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용(2009년 9월~11월)
- 총평회 개최
- * 1주에 1회 방문 실시하여 8회기 프로그램 실시

〈표 1-3-10〉 대상가정 선정

부처(관련사업)		서울	인천	경기/대구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3가정	2가정	-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	2가정	2가정	2가정
보건복지 가족부	드림스타트 사업	3가정	3가정	2가정
통일부	하나센터 사업	3가정	1가정	2가정
소계		11가정	8가정	6가정
합계		25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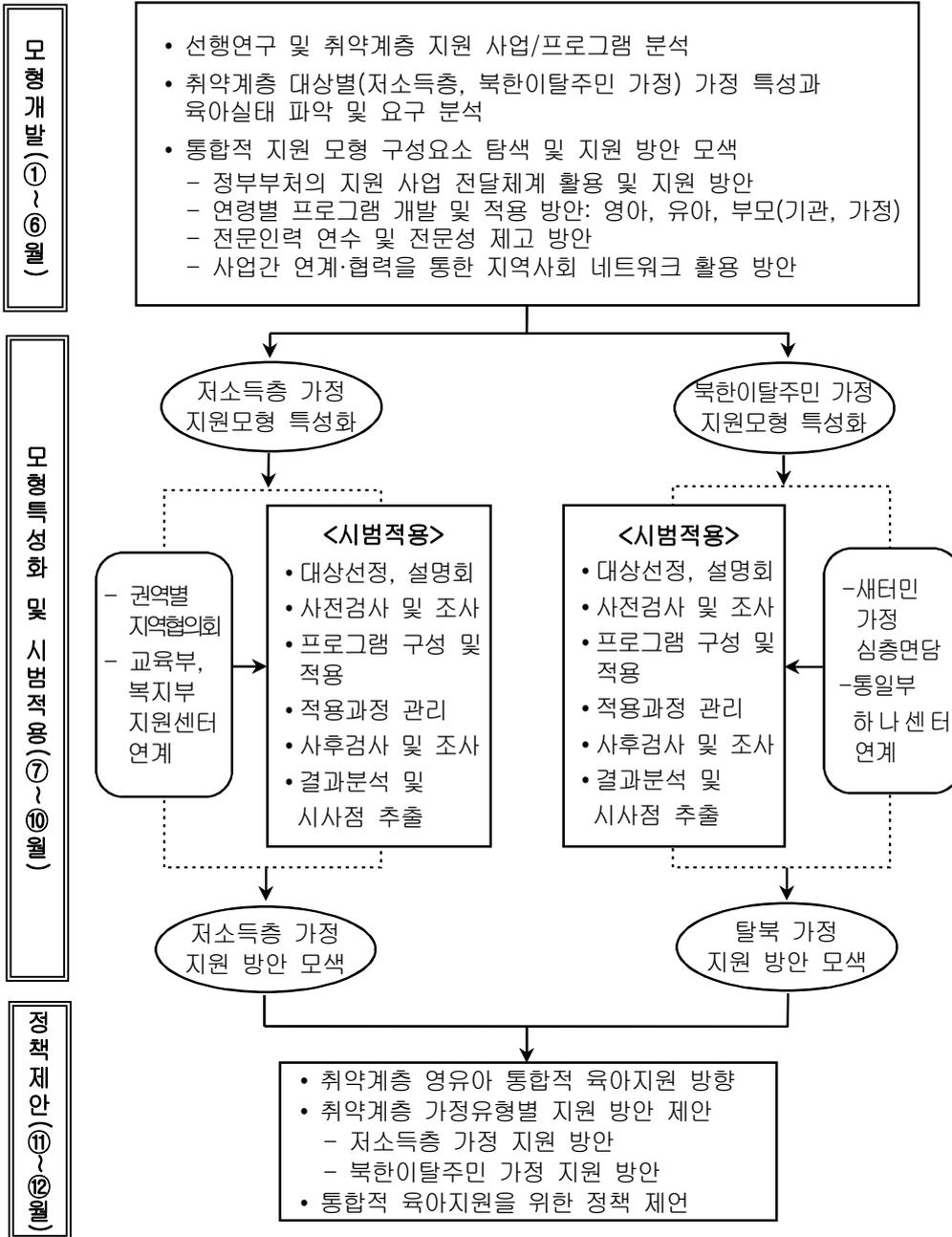
주: 1) 하나센터 사업은 경기 지역 대신 대구 지역 선정함.
 2) 형제가 포함된 가정이 있어 총 25가정에 영유아는 28명임.

바. 포커스그룹 면담 실시

- 일시: 2009년 9월
- 대상: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 10명
- 목적: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구체적인 특성 파악, 동질적 집단 간의 그룹 면담을 통한 보다 심도 있는 이유, 문제점 및 요구 파악

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사업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함.
 -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 실태조사 및 부모 요구 분석 질문지 검토 자문회의
 -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지원 모형 검토



[그림 1-3-1]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체계

4. 연구의 범위 및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가.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이란?

- ▶ 기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 내에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 첫째,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 둘째, 영유아에게는 바람직한 교육적 발달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셋째, 부모에게는 부모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 영유아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넷째, 교사 및 전문인력에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료와 연수를 제공하고,
 - 다섯째, 지역 내 영유아 대상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 통합적인 육아지원 모형임.

나.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정부부처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그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음.

〈표 1-3-11〉 정부부처 취약계층 지원 사업별 전달체계 및 전문인력

정부부처명 (담당과)	사업명	전달체계	전문인력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센터	보육교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교육청 및 학교	유아교육 복지전문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	교육청 및 지역단설공립유치원	희망유아 교육사
통 일 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정착지원사업	하나센터 (복지관에 위탁)	사회복지사

다.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3년차로 추진될 예정이며,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도별/과제명	주요 연구 내용
<p><2009년: 1차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분석 -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 조사 및 요구 분석 - 영유아용·부모용 프로그램 개발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 사업 및 전달체계 활용, 프로그램 적용, 전문인력 연수 및 자료 제공, 사업간 연계·협력 방안
<p><2010년: 2차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및 모형 수정·보완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확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대상 가정·영유아 수, 가족유형 확대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일반화 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 사업외의 사업에 적용 방안, 프로그램 활용 활성화 지원 방안, 전문인력 연수 및 자료 지원 방안, 사업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자원 활용 방안
<p><2011년: 3차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및 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최종 검토 및 확정 - 매뉴얼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개요, 단계별 모형 적용 절차 및 방법,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보·자료 풀(pool) 포함, 특성별 구체적 사례 예시 포함 - 관련 기관 및 관계자, 전문인력 연수

[그림 1-4-1]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

II.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의 이론적 기초

제2장에서는 저소득층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 및 영유아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통합적 육아지원의 필요성을 영유아 지원, 부모 지원, 가족 지원, 지역사회 연계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1.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 및 영유아의 특성

가. 저소득층 가정 지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영유아의 교육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표 II-1-1〉 영유아 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2007~2009)

단위: 백만원(천명)

부처	구분	2007	2008	2009
교육 과학 기술부	유아교육비지원	국비 207,800 지방비 207,800	국비 26 지방비 400,000	국비 26 지방비 535,000
	3~4세아 차등교육비	128,200(168)	139,457(130)	176,660(125)
	무상교육비	75,100(152)	205,288(133)	269,462(140)
	두 자녀 이상 교육비	4,500(10)	11,483(17)	10,468(10)
	중일반비	-	-	78,413(133)
보건 복지 가족부	보육료지원	593,605	807,851	1,282,168
	차등보육료	409,004(564)	603,132(621)	1,013,586(739)
	5세아 무상보육료	130,307(152)	125,512(130)	135,600(136)
	장애아 무상보육료	32,403(17)	31,281(15)	49,040(16)
	두자녀이상 보육료	21,891(40)	47,926(70)	83,942(100)
농림 수산 식품부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101,488	82,216	81,296
	시설이용아동	국비 26,783 지방비 26,783	41,108	국비 27,797 지방비 27,797
		국비 23,961 지방비 23,961		국비 12,851 지방비 12,851

- 주: 1) 2009년 차등보육료에 기본보조금 229,800백만원 포함
 2) 2007년 유아교육비 항목별 지원액은 국고와 지방비의 각 금액임.
 3) 농림수산식품부는 '06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며, '08년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시설이용)과 통합하여 시설미이용으로 구분 운영
- 자료: 1) 교육인적자원부(각년도), 유아학비(교육비) 지원계획.
 2) 여성가족부(2007, 2008).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9년 예산 관련 내부자료.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은 총 5,350억원이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1조 2,822억원이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영유아양육비 지원 예산은 813억원이다.

<표 II-1-2>와 <표 II-1-3>는 연도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단가와 농어업인 자녀 교육비·보육료 지원단가를 제시한 것이다.

<표 II-1-2> 연도별 교육비·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구분	2007			2008			2009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3~4세아 차등교육비	3세	53,000	180,000	3세	55,000	185,000	3세	57,000	191,000
	4세		162,000	4세		167,000	4세		172,000
5세아 무상교육비	5세	53,000	162,000	5세	55,000	167,000	5세	57,000	172,000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두 자녀 이상 교육비	3세	53,000	90,000	3세	55,000	93,000	3세	57,000	95,500
	4세		81,000	4세		84,000	4세		86,000
종일반비		-			-			국공립	사립
							3,4세 이내	30,000 이내	50,000 이내
차등보육료	0세	361,000	0세	372,000	0세	383,000	지원시설	미지원시설	
	1세	317,000	1세	327,000	1세	337,000			
	2세	262,000	2세	270,000	2세	278,000			
	3세	180,000	3세	185,000	3세	191,000			
	4세	162,000	4세	167,000	4세	172,000			
5세아 무상보육료	162,000		167,000		173,000				
장애아 무상보육료	교사 대 아동비율		전담, 통합 교사 별도 배치, 교사 대 아동비율		지원 시설	미지원시설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361,000	해당반별 보육료 (2세: 지원단가, 3세 이상: 시도지사 고지액)	372,000	해당반별 보육료 상한액	386,000	739,000			

(표 계속)

구분	2007		2008		2009	
두 자녀 이상 보육료	0세	181,000	0세	186,000	0세	193,000
	1세	159,000	1세	164,000	1세	169,500
	2세	131,000	2세	135,000	2세	139,000
	3세	90,000	3세	93,000	3세	95,500
	4세	81,000	4세	84,000	4세	86,000

- 주: 1) 차등교육비·보육료, 두 자녀 교육비·보육료는 상한액임.
 2) 유치원 중일반비는 지원금액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가 지원됨.
 자료: 1) 교육인적자원부(각년도), 유아학비(교육비) 지원계획.
 2) 여성가족부(2007, 2008).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9년 예산 관련 내부자료.

〈표 II-1-3〉 농어업인 자녀 교육비·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구분	2007		2008		2009	
시설이용아동	0세	253,000	0세	260,000	0세	268,000
	1세	222,000	1세	229,000	1세	236,000
	2세	183,000	2세	189,000	2세	195,000
	3세	126,000	3세	130,000	3세	134,000
	4세	113,000	4세	117,000	4세	120,000
	5세	162,000	5세	167,000	5세	172,000
	6세				6세	172,000
시설미이용아동	0세	126,000	0세	130,000	0세	134,000
	1세	111,000	1세	115,000	1세	118,000
	2세	92,000	2세	95,000	2세	97,000
	3세	63,000	3세	65,000	3세	67,000
	4세	57,000	4세	59,000	4세	60,000
	5세	81,000	5세	84,000	5세	86,000

- 주: 1) 2009년 월지급한도액은 2009.3.1~2010.2.28 적용하여 집행
 2) 2009년 시행지침은 동일연령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매년 3월 1일에
 서 익년 2월 28일까지로 동일연령으로 하던 것을 초·중등교육법 개정(08.5.27)에 따라 변경

나. 저소득층 가정의 특성

저소득층 가정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와 영유아 특성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1) 부모 특성

가) 취업 및 소득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 무직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지닌다(이소희·유미숙, 2000).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노동, 행상, 노점, 영세자영업 등 소득이 낮고 비영속적이어서 생계 안정이 어렵다. 또한 대부분 일일고용직 또는 임시고용직이며 계절적 변동에 민감하고 기후에 따라 작업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이나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생계가 불안정 상태에 있게 된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전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척도가 된다. 또한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은 다른 여러 부정적인 경험의 요인이 되며(곽은정, 2003), 빈곤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압박은 가족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혜진, 2004).

나) 주거환경

저소득층 가정은 좁은 공간에 온 식구가 모여 사는 경우가 많고, 화장실조차 없는 열악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주변 환경은 복잡하고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위해한 특성이 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소외된 지역이어서 문화 실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나정·문무경·심은희, 2004).

다) 가족관계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는 높은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결혼만족도가 낮아 결혼 생활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나정 외, 2004).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가구주는 불안정한 취업 속에서 생계유지라는 부담은 경제적 무능력자로 낙인, 경제적 압박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잊을 수 있는 도피처를 찾거나 가족에 대한 폭력으로 누르려는 행위를 보인다(노인철, 1995).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충격을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경험,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에 가장 취약, 결과적으로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의 가족 해체 가능성을 높인다(김인숙, 1999).

라)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층 어머니

의 양육행동은 중류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합리적 지도, 애정, 적극적인 참여 요인 등에서 더 낮은 특성을 보이며(김혜영, 1994), 중류계층 부모가 논리적인 표현과 격려를 주로 하여 성취감, 자율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저소득층은 야단을 많이 치는 것으로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주경민, 2000). 이처럼 저소득층 부모가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정서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유아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영유아에게 수용적이거나 친밀감을 나타내지 못하며, 영유아의 행동이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이거나 민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 Crnic과 Greenberg(1987)의 연구에서도 빈곤으로 인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 상태에 놓인 어머니는 영유아를 안아주거나 칭찬해주고 지지적인 표현을 해주는 일이 드물었고, 대신 영유아를 위협하고 무시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명순(2001)은 저소득층 부모는 영유아의 행동이나 정서적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 영유아 양육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는 일반 부모들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영유아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교육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영유아들이 배우는 지식을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변화순, 2001), 교육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또한 어렵고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생긴다(류안진, 1992).

한편, 저소득 가정은 생계유지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소득층 아동은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기 쉬워, 영유아 방임과 유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 부모와 일반계층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정미라·곽은순·윤장숙, 2007)에 의하면, 저소득 부모들은 영아기 영유아를 1주일 이상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일반계층 부모에 비해 잦을 뿐 아니라 영유아 유기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일 때 아동이 방임을 경험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이은주, 2007)도 있다.

2) 영유아 특성

가) 영양 및 건강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는 결식과 영양섭취 불균형으로 인해 키가 작고 몸무게도

평균 체중보다 적으며, 영양 실조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 질병에 걸리기 쉽다 (<http://westart.joins.com>). 또한 면역집중을 못 받거나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도 발생한다(나정 외, 2004).

나) 문제행동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는 일차적인 욕구의 충족마저도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유아의 발전성과 지속성이 저하되고 정서적 안정과 창조성 등에 제한을 받는다(민경화, 2000). 또한 높은 수준의 품행장애, 우울증, 사회적응력 결핍을 보이며(허인영, 1999), 우울증, 또래 관계의 어려움,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수준의 전반적인 사회부적응과 심리적 장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민경화, 2000).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여 학업성취 및 행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허인영, 1999, 재인용). 또한 부모의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로부터 오는 부모의 무능력과 무기력은 부모의 가치관과 양육방법에 영향을 주어 영유아의 지적, 정서적 발달 또는 성격형성과 자아개념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정원식, 1991), 거칠고, 자극적인 행동을 유인한다(김현지, 1998, 재인용).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김효정, 1991)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지지해준다.

다) 자아존중감

빈곤한 아동일수록 아동의 자존감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이지혜, 2003).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매개하기 때문(정문자·어주경, 1999)이라는 분석도 있고, 저소득층의 부모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지원적이고 민감한 개입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어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지혜, 2003)이라는 분석도 있다.

라) 지능 및 학습능력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는 부모의 취업으로 인해 영유아와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아 아이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도록 자극해 주는 기회가 부족하며, 장난감이나 게임, 읽을거리를 통한 자극, 언어자극, 자부심·애정·온정·셈하기·어휘 등의 학구적 행동의 자극 모델링과 음악·예술자료·외출 등을 통한 자극의 다양성이 부족(이재연, 1993)하여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기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은 인지발달이 느리고, 학교생활 적응능력이 저하된 특성을 보이며(이선영, 2000), 중류층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지적, 언어적 능력을 나타낸다(민경화, 2000).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방치되기 쉬워(이소희·유미숙, 2000), 생활환경,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각종 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문화 실조 또는 학습부진을 경험하기도 한다(조홍식, 1996).

마) 언어능력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없거나 피곤하여 생활에 여유가 없으므로 영유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정으로부터 바람직한 언어 모델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가정의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언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유희정, 1997, 재인용), 언어 속도가 느리고, 더 오랫동안 미숙한 발음을 하며, 어휘도 적고, 문장 길이도 더 짧은 경향이 있다(Cazen, 1968). 또한 일상 언어 중 아무에게나 반말을 하고 욕을 많이 사용하며(김향숙, 2001), 모방적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김명순, 2001, 재인용).

유아기 언어능력은 언어의 표현 및 이해에 필수적이며, 유아기의 이야기 이해력은 초등학교 입학 후의 언어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다. 유아기에 저조한 언어능력을 보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는 중상류 가정 유아와의 격차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커져서 아동기의 학업성취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이경렬, 2005, 재인용).

바) 생활 습관

저소득층 가정 유아는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받지 못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 가정환경에서 방치되거나 애정이 없는 누군가에 의해 보살핌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은 유아로 하여금 갖추어야 할 몸과 생활 주변을 깨끗이 하기, 올바른 식습관과 태도 기르기, 잠자기나 휴식 습관 익히기, 이 닦기, 아플 때 대처하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교통 규칙 및 보행 규칙 익히기 등의 바람직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익히기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한다(김향숙, 2001).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는 물리적 환경, 언어, 예의범절, 의상, 오락, 교재, 감정표현 등 일상생활에서 중류층 가정 유아와 차이를 보인다(유희정, 1997).

3) 요약

선행연구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 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는 불안정한 취업, 열악한 주거환경, 가족관계, 양육태도 및 행동 등에서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가정환경과 부모 요인은 영유아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의 경우, 건강 상태가 불량해지기 쉽고,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며,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 가정 영유아에 비해 지적능력과 언어능력 발달 수준이 다소 낮았으며, 이러한 발달결과는 이후의 학업성취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또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여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에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특성을 보인다.

2. 북한이탈주민³⁾의 일반 현황 및 가정 특성

가. 북한이탈주민의 일반 현황

1) 성별

남한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구학적 현황에서 현재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1998년도까지는 남성 입국자가 훨씬 더 많았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여성이 남자의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2005년도에는 여성 입국자 수가 남자보다 2배 이상, 2006년에는 3배 이상, 2007년에 이후에는 약 4배 이상을 초과하는 등 여성 입국자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II-2-1〉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입국 변화

단위: 명

구분	1989	1993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남	564	32	235	564	513	468	625	422	509	570	612	5,114
여	43	2	71	479	625	813	1,269	961	1,509	1,974	2,197	9,943
합계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15,057

자료: 통일부(2008)

3) '북한이탈주민'은 관련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 정의된 용어로서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 제2조 1항).

2)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52.8%로 입국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20대로 대부분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평균연령은 36.7세이고, 84.8%가 기혼이다(최대현·이인수·김현아, 2007).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30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20대로서 젊은 청·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2〉 연령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추이변화

단위: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3
10세 미만	46	69	40	84	25
10~19세	161	247	184	259	69
20~29세	345	493	374	527	137
30~39세	447	644	475	688	225
40~49세	160	260	187	258	89
50~59세	57	85	53	73	17
60세 이상	65	96	70	130	32

자료: 통일부(2008).

3) 북한에서의 학력

2008년 3월 통계치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수준⁴⁾의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약 70%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비율 면에서는 훨씬 적지만 대학 교육 이상이 7.7%, 전문대 이상이 7.3%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취학전 아동과 유치원 아동은 합해서 보더라도 총 입국자의 약 1%밖에 되지 않는다.

〈표 II-2-3〉 재북 학력별 입국 현황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기타	합계
누계(명)	50	94	789	9,021	950	1,010	1,165	13,079
비율(%)	0.4	0.7	6.0	69.0	7.3	7.7	8.9	100.0

자료: 통일부(2008. 3. 기준)

4) 북한의 고등중학교란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총 6년의 교육과정단계이다.

<북한>		<남한>		
대학교 (전문대학)	4학년	대학교 (전문대학)	4학년	
	3학년		3학년	
	2학년		2학년	
	1학년		1학년	
중학교 (고등중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	
	5학년		2학년	
	4학년		1학년	
	소학교 (인민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2학년		2학년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5학년		
3학년	4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유치원)	1학년	
1~2년	1~2년			

[그림 II-2-2] 남북한 학제 비교

4) 남한에서의 학력

남한에 입국한 이후의 학력을 살펴보면,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는 무학이 73.3%로 가장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이야기하는 학력은 북한에서의 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재북 학력에 관해 논의했던 내용과 연결을 지어 보면, 북한 이탈주민의 대다수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현저하게 수치의 차이는 나지만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8.0%로 뒤를 잇고 있다.

〈표 II-2-4〉 입국 후 학력 현황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합계
누계(명)	984	25	68	33	24	52	107	43	1,336
비율(%)	73.3	1.9	5.1	2.5	1.8	3.9	8.0	3.2	100.0

자료: 북한인권정보센터(2005). **새터민정착실태연구**.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이탈주민 중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분포를 보면, <표 II-2-5>와 같다. 우리나라 중고등생에 해당되는 14~20세가 가장 많으며 대학생에 해당되는 21~24세가 그 뒤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영유아 순이다.

<표 II-2-5> 북한이탈주민 학령기별 현황

단위: 명

성별 \ 연령	0세~6세	7~13세	14~20세	21~24세	계
남	36	145	314	307	802
여	46	135	321	311	813
계	82	280	635	618	1,615

자료: 통일부(2006년 기준)

5) 입국 후 경제수준

200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월수입은 50만원 미만이 45.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으로, 이 역시 40.0%로 나타났다. 즉, 100만원 미만의 월수입으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국 후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저소득층으로 편입되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표 II-2-6> 입국 후 경제수준

단위: 명

	소득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합계
누계(명)	92	428	454	147	14	1,135
비율(%)	8.1	45.8	40.0	13.0	1.2	100.0

자료: 북한인권정보센터(2005). **새터민 정착실태연구**.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6) 정착지 분포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이 36%로 가장 많으며 경기 23%, 인천 9%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68%가 세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지역 중에서도 노원

구, 강서구, 양천구 지역에 주로 많이 살고 있다.

〈표 II-2-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 분포

단위: 명(%)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부산	강원
인원	4,256 (36%)	2,782 (23%)	1,094 (9%)	359	260	369	152	583	238
지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인원	318	350	314	333	182	213	66	11,869명	

자료: 통일부, 2008년 1월 기준(위 통계는 사망·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제외)

나.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성

1) 가족 특성

가) 복잡한 가족관계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가족관계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체류기간 동안 동거를 하거나 남한 입국 후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추후로 데려오는 경우, 한국에서 새로 가정을 꾸렸다가 나중에 남아있는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 등으로 인해 복잡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탈북이후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족갈등, 가족해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장혜경, 2008).

나) 가부장적 부모-영유아관계

가족 규범적 특성으로서 부부관계 및 부모-영유아관계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가부장적이며, 수직적인 가족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남편(아버지)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때로는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부모의 권위 상실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최명선·최태산·강지희, 2006).

다)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남한 교육기관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의 문제로 인해 영유아와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홍주은, 2003). 또한 부모와 영유아 간의 남한 사회 적응 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안연진, 2002).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의 적응은 '과동화'(over-acculturation)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보는데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남한의 말씨와 헤어스타일, 옷 입기 등을 쉽게 따라하고 남한 청소년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빠르게 흡수하는 아동들에 비해서 부모세대는 오히려 수동적이고 표면적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라) 경제적 어려움

남한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적고 불안한 가족수입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용 위기를 낳는 주된 이유이다.

마) 비숙련화

북한에서의 학력이나 배운 지식 등이 남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적 열등감 및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언어적 혼란과 문화적 괴리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김영미, 2002). 일상의 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조차 새로 익혀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바) 사회적 지지의 부재

대인관계 및 사회적 지지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남한 사회에서 새로이 인간관계를 쌓아야 하는 부담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사회·정서적 지지의 부재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김영미, 2002; 전익수, 2001).

사) 심리적 어려움

가족을 남겨놓고 탈북을 한 경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조사 결과,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딸 1명(1.10), 아들 1명(1.16)이고, 자녀의 평균연령은 10.8~11.5세로 밝혀졌다. 자녀와의 동반입국은 31.2%(39명), 자녀가 먼저 입국한 경우는 13.6%(17명), 중국이나 북한에 자녀가 분리되어져 있는 경우는 55.2%(69명)로,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중국이나 북한에 있어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최대현 외, 2007). 이 경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아) 교육에 대한 부담

북한 부모들도 자녀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탈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조천현, 2002). 그러다보니 자신의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의욕은 현실에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이어져 양육스트레스가 높다(최대현 외, 2007). 남한 사회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경험의 부재로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가지며,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양육경험이 많지 않아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2) 아동의 특성

가) 신체적 측면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기아와 신체 상해, 발육과 성장상태, 영양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아동이 많다(김영미, 2002). 발육이 또래 남한 아동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눈에 잘 띄기도 하며, 이러한 신체 조건들로 인하여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한다. 또한 탈북 이후, 남한에 입국하고 나서도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여전히 경제사정으로 인한 것이다(김영수, 2000).

나) 심리 정서적 측면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극단적 경험으로 인하여 긴장을 유발하는 기제가 발달하게 되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조숙한 경우가 많다(김영미, 2002). 또한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외감과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외로움·불안감이 크며(김영미, 2002; 정병호, 2001; 조소연, 2001), 심하면 우울증, 대인기피 등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PTSD)나 정체감의 혼란 등이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전익수, 2001).

다) 인지적 측면

학습 결손으로 인한 자신감 결여 및 좌절감이 크다. 특히, 언어 습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2~3세에 탈북을 한 경우에는 언어발달이 늦고, 4세가 되도록 언어를 익히지 못하는 등 언어발달의 유예기를 겪기도 한다(이부미, 2003).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과 학업에서 일부과목을 제외하고는 학습 진도를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습과 관련해서 부모들의 교육방식에서 발생하는

부모들의 당혹감이나 상대적 빈곤감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박모란, 2002).

라) 사회적 측면

상반되는 사회체제를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혼란, 언어적 혼란과 문화적 괴리감 등을 경험하면서,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또래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최명선, 2006).

다. 요약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성별, 연령, 재북 학력 및 남한에서의 학력, 경제 수준 등으로 살펴보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매년 1000명 이상이 2006년 이후에는 20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여 2008년 현재 13,515명에 이르고 있다. 이전과의 차이를 보면,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입국자가 남성 입국자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 이는 이동이 눈에 잘 띄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탈북이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이 입국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20대로서 젊은 청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탈북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거나 가정을 꾸린 직후에 남한에 입국하게 되거나 남한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정을 꾸릴 확률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임기 여성이 입국자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들이 남한 정착 후 출산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이것은 결국 육아지원정책에 있어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재북 학력은 고등학교이지만 우리나라의 학제와 비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며 정착이후 학업을 하지 않는 무학이 대다수라는 사실에서, 고학력 국가인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은 낮은 축에 속한다. 고학력 전문직이라고 해도 북한에서의 경력이 남한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경제수준도 매우 낮아서 월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대략 46%를 차지하는 등 저소득층에 편입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탈북과정이나 탈북 이후 정착과정에서 육아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 개념이 혼란과 양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출산 이후 육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가정에

대한 연구와 포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통합적 육아지원의 필요성

가. 영유아 지원의 필요성

영유아기는 또래나 어른들과 관계 형성을 하면서 사회성을 배우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율성이나 문제해결, 사건에 의미부여 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습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성격이 다져지는 시기이다. 또한 주관적인 판단능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를 비롯한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대로 학습하게 된다(Brooks-Gunn, 2003). 이러한 시기에 빈곤이라는 환경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인격형성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교육에 대한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6, 재인용). 즉 언어적 자극이나 일상생활에서 습득하는 사회규범, 문화활동 등을 접할 기회가 많은 중산층 아동이 저소득층 아동보다 교육 성취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해내는 성공경험이 부족하거나 영유아기에 기본적으로 학습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모델링 기회 또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부모가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영유아기에 학습이 가능한 적절한 환경과 기본적인 성격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Cunha(2005) 등은 영유아기가 인적 자본 투자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하였다. 인적 자본 형성을 평생동안 지속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면서, 인생의 한 단계에서의 배움이 다음 단계에서 배움을 낳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유아기는 필연적으로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하는 시기이며, 이는 영유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OECD, 2006, 재인용).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에 개입한 프로그램에 대한 종단적인 효과를 검증한 대표적인 미국의 주요 종단연구로, 페리 유아원 연구(Perry Preschool Project(PPP), 아베세드리안 프로젝트(Abecedarian Project; ABC), 시카고 종단연구(Chicago Longitudinal Study, CLS)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조기 개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를 위한 조기 프로그램을 시행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을 두어 비교적 잘 설계되어진 연구들로 그 효과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였다. 종단적인

효과를 비용편익으로 분석한 결과 PPP의 경우는 17.1:1로서 조기의 1달러 투자가 이후의 17.1달러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토대가 되는 역할을 하였으며(Schweinhart et al., 2005), 영유아기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근의 연구는 인적자본은 단순히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행동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봉주, 2009, 재인용). 이러한 사실은 인적자본 개발의 전략에서도 인지적 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교육뿐 아니라 영유아의 행동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통합적인 인적 자본 서비스 전략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동기나 청소년기 보다 더 어린 영유아기에 개입할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지고, 영유아기 교육의 효과는 초등학교까지 지속되며 그 효과가 비록 크지 않더라도 늦은 시기에 개입한 효과보다는 더욱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Brooks-Gunn, 2003). 따라서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영유아의 교육 뿐 아니라 영유아의 심리적 문제나 가족문제, 부모교육 등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아주 어린시기부터 개입해야 한다. 취약계층과 같은 고위험집단에게는 그 가족이 직면하는 다수의 위험요인에 접근하는 다양한 개입으로 보충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정익중, 2009, 재인용). 취약가족 내에서 부모와 영유아 자녀를 분리할 수 없으나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부모와 영유아를 동시에 접근하기보다는 영유아중심 프로그램이거나 성인중심 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부모와 영유아세대를 동시에 개입하는 두 세대에 대한 동시적 접근은 부모의 경제적 자활능력은 물론 양육 능력과 가족자원의 증대를 가져와 영유아중심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효과를 계속 지속시켜 영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정익중, 2009).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적 육아지원은 영유아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과 기능뿐 아니라 부모와 가정, 교사, 지역사회의 연계를 포괄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이다. 즉, 부모가 갖고 있는 취업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보육의 욕구를 갖고 있는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경우에는 부모의 취업을 통해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영유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보호할 뿐 아니라 지지적인 역할을 통해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인 것이다(유선옥, 2002).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

동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시작하였는데,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등이 그것이다. 드림스타트에서는 아동,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의 생태학적 접근방식을 적용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가족의 복지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위스타트는 건강, 복지, 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공공보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며, 아동의 발달과 교육을 위해 부모 프로그램 외에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육육구 수렴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2008).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취약계층 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공립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종합복지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종합복지서비스 내용으로는 유아에게 기초능력보장, 정보화능력 강화, 건강 및 영양 서비스, 안전서비스, 특별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며, 부모에게는 육아 노하우 및 부모의 자신감 회복 지원, 직업훈련 및 가정 지원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가정 지원 서비스,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 속한 원장(감)이 전문인력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계의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서비스란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일반적 건강과 복리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발달의 측면과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합적 서비스 기관은 지역사회의 다른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며, 부모에게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통합적 서비스 기관은 필요할 경우 양육(특히 아동발달 지원 방법), 취업, 직업훈련, 여가활동 등에 대한 교육과 조언을 제공하여(OECD, 2006)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나. 부모 지원의 필요성

아동과 부모는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별개의 존재이지만 아동은 발달 과정에서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의 부양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이 부모한테 받는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서 부모에 대한 개입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

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부모를 위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부모 역할을 지지하고 강화시켜 양육자로서 유능함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기술과 양육지식 등이 아동이 발달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모역할을 지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부모교육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제공된다. 부모교육은 기관교육, 가정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각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주양육자(주로 어머니)와 면대면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부모교육 내용은 아동이 발달하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양육기술의 훈련,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보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부모참여 서비스는 부모가 영유아를 위해서 더 효율적인 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개입기술을 교육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또 부모와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계획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권현자, 2007). 세 번째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위영희(199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영유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감수성은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상호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다양한 역할의 과중과 부담 때문에 감수성이 민감하여 아동을 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비취업모의 경우도 온종일 가사일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지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에 불안과 좌절감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곧바로 영유아에게 전달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가 경험하는 만족감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자로서 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성취감과 유능함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다. 가족 지원의 필요성

저소득 가정에서 빈곤, 가족기능 상실, 환경적 결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부모를 대신하여 국가나 사회가 저소득 가정의 환경적 결함을 보완하여 부모가 스스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이 처한 환경적 문제는 아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

등을 비롯한 가족 지원은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을 돕고 가족의 건강한 사회정착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정익중, 2009).

가족 지원의 운영 방식은 아동에게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실직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적당한 직업을 알선해 주는 등의 빈곤탈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방임과 학대로 인해 부적절한 양육에 노출된 아동들은 신체적·심리적으로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단기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거나 법원의 임시보호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 가족 지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화된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가정의 계층적 차이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

지역사회 연계는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 인적·물적인 지역사회의 자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들이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을 구성하고 실현하기 위한 기초 요소가 되는 요소이다. 즉,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는 지역사회 자원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최보가·전귀연·정정희·김수영, 2005). 지역사회 자원 활용은 통합적 육아 및 가족 지원 서비스의 프로그램과 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기관을 활용하는 것과 아동과 가정의 긴급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거나 동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동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문화유적지, 편의시설 등을 활용하거나 가정의 빈곤, 발달상의 어려움, 위기에 속한 가정과 아동에게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을 연결하거나 의료기관, 상담기관, 직업관련 전문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기술을 연계하는 활동이다(유선옥, 2002). 김진이(199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은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언어 발달이 늦었고 부모와 분리 시 불안, 공격적 언어와 행동, 감정표현 부족과 같은 아동의 정서문제가 더 심각하고 가정의 분위기는 갈등요소가 많았다. 이외에도 의료서비스의 결핍이 두드러지고 방과후 아동의 방치로 인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손가정은 성격상의 결함, 낮은 문제해결능력 등

의 현상이 두드러져 이들 가정의 아동들은 아동발달상, 양육환경상의 문제를 보였다. 이러한 다양한 아동과 가족의 욕구와 문제는 다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협력은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면서 더 나은 질, 확장된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연계는 아동·부모 및 가족 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네트워킹 하는 전달체계는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유아복지전문가와 희망유아 교육사,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보육교사가 담당한다. 이들은 시범지역 내 지원 서비스 대상자 또는 가족 중 지역사회 자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역 내 협력 기관 풀(pool) 안에서 적절한 기관에 의뢰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점점 및 평가 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자원은 지역사회 내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서비스를 구매 혹은 후원,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한다. 대표적인 협력기관은 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동사무소, 소아과 혹은 소아정신과, 아동의 심리·언어 등을 치료하는 기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있다.

<표 II-3-1>에서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계기관과 그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표 II-3-2>에서 취약계층 중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사업협의체를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표 II-3-1>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계기관 및 사업내용

기관	지원 사업내용
보건소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발육 등 건강 스크리닝 아동학대방임 예방서비스 정신건강 진단, 치아건강교육 구강검진빈혈, 당뇨, 혈압검사
병원	지역 내 소아과, 내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치료기관	정서장애를 아동 대상의 놀이치료 언어 발달 지체 아동 대상의 언어치료
건강가정지원센터	모자애착증진 프로그램 양육자교육 보건, 양육, 교육 및 정보 제공 건강상담 및 서비스 연계

(표 계속)

기관	지원 사업내용
드림스타트센터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교육·보육 서비스 야간보육서비스 부모교육 프로그램 주말가족 프로그램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 프로그램(지역사회 공부방) 주말가족 프로그램 멘토링 등 학령기 아동발달지원 직업교육, 기술교육
지역주민자치센터	긴급 시 가정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교육 실제 고용주와의 연계
보육시설	교사교육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부모 지원 서비스 아동권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예비초등학생 학교준비 프로그램
유치원	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부모 지원 서비스 아동권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예비초등학생 학교준비 프로그램
학교	기초학력증진 사업 1인 1기 특기 갖기(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저소득층 아동의 무상급식 확대 지원

〈표 II-3-2〉 인천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실무협의체 목록

구분	기관
공공기관	계양구청, 부평구청, 삼산 경찰서, 삼산1동주민센터 경인새터민지원센터 외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YMCA갈산종합사회복지관,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학교	인천진산초등학교, 한길초등학교
종교기관	부평 사랑의교회, 삼산동성당
NGO단체	새터민자립후원회, KT&G복지재단 인천복지센터, 학인사회복지센터

마. 요약

영유아기는 기본적인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과 없이 습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부모를 둔 영유아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 부모를 둔 영유아 보다 주변 환경에서 제공하는 기회가 적어 학업 성취나 발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조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문제, 부모교육, 심리적 문제, 언어지원 등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 영유아 지원, 부모 지원, 가족을 위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를 위한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부모 역할을 지지하고 강화하여 양육자로서 유능함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보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부모 자신의 건강한 정서·심리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어머니가 효율적으로 양육하도록 돕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특성상 빈곤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전체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지원 제공방법은 아동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준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아동 및 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의 인적·물적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기관, 문화유적지, 편의시설 등을 활용하거나 빈곤가정, 발달지연 아동 등 위기에 속한 아동과 가정에게 의료기관, 상담기관, 직업관련 전문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기술을 연계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은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연계는 아동 및 부모·가족 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인 유아복지전문가와 희망유아교육사, 보육교사가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전달체계 역할을 시도한다. 즉, 시범지역 내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수혜 대상자 또는 가족을 적절한 기관에 의뢰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평가하여 저소득층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국외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제3장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취약계층 영유아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국외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으로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호주의 베스트스타트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들 사업들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서, 프로그램의 운영과 효과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가. 헤드스타트(Head Start)

1) 사업의 배경

1960년대 초 미국사회는 빈곤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빈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아기부터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1964년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을 제정하고, 빈곤 가정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 아동발달, 정신지체, 소아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헤드 스타트 계획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전인적 아동관에 기초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영양, 신체적·정신적 건강, 부모 참여, 가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유아교육 등의 여러 방면에 걸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Zigler & Styfco, 1993). 이러한 배경에서 1965년 존슨 대통령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이는 유아기 개입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접근이며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최초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러한 헤드스타트는 사회적 유능감 성취를 위해 아동과 그 가족의 교육, 건강, 영양, 사회적 서비스, 부모참여를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학문적 접근을 강조하는 포괄적 서비스이다(<http://eclkc.ohs.acf.hhs.gov/hslc>). 또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을 비롯한 아동 교육자, 영양사, 부모의 역할, 참여 및 지지를 강조한다.

2) 사업의 현황⁵⁾

가) 대상

미국 연방 정부의 보건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매해 제시하는 빈곤선(poverty guidelines) 기준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으로 구분된 3~5세 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2007년 헤드스타트법이 재인준을 받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은 연방정부의 기준선에 미달하는 수입을 가진 가정의 유아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0%는 빈곤선을 조금 상회하는 가정의 유아가, 나머지 10%는 장애를 가진 유아가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 재인준을 받은 헤드스타트 법에서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 가능한 아동의 35%까지는 빈곤층 상위 1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수혜대상의 범위가 상향 조정되었다(이미화 외, 2009).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관한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내 50개주와 워싱턴 D.C., 푸에토리코(Puerto Rico), 버진 아일랜드(Virgin Islands)를 포함하여 모두 908,412명의 아동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참여 연령은 4세가 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세 36%, 3세 미만 10%, 5세 이상이 3%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등록인원의 12%는 정신장애, 정서장애, 시각장애 등의 장애아동이다.

나) 재정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총 운영비용의 80%를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일반적으로 노동력과 시설제공과 같은 서비스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운영비인 20%에 해당하는 비용은 주정부 예산 및 비영리단체의 활동이나,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연방정부가 정한 헤드스타트 수행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에 미달되면 정부 보조가 중단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꾸준히 늘어나, 1993년 27억 달러이었던 예산이 2006년에는 67억 달러로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원 대상아동도 1993년 71만 여명에서 지난해 92만 여명으로 크게 증가

5) <http://www.acf.hhs.gov/programs>

하였으며, 아동 1인당 연간 프로그램 비용은 7,000달러⁶⁾에 달한다. 정부 지원 외에도 농무부가 아동의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운티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7년 통계를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은 18,275개의 센터를 통해 49,400개의 교실에서 실시되고 있다. 월급을 받는 교직원의 수는 220,000명에 달하였고 자원봉사자는 1,384,000명이었다. 아동 1인당 연평균 비용은 \$7,326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 헤드스타트법(Head Start Act)

1994년에 의회를 통과한 헤드스타트법은 상당한 수준의 예산의 할당을 허가하고, 여러 가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자금을 할당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헤드스타트법은 헤드스타트와 조기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목적,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프로그램 수혜를 받은 전체 대상, 평가요구 사항들과 행정적인 요구사항들과 보고사항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2007년에 개정된 현행법은 헤드스타트와 조기 헤드스타트 사업의 서비스와 활동내용 전반에 걸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헤드스타트 법의 목적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사회성과 인지발달을 촉진시킴으로서 학교 준비도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개정된 헤드스타트 법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였고 헤드스타트국에서는 헤드스타트 모니터링조서국(Office of Head Start Monitoring Protocol)을 두어 매해 헤드스타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http://www.acf.hhs.gov/programs/ohs/legislation/index.html>).

3) 사업의 운영

헤드스타트는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DHS)의 아동가족운영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아동가족운영국은 헤드스타트와 아동과 가족과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도 담당하고 있다. 아동가족운영국 아래에 있는 헤드스타트국(Office of Head Start)은 조기 헤드스타트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헤드스타트국은 교육발달연계과(Educational Development and Partnership Division), 정책예산과(Policy and Budget Division), 질관리과(Quality Assurance Division), 프로그램관할과(Program Operations Divisions)의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헤드스타트국은

6) FY-2007 Program Statistics AVERAGE COST PER CHILD: \$7,209

헤드스타트법, 프로그램 성취 기준과 다른 법률에 기초하여 프로젝트의 기준과 방향이 결정되며, 전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규제하며 집행한다. 또한 헤드스타트 운영에 관련된 일, 모니터링,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프로그램 관할국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구 사무실을 두고 있다.

한편, 헤드스타트국은 2006년 7월 영유아기 학습 및 지식 센터(Early Childhood Learning and Knowledge Center: ECLCK) 발족을 발표하였으며, 영유아기 학습 및 지식센터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시의적절한 관련 정보, 지식,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http://www.acf.hhs.gov/programs/ohs/eclkc/index.html>).

4) 사업의 내용⁷⁾

사업의 내용은 크게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관련된 서비스와 가족 및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동 발달 및 건강 지원서비스

아동 건강의 증진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아동의 건강과 발달 서비스의 목적은 가족, 직원, 그리고 건강전문가를 통해 모든 아동의 건강과 발달적 문제를 규명하고, 아동과 가족은 건강에 관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접근 가능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다.

교육과 조기 아동교육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받음으로써 아동이 현재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이후 학교와 삶에서 책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각 아동은 통합적인 사회의 가치와 다양성에 대응하여 개별성을 인정받으며, 아동의 신체, 사회, 정서, 인지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나)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헤드스타트는 부모의 성장에 대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가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고 충족하도록 도우며, 그들 가족과 문화의 맥락 내에서 아동발달을 촉진하고 모든 문화의 아동과 가족에게 지지적인 지역사회를 옹호하고자 한다. 부모와 직원 간의 신뢰롭고 협력적인 관계의 형성을 통해 그들은 서로 나누고 배울 수 있게 된

7) <http://eclkc.ohs.acf.hhs.gov/hslc/About%20Head%20Start>

다. 또한 헤드스타트는 지역사회의 맥락 안에서 가족을 도우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가족에게 최상의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문화권에 속하는 모든 아동 및 가족의 건강한 발달에 대한 책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조직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5) 사업의 유형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수행기준의 법령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을 첨가하며 실시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참여하는 유아와 센터의 운영능력, 센터의 교직원 및 지역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크게 센터중심 프로그램과 가정방문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2005년도 미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표준적 종일제 프로그램(한주에 4일 혹은 5일을 다니며, 1일에 6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에 다니는 아동이 50%를 차지하며, 표준적 반일제 프로그램(한 주당 6시간 미만의 프로그램)에 다니는 아동이 41%를, 그리고 가정중심 모델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은 5%이며, 혼합형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이 4%로 나타났다(Youth and Families Head Start, 2005).

가) 센터중심 종일제 프로그램(Standard full-day programs)

한 아동은 4일 또는 5일간 기관을 다니며 센터중심 프로그램의 내용 중 종일제 센터중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운영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이다. 주당 4일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소한 1년에 128일 이상을 운영해야 하며, 주당 5일인 경우 160일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모든 기관 중심 프로그램은 반드시 8~9개월 동안 최소 32주는 운영해야만 한다.

기관에서는 주로 교육적인 제공은 물론, 건강, 가족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부모 참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들은 위원회 참석하기, 프로그램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직업 훈련 받기와 자원봉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헤드스타트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은 헤드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할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서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많은 부모들이 헤드스타트 사업에 고용되고 있다. 뿐만

8) Youth and Families Head Start(2005). Biennial report to congress: The status of children in Head Start programs. Washington D.C.: Office of Head Start Youth and Families Head Start.

아니라 지역 단체, 관련 기관, 학교, 기업체 등 지역사회 서비스 아동과 가족에게 연결시켜 줌으로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센터중심 반일제 프로그램(Standard part-day programs)

하루 운영 시간은 3.5~6시간 동안으로 규정되어 있고, 센터중심 프로그램의 내용 중 반일제 센터중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운영 시간이 매일 6시간 미만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 내용은 동일하다.

다) 가정방문 프로그램(Home based model)

가정에서 헤드스타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활동으로, 가정에서 부모를 훈련하여 영유아의 양육 기술 발달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유아의 영양, 건강, 교육 및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가 포함된다.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3~4주 정도의 교육을 받은 준전문가가 지도한다. 대체로 한 사람이 10~12가정을 맡아서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센터중심 헤드스타트와의 차이점은 가정 내에서 부모와 유아의 생활이나 관계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모든 유아들의 전체적인 발달(인지, 언어, 사회, 정서, 신체)을 증진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며, 지역, 민족, 인종, 문화적, 언어적 특징을 고려하여 지역의 필요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다.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한 가정 당 최소 일주일에 1회 방문(1년에 32번 방문)하며 최소 1시간 30분간 지속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은 최소한 2개의 집단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예: 1년에 최소 16회의 집단 활동참여- 헤드스타트 교실, 지역사회 시설, 현장 학습 등).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주요특징으로는 부모의 참여를 특히 강조하며, 각 가정의 유아와 그 부모의 평가를 기초로 개별화된 계획을 마련하여 가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적으로 멀리 고립된 가족에게 실시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라) 통합모델(combination program): (가정방문 + 센터중심)

통합모델은 센터중심 프로그램과 가정방문 모델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6) 조기 헤드스타트

가) 조기 헤드스타트 사업의 배경 및 현황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1994년 헤드스타트법의 개정으로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고, 이는 아동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하여 0~3세 영아와 그 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미국인 재투자회복법(American Reinvestment and Recovery Act)으로 조기 헤드스타트 서비스는 확장될 것이다 (<http://eclkc.ohs.acf.hhs.gov/hslc>). 조기 헤드스타트는 전국적으로 70,000명 이상의 영아와 그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조기 헤드스타트는 아동의 발달(건강, 탄력성, 사회적 능력, 인지, 언어 발달 포함), 가족 발달(양육, 영유아와의 관계, 가정환경, 가족 기능, 가족의 건강, 부모의 관심, 경제적 자립도 포함), 직원 발달(전문적 발달 및 영유아 부모와의 관계 포함), 지역사회 개발(영아 보호의 질적 강화, 지역사회 협력, 아동 가족 서비스 통합)의 4가지 영역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Pyatskowitz, 2009).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가정방문중심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욕구 변화와 가정방문에 대한 가족들의 가용성 영향으로 센터중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다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던 가족이 노동 현장으로 진입을 하거나 직업 훈련 등으로 인해 가족들의 고용상태가 변화하였고,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가정방문중심 서비스, 센터중심 서비스, 혼합 서비스, 가정 양육 서비스의 형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게 되었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03).

가정방문중심 프로그램은 조기 헤드스타트 교사가 가정으로 매주 방문하여 아동의 발달 지원과 부모-영유아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학습, 토론, 사회 활동 기회를 집단으로 구성하여 부모와 아동에 제공한다. 센터중심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조기 보육과 교육의 경험을 제공한다. 교사는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의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혼합 서비스 프로그램은 가정방문과 센터중심 프로그램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가정 양육 서비스는 민간 가정이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에게 교육과 보육을 제공한다.

나) 조기 헤드스타트의 내용 구성⁹⁾

조기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보육

영아 개인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발달적 경험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에 처음 오게 되면 발달 진단검사를 하여, 이를 통해 개별 영아의 능력을 평가하고 영아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한다.

(2) 건강

의료, 치아, 영양, 정신 건강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영아의 의료, 치아, 이전의 발달 과정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며,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영아는 신체검사와 더불어서, 시청각 검사, 말하기, 예방 접종, 치과 진료 서비스를 받는다. 센터에서 영아에게 따뜻하고 맛있으며 영양적으로 우수한 음식을 제공하고 식사 후 이 닦기 활동을 하도록 한다.

(3) 지역사회 연계

가족의 요구와 능력을 파악하고, 가족의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지원을 받는다. 각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 주려고 한다. 조기 헤드스타트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중심의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하고,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발달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4) 부모 참여

부모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조기 헤드스타트는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에서 부모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지하며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에게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점을 주기도 한다.

나. 슈어스타트(Sure Start)

1) 사업의 배경

영국은 전통적으로 아동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하며 일부 학자들은 집단생활의 경험이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경우 보다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최소한으로 유지되던 영국의 교

9) 이미화·이윤진·이정립(2009).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방안(연구과제 2009-02).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육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88년 교육개혁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대대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이미화 외, 2009).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997년 블레어 총리 하에 ‘국가보육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정부주도의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퇴치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자치단체 중심의 프로그램인 슈어스타트를 시작하였다. 슈어스타트는 모든 4세 이하 영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소득층 유아들을 위해 시작되었다.

1999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아동과 가족들에게 조기교육, 보육, 보건, 가족 지원 서비스 등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me)을 시작하였다. 1998년 ‘국가보육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에서 파트너십의 원칙으로 육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방정부, 보육서비스 제공자(provider), 부모, 고용주, 대학 등의 협력 강조하였으며, 2002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과 취약지역 아동을 위한 아동센터 발달기금을 통해 부처 간(교육기술부, 근로연금부, 재무부, 여성평등부) 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전개하였다(김미숙 외, 2007). 2004년 “부모에게는 선택을, 아동에게는 가장 좋은 출발을(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이라는 10년 아동보육 전략(Ten Year Childcare Action Plan)을 다시 마련하였는데, 1998년의 국가 아동보육 전략과 달리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있다(백선희, 2006).

또한 슈어스타트는 보육서비스에서 부모일자리 알선까지 부모들에게 구직정보와 보육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임신전후 건강진단까지 지원함으로써 가정과 지역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생후 2개월 유아가 있는 집을 방문해 건강진단, 보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사업의 현황

가) 대상

빈곤지역의 0~3세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2004년 아동보육 10년 전략을 통해 영국 내 하위 20%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임신 중인 부모와 14세(장애가 있을 경우, 16세) 이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전달체계

기존의 슈어스타트국(sure start unit)을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와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의 책임 하에 독립적인 부서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고든 브라운 총리의 입각으로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가 신설되고 관련업무가 이관되었다. 아동학교가족부에서는 영아와 5~13세 아동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14~19세 교육은 혁신대학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y and Skills)와 공동 책임을 진다. 아동빈곤이나 보건 등의 재정이나 정책 운영은 보건부나 노동연금부 등 다른 부서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2006년 아동보육법(Childcare Act)은 지방정부의 보육의무를 규정하여 지방정부는 보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아동보육법에서는 슈어스타트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에서 보건, 사회서비스, 지역노동사무소(Job Centre Plus)등을 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에 슈어스타트는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 정부 제공의 서비스 기관뿐 아니라 민간서비스, 기초 돌봄 기관(Primary Care Trust)¹⁰⁾, 자원 조직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모든 지역에서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구와 기관, 자원조직 등을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재정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9억 파운드(약 3조8000억원)의 정부예산이 들어갔으며 2004년 예산은 12억 파운드(약 2조4천억)가 배정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5/2006년에는 약 15억 파운드 이상의 정부재정이 투입되었다. 예산은 중앙정부인 SSU(Sure Start Unit)을 통해 각 지역의 슈어스타트에게 전달된다. 지방정부의 교육청이나 복지담당 부서와 제휴할 수 있으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Melhuish, 2009). 또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별 프로그램마다 민간 펀드를 두어 재원을 확보하고 운용하고 있다.

3) 사업의 운영¹¹⁾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지역이 동일한 특정 프로그램을 가지는 대신 지역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장하며, 새로운

10) Primary Care Trusts(PCTs): 지역민의 보건을 제공하고 위탁하는 지역 보건 조직. 언어치료사와 같은 아동특별 치료사가 해당될 수 있음.

11) www.surestart.gov.uk

체제를 설립하는 대신 지역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슈어스타트 사업의 전달을 위한 전략 수립, 자문과 협력, 서비스 전달지원, 재정적 책임, 성과 모니터, 아동발달 증진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방협력체는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슈어스타트 사업을 이끌어간다.

아동들과 부모들은 아동이 만4세가 될 때까지 조기 유아교육, 가족 지원, 영양과 건강등과 관련된 도움을 지방당국으로부터 받으며, 지방당국이 각 지역 슈어스타트를 관장한다. 중앙정부와 지방당국, 지역사회 인사 자원, 건강, 보육, 교육시설 관계자들과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러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적인 면으로 들 수 있다.

2005년 슈어스타트 국가평가결과에 의해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을 아동센터로 변환시키고 있으며(NESS, 2005), 약 2,000여 개의 아동센터를 설립하여 보육, 건강, 가정 서비스 등을 저소득 지역의 약 4십만 명의유아들에게 제공하고, 2010년까지 3세에서 14세를 대상으로 한 아동보육센터(childcare place) 약 2백만 곳 정도가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http://westart.joins.com>).

4) 사업의 내용

가) 슈어스타트 실시기관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아동센터(Children's Centers)

5세 미만의 아동과 그들의 가족이 통합적인 서비스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다방면으로 훈련된 전문가 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모든 지역사회 마다 하나의 아동센터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센터의 재정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고, 2년마다 재정이 책정되며, 2008년까지 총 60억의 재정이 아동센터에 책정이 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슈어스타트 센터계획에 의하면 유아교육, 보육, 시간제 보육을 기본으로 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보건서비스, 학령기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전문가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참여 서비스, 훈련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 서비스 등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아동센터는 모든 아동의 문제(Every Child Matters) 프로그램의 중심역할을 담당한다.

(2) 지역 슈어스타트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mes: SSLP)

SSLP는 태어나서 4세가 되기까지의 아동과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켜 아동들이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현재 524개의 슈어스타트 지방 프로그램 대부분이 아동센터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이미화 외, 2009).

(3) 조기우등기관(Early Excellence Centres)

조기우등기관은 통합된 교육과 아동 보육, 부모와 양육자,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윈스톱 방식으로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이웃보육시설(Neighborhood Nurseries)

가장 취약한 지역과 그 주변 부유한 지역 간의 차이를 줄이고자 시작되었으며, 2004년까지 취약지역의 5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 높은 질의 접근이 쉬운 종일보육장소 4500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였고 현재 목표 달성 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현재 이웃보육시설의 대다수는 지역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다.

나) 서비스 내용¹²⁾

(1) 저소득 지역의 프로그램

(가) 영유아기 제공 프로그램(Early years provision)

5세 미만 아동의 통합된 조기 학습과 보육을 제공한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통합된 학습과 보육(예: 주 5일 보육, 1년의 48주, 하루 10시간)을 제공한다. 아동보육은 저소득층 지역 개선을 우선으로 실시한다. 장애아나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의 가족과 부모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지원을 하며, 지역 학교(방과후 학교, 건강학교 등)와 연계한 방과후 활동을 제공한다.

(나) 현장방문(Outreach services)

출생 후 2개월 이내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취약계층에게 특히 지역사회 인식을 위한 활동을 한다. 현장방문은 가정방문(home visit)과 연계하며, 향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가족 지원

각 지역의 가족 지원 서비스와 활동에 대해 부모 또는 양육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의 중요한 전이활동에 대한 양육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한다. 또한 장애아

12) www.surestart.gov.uk

동의 부모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하며, 아버지 참여 증진을 위한 특별 전략 및 활동을 실시한다.

(라) 아동과 가족의 건강 서비스

어머니와 아버지의 출산 전 교육 및 지원을 하며, 아동 보건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수유, 위생, 영양, 안전 등에 대한 정보 및 안내를 제공한다. 어머니의 우울, 산전·산후 우울에 대한 긍정적 정신 건강, 정서적 안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어적 지원과 다른 전문가를 지원하며, 건강한 가족 스타일에 대한 지원과 금연을 위한 도움도 제공한다.

(마) 부모참여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정보를 공유하며, 어머니와 아버지 교육을 관리한다.

(바) 구인 센터와의 연계

훈련과 고용을 희망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구인 센터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 기타

고등 교육기관과의 효율적 연계와 지역 훈련 수급자 연계, 부모 대상의 언어교육 훈련, 모성 중요성 훈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의 순위 형제에 대한 아동 양육 및 기타 서비스, 성인과의 관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북스타트(Bookstart)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아용(baby bags), 영유아기용(toddler bags), 만3세용(My Treasure Box)인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2) 일반 지역의 프로그램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와 부모의 선택을 충족하기 위한 기타 서비스 제공에 맞춰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교육 프로그램

교육 커리큘럼으로는 기초단계교육과정(Foundation Stage Curriculum)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2년 교육법에 의해 국가교육과정으로 포함되었고,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조기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다. 베스트스타트(Best Start)

1) 사업배경

‘아동이 먼저(Children First)’라는 빅토리아 주지사의 정치적 선언과 함께 지역사회 서비스부서 초기 유아 서비스에 투자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때 초기 위험요인에 대한 명명화와 시기적으로 적절한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맥락으로 빅토리아 정부는 ‘빅토리아와 함께 키우기(Growing Victoria Together)’라는 의제로 빅토리아에 살고 있는 모든 영유아를 위해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베스트스타트는 모든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발달, 학습과 웰빙을 증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보건 서비스와 조기 교육을 더 받도록 지원하며, 부모의 능력과 자신감 증진, 부모와 가족이 영유아를 더 잘 양육하도록 한다. 또한 즐겁게 부모역할을 증진하도록 도움을 주며,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있다. 베스트스타트는 부모,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현존하는 서비스들 간(산부인과와 모자건강 서비스, 종일제 보육, 아동보육시설, 가정보육, 유치원, 학교, 가족 지원 서비스, 성인교육 조직 등)의 연계 강화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하나의 보편화된 서비스 체계를 도모한다(<http://www.beststart.vic.gov.au>).

베스트스타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연장자(Parent/Elder), 지방정부, 보건 서비스, 교육 서비스,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가족 지원 혁신 프로젝트), 지역사회 조직(스포츠 혹은 레크리에이션 클럽 등) 6개의 기본 파트너 그룹이 포함된다(<http://www.beststart.vic.au>).

2) 사업의 운영

가) 대상

베스트스타트는 호주의 빅토리아주 내의 임신부부터 0~8세의 모든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일반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 전달체계

베스트스타트는 빅토리아주의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와 교육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의 합작으로 시작된 정부 프로젝트이

다. 현재 베스트스타트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신설된 교육유아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의 유아교육 프로그램(Early Childhood Program)에서 관장하고 있다.

베스트스타트는 주정부와 지역정부부처 간의 파트너십이 특징이다. 법무부(범죄예방), 체육관광연방게임부, 빅토리아 경찰, 산업기반부, 혁신산업지역개발부, 행정자치부와의 파트너십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3) 서비스 현황

베스트스타트는 3단계의 시기를 거치는데 제1단계는 2001~2002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이 시기는 베스트스타트 프로젝트의 설계와 발달에 초점을 두었다. 이 시기는 어린 아동과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부 기관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한 시기였다. 제2단계는 2002~2006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11개 지역과 2개의 원주민 지역을 포함한 13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파트너십의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베스트스타트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2002년에 5개의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등 5개 지역에서 펼쳐졌으며, 2003년에는 6개 지역이 확대되어 2004년에는 11개 지역과 2개의 원주민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때 4개의 범주별로 예산이 다르게 쓰였는데, 지역사회 프로젝트는 인적서비스와 교육훈련부의 연합지원 하에 지역지원예산으로 지원되었다. 첫 번째 지역범주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략을 발달시키고 파트너십의 효과를 피하려는 곳으로 전 지역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600,000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또 다른 지역범주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원을 지원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초점을 주는 것으로 300,000달러의 예산이 쓰였으며, 또 다른 지역범주인 작은 지방 도시에서 인적자원부와 함께 기존의 전달 체계 원리를 이용하여 핵심적인 활동에 대한 지역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지역에는 300,000달러가 편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원주민 지역에는 280,000달러의 예산이 쓰였는데 원주민과 주요한 서비스를 접목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2004년 후반에 발표되었다. 제3단계는 2005~2009년까지이며, 이미 검증된 지역부터 새로운 지역까지에 까지 적용하는 시기이다(<http://www.beststart.vic.au>).

현재 베스트스타트는 지역사회 베스트스타트(local best start site)와 원주민 베스트스타트가 지역사회 서비스 혹은 가족과 아동 서비스의 명칭으로 3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14개 베스트스타트 지역(Best Start site)에서 Supported Playgroup and Parent Group Initiative(SPPI)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아동발달의

최적기인 0~3세 시기에 아동에게 양질의 놀이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beststart.vic.gov.au>). 이 프로그램은 언어발달, 운동기술발달, 감각 경험의 기회부여, 사회기술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과의 친밀감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간의 사회적 지지망, 향상된 부모역량의 발달, 가족생활의 확신과 즐거움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제공되며, 2008년 빅토리아 정부의 교육과 유아발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출생 이후부터 모든 젊은 빅토리아인의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양질의 학습과 발달 체계이다. 4개의 청사진은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 학교 교육 체계의 강화 확신,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저소득층 빅토리아 아동을 위한 개선된 결과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노동인구를 개혁하고 있다.

4) 서비스 내용

베스트스타트는 크게 건강과 웰빙, 교육과 학교교육, 주거와 아동보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부모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질이 우수한 교육 및 보육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영유아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과 실행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베스트스타트의 중점 활동으로는, 질적으로 우수한 임신관리, 영유아 양육을 위한 부모 지원, 질적으로 우수한 놀이, 학습, 보육, 유치원, 조기교육 경험 제공, 초등학교 첫 3년 동안의 방과전후 돌봄을 위한 기회 제공 등이 있다. 또한 영유아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강화하도록 부모를 지원하고, 부모가 읽기, 쓰기, 수 계산법을 배우도록 하고 다른 성인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 또한 부모와 영유아 모두의 건강을 관리하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전이할 때의 특별한 욕구에 초점을 두어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의 허브로서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 계절 프로그램, 아침제공 프로그램 등으로 초등학교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을 아동에게 안전하고 친근하며 제대로 키우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며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스포츠, 취미, 도서관, 교통수단을 지원한다. 또한 필요 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가 영유아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친근한 곳으로 만들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적합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인 조기 개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효과 및 시사점

가. 헤드스타트 효과에 관한 연구

헤드스타트 질과 확장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Head Start Quality and Expansion report)에서는 질과 정책 이슈에 초점을 둔 새로운 헤드 스타트 수행,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수혜를 받고 있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종단적 연구의 수행, 영아와 영유아 대상의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평가의 수행, 다양한 하위계층에 대한 연구 혹은 대규모 연구의 수행, 대단위 아동 발달과 관련된 파트너십과 관련된 연구 등 헤드스타트의 발전과 강화 능력에 대한 학제간 연구 및 몇 가지 범주를 포함하는 연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Youth and Families Head Start, 2005).

이처럼 프로그램 질과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몇 가지 범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헤드스타트 가족과 아동의 경험연구(Head Start Family and Child Experiences Survey: FACES)

1997년부터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FACES는 국가적 차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지속적인 종단연구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수행에 관해 국가적 수준에서 측정하는 조사를 통해 매 3년마다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FACES는 헤드스타트 아동과 가족, 교실, 프로그램에 관해 교사, 스태프, 그리고 부모와의 면접과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과 가족에 대한 특성, 경험, 그리고 아동의 발달결과, 교사, 교실, 프로그램의 질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FACES는 헤드스타트에 처음 등록하는 3, 4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선을 조사한 후 아동이 유치원(Kindergarten)으로 진급한 해까지 연구가 진행된다. FACES 2000에서는 프로그램의 수준과 교실의 질과의 관계에 대해 교사의 학력수준보다는 DAP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교직 근무연수에 의해 설명되었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사의 평균 월급과 관련되어 높은 월급을 주는 프로그램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낮고, 좋은 질의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FACES 2003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헤드스타트에 참여한 3~5세 아동이 1년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받은 후 어휘, 쓰기 수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고 4세에서는 읽기에서도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들이 5세가

되었을 때 어휘, 쓰기, 수 점수가 국가 평균 점수에 근접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06). 또한 아버지와의 동거 유무와 관련 없이 아버지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아동의 긍정적 행동이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헤드스타트에 참여한 아동이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아동보다 인지적 능력과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우울하거나 폭력에 노출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가 헤드스타트에 참여하고, 아동과 긍정적인 경험을 한 부모인 경우,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나타내 아동의 문해능력과 수학능력, 긍정적 행동의 향상을 나타냈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06).

2) 헤드스타트 효과연구(Head Start Impact Study)

1998년 헤드스타트법(Head Start Act, P.L.105-285)의 개정으로 헤드스타트법 649(g)항에 근거하여 보건인적자원부차원에서 헤드스타트 효과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분석을 수행하고, 국회에 3개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의회에서 요구한 질문과 프로그램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5000명의 3,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가 실시되었다. 헤드스타트에 다니는 아동집단과 헤드스타트 서비스를 받지 않는 비교집단 간의 비교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 효과연구는 2000년에 실시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수행되었다.

주요한 연구문제로는 헤드스타트가 아동에게 학교에 대한 준비를 돕는지, 어떠한 환경이 아동에게 가장 높은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에 있었다. 연구 결과 3, 4세 읽기 전 기술, 쓰기 전 기술, 단어 지식,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읽기 기술 영역에서 유의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3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향상을 나타냈으며, 그리고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 또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3세아 부모는 영유아와 교육적 활동을 하며, 신체적인 처벌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기 헤드스타트 연구 및 평가(Early Head Start Research and Evaluation Project, 2003)

새로운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출생부터 3세 아동과 임신부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아동의 건강, 인지발달, 언어발달, 그리고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조

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보였으며, 이는 부모들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한 아버지들은 영유아를 덜 때리고, 아버지-아동 놀이상황에서 높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헤드스타트 효과연구의 시사점

헤드스타트 사업과 효과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저소득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상의 확대가 중요하다. 2007년 재인준을 받은 헤드스타트법에서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 등록 가능한 아동의 35%까지는 빈곤층 상위 1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도 등록 가능하도록 수혜대상의 범위가 상향 조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부주도 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까지 점차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나 잠재적 취약계층까지의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간 실시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재원의 손실을 볼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초반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구체적으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 할당제(Quality Set-aside)'가 시행된 점과 전미 헤드스타트 협회(NHSA)에서 실시한 우수센터 인증제인 '질적 주도(Quality Initiative)'가 시행되면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가 더욱 활발해지는 효과가 발생되었다. 또한 해마다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질적인 수준의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거나, 정부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자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교사에게 적당한 대우를 해 줌으로써 유능한 교사를 확보, 유지하고 교직원의 훈련과 기술적 보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은 교사의 근무연수,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교사의 급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00).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에 고용되어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규적인 아님 형태이며, 경력 또한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아동지원사업에 수행인력으로 좋은 교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렵다.

넷째, 헤드스타트 사업은 부모의 참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헤드스타트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부모들이 이 사업에 고용되는 비율이 높고, 자원봉사자의 활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부모의 강점을 격려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Allen, 2008). 또한 부모가 헤드스타트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00). 이처럼 우리나라 아동지원사업이 부모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참여를 유도하면, 긍정적인 아동의 발달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 슈어스타트의 효과에 관한 연구

1) 국가평가 보고서(National evaluation report)

슈어스타트는 재무부가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재무부가 슈어스타트의 개발뿐 아니라 이후 프로그램의 변화에도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 재무부는 초기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Melhuish, 2009). 이에 슈어스타트 국가 평가(National Evaluation of Sure Start: NESS)가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 평가를 맡게 되었다. NESS는 슈어스타트의 효과연구 및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지역 사회의 특성,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방식, 아동, 가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의 비용-효과 분석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2001년에 시작되어 대부분 2005년까지 수행되었으며, 2~5세 아동과 가족에 대한 영향평가는 2008년까지 지속되었다(NESS, 2008).

슈어스타트 영향평가는 횡단연구, 프로그램 타당성 연구, 장기종단의 3가지 영역에서 실시되었으며, 2005년 횡단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슈어스타트 지역과 비 슈어스타트 지역에 속한 3세 아동과 그 가족을 비교한 결과 슈어스타트 지역의 아동이 더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보였으며,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도 낮았다. 20대 이상, 즉 10대가 아닌 어머니들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부모역할과 아동의 사회적 기능에서)를 보였으나 어머니가 10대이거나 한부모인 가정, 부모가 무직인 가정 등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사회적 기능 및 언어 능력에서)를 보였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 구조를 바꾸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

2008년에 발표한 장기종단연구 결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 아동의 독립성/자기통제감의 향상, 부정적 양육행동의 감소, 가정 내 학습 환경의 변화 등에 있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elhuish, 2009). 또한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가정에 제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surestart.gov.uk>).

2) 슈어스타트 효과연구의 시사점

슈어스타트는 정부주도로 기금이 형성되고 지방 당국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슈어스타트의 국가 평가와 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에서는 첫 시행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확실적인 서비스가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평가가 없이는 지방자치체로 인해 지역 사정에 따라 재원의 차이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양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영국에서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독립적인 국가적 평가 기구를 만들어 시스템을 갖추고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횡단, 종단적인 평가와 함께 실험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진행 중인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진행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막대한 자원을 들여가면서 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주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수행뿐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과 수행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평가를 위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영국의 기초 단계 교육과정과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주관하는 아동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프로그램 수립 및 적용의 체계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아동지원사업을 조직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원활한 연계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영국의 경우 보육 서비스에서 부모일자리 알선까지 부모들에게 구직정보와 보육정보 동시에 제공하고 임신 전후 건강진단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유아 지원 사업이 통합적 접근으로 시도되고 있는 만큼 영유아와

그 가정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슈어스타트 효과성 연구에서도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관련 종사자들 간의 신뢰감 형성이 중요하다.

다섯째,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기관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관련 종사자의 자질과 관련된다. 종사자들이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이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재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

다. 베스트스타트의 효과에 관한 연구

1) 멜버른 대학의 주규모의 베스트스타트 평가

베스트스타트의 주규모 평가는 2단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멜버른 대학에서 수행되었다. 주요한 평가영역으로는 크게 건강과 웰빙, 교육과 학교, 주거와 아동보호의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아동과 가족의 자발적인 참여, 파트너십과 지역 프로젝트 수준에서의 계획과 협력, 운동장, 도서관, 부모참여와 같은 지역사회 기초기반의 이용과 가능성에 대한 지표들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영역의 평가결과 건강과 웰빙 영역에서는 모유 수유와 어머니와 아동의 건강 서비스 참여율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3개월과 6개월 영아에 대한 모유수유율은 다른 지역보다 모유수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유아의 건강 서비스 참여율도 2001/2002년과 비교하여 2004/2005년의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영유아에게 읽기활동을 해주는 것에 대한 평가를 보면, 조사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베스트스타트 지역에서 문해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으며, 초기 문해와 관련한 다른 효과도 보고하고 있다. 베스트스타트 지역에서의 조사결과 2004년과 비교하여 2006년의 문해 관련 행동이 증가하였으며, 부모가 영유아에게 읽어주는 것 또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와 아동보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역점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역점을 두었던 부모의 자신감 증진과 친아동 지역사회 프로젝트(parental confidence and communities child friendly projects)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에 대해 평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베스트스타트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여러 사업이나 서비스들이 단독 또는 경쟁적으로

일했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조기 아동교육부분에서 연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 베스트스타트 효과연구의 시사점

베스트스타트 사업의 효과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스트스타트의 효과연구 결과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생산적으로 정착하고 조화롭게 기능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조직과의 연계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사회와의 연계가 확고히 되어야 한다.

둘째, 베스트스타트는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지역형태별로 범주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을 확대하기 이전에 각 지역의 실정을 살펴보았다. 즉, 지역사회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가능하고 이용하기 쉬운 기존의 서비스를 발굴하여 영유아와 그 가정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별로 정부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새로운 지역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새로운 지역에 대한 실정을 파악한 후,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영유아와 가정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다른 국외 취약계층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베스트스타트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평가부서와 대학이 공동으로 사업에 대한 효과연구를 4년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주도 사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정부주도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에 주력하기에 앞서 국가 수준의 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IV. 국내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국내 취약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과 지자체 및 민간주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드림스타트 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및 민간주도 사업으로는 위스타트,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SB7시소와그네 등이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과 지자체 및 민간주도 사업의 현황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가. 정부 지원 사업

1) 드림스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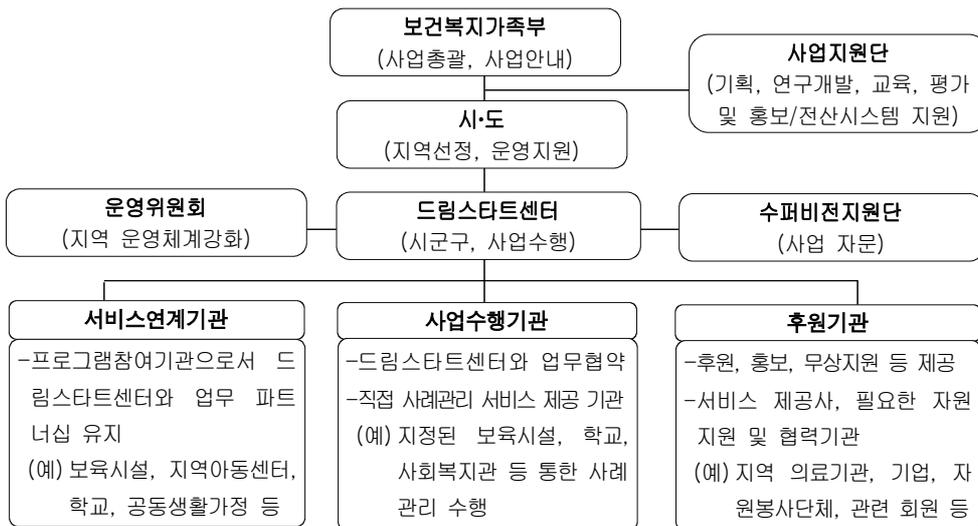
가) 개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이고 예방적인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나가는 아동정책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요 서비스 항목은 첫째, 빈곤 아동들의 건강 및 영양 증진과 더불어 모성건강을 증진시키고 둘째, 학대·방임아동을 보호하고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인지발달 지원 및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목표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발판으로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프로그램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신부와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중심으로 아동들에게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들에게는 직업훈련·고용촉진 서비스를 제공,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추진체계

드림스타트 사업의 추진체계는 상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구 및 사업지원단과 각 주체별로 구성된다. 각 추진주체의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업의 총괄 및 사업지원단을 구성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도에서는 드림스타트센터 거점 지역을 선정하고 심사하며 예산배정, 광역지원 연계 등 사업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시·군·구에서는 운영위원회와 슈퍼비전지원단을 설치하여 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을 도와주고 드림스타트센터에 전담 공무원, 전담인력 배치 등 센터 설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지원단의 주요업무는 크게 사업의 기획 및 운영지원, 연구개발 및 교육, 사업 평가, 홍보 및 후원 개발에 관련된 분야로 나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중심의 연계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 컨설팅 등 전반적 운영지원을 실시하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교육하고 매뉴얼을 개발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필요 요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사업효과성을 검증하며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홍보 및 후원개발과 관련해서는 홍보자료를 개발·실시하며 후원을 개발하고 뉴스레터 제작 및 특화사업을 실시한다. 그 밖의 사업 주체와 기능을 요약해 보면 [그림 IV-1-1] 과 같다.



[그림 IV-1-1] 드림스타트 추진체계도

자료: <http://www.dreamstart.kr>

다) 사업내용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의 주 내용은 빈곤아동 및 그 가족에게 가구단위 집중 사례 관리 및 보건·복지·교육 등 세 영역을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V-1-1 참조).

우선, 보건영역의 목적은 저소득 가정 임신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모성 건강을 강화하며, 아동의 신체·정서적 건강 발달 증진에 있다. 보건서비스의 기본방향은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 후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임신부, 영유아, 아동 등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되 직접서비스¹³⁾, 연계서비스¹⁴⁾, 혼합서비스¹⁵⁾ 방식으로 구분해서 지역사회 자원 유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건강영역 사업의 내용은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신부·영유아 보충영양 프로그램이 있다.

복지영역의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의 생활안정, 삶의 질 개선,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서 건강영역과 마찬가지로 직접서비스, 연계서비스, 혼합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업내용으로는 학교 내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 및 관리한다.

교육·보육영역의 목적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보충적 서비스 측면에서 아동의 개인적인 발달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개별적 접근을 통해 아동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영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 읽어주기, 북스타트 등 발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통합서비스 제공 및 가족 지원 영역에서는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 영유아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 대상자에게 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건강상담, 보건 교육 등이 있다.

14)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의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민간병의원, 각종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5)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를 혼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표 IV-1-1〉 드림스타트 통합 서비스 내용

분야별	서비스 내용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프로그램
복지	학교 내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보육	영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 읽어주기, 북스타트 등 발달지원 서비스
통합서비스 제공 및 가족 지원 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 영유아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 지원

자료: <http://www.mw.go.kr>

라) 운영현황 및 관련 전문가

드림스타트 사업의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0~12세까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센터의 목적은 이 사업을 전담하는 팀조직을 갖추고 공적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 요구에 기반을 둔 건강·복지·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학대·방임 등 아동문제에 대해 공적 전달체계를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증진 및 공평한 기회보장을 목표로 컨트롤 타워기능을 담당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드림스타트 사업은 각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도 현재 전국 75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업 실시 지역은 다음과 같다(표 IV-1-2 참조).

〈표 IV-1-2〉 드림스타트 시범지역 현황

단위: 개

지역	기존센터		신규센터	계
	2007	2008	2009	
서울	중랑구	성북구		2
부산	사하구	진구	남구, 북구, 서부, 중구, 연제구, 동구	8
대구	수성구	남구	달서구, 동구	4
인천	계양구		남구, 동구, 중구	4
광주	북구, 남구	동구	광산구, 서구	5
대전		동구	서구	2

(표 계속)

지역	기존센터		신규센터	계
	2007	2008	2009	
울산	울주군			1
경기	시흥시, 포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8
강원	양구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횡성군, 화천군, 철원군	8
충북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	3
충남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청양군, 아산시	5
전북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4
전남	여수시, 강진군	보성군, 나주시	고흥군, 목포시, 순천시,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10
경북	영주시	포항시	김천시, 문경시, 경산시, 영천시	6
경남	김해시	합양군, 사천시		3
제주	제주	서귀포시		2
계	16	16	43	75

자료: <http://www.dreamstart.kr>

〈표 IV-1-3〉 드림스타트 구성원의 주요업무

영역별 인력 구분	주요 업무
드림스타트 팀장 (공무원)	- 서비스기획, 업무분장 조정 및 예산 총 관리 - 지역사회 자원개발 총괄 - 서비스 구매, 서비스 질 관리 - 사례 및 서비스 관리 총괄(사례회의의 주재)
보건분야 사례관리자 (공무원, 민간)	- 건강, 영양 등 방문 보건서비스 제공 - 지역 내 보건 연계망 구축 - 수행기관에 대한 건강서비스 조정 - 사례 및 서비스 관리자
보육분야 사례관리자 (공무원, 민간)	- 영유아 가정방문 유아 프로그램 수행 및 관리 - 포괄적 보육서비스 수행 - 지역사회 내 보육 관련기관 연계망 구축 - 사례 및 서비스 관리자
복지분야 사례관리자 (공무원, 민간)	- 지역사회 내 복지 관련기관 연계망 구축 - 복지 프로그램 기획, 관리, 조정 - 사례 및 서비스 관리자

자료: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2008). 2008 드림스타트사업 교육매뉴얼(정책자료 2008-01).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를 살펴보면, 지역실정에 따라 유휴공간 등 기존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1개소씩을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구성 인력은 사회복지, 간호, 행정 분야의 각 한 명이상 전담 공무원을 확보·배치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채용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대상아동의 서비스 담당자의 담당 업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도록 하겠다. 보건서비스 담당자의 경우 0~2세, 교육·보육 담당자의 경우 3~5세, 복지서비스의 담당자의 경우 학령기 아동을 주로 담당하나 연령별 주 담당자는 담당 연령 외 대상에 대해서도 영역별 서비스 담당자 과업지침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표 IV-1-3 참조).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가) 개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갈수록 확대되고 이들이 특정 지역과 학교에 밀집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교육복지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도시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사업은 농어촌에 대한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에 의해 출발한 정부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김정원·김성식·박인심·김도희, 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으로서, 중앙준비기획단이 구성되어 여기에 문화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여 교육·문화·복지가 연계된 도시 저소득 지역에 대한 교육복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초기 단계에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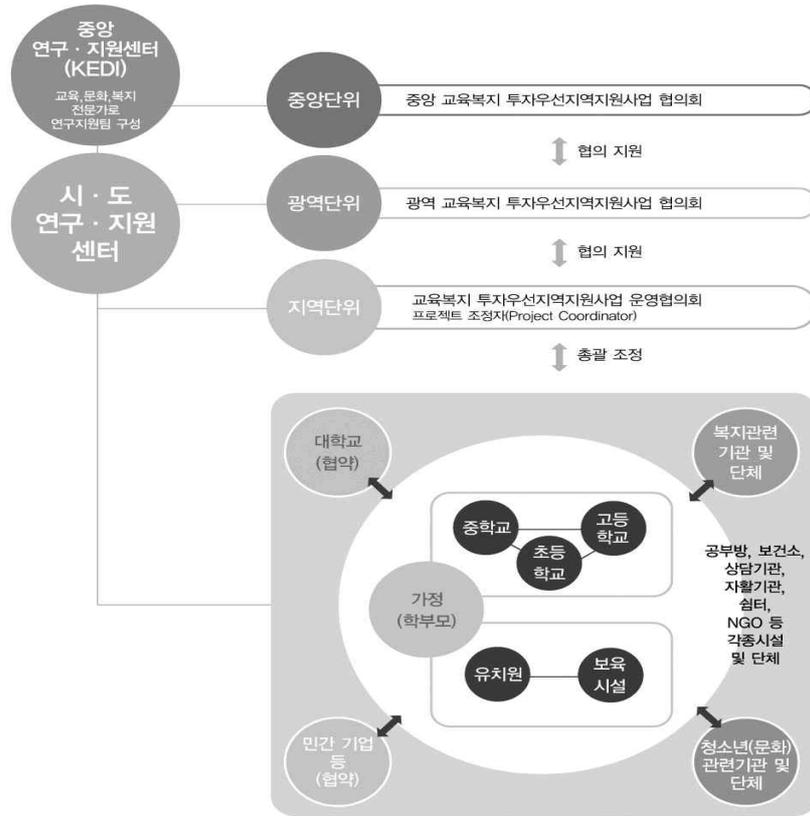
이 사업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일정 학령기에 갖추어야 할 기초학습능력, 스스로 학습을 주도해 나가는 능력, 타인과 적극적으로도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사회 내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을 구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께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식은 시·도 교육청과 시청, 지역교육청과 구청이 지역 단위에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함께 만나도록하며, 궁극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나 교육취약집단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가정, 학교, 지역이 함께 하는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야 하는 집단을 발굴하고 이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과 연결시켜 주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이들의 교육적 성취를 도모한다는 점이다(김정원 외, 2009).

나) 추진체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사업추진체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및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 관계 부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계획의 수립과 평가 기능을 가진다.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교육청, 시청,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연도별 세부 지원계획 및 기관 간 연계방안을 수립한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지역사회 기관 및 인사로 구성된 '사업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지원위원회로서 지역별 프로젝트조정자를 배치하고 있다. 사업의 전담팀은 교육복지사업전담팀장(해당 과장), 담당공무원, 프로젝트 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조정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외부기관 간의 연계를 담당하고 팀장을 보좌하여 사업 실무를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학교로 배치되며, 팀장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운영협의회 간사의 역할을 한다.

학교단위에서는 지역사회 핵심센터로서 기능이 강화된다. 학교 내에 교육복지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보건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팀으로 구성한다. 교육복지 전담 부서는 학생의 건강관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는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영유아를 지원하는 유치원, 보육기관은 핵심센터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지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는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민간 전문인력인 '유아교육복지전문가'를 고용하여 해당 지역의 유치원에 배치하고 있다. 이들은 저소득층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8명 유아교육복지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이미화 외, 2009)(그림 IV-1-2 참조).



[그림 IV-1-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08년 계속사업지역 지원계획(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다) 사업 내용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은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지원,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체험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출발점 평등을 위한 보육 및 영유아교육 지원, 지역네트워크와 연계한 보건·의료 등 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구분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0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 문해력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습결손 치유·예방, 학습동기 유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과후 수업, 주말·방학

학습 지원, 학습 준비물 지원, 유명인사 초청강연 등이 포함된다. 심리·정서발달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문화활동,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멘토링, 상담,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민간기업 연계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된 보건(목욕서비스, 안경 제공 등)·의료 서비스(치과 치료)를 지원하고, 지역 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민간 공부방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부모와 학교의 보호 없이 학교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영유아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서의 저소득 영유아 지원 사업의 방향을 알아보면,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건강지원,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정서지원, 초등학교 적응력과 소근육 협응 능력과 시공간 능력 및 주의집중력 등을 높이기 위한 인지발달지원, 초등학교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초등과의 연계, 가족 및 부모의 긍정적인 역할 강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을 위한 가족과 교사·지역사회 통합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으로 틀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제시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영유아 지원 사업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라) 운영현황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식지원자 등 기존 집중지원 대상자 이외에 새터민·다문화 가정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포함하며 학교를 거점으로 운영된다. 학교에는 초·중·고와 함께 유치원과 보육시설도 포함된다. 2008년도까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총 322개교이며 대상 학생 수는 307,490명으로 파악되었다. 2009년도에 신규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16개교이며, 2009년도 현재 유아교육기관은 총 484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유치원 314개, 보육시설 143개).

3)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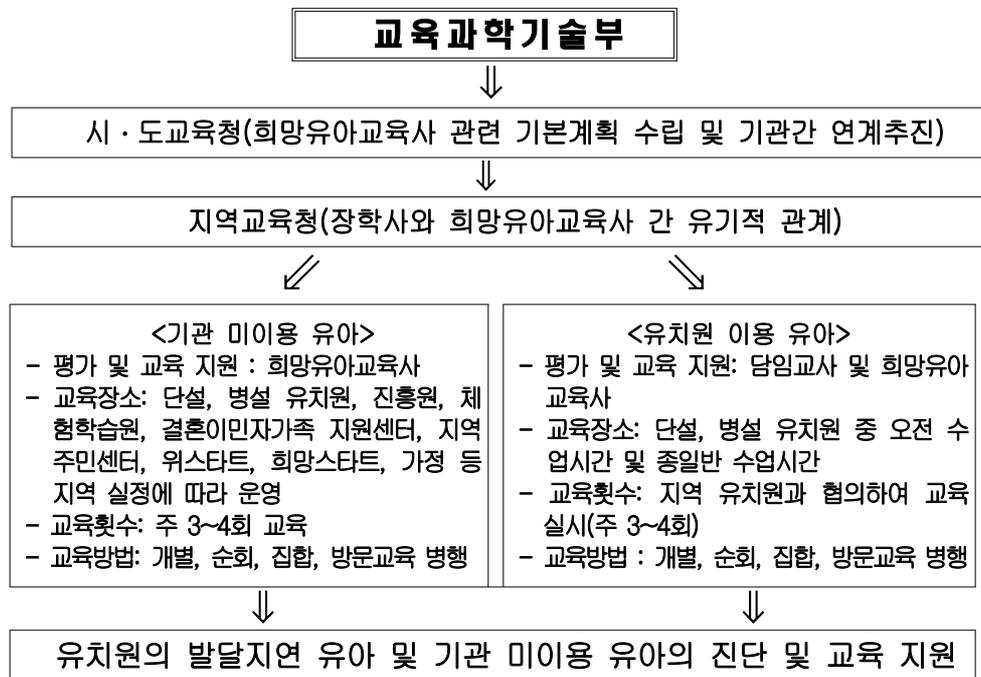
가) 개요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다문화 등 가정 배경에 따라 영유아가 유아기 시절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 능력조차 습득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발달지연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지원 서비스이다. 국가차원에서 생애초기에 인적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생애에 걸쳐 가

장 핵심적 능력인 언어·인지·사회·정서발달 진단 및 결손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이 교육에서 거의 방치되었던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유아교육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또래 유아들보다 부족한 분야에 대한 맞춤교육을 통해 정상발달 수준으로 끌어 올리게 된다.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미이용 유아 및 유치원 유아 중 발달지연 유아의 발달격차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을 지원하고 둘째, 발달지연 유아의 부족한 부분을 정상 유아와 같이 향상시켜 유아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학부모에게는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셋째, 희망유아교육사를 활용하여 발달지연된 유아의 발달격차 및 학습격차를 해소한다.

나) 추진체계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3]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추진체계

주 : 각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자료: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 추진계획(2009,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내부자료)

상위에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에서 희망유아교육사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간 연계 추진을 담당한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장학사와 희망유아교육사 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희망유아교육사는 기관 미이용 유아와 유치원 이용 유아에게 각각에 맞는 교육을 직접적으로 제공한다.

다) 사업내용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본학습능력 발달지연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에는 영유아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평가도구,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 영유아 부모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부모영유아 통합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 전달 주체인 원장, 원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연수를 실시한다. 각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V-1-4, 표 IV-1-5, 표 IV-1-6, 표 IV-1-7 참조).

〈표 IV-1-4〉 영유아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평가도구

평가도구 목적	-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영역의 연계성 있는 통합 평가가 가능하고, 교사가 일과 중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 영유아 발달 평가 도구 개발
평가도구 특징	-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관련 일상적인 유아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교사가 체계적인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구성 - 놀이 및 활동 중심 문항으로 구성 - 일상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발달을 다각적·역동적으로 평가
구성	- 교사용 지침서1권 - 발달평가도구 기록지(연령별 3장: 관찰형, 단서제시형, 과제제시형) - 과제 자료 11종

자료: 장명립(2009).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취학전 영유아 통합 지원을 위한 2009 희망유아교육사 연수 자료집**, 39-40.

〈표 IV-1-5〉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적	- 발달이 지연된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돕기 위하여 일반 학습의 담임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특징	- 특수 교육이 아닌, 예방 프로그램의 성격 - 발달상황 진단 후, 발달지연의 정도가 일정한 범위에 속한 유아에게 적용 - 일반 유아와 발달지연아를 동시에 지도할 수 있도록 활동계획안을 통합적으로 제시 - 발달지연아 지도에 꼭 필요한 주요 지원 전략(시각적 단서, 또래 모델링, 활동 단순화, 속도 조절 등) 포함

(표 계속)

구성	- 프로그램 자료집(교사용 지침서, 활동자료집 합본) ※ 활동 자료집(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영역별 30개, 총 120개 활동) - CD 1장 ※ 현장에서 용이하게 자료화할 수 있는 그림 자료 포함 - 보급 교구 2종
----	--

자료: 장명림(2009).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취학전 영유아 통합 지원을 위한 2009 희망유아교육사 연수 자료집**, 39-40.

〈표 IV-1-6〉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분	영역별 활동 프로그램	일반적인 부모역할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적	- 가정에서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 개발	- 유아기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의 지식, 태도, 기술 함양
프로그램 특징	- 부모와 0~만5세 영유아 대상 - 각 가정에서 실시 - 부모와 영유아, 그 외 가족 참여 -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와 영유아에게 적절한 활동 제공 및 활용 격려	- 0~만5세 영유아를 둔 부모 대상 -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사회기관)에서 실시 - 부모교육자, 부모 참여 -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가 원하는 주제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성	- 전체 프로그램 매뉴얼 - 영역별 활동집(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지원 활동 120개)	- 전체 프로그램 매뉴얼 - 부모교육자 강의지침서(20개 주제) - 부모용 소책자(20개 주제)

자료: 장명림(2009).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취학전 영유아 통합 지원을 위한 2009 희망유아교육사 연수 자료집**, 39-40.

〈표 IV-1-7〉 다문화가정 부모영유아 통합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적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영유아의 언어(한국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부모-영유아-교사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언어적 자극 및 경험 보충, 유치원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특징	- 부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 - 한국어 구성 원리 교육 - 한국문화 및 생활문화를 포함 - 한국어 수준 측정을 통한 수준별 학습 - 놀이, 챗트 및 노래를 통한 한국어 교육
구성	- 한국어교육 활동집 9권 ※ 유아용, 어머니용, 유아-어머니 상호작용별로 1,2,3수준 각 1권씩 - 교사용 지침서 9권 ※ 유아용, 어머니용, 유아-어머니 상호작용별로 1,2,3수준 각 1권씩

자료: 장명림(2009).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취학전 영유아 통합 지원을 위한 2009 희망유아교육사 연수 자료집**, 39-40.

라) 운영현황

희망유아교육사 교육지원의 이용대상자는 기관 미이용 유아 및 유치원 재원 유아 중 발달지연 유아로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관 미이용 유아의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지역주민센터, 결혼이민자가족센터(다문화센터), 구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관 미이용 유아를 선발한다. 유치원 유아 중 발달지연 유아는 유치원 재원아 중 발달지연 유아를 선정(발달 평가도구의 단서 제시형 평가로 70점 이상~95점 이하의 유아 선정)한다. 또한 희망유아교육사가 소속 유치원을 근거로 하여 재원아 또는 재원아의 형제자매 등 개별적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주변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팀에서 실시한 희망유아교육사 연수를 통해 그들의 업무 애로사항 중 가장 힘든 부분이 대상아동 선정에 관한 부분이었다.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이 좀 더 체계적이고 높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에 관한 매뉴얼 또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정부 지원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의 요약 및 소결

이상에서 정부 지원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 중 영유아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의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각 센터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상이하며 실시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여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 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각 센터의 담당 보육조정자 혹은 보육교사의 재량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영유아나 부모대상의 활동집이나 프로그램, 매뉴얼이 없었으나 최근 저소득 가정의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집단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이후 보급될 예정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실시하기 보다는 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단위사업으로 각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별로 종일반 프로그램운영이나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다른 시도지역과 달리 유아 교육복지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 지역교육청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전문인력에 따라 인지, 언어, 정서 등의 활동에 대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시하거나 변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체 프로그램은 없으나 지역사회의 대학과 연계하여 집단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지원사업에서는 고유의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유아교육복지전문가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에서는 발달지연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교사가 기관에서 집단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개별유아에게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역별 활동 프로그램은 각 가정에서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모역할 지원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집단용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반 중산층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영역발달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가정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정에서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취약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살펴보면 영아를 대상으로 한 기관용 프로그램, 유아대상의 개별 프로그램,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별지도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지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의 많은 인력들은 지도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대상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돕고 있는 하나센터의 경우 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와 그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영아대상의 기관 프로그램, 유아용 개별 프로그램, 부모대상 개별지도 프로그램 및 양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북한이탈주민 부모 포함)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기관용),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개별용), 부모교육용(개별용, 집단용, 양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형 또는 수정하여 시범사업에 적용하였다.

나. 지자체 및 민간주도 사업

1) 위스타트

가) 개요

과거 우리사회에서 빈곤이 단순히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일정 기간 생활의 불편을 의미하였다면, 오늘날에는 단지 현재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미래 기회의 봉쇄로 여겨지고 있다. 전적으로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미래 생활의 기회가 결정되는 아동들에게 가정의 빈곤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서 이런 현상의 반복과 구조화는 사회적 빈곤의 대물림마저 양산하게 된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이 가정의 빈곤으로 인해 겪는 좌절감과 희망의 상실은 빈곤문화를 재생산하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촉발할 우려마저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우리사회가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동 하나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이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개발할 기회마저 박탈당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사회 미래는 가정환경과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양육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과 서비스는 문제가 심화된 후에 단편적으로 개입하는 사후대처적이고 범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빈곤한 아동이 우리사회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건강·복지·교육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위스타트 사업이 시작되었다.

나) 추진체계

위스타트 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도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위스타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보건·복지 영역의 정책 실무자로 구성된 도 '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도의 운영위원회에 상응하여 시 차원에서의 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시 차원의 마을 운영위원회가 마을 단위의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마을 단위에서도 마을 운영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 당 1개 마을만이 시범마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형편을 고려하여 시 차원의 마을 운영위원회가 마을

단위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위스타트 마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사업을 추진할 추진중심체가 필요하다.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그러한 사업의 중심추진체로 마을에 위스타트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그 센터의 핵심 인력으로는 맞춤형 서비스를 담당할 연령별·영역별 사례관리 팀을 투입하였다(위스타트운동본부, 2009). 위스타트 사업 각 추진주체의 구성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V-1-8 참조).

〈표 IV-1-8〉 위스타트 마을 추진주체 구성 및 기능

추진주체	구성	기능
도 '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차원에서 지자체의 위스타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보건 영역의 정책 실무자 위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 경기도 부교육감, 보건복지국장, 위스타트 마을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교육·복지·보건)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에 자문 - 위스타트 마을 선정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시·군 '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차원에서 위스타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보건 영역의 실무자 위주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분야별(교육·복지·보건)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 자문 - 지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지자체 내의 광역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의 방안 마련 등
마을별 '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교육·보건 통합 서비스체계를 위한 지역 내 연계망 구축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인사의 참여를 유도 -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사업지원, 일반 학부모·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 - 참여인사: 시(구)의원, 동장, 위스타트 팀장, 복지관 관장, 보건소장, 학교장, 아동도서관장, 자원봉사센터장, 지역주민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유아 교육·보육시설장, 보육 정보센터장 - 의장 위스타트 마을의 민·관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 중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실정에 맞는 서비스 연계망 구성, 서비스 공급자간 역할 분담, 위스타트 마을의 지역별 사업 우선순위 설정 등 지역사회 내에서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설정 - 지역 내 민·관 협력 공동체 구성 방안에 관한 심의 -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옹호 자로써 외부 자원 연계 방안에 관한 심의 및 계획 수립 - 마을별 위스타트 마을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지역 아동의 복지·교육·보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표 계속)

위스타트 마을 실무지원 위원회	- 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보조하고 마을 위스타트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스타트 마을 실무지원 위원회를 구성·운영 - 실무지원 위원회는 위스타트 팀장이 위원장이 됨	- 마을 내 복지·교육·보건 분야별 실무자와 변호사, 의사, 약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등 마을 내 전문 인력으로 구성 - 실무지원 위원회는 사례연계, 사례지원 방안, 전문적 서비스 등에 관하여 위스타트팀을 지원하고 서비스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 기능을 담당
------------------------	---	---

자료: 이봉주·양수·김명순(2006).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길잡이: 최종보고서.

다) 사업내용

위스타트 사업은 복지·보건·보육/교육으로 나누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지: 통합적 사례관리·학교사회복지·방과후 프로그램

- 포괄적 욕구를 가진 빈곤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프로그램을 구성
- 지역 내 아동과 가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욕구파악과 현장 접근형 서비스 증가 모색
- 분야별 서비스, 기관별 서비스의 연계·조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운영
- 지역 내 빈곤아동과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민관통합의 팀 접근으로 실시
- 실무자 대상 사례관리 교육실시
- 사례관리 양식개발과 지침 제공
- 사례회의를 통한 종합적 서비스 계획의 모니터링 체계 수립
- 위스타트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고 위스타트센터 사업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개발된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 적용
-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방과후 교실을 통해 제공

(2) 보건: 가정방문간호 사업

- 빈곤아동과 건강하게 태어나고 성장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보건관리 기능 활성화
- 건강 및 발달사정, 교육과 지지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
- 신혼부부와 임신부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한 임신, 출산 도모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통하여 성장발달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및 관리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실재적, 잠재적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성장발달 도모
-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증진 및 성장발달에 대한 어머니 육아능력, 발달촉진 가정환경조성 능력 증진
- 영유아 사망원인 1순위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환경 조성

(3) 보육/교육: 영아 교육 프로그램

- 대상: 만18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와 영아의 양육자
-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및 관심의 부족, 그리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영아를 생애초기부터 적절하게 양육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저소득층 부모(또는 주양육자)와 영아를 위해서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영아와 활동을 해야 하는가를 모델로 보여주어 교사가 다녀간 후에 부모가 직접 한 주간 영아와 놀이하는 법을 해보도록 격려하는 프로그램 시행
- 교육 활동은 총 53회와 1년여의 기간에 실시
- 활동의 내용은 6개 활동으로 구성: 인지활동, 언어활동, 신체활동, 음악·미술 활동, 기본생활습관, 실외 활동
- 부모교육을 포함

(4) 위스타트 유아용 기관방문 소집단 프로그램

- 대상: 만3, 4, 5세의 취학전 유아의 혼합연령 구성집단
- 유아를 대상으로 위스타트 기관방문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문하여 그림책을 활용하여 3~7명의 소집단으로 활동을 진행
- 활동에 사용되었던 그림책은 유아 1명당 1권씩 가정에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교육환경을 증진하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책을 읽도록 격려하며 부모가 함께 유아의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 교육활동은 총 52회로 1년여의 기간에 실시
- 활동의 내용은 크게 그림책 읽기 활동과 그림책 읽기에 대한 확장 활동으로 구성
- 확장 활동은 언어, 수·과학, 기본생활습관 관련 활동으로 구성

라) 운영현황 및 관련 전문가

위스타트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는 0~12세 저소득층 아동과 그 부모이며,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동, 가족,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이다. 2009년 1월 현재 현재 운영 중인 위스타트 마을은 서울 2곳, 경기도 12곳, 강원도 6곳, 전라남도 3곳으로 총 23곳과 아동복지센터 3개소(청주, 전주, 부산)이다(표 IV-1-9참조).

〈표 IV-1-9〉 전국 위스타트 운동 사업장 현황: 23곳(2009년)

번호	지역	마을명	개소일	
1	서울(2)	강북마을(번2, 3, 5동)	05.12.13	
2		강서마을(방화3동)	05.11.28	
3	성남시	목련마을(야탑3동)	04.11.17	
4		산성마을(산성동)	07.9.20	
5	군포시	산본마을(산본1, 2동)	05.2.22	
6		당동마을(군포1, 2동)	07.2.6	
7	경기도	초지마을(초지동)	05.3.28	
8		본오마을(본오1동)	06.8.1	
9		고양시	고양마을(주교동)	06.7.6
10		광명시	광명마을(하안3동)	06.4.12
11		구리시	구리마을(수택2동)	07.2.23
12		양주시	회천마을(회천2동)	06.2.10
13			광적마을(광적면)	07.10.11
14	수원시	수원마을(우만1동)	06.6.28	
15	강원도	원주시	원주마을(태장동)	08.6.19
16		삼척시	삼척마을(성남동)	08.12.30
17		속초시	속초마을(청호동)	05.11.3
18		춘천시	춘천마을(효자동)	08.7.22
19		정선군	정선마을(함백, 예미)	05.11.3
20		철원군	철원마을(화지, 월화, 관전)	05.11.3
21	전라남도	광양읍	광양마을	07.7.5
22		장흥읍	장흥마을	07.7.13
23		진도군	진도마을	07.7.13

자료: <http://westart.joins.com>

위스타트 사업은 위스타트센터에서 실무가 이루어진다. 즉, 위스타트 마을 구축을 위한 추진중심체로서 센터 내에 영역별 팀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위스타트 마을 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팀의 구성은 최소한 위스타트 팀의 총괄을 담당할 사회복지사 1인(팀장), 간호사,

보육교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각 1인으로 한다. 위스타트 팀은 가구별,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스타트 팀이 기획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 위스타트 팀이 각 아동/가구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사례별 서비스 구매자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 위스타트 팀은 지역 내의 자원들을 연계하여 빈곤아동 지원 안전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스타트 마을 사업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지원·연계할 위스타트 팀은 전문성의 바탕 위에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위스타트 팀은 외부위탁 형식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 전달체제로 구성한다. 각 팀의 업무와 인원을 구성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IV-1-10 참조).

〈표 IV-1-10〉 위스타트 팀구성원 및 주요 업무

구성원	직급	전문영역	주요 업무
위스타트 팀장 1인	6급	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경험자)	- 빈곤아동가구 총괄사례관리, 총괄책임 및 예산관리 - 지역자원 발굴·연계
건강조정자 1인	7급	간호	-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제공 수행/관리 - 지역 내 보건 연계망 구축 - 응급지원 서비스
보육·조기교육 조정자 1인	7급	보육	- 위스타트 보육·조기교육 센터 관리 - 가정방문 조기 교육 수행/관리
복지조정자 1인	7급	복지	- 학교사회복지 지원 - 학교 내외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자원봉사자 관리

자료: 위스타트운동본부(2009). **창립 5주년 기념 We Start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세계의 스타트 프로그램: 빈곤아동을 위한 혁신적 접근**. 서울: 위스타트운동본부.

2)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가) 개요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는 빈곤아동 문제와 예방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던 삼성복지재단이 “달동네 저소득 빈곤탈출”이라는 삼성보육사업의 근본취지를 위해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위한 포괄적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1999

년부터 2004년까지 6년에 걸쳐 아동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여성학 전공자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되, 부모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포함하는 것이다(김명순·이미화, 2005).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의 주목표는 사회경제적 또는 가족의 문제로 인해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유아에게 우수한 보육환경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경험을 집중적,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달 및 학습의 뒤쳐짐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장과 발달의 최적화를 꾀하고자 함이다. 또한 부모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역할을 향상시키고 가족이나 부모가 유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유아나 가족의 건강 및 영양,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발굴,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이은혜·김명순·전혜정·이정림, 2008).

나) 추진체계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는 삼성어린이집을 거점기관으로 영유아, 가정, 지역을 연계하는 모형이다(그림 IV-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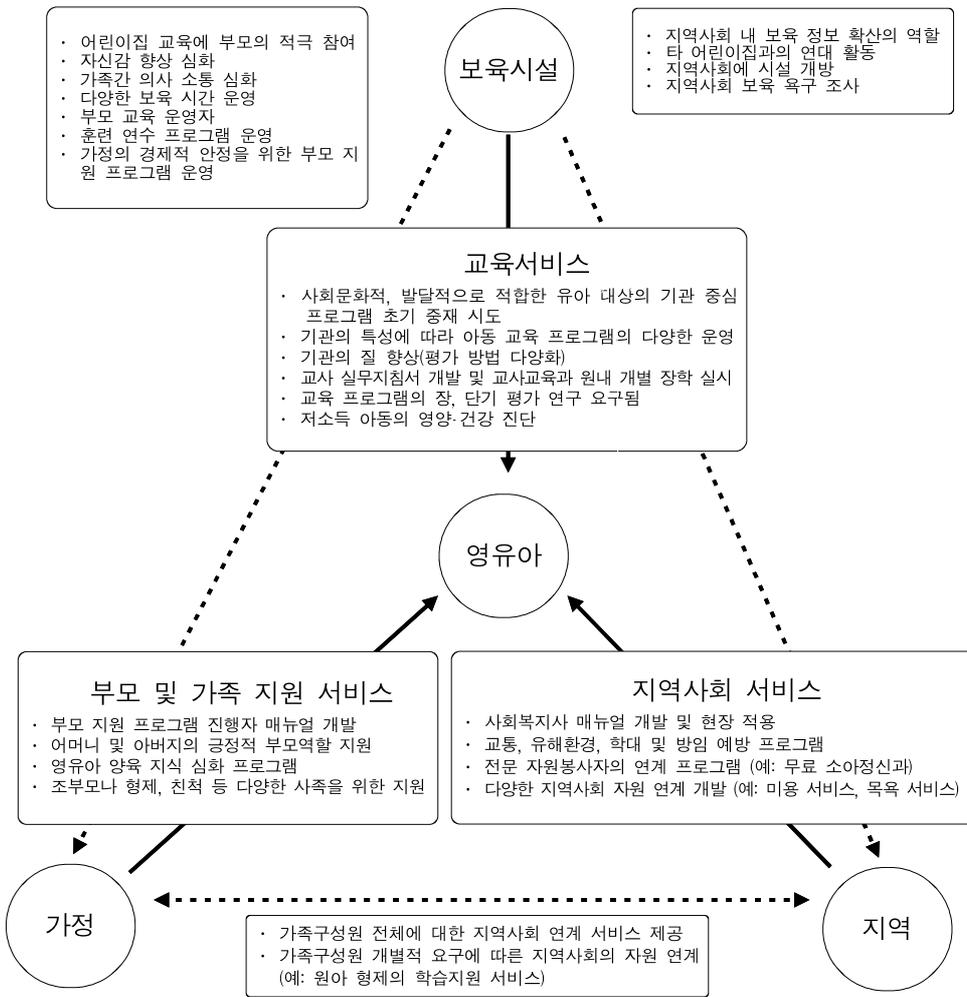
다) 사업내용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는 아동 지원 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교사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아동 지원 서비스

아동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아동의 행동이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미흡한 학습영역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또는 일반 보육활동에 추가하여 제공한다. 즉 저소득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놀이몰입, 기본생활습관 증진, 언어 및 인지발달 증진, 친사회성 및 학습에 대한 능동적 참여 등을 촉진하는 보육활동이 교사용 매뉴얼(김명순·이미화, 2005)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 아동 지원 서비스로는 책읽기 멘토링 프로그램, 이미용 서비스, 특기지원 등 각 가정이나 유아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시한다. 한편 저소득

아동의 이해와 흥미에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원내·외에서 교사 교육훈련 및 장학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구체적인 아동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IV-1-11 참조).



[그림 IV-1-4]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체계도

자료: 김명순·이미화(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아동교육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표 IV-1-11〉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아동교육 프로그램 목표·내용·교수방법

목표	내용	교수방법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으며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감정을 조절한다. - 자신감을 갖고 성공하고자 노력한다. - 자기 자신을 스스로 표현한다. - 끝까지 과제를 완수한다. - 어려움이 있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들의 발달수준을 이해하고 그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하고 건강하며 교육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3. 유아의 흥미에 맞게 놀이 활동을 계획하여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놀이를 안내하고 개입하여야 한다. 4. 유아를 관찰하고 정확하게 판단 평가하여 유아 개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5. 온화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유아와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 6. 기본생활습관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7. 사회적 관계와 태도, 행동에 모델이 되고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8. 기본적인 개념과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흥미로운 활동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놀이에 몰입하며 협동 및 극화놀이를 즐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의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 놀이를 스스로 선택하고, 지속하며 확장한다. - 다양한 놀이에 즐겁게 참여한다. - 협동 놀이를 즐긴다.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형성하고 자조능력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규칙을 알고 실행한다. - 자신의 책임을 알고 수행한다. - 요구를 조절한다. - 손이나 이를 닦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 주의 깊게 필요한 이야기를 듣는다.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견해를 상황에 적절히 전달한다. - 발음을 정확하게 보다 긴 문장으로 말한다. - 다른 사람의 지시를 듣고 이해한다. 	
읽고 쓰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 - 책을 다루는 방법이나 책과 관련된 활동에 흥미를 갖는다. - 그림책 이야기나 동시를 이해한다. - 글자에 흥미를 가지고 친근한 단어(자신의 이름 등)를 쓴다. 	
기본적인 수·과학 개념을 형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수 개념, 일대일 대응을 안다. - 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많다/적다 등 사물의 수를 비교하는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 도형, 색깔, 방향, 위치, 크기, 순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어휘를 이해한다. 	
친사회성을 증진하여 또래와의 친근한 관계를 지속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한다. - 친구들과 서로 협동한다. - 친구의 어려움이나 감정을 공감하고 도움을 준다. 	

(표 계속)

목표	내용	교수방법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을 즐긴다 -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9. 유아들 부모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가지고 부모를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10. 유아, 가족, 지역사회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신체가 건강하며 대·소근육이 정교하게 조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운동기술을 발달시키고 운동하길 즐긴다. - 대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하며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 손과 눈의 협응이 이루어지며, 소근육 사용에 힘이 있고 도구(가위 등)를 정교하게 사용한다. 	

자료: 김명순·이미화(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아동교육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2) 부모 지원 서비스

부모 지원 서비스는 삼성어린이집에서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현재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최적화하고자 한다. 부모 지원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진행자 매뉴얼(김희진, 2005)에 따라 각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부모의 요구와 어린이집의 자원이나 상황에 기초하여 부모개별 상담, 원예활동, 가족문화 체험활동 등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소집단이나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부모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관마다 매우 다양하나 부모가 영유아를 잘 양육하도록 돕는 것과 온 가족의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 등 두 가지 상위목적이 반영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기초로 각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다음은 그 일부 사례이다(표 IV-1-12 참조).

〈표 IV-1-12〉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부모 지원 프로그램 사례

기관명	목적·목표	프로그램내용
A 삼성 어린이집	1. 부모와 영유아 간의 친밀감 형성 2.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제공 3. 영유아가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부모의 능력 향상	- 일상대화의 분석 - 효과적인 대화 방법 - 대화의 기본 태도 - 영유아 훈육의 올바른 태도 - 성교육

(표 계속)

기관명	목적·목표	프로그램내용
B 삼성 어린이집	1.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 2. 영유아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여 영유아 양육을 지원함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나의 자화상 그려보기 - 영유아 양육 정보 - 부모로서의 가치관 명료화 - 영유아의 성교육 - 부모로서 장점/자신감 찾기 - 문화체험: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 나들이 - 함께 가는 길: 사회적 지지망 확인, 스트레스 완화
C 삼성 어린이집	1. 부모로서의 자신감 향상 2.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다른 사람과 즐겁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름. 3. 부모-영유아 간의 관계 강화 4. 부모들 간의 비형식적인 지지와 정보교환 촉진 5. 어린이집-가정 간의 유대강화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 친화의 시간: 기관과 부모, 참여한 부모들 간 친밀감 형성하기 - 동화 활동 워크숍 - 조부모-손 영유아 가정에서의 조부모 역할 워크숍 - 부모-영유아 대화기법 - 놀이동산 가족나들이 - 사랑의 우체통: 편지를 통해 교사와 영유아에 대해 상담하기 - 영유아와 함께 송편 만들기 - 도자기 굽기 가족 나들이 -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영유아에게 줄 선물 만들기

자료: 김희진(2005). **현대 부모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포괄적 관점**. 서울: 창지사.

(3)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지역사회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투입되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매뉴얼(삼성이동교육문화센터, 2006)이 개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문제를 나타내는 아동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교사, 원장과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이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까지 확장하여 다각도로 찾고자 노력한다. 지역사회연계 서비스는 어린이집 기관 내에서만 문제 해결을 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변화하여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전문가나 기관,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어린이집 아동이나 부모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자 노력한다. 이외에 간호사는 저소득 아동의 건강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아동 지원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연계한 사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IV-1-13 참조).

〈표 IV-1-13〉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사례

프로그램	목적	대상	장소 (연계되는 지역시설)	수행인력
언어치료 프로그램	언어발달이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진단 및 평가를 통해 언어발달지체 및 언어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그 유형과 언어수준에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언어지도와 언어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사례회의를 통해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된 아동	김OO 언어행동교육원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자원봉사자
놀이치료 프로그램	아동이 치료사와 지속적인 안정관계를 통해 타인에 대해 긍정적 감정이 형성되고 정서적 불안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	저소득층 아동 중 놀이지도가 필요한 아동	OO아동가족연구소 OO종합복지관 놀이치료실	사회복지사 놀이치료사 교사
특기지원 프로그램	특정분야에 소질을 보이는 아동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소질을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 주변의 교육기관을 연계하여 특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만5세반 저소득층 아동 중 의뢰된 아동	OO예술 피아노 학원 OO미술학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자료: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2006). 포괄적 보육 서비스: 지역사회연계, 삼성 영유아 프로그램 2. 서울: 다음세대.

라) 운영현황 및 관련전문가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의 주 대상자는 0~6세 유아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 조항). 운영기관은 삼성어린이집으로 현재 삼성어린이집은 전국 44곳(직장어린이집 11곳 포함)으로, 서울, 경인(인천), 강원, 중부, 호남, 부산, 영남, 제주 지역 등 전국 도시지역에 주로 설립되어 있다. 이 중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 삼성어린이집은 2008년 기준 18곳이다.

삼성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종과 구성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V-1-14 참조).

〈표 IV-1-14〉 삼성어린이집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직위	역할
원장	보육시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선임, 주임교사	원장 다음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직위
보육교사	아동 보육
사무원	저소득 가정의 제반서류 및 보육료 감면, 면제혜택 서비스 처리
양호교사	저소득층 원아의 건강검진, 구강검진, 보건소 연계활동
영양사	식단구성
취사원	식사조리
사회복지사	포괄적 보육 서비스 실현을 위한 연계 및 협력 활동

3)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가) 개요

2006년 삼성사회봉사단의 후원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 사업으로 시작된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연계와 통합적 사례관리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의 서비스 체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등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해당 지역 아동보호와 지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아동과 가족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 친구, 친지 등과 같은 비공식적 자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공분야 또는 전문분야 간의 전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한 마을의 아이들을 서로 돌보고 키우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나) 추진체계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 지정기탁사업으로 희망센터를 중앙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앙차원 사업지원단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내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업집행에 있어 주요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안은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지원사업 사업지원단을 통해 각 지역 희망센터로 전달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 11개 자치구에서 12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IV-1-5 참조).



[그림 IV-1-5]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추진체계

자료: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2008),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사례집**. 서울: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다) 사업내용

(1) 서비스 영역별 내용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주요사업은 아동,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를 위해 2006년 1차년도 사업수행경험을 토대로 아동영역 60개 서비스, 가족영역 72개 서비스, 지역사회연계사업, 전문지원 12개 서비스로 표준화 하여 아동과 가족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표 IV-1-15 참조).

서비스 제공 현황을 지역유형별로 알아본 결과, 모든 지역의 센터에서는 아동지원 사업과 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아동지원사업 중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지역사회연계사업은 도시분산형 센터의 사법/법률 서비스 또는 농어촌형 센터의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한 홍보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밀집

형 센터의 경우 지역사회연계 사업 관련 서비스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1-16 참조).

〈표 IV-1-15〉 제공된 서비스 영역

구 분		단 위	
이동지원사업	기본생활지원	음식/영양	아침·점심·저녁 식사 지원, 간식 지원, 반찬 지원 등
		주거	주거 집기 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생활품 지원, 가사 지원 인력 파견, 이동(차량, 동행 등) 지원, 일상생활훈련 등
	심리정서 지원	정서/행동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특수치료, 놀잇감 지원, 가족회의 등
	발달(문화) 지원	학습	학습지도, 학습지 제공, 특기 교육, 교사 상담, 학습능력 평가, 학습기자재 지원 등
		여가	문화공연 관람, 아동캠프, 특별문화활동(체험학습 등), 가족문화활동 지원, 가족캠프/여행 지원, 가족행사 지원, 동아리 활동 등
	건강지원	장애/질병	질병치료/재활치료 지원, 일반/특수검지, 예방접종, 약품지원, 약 복용지도/모니터, 장구 지원
		건강관리	건강예방교육, 건강수첩 제공, 영양교육, 성교육 등
	보호지원	보호	주간보호, 야간보호, 주말보호, 등하교 지도, 재가 보호, 긴급일시보호, 간병보호 등
		양육	부모교육, 아동발달보고, 양육코치 등
가족 지원 사업	경제지원	소득	기초수급 지정 지원, 의료보호 지정지원, 후원금 지원, 자활사업참여 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
		고용	취/창업 활동 지원, 취/창업 교육 지원 등
	사회적 관계 지원	또래관계	또래집단상담, 또래문화활동, 또래상담교육 등
		그 밖의 관계	자조모임활동지원, 사회적 서비스 이용지원(정보제공, 옹호, 관계자 면담 등), 사회기술훈련 등
	기타	사회적 서비스	법률상담, 법률 전문가 알선, 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연계 지원사업	사회복지서비스지원, 사법/법률서비스지원, 교육/훈련 서비스지원 자발적 모임지원,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전문지원 사업	전문지원	주민교육/정보제공	
	사례관리자 지원	교육/슈퍼비전/평가	
	협력자원 지원	교육/회의/공동사업	

자료: 강미경(2008).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지원사업 현황과 전망.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적 아동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9-26.

〈표 IV-1-16〉 지역유형별 서비스 제공현황

서비스영역	지역유형 서비스내용/센터	도시밀집				도시분산				농어촌			
		가양	광복	상리	한라	관악	광남	능곡	신림	중랑	목포	제주	포항
아동지원	기본생활	식사, 영양, 신변처리	○	○	○	○	○	○	○	○	○	○	○
	심리/정서	심리, 정서, 행동	○	○	○	○	○	○	○	○	○	○	○
	발달	학습, 여가, 생활, 관계형성	○	○	○	○	○	○	○	○	○	○	○
	건강	질병, 장애, 성장, 기본건강		○	○	○	○	○	○	○	○	○	○
	보호	보호, 방임, 학대				○			○				
	사회적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	○	○	○	○	○	○	○	○	○	○
가족지원	기본생활	식생활, 주거, 생활 생계	○	○	○	○	○	○	○	○	○	○	○
	심리/정서	심리, 정서, 행동, 폭력			○	○	○	○	○	○	○	○	○
	건강	장애, 질병, 일상건강		○	○	○	○	○	○	○	○	○	○
	경제	소득, 고용		○	○	○	○	○	○		○	○	○
	가족기능	가족구조, 양육, 지지, 보호, 여가	○	○	○	○	○	○	○	○	○	○	○
	사회적관계	대인관계, 친척관계, 타인들과의 관계	○	○	○	○	○	○	○	○		○	○
지역사회연계	사회복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지원					○						
	사법/법률	사법/법률서비스 이용 지원					○	○	○				
	교육/훈련	교육/훈련서비스 이용지원											
	건강/보건	건강, 보건,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 지원											
	관계/모임	종교, 지역사회 모임지원				○		○					
	기타 서비스	기타사회서비스 이용 지원(예: 홍보)			○			○	○		○		○

자료: 강미경(2008).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지원사업 현황과 전망.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적 아동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9-26.

(2) 사례관리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는 지역아동의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를 표방하는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에서는 사례의뢰가 요청되면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개입수준과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면담과 관찰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실무자 회의 거쳐 사례 대상으로 결정하게 된다.



우리아이 희망센터에서 지난 3년간 실행한 사례 수는 1,463명이었다. 사례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였으나 초등학생 비율이 약 90%를 차지해 이 사업의 주요 대상자가 아동임을 알 수 있다(표 IV-1-17 참조).

〈표 IV-1-17〉 사례 아동 현황

단위: 명(%)

학령구분	남	여	계
유치원/어린이집	33	19	52
초등학교	741	582	1,323
중학교	19	26	45
고등학교	5	4	9
미취학	15	5	20
기타	4	3	7
미상	4	2	6
사례 수(%)	821(56.1)	641(43.9)	1,463(100.0)

라) 운영현황 및 관련 전문가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전국 12개 거점센터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빈곤·학대·보호·발달 등의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과 그 가족을 포함한다.

〈표 IV-1-18〉 이용 대상자 수

단위: 명

나이	성별	남		여		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7세 이하		64	6.4	30	30.0	94	9.4
8~10세		267	26.6	209	20.9	476	47.5
11~13세		218	21.8	185	18.5	403	40.2
14~16세		12	1.2	14	1.4	26	2.6
17세 이상		1	0.1	2	0.2	3	0.3
계		562	56.1	440	43.9	1,002	100.0

그러나 연령, 빈곤 상황과 같은 특정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서비스 이

용 아동은 남자 아동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아동 대다수인 879명(87.7%)이 '8~13세까지로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18 참조).

2008년 6월까지 희망센터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가족유형은 양친부모가족(32.4%), 한어머니가족(27.8%), 한아버지가족(12.3%), 조손가족(17.4%)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밀집형과 도시분산형 센터의 경우 양친부모가족과 한어머니가족의 비율이 모두 30% 이상이며, 한아버지가족(각각 14.5%, 13.1%)이 조손가족(각각 10.8%, 9.4%)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농어촌형의 센터는 조손가족의 비율이 41.1%, 양친부모가족의 비율이 26.9%에 해당하였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빠른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가족해체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표 IV-1-19 참조).

〈표 IV-1-19〉 이용 대상자 가족 유형¹⁶⁾

단위: 명(%)

가족 유형	지역 유형	도시밀집형		도시분산형		농어촌형		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양(친)부모가족		147	(31.8)	222	(35.9)	91	(26.9)	460	(32.4)
한어머니가족		139	(30.1)	201	(32.5)	54	(16.0)	394	(27.8)
한아버지가족		67	(14.5)	81	(13.1)	27	(8.0)	175	(12.3)
조손가족		50	(10.8)	58	(9.4)	139	(41.1)	247	(17.4)
소년소녀가구주가족		1	(0.2)	6	(1.0)	5	(1.5)	12	(0.8)
위탁가족		8	(1.7)	12	(1.9)	14	(4.1)	34	(2.4)
결측		50	(10.8)	38	(6.1)	8	(2.4)	96	(6.8)
계		462	(100.0)	618	(100.0)	338	(100.0)	1,418	(100.0)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사업지원단의 인력은 단장 1명, 팀장 1명, 복지사(계약직) 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역 희망센터에는 팀장을 포함하여 3~4명의 전담사례관리자가 배치되어 총 36명이 활동하고 있다.

4) SB7시소와그네

가) 개요

SB7시소와그네는 국내 아동지원사업 중 가장 최근에 생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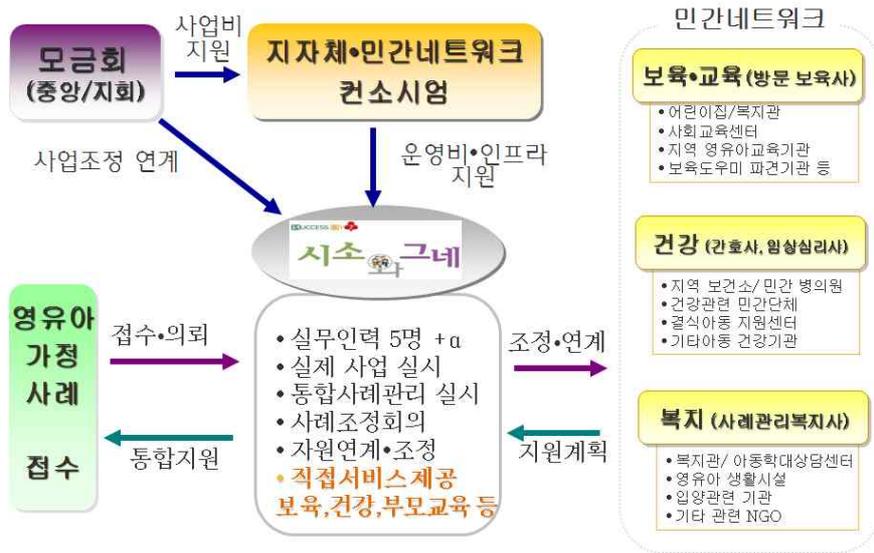
16) 우리아이 희망센터가 설치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밀집형', 도시의 일반 주택 지역이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분산되어 있는 '도시분산형', 그리고 '농어촌형'으로 구분함.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취학전(0~7세) 영유아와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주는 통합적 지원 사업의 형태로 사업대상이나 지원내용 면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구체적이 내용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지만 그 점은 시사점에서 언급하도록 하기로 하고 먼저 시소와그네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소와그네라는 로고에 담겨 있는 함축적 의미를 풀어보면, 시소란 신체·심리·정서가 균형을 이룬 아이들로 함께 키워내고, 그네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 높은 공평한 인생 출발을 위해 지역사회가 밀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http://cafe.daum.net/sbseven7>).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빈곤층 영유아에게 건강·복지·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둘째,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 경로를 제시하여 가정의 기능을 강화시키며, 셋째, 지역사회 예방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7세 이전 아동은 누구나 공평하게 양육·교육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공평한 출발의 기회보장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이라 할 수 있다.

나) 추진체계

SB7시소와그네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중점 전략 사업으로서 지자체와의 컨소시엄 형태의 민간네트워크 체계를 중점적으로 형성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중앙에서는 사업 총괄 기획 및 자원개발 및 예산 지원, 전국 홍보 및 지역 홍보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며, 지회에서는 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지역단위 사업 진행사항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자체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민간복지네트워크 컨소시엄에서에서는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지역 자원 개발 및 민간 기관의 협력 조정을 담당한다. 민간네트워크에서 지원하는 지역 인프라는 크게 보육·교육영역, 건강영역, 복지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자체 및 민간복지네트워크컨소시엄의 지원은 사업거점 기관인 각 지역 시소와그네센터로 전달되어 지역 내 대상자 선정, 지역조사, 통합사례관리, 직·간접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내 실질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내 사업 홍보 및 자원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그림 IV-1-6 참조).



[그림 IV-1-6] SB7시소와그네 사업 추진체계

자료: SB7시소와그네(2008). 시소와그네 마포센터 공청회 자료집. 서울: 시소와그네.

다) 사업내용

SB7시소와그네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한 영유아 사업과 가족의 힘을 키워주기 위한 가족사업, 다각적인 영유아 지원을 위한 지역 사회 조직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우선, 영유아 사업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의료자원 체계를 활용한 가정방문 건강증진 지원,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통합 지원, 치료전문기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인지정서 지원,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른 보육·교육 지원, 보육기관 연계활동을 통한 입학 전 아동 취학준비 지원,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가족 사업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가족육구에 기반을 둔 맞춤형 양육 지원, 가족의 긍정적 양육인식 확립을 위한 가정방문 부모교육, 지연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제적 안정 지원, 소규모 품앗이 모임을 활용한 가족지지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연계한 서비스는 영유아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 영유아 가족의 주도적 자원망 활용을 위한 자원개발, 지역자원 및 네트

워크를 활용한 경제적 안정 지원,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지역주민 참여형 연합활동, 지역사회 홍보활동 등이 있다. 즉,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공방법은 프로그램 내용과 성격에 따라 거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나, 가정방문을 통해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라) 운영현황

SB7시소와그네 사업의 실질적 서비스 지원은 전국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11개의 시소와그네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서비스는 사례관리를 기본으로 하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큰 틀은 시소와그네 전문위원회에서 개발·지원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되 세부적인 운영은 각 센터에서 지역자원이나 대상자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 시소와그네센터의 공통적인 운영방침은 사례관리를 통한 영유아의 발달변화와 지역사회조직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시소와그네 각 센터별 실무영역은 보건영역, 보육·교육영역, 복지 및 사례관리영역으로 구분하며 인력은 5명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각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시소와그네 사업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은 보건영역을 제외하고 거의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영유아·부모를 포함한 가족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전반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 점은 본 연구의 영유아 발달 지원을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이 교육·보육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 사업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와 시소와그네 지원사업이 서비스 대상자 연령과 사업 내용 면에서 유사한 틀을 갖추고 있고,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복지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소와그네 사업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교육을 통한 발달증진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다. 시사점

이상에서 국내 아동지원사업의 내용과 운영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3개의 정부주도 사업과 4개의 민간주도 사업의 특성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우선 위 아동지원사업들의 서비스 지원대상은 영유아기를 포함한 아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는 0~12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유아에서 18세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학교를 중심으로 저소득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과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SB7시소와그네 사업은 취학전 영유아,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사업은 빈곤·학대·발달 등의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특정 연령대를 제시하는 선정기준은 없다. 또한, 아동 뿐 아니라 그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서비스 지원 대상과도 공통되는 부분이다.

각 아동지원사업들의 서비스 영역을 살펴보면,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사업, SB7시소와그네 사업 모두 아동을 비롯하여 부모·가족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주는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은 엄밀하게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교육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최근 부모의 변화 없이는 아동 발달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아동개인이 아닌 부모를 포함한 지원을 활성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은 희망유아교육사가 각 가정에 방문하여 유아에게 직접적인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하면서 부모에게 간접적인 육아지원이나 정서지원에 대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아동지원사업들이 아동 뿐 아니라 그 부모와 가족까지 지원하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의 문제가 아동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보편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빈곤가정의 문제가 다양하여 사례관리를 기본으로 하여 각 가정의 문제와 욕구에 기반을 둔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위 사업들 중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SB7시소와그네 사업이 그러한 사업방향을 모토로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별로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드림스타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SB7시소와그네 사업의 실무자들과 사업운영현황 및 사업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그들의 의견을 모아 본 결과, 사례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다 보니 프로그램 부재에 대한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같은 중간 매개자 역할을 통한 지원은 가능하나 각 사업의 전달체계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프로그램이나 교구 등을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형태로서 효과적인 수 있는 맞춤형 통합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 제공 주체별로 즉, 아동과 부모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달체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은 아동지원을 위하여 각 아동의 연령에 맞는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부모 지원을 위해서는 각 가정에 방문하여 일대일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 프로그램과 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시범적용에서 실행한 후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타 사업에서 필요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사업간 활발한 연계활동을 통해 모든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 서비스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사업에서는 서비스 대상아동의 연령층을 영유아에 한정하고 그들의 부모까지 서비스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갖는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원조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지지체계인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아동 개별이 아닌 가족을 포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나온 관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가족상황은 이미 빈곤가정이 생성되는 순간부터 잠재적인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가 태어나기 전 즉, 임산부에게 출생과 양육에 관한 서비스 제공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의 경우 출산 전 임신부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여 건강영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 적은 혜택을 받거나 아예 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실정이다(이미화 외, 2009).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출산 전부터 아동 지원 서비스를 받아 태어나는 아동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홍보활동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가족의 문제 또는 주변을 최대한 양질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둘째,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기반 구축이 선행 되어야 한다. 최근 아동지원사업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주요 실천 원칙으로 삼고 실행하고 있다. 이는 앉아서 서비스 대상자를 기다리는 과거의 복지실천 형태에 비해 매우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즉, 서비스 이용자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로 나아가 서비스 제공 및 연결을 시도하는 개입과정이며, 지역사회 속에서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함으로써 일상생활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자원과 강점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면 사례관리자가 방문하여 그들의 문제와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보고 그것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그러나 찾아가서 서비스 대상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들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만 중점을 둔다면 오히려 대상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업에서는 취약 계층 영유아 또는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 서비스 매뉴얼을 준비하여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서비스 지원 대상 지역은 민관의 협력이 가능 곳으로 선정해야 한다. 현재 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은 지역에 따라 한 사업만 적용되는 지역과 중복 적용이 되는 지역, 그리고 전혀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앞서 기존 사업의 시행 결과, 시범적용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협의나 협력인프라가 전혀 없는 지역보다는 다른 사업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타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각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두 번째로, 서비스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의 협력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우선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과 연계하기가 수월할 것이고, 지역사회의 공적 자원 접근에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타사업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복지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있을 것이고, 관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다른 기관에서 대신 수행해 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접근의 어려움이 조금 덜 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시범적용은 타사업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민관의 협력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다양한 기관의 능력과 자원을 통합·조정하면서 관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 사업 현황

가. 정부 지원 사업

1)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내용

가) 각 부처별 지원 현황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부처는 통일부이지만,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에서도 이들에 관련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분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관련된 지원인 주거 및 정착 지원을 비롯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교육, 사회보장 및 의료, 신변 보호를 아우르고 있다.

〈표 IV-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요내용

구분	항목	내용	담당기관	
주거 및 정착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600만원 지급	행정안전부,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장애1급)의 가산금 지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지원금 지원	
	거주지보호담당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지정,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 및 각종 행정지원업무 담당(전국 211명)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1세대 당 2명 민간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생활지원(전국 1,600명)		

(표 계속)

구분	항목	내용	담당기관
직업 훈련 및 취업	직업훈련	거주지 보호기간(5년)동안 총 3회의 직업훈련을 무료로 수강하며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노동부 취업 담당부서
	정착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2,140만원의 장려금 지원	
	고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장에 급여의 1/2를 24개월간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50개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알선 역할 담당	
교육	대학특례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입학	교육과학 기술부
	등록금 지원	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 지원	
사회 보장 및 의료	생계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급여 지원 (1인 세대 월 약 38만원)	보건복지 가족부 사회복지 담당부서
	의료급여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급여 지원 (1인 세대 월 약 38만원)	
신 변 보 호	신변보호 담당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약 700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 외부의 신변보호를 위해 관련 상담 역할 담당	경찰청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8). **새터민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서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 범위 내에서 특례를 적용하여 급여를 실시하며, 보장절차는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2008년 기준).

북한이탈주민도 생계, 교육, 의료, 장제, 해산급여 등에 있어서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지급받게 되는데, 최초거주지 전입 이후, 6개월까지는 근로능력자에 대하여 조건부과가 면제되지만, 사회진출 6개월 이후에는 근로능력여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을 하게 되면 최저생계비 기준이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환경적응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예기간으로 6개월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이나 치료 등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중지되더라도 차상위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1종)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부천시 새터민지원지역협의회, 2008).

2) 하나원

가) 하나원의 설립취지

하나원은 1999년 7월 경기도 안성에 개원한 통일부 산하의 북한이탈주민 독립정착지원 기관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및 사회적응교육을 비롯하여 이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나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대성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의 정착을 전담하여 도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짐에 따라 통일부가 국방부와 국정원과의 협의 하에 1996년 12월 15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착지원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정착지원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99년 7월 8일 '하나원'을 설립하였다(김정인, 2003).

나) 하나원의 시설

하나원의 시설은 1999년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서 시작하여 두 차례에 걸쳐 증축을 하여 현재는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이르렀다. 하나원의 시설은 교육관과 생활관, 봉사관, 경비면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갈수록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2002년 9월 30일 분당 분원을 개원하여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따로 수용하고 있다(김정인, 2003). 이후, 올해 7월 3일에 양주로 이전한 분원을 포함하면 동시 수용능력이 1,0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윤미량, 2009). 하지만 입국자의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 하나원의 일상생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및 정착지원은 하나원이 전담하고 있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처음에 입국해서 거주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낯선 남한 사회에 바로

편입되기 전에 그 차이를 줄여주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은 사회적응에 관한 것과 직업교육 등이다.

교육생의 생활일과표를 살펴보면, 하나원 시설 내에서 규칙적으로 단체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게 되는데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공식 여가 프로그램으로는 영화감상과 음악공연이 있고, 그 외에도 진학자나 취업자 대상의 프로그램,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선배 북한이탈주민들의 특강과 대담, 기타 종교행사 등이 있다(김정인, 2003). 개방적이지는 않지만 자원봉사단체나 종교 단체 등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표 IV-2-2〉 하나원 교육생 생활일과표

구분	시간	활동내역	비고
평일	06:00~06:30	종교 활동	희망자에 한함
	06:30~07:00	일조점호 및 운동	
	07:00~09:00	조식, 세면 및 학습준비	
	09:00~12:00	오전교육	
	12:00~13:00	중식	
	13:00~18:00	오후교육	11~2월은 17:00까지 교육
	18:00~19:00	석식	
	19:00~21:30	자유시간 및 자율학습	
	21:30~22:00	일석점호	
	22:00~	소등 및 취침	
주말	06:00~13:00	평일 프로그램과 동일	
	13:00~17:00	체육활동 및 자유시간	
	17:00~19:00	석식 및 자유시간	
	21:30~22:00	일석 점호	
	22:00~	소등 및 취침	
공휴일	07:00~09:00	일조점호 및 운동, 조식	
	09:00~10:00	영어 및 컴퓨터 교육	
	10:00~12:00	종교활동	
	12:00~13:00	중식	
	13:00~18:00	자율 활동	
	18:00~19:00	석식	
	19:00~21:30	영화상영 및 점호준비	
	21:30~22:00	일석점호	
	22:00~	소등 및 취침	

자료: 김정인(200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평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3) 하나센터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방향은 북한이탈주민이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본급을 지원하는 방식을 현금 지급보다 취업 장려금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별 맞춤형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연령, 성별, 학력 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활동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등 민간단체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하나센터를 개원하여 하나원 퇴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나원과는 별도로 하나센터에서는 그 지역에서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주무부처는 통일부이다. 통일부에서도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해서 정부합동신문소에서 약 1개월간의 시설보호 단계를 거치고, 8주간의 하나원 교육단계, 그리고 퇴소까지의 모든 업무를 관할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15,000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유관부처뿐만 아니라 지역과 민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역량의 체계화 필요와 '하나원' 이후의 거주지에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하나센터사업을 2008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5개 지역인, 서울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아우르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 하나센터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 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되었으며, 경기 서부 하나센터로는 경기도 부천시 덕유 종합사회복지관이, 대구 하나센터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북한이주민지원센터'가 선정되었다. 2010년 5~8개 지자체에서 15개 센터로 확대한 후, 2011년에는 16개 지자체에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하나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주간 총 60시간(1일 4시간, 15일 기준)의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 교육내용은 '지역사회이해', '직업 찾기(지

역취업정보제공), '직업훈련기관 탐방', '개인별 진로설계', '심리상담 및 의료기관 이용안내', '학교 진학지도' 등 취업 및 지역사회 조기 편입을 위한 종합 안내교육이라 하겠다. 지역적응교육이 끝나고 1년간은 상근직원이 정기적 상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과 함께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애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사후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이처럼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화된 원스톱(One-Stop) 서비스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며 정부는 하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2009년에는 연간 1억 2천만원)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감독한다.

현재 국내의 하나센터는 지난 3월 서울 북부 하나센터를 시작으로 경기 서부, 대구, 경기 북부, 대전, 광주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내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전입예상 인원과 서비스 권역,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 4곳, 경기 6곳, 인천, 경남, 충남, 경북, 광주, 강원 등에 각각 2곳, 부산, 대구, 충북,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지역에 각각 1곳씩 설치될 계획이다.

가) 각 지역별 하나센터 운영현황

(1) 서울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 하나센터로 지정이 된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남한 전체 입국자 중의 10%에 달함)으로 알려진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다(공릉새터민정착지원센터, 2009).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부터 3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을 통해서 '서울여자대학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팀'과 연합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이후 2009년 3월 통일부 시범사업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들을 운영해왔다.

(2) 경기 서부 하나센터

경기 서부 하나센터는 경기도 부천시 덕유에 위치해 있다. 경기 서부권 6개 지역인 광명, 군포, 김포, 부천, 안양, 의왕 지역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부천 하나센터는 2003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인천 지역은 지금까지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는 그리 많은 수가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급속한 속도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서부 지역을 총괄하는 기관의 의미는 매우 크다.

(3) 대구 하나센터

대구 하나센터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북한이주민지원센터'가 선정되었다. 대구지역의 '북한이주민지원센터'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처음에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으로 홈리스 사역 등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으나 2003년 3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오면서 대구지역의 하나센터로 선정되었다. 대구 하나센터는 다른 하나센터와는 달리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의 형태가 아니라 NGO에서 시작해서 선정된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 다른 하나센터와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4) 경기 북부 하나센터

경기 북부 하나센터는 지난 3월에 개설된 경기 서부 하나센터에 이어 경기도 내에 두 번째로 개소했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경기 북부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쉼터를 제공해온 한국청소년가족상담 교육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었다. 경기 북부 하나센터에서 총괄하게 될 지역은 총 8개의 시·군으로, 이 센터에서는 임대주택이 있어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포천, 의정부를 중심으로 가평, 남양주, 구리, 양주, 동두천, 연천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한다.

(5) 대전 하나센터

대전 하나센터는 지난 8월에 대전광역시 소재 생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서울, 경기, 대구 지역에서 하나센터가 지역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대전지역의 북한이탈주민들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기관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지역에도 하나센터가 설립되었다.

(6) 광주 하나센터

광주 하나센터는 대전 하나센터와 함께 지난 8월에 센터 개소식을 가졌으며, 사단법인 광주전남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서 하나센터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광주 하나센터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교육, 의료지원 등의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그림 IV-2-1] 하나센터사업의 흐름도

자료: <http://gongneung.or.kr>

나) 하나센터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초기정착지도, 생활교육, 진학지도, 가족관계, 건강증진, 문화체험 등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것이므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V-2-3〉 하나센터 표준 프로그램

교육주제	교과목	세부내용
초기 정착지원	거주지 편입지원	신병인수, 주민등록, 임대아파트 계약, 물건구입, 휴대폰 개통 등
생활교육	지역사회 이해	지역사회 탐방: 구청, 고용지원센터, 경찰서, 병원, 은행, 우체국 등 지역별 주요기관 탐방
		생활법률과 경제교육, 피해사례 예방교육 등
취업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찾기와 취업하기” 개인별 진로상담 및 직업탐색(개인별 진로 설계)
	고용지원센터 방문	구직등록, 취업보호담당관과 인사
	현장 탐방	사업장 및 직업훈련기관 탐방(개인별 기관탐방 과제 수행)
	(맞춤형 지원)	취업유보집단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 (노인대학 참관수업, 자원봉사 등)
진학지도	진학지도	지역 내 학교소개 지역 내 아동청소년 전문가 소개 공교육 및 검정고시, 대학진학 안내 성공적인 영유아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관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족 만들기 결혼 및 이혼 등 가족법 문제 가정 내 갈등해결 방법 등
건강증진	건강관리	지역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이용방법 기본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정신건강예방교육(우울증자가진단)
문화체험	문화체험	지역문화 이해하기 마련 직원과 교육생의 친밀감 형성
수료식		인생설계 및 교육평가, 수료식

자료: 통일부(2009), 보도참조자료

〈표 IV-2-4〉 하나센터: 표준 지역적응교육 프로그램 일정표¹⁷⁾

일차 (요일)	교과목과 주요내용	시 간	강사 /담당자	교육 장소
전입일	전입일: 활동시간 9:00~19:00			
	초기정착지원(1) 신병인수, 집안정리, 전입신고, 물건구입, 저녁식사 함께하기	0	센터직원, 자원봉사자	지역통합센터, 동사무소, 관리소 등
소개	소개: 활동시간 10:00~18:00			
	초기정착지원(2) -welcome-union: 지역적응센터 소개, 지역적응교육안내, 생활정보교육 -지역사회처리사항에 대한 공동교육(각 구별 정보제공), 대중교통 이용하기 -지역사회탐방: 구청, 고용지원센터, 경찰서, 병원, 은행, 우체국 등 지역별 주요기관 탐방 -거주지 보호담당관 미팅	0	센터직원 자원봉사자	복지관, 지역별 통합센터, 동사무소, 관리소, 구청, 고용지원센터, 우체국 등
1일차 (월)	1일차: 교육시간 9:30~17:30			
	개회식(총 0.5시간)	0.5	복지사	복지관
	가족 및 대인관계(총 3.5시간)			
	자기 open(이해)	1.5	복지사	
	의사소통 교육(1): 비폭력의사소통	2	복지사	
	생활교육(총 3시간)			
	생활법률과 법률지원 사례 안내	1.5	서울지방 변호사회	
경제교육, 피해사례 예방교육	1.5	강사		
2일차 (화)	2일차: 교육시간 9:30~16:30			
	건강증진 교육(총 6시간)			복지관 프로그램실 지역병원, 정신보건센터
	기본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1.5	전문의	
	정신건강 예방교육(우울증 자가진단)	1.5	상담사	
지역의료기관 이용방법 안내, 지역정신보건센터 안내(국립의료원, 상계 백병원, 을지병원, 고대 병원, 선한 이웃병원 등 2, 3차 병원)	3	강사		
3일차 (수)	3일차: 교육시간 9:30~18:30			
	진학지도(총 4시간)			복지관 프로그램실
	-지역 내 학교, 아동, 청소년 전문가 소개, 공교육의 흐름	1	초등학교 교사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 안내	1	복지사	
	-성공적인 영유아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2	부장	
	가족 및 대인관계(총 4시간)			
	-의사소통 교육(2): 비폭력의사소통	2	상담사	
-아름다운 가족 만들기	2	복지사		

17) 서울북부하나센터의 프로그램 예시 참조

(표 계속)

일차 (요일)	교과목과 주요내용	시 간	강사 /담당자	교육 장소	
4일차 (목)	4일차: 교육시간 9:30~18:30(8시간)				
	직업찾기 & 취업하기 프로그램(총 8시간)				
	-여미는 장(첫째마당) : 진행자 소개, 전체활동 소개, 구인광고 게임	1	복지사	복지관 프로그램실	
	-문제 직면의 장(둘째마당) : 말말말 이어달리기(활동), : 나-전달법 익히기(활동) 사막생존게임(활동)	3	상담사		
	가족문제 사례연구(활동) 우리가족사막에서 살아남기(활동)	3	복지사		
직장예절 익히기(강의 & 활동)	1	복지사			
5일차 (금)	5일차: 교육시간 10:00~18:00(7시간)				
	문화활동(총 7시간)	7	복지사	현장	
6일차 (월)	6일차: 교육시간 9:30~15:30(5시간)				
	직업찾기 & 취업하기 프로그램(총 5시간)				
	-자기이해의 장(셋째마당) : 건전한 경제생활의 조건(활동) 나의 미래 생활 계획 작성하기(활동) 나의 수입, 지출 가계부 작성(활동)	3	복지사	복지관 프로그램실	
기초직업능력 이해하기(활동) 직업가치관 평가지 작성(활동) 직업카드를 통한 가치관 탐색(활동)	2	복지사			
7일차: 교육시간 9:30~15:30(5시간)					
7일차 (화)	직업찾기 & 취업하기 프로그램(총 5시간)				
	-직업세계이해의 장(넷째마당) : 노동시장현황과 직업동향(강의) 기업이름 익숙해지기(활동) 새터민 고용주 이야기 들어보기(동영상-활동) 새터민 직장동료 이야기 들어보기(동영상-활동) 선배 새터민의 이야기 들어보기(동영상-활동)	5	복지사	복지관 프로그램실	
	취업유보집단(총 8시간)				
	-노인대학 참관수업 1(풍물, 우리춤체조): 단독진행 or 치매주간활동도우미	2	강사 복지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공동진행)	6	복지사		
8일차: 교육시간 9:30~16:30(6시간)					
8일차 (수)	직업찾기 & 취업하기 프로그램(총 6시간)				
	-직업세계이해의 장(넷째마당) : 직업특성정보 중요성 이해(퀴즈) 직업명 찾기 게임, 관심직업 선정하기(활동)	1	복지사	복지관 프로그램실	
	구직정보 탐색 및 실습(인터넷 활용) 직업정보 탐색 실습 결과 공유	2	복지사		

(표 계속)

일차 (요일)	교과목과 주요내용	시 간	강사 /담당자	교육 장소
	-경력개발 계획 수립의 장(다섯째 마당) : 의사결정의 이해(강의) 의사결정과정 연습(활동) 선배 새터민 동영상 보기(동영상-활동) 취업유보집단(총 7시간)	3	복지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공동진행)	3	복지사	
	-노인대학 참관수업 2(가요교실)-단독진행 or 치매주간활동도우미	4	강사	
9일차 (목)	9일차: 교육시간 9:30~15:30(5시간)			
	직업찾기 & 취업하기 프로그램(총 5시간)			
	-구직기술의 장(여섯째마당) : 이력서 작성법(활동) 면접기술법(동영상-활동)	3	복지사	복지관 프로그램실
	-현장방문(일곱째마당) : 고용지원센터 방문, 취업보호담당관 미팅, 구직등록, 취업 및 진로상담	2	복지사, 취업보호 담당관	북부고용지원센터
	취업유보집단(총 8시간)			
	-우울증 예방프로그램	4	상담사	복지관
-영화치료 프로그램	4	복지사	프로그램실	
10일차 (금)	10일차: 교육시간 9:30~17:30(7시간)			
	직업찾기 & 취업하기 프로그램(총 7시간)			
	-현장방문(일곱째마당) : 직업훈련학교 방문 - 상계 직업전문학교 북부여성발전센터 등	7	복지사, 센터직원, 취업보호 담당관	직업전문 학교 복지관 프로그램실
	: 취업처 방문			
	: 현장방문 경험 나누기			
11일차: 교육시간 9:30~16:30(6시간)				
인생설계 및 수료식(총 6시간)				
11일차 (화)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강의	1.5	북한 이탈주민	
	-남한 지역주민의 특강	1.5	남한주민	
	-장점 폭격, 인생설계	2	부장	
	-교육 평가 및 수료식	1	복지사	
합계		70		

자료: 서울북부 하나센터(2009). 내부자료.

나. 공공 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에서 지원 사업은 민간에서 먼저 시작하여 실시되고 있었다. 현재 상당히 많은 민간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남한 내의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의 주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 사업 현황을 소개하겠다.

1) 노원구: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에 위치한 공릉 종합사회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이 밀집된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노원구 내 거주자가 남한 전체 입국자 중 10%에 달한다. 이곳은 2001년부터 3년 동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을 통해서 '서울여자대학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팀'과 연합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01년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협의회의 소속기관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표 IV-2-5〉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개요

단체 명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주소	서울 노원구 공릉 3동 708번지
주요활동/홈페이지	정착도우미, 무지개학교 운영 http://www.gongneung.or.kr
탈북가정 담당부서 (가정, 영유아 중심)	탈북사업팀 (전문사례관리, 생활지원, 진로지도 및 취업 알선. 정착도우미 사업, 무지개 교실)
단체의 소속분과	지역복지

자료: 공릉종합사회복지관 (<http://www.gongneung.or.kr>)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에 하나원 퇴소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로 지정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앞으로 하나센터로서 담당하게 될 역할 이전에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해왔던 활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규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역시 다른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정착도우미를 모집하고, 관리하며 정착도우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정착 시 어려운 사항들을 듣고, 이에 관련된 정보나 전문적 상담을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 전문사례관리사업

사례관리는 영유아교육, 진로, 건강, 경제상황 등의 영역에 따라 케이스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전문적 상담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주고 있다. 가정방문은 월 1회, 전화상담은 주 1회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담사회복지사가 배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지원 ‘아름다운 생명’을 통해 가정방문 의료 진료를 실시하며, 월 1회에 매 회 3~5 케이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서비스 지원은 청소년,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과 의료비 긴급지원, 생필품 지원, 밑반찬과 김치 지원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명절 위안행사로 설과 추석에 생필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다) 심리상담(정신건강)사업

지역 내의 심리 불안정 및 PTSD 대상자 및 전입초기 정서 안정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상담심리사가 상주하며 상담을 하거나 가정방문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요보호 사례에 대해서는 약물관리 및 정신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사회적응지원사업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명랑 운동회’를 개최하며, 지역단위 프로그램으로는 매년 마다 ‘송년행사’를 개최한다. 남북대학생연합 프로그램과 여성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또한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마) 탈북아동, 청소년, 대학생 지원 사업

초등공부방 사업인 ‘무지개 교실(1)’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에 해당하는 탈북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용 방과후 학습컴퓨터로 제공되고 있다. 학력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주 5회 운영된다(학기 중에는 3~6시까지, 방학 중에는 1~6시까지 운영).

또한 청소년 학습지도 프로그램인 ‘학습 멘토링: 무지개 교실(2)’은 중고등학생 또는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습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멘토를 발굴하여 이들을 탈북청소년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격차를 줄이고, 대학 진학과 적응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과 전문가들의 간담회 마련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바) 진로취업지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취업상담과 여성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남한에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담당자를 배치해서 개별 상담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사) 지역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문자원봉사자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동영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세분화하고, 지속적(6개월)으로 활동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 교육, 정신건강, 취업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지역 뿐 아니라 노원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사회인식을 개선사업과 보호담당관 간담회, 관계기관 협력 간담회 등을 마련하고 있다.

2) 강서구: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 지역 중 하나인 강서구에 위치한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은 초기부터 지역사회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해왔다.

〈표 IV-2-6〉 방화 6 종합사회복지관 개요

단체명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주소	서울 강서구 방화 3동 816번지(도시개발 A6번지)
주요활동/홈페이지	정착도우미 지원 사업 http://21csw.or.kr
탈북가정 담당자 (가정, 영유아 중심)	복지 1과 → 북한이탈주민 지원팀
단체의 소속분과	지역복지

자료: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http://21csw.or.kr>)

‘강서 새터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강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 편입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통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소수 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서구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3대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착지원사업

가장 기본적인 사업 중 하나인 정착지원사업은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병 인수 과정을 돕는 것과 자원봉사자 도우미들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1:1 결연을 통한 적응 돕기, 신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례관리,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와 같은 개별적 집중관리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는 정착도우미 봉사단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나) 주민통합사업

주민통합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 내의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남성 북한이탈주민 스포츠 모임, 여성 북한이탈주민 봉사모임, 남북통합 영유아부모모임, 지역주민 협의체 운영과 같은 남북한 간의 협력모임 외에도 문화 체험 및 특강, 송년이나 명절에 진행되는 특별 행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 기관연합사업

기관을 연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연합 사업은 강서 실무협의체 운영을 비롯하여 청소년 대학입시박람회 개최, 대학생들의 인식개선 사업 진행, 강서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매뉴얼 제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양천구: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에 위치한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2년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2003년부터는 결연가정사업, 아동/청소년 학습센터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이후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한 취업 지도사업을 진행해왔다. 2005년도부터 정착도우미, 정보화교육, 하나되기 교실 사업 등이 이루어져 왔다, 이후, 2006년도부터는 '한빛 새터민 정착지원 센터'를 개소하고, 정신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2-7〉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개요

단체명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 4동 540-1
주요활동/홈페이지	정착도우미, 하누리교실 운영 http://www.han-bit.or.kr
탈북가정 담당부서 (가정, 영유아 중심)	복지 2팀 산하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단체의 소속분과	지역복지

자료: 한빛종합사회복지관 (<http://www.han-bit.or.kr>)

양천구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병인수 및 정착도우미 사업

초기 전입자(하나원 퇴소 1년 이내)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또한 도우미를 발굴하고 이들을 교육하여 북한이탈주민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지역사회, 시장 안내, 생필품 구입, 은행, 관공서 등에 동행해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 적응지원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나) 사례관리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가족특성에 따라 각각의 사례로 개별화하고 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지원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 정착 이후에 겪게 되는 일상생활, 진로, 의료, 취업, 영유아 교육 등에 관한 어려움에 대해 개별적 상담을 제공하거나 의료 서비스, 장학금 및 상담 조치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학습지원 및 정서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들의 학습격차 해소와 동질감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학습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집단 학습지도/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서 지원(여가활동, 문화체험), 청소년·성인 통합영어교육(기초, 중급반), 또한 재가·청소년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라) 사회적응지원사업

주말농장, 지역간담회, 동아리 모임 등을 통해 남한사회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정보제공을 통한 적응능력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본소양교육(한국어, 중국어교육)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연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적응을 위해서 여름캠프, 문화체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접수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남북한 결연가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보화 교육을 통해 이들이 기초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마) 취업지도사업

성인들을 중심으로는 구직 알선을 통한 취업의 시행착오 예방과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직업훈련 상담, 직업훈련기관 안내, 구인처를 발굴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알선해주고, 취업처를 연결해주는 등의 역할과 사후관리, 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출장교육 등이 제공되고 있다.

바) 정신건강사업

탈북과정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과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경험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의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부천 성모자애병원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 민관협력사업: 정착도우미

1) 정착도우미 모집·관리

정착도우미 파견은 지역사회 복지관과 대한적십자사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 이후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착도우미 시스템은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켜 하나원 퇴소 이후의 남한 생활을 돕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착도우미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반적 이해교육, 지역사회 안내, 신병인수부터 거주지 안내과정에서의 역할 교육(교육교재의 활용, 분기별

로 진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정착도우미 간담회를 연간 4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신규 정착지원사업

현재, 정착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 2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가정방문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및 경조사 지원과 일일 모임을 통한 일정의 공유 및 활동과정 스크리닝 그리고 정착 도우미들의 활동일지 관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병인수는 하나원 퇴소 후부터 거주지 안내까지의 과정 지원해주는 것으로 월 1회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진행은 신규 전입자들에게 3~5회 정도의 1:1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개별적 요구가 있을 시에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가 있는데, 월 2회 정도 정착초기에 세대별 실태조사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이 외에도 정착 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착에 필요한 정보 및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현재 정착도우미의 수는 전국 1,860여명(2008. 4월 기준)이고, 신변보호 담당 보안경찰은 704명(2008. 1월 기준)이다. 이 중, 보안경찰은 1인당 평균 12.6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연합뉴스, 2008. 8. 27). 현재 정착도우미나 보안경찰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북한이탈주민 전담 지원체계를 운영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V-2-8〉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사업 계획서

연간계획	세부내용
활동기간	2009.1.1~12.31(1년간) / 퇴소일로부터 1년간 ex. 2008년 5월 하나원 퇴소자: 2008.5~2009.4(1년)
대상인원	북한이탈주민 약 2,200가구 2,500명
봉사인원	적십자 봉사원 약 2,600명
활동내용	하나원에서 거주지까지 정착지 이송 - 주택임대차계약, 전입신고, 국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 거주지 입주 안내

(표 계속)

연간계획	세부내용
활동내용	가정방문 봉사활동 - 초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파일을 작성 - 대상자 파일은 지사 또는 봉사관에 보관 - 거주지 입주가능 확인, 청소상태 확인, 집안정리 및 청소지원, 생활안내, 필요한 물품 구입 안내, 명절 함께 보내기
	경조사 발생 시 지원
	지역사회 소개 및 문화체험
	진학 및 취업 안내 - 진학안내, 취업보호담당관 연결, 취업 박람회 안내, 취업알선 등
예산집행 예산 항목별 사용	신병 인수비: 북한 이탈주민 개인별로 해당지역 정착지 이송비 사용
	정착지원활동비 및 경조사지원비 - 가정방문, 초기생활용품 지원, 지역사회소개, 문화체험, 명절후원, 취업안내 등의 활동에 예산범위 안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 - 관리가구 당 1개월 차 80,000원, 2~6개월 차는 40,000원, 7~12개월 차는 10,000원/월의 범위 내에서 집행 - 2008년 관리가구 중 이월가구는 2009년 1월만 기존 단가(27,000/가구)로 지급 - 경조사 지원비는 지사별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집행
	정착도우미 운영기관 사업비 지원 - 북한 이탈 주민과 정착도우미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홈스테이, 지역 소개, 화합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집행가능
	지사별 자체 연 2회 봉사원 교육 실시
봉사원 교육	북한 이탈주민 후원회 주관으로 연 2회 실시
봉사원 보험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에서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
봉사원 교육, 사업 점검 및 평가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주관)	핵심담당자 교육 연 1회, 지역별 집합교육 연 1회 실시
	연 2회 사업점검 및 사업실태 조사 실시
	연 1회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연 2회 워크숍 및 현장답사

자료: 대한 적십자사 강원지사(2009). 교육 및 간담회 보도참조자료. 강원: 대한 적십자사 강원지사.

라. 시사점

이상의 내용을 통해 민관차원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초반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갈수록 양쪽 모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이 성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영유아 취학전 아동의 육아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대부분의 지원 단체에서 아직까지는 취학전 아동의 육아 부분에까지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의 활동들이 매우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외의 다른 지역사회복지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경우, 정착도우미사업과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사회적응사업, 취업지도, 정신건강 등 전반적으로 동일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모든 지역 사회에서 담당할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각 지역의 특색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통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공동 연구나 협력 관계를 구성하여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좀 더 폭넓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점차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충분한 교육이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때 북한이탈주민이나 지역사회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양성과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영유아 취학전 아동들에 대한 지원과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대부분의 지원은 성인과 청소년/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물론 입국자 현황에서 영유아의 수는 극소수였지만, 가임기 여성의 입국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출산 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발생하게 되는 육아문제는 단순히 영유아의 문제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유아 취학전 아동들은 가시적이고 당장 결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정착 초기부터 세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 현재의 지원형태는 취업과 지역사회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남한 사회에서의 육아와 교육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 영유아의 빠른 적응 속도를 부모가 따라가지 못하여 가정 내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와 영유아 양쪽 모두를 충분히 포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 및 요구 분석

제5장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하 교복투)과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이하 희망유아교육사업),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통일부의 하나센터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의 부모와 아동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기초수급가정과 차상위가정의 영유아 양육실태를 둔 부모의 영유아 양육실태와 육아지원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1. 저소득층 가정 양육실태 및 요구 분석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 영유아의 부모 및 가구, 영유아의 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부모 특성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가구 특성으로는 가족유형, 주택, 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가. 저소득층 가정, 부모 및 영유아

1) 부모 특성

조사대상 영유아의 부모의 연령은 각각 30~39세가 61.1%, 68.8%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7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4세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89.9%를 차지하였고, 이들 가운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도 25.6%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88.4%이었고, 이들 가운데 전문대 졸업 이상은 19.8%이었다.

저소득 가정 부모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병과 장애 유무를 알아본 결과, 질병 없음이 아버지, 어머니 각각 93.4%, 91.6%였고, 장애 없음이 아버지, 어머니 각각 96.3%를 차지해 대부분 질병과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정도는 아버지의 경우 주 1회 정도가 32.8%, 어머니의 경우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5.4%로 나타났다. 흡연 정도는 아버지의 경우 33.8%가 하루 한 갑 정도를 태

운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96.0%가 비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V-1-1 참조).

〈표 V-1-1〉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단위: %(명)	
	부	모
연령		
19세이하	0.2 (1)	0.3 (2)
20~29세	7.0 (36)	15.0 (93)
30~39세	61.1 (313)	68.8 (428)
40~49세	29.5 (151)	15.6 (97)
50~59세	2.0 (10)	0.3 (2)
60~69세	0.2 (1)	0.0 (0)
교육정도		
중학교 졸업	10.1 (52)	11.6 (72)
고등학교 졸업	64.3 (329)	68.6 (427)
대학 졸업(3년제 이하)	12.7 (65)	12.4 (77)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11.3 (58)	7.2 (45)
대학원 이상 졸업	1.6 (8)	0.2 (1)
질병유무		
있음	6.6 (34)	8.4 (52)
없음	93.4 (478)	91.6 (570)
장애종류		
지체장애	4.3 (22)	1.8 (11)
정신장애	0.6 (3)	1.1 (7)
시각장애	0.4 (2)	0.2 (1)
청각장애	- (0)	0.2 (1)
언어장애	0.2 (1)	0.3 (2)
기타	1.0 (5)	0.2 (1)
장애 없음	93.6 (479)	96.3 (599)
장애등급		
1등급	0.8 (4)	0.5 (3)
2등급	1.4 (7)	1.0 (6)
3등급	2.0 (10)	0.8 (5)
4등급	1.4 (7)	0.3 (2)
5등급	0.6 (3)	0.5 (3)
6등급	0.4 (2)	0.5 (3)
장애 없음	93.6 (479)	96.5 (600)

(표 계속)

구분	부	모
음주정도		
전혀 안 마심	30.5 (156)	75.4 (469)
주1회 정도	32.8 (168)	17.7 (110)
주2~3회 정도	27.0 (138)	6.3 (39)
주4회 이상	4.7 (24)	0.5 (3)
거의 매일	5.1 (26)	0.2 (1)
흡연정도		
전혀 안 피움	32.8 (168)	96.0 (597)
하루 10개피 이하	27.9 (143)	3.2 (20)
하루 11~20개피(한 갑)	33.8 (173)	0.3 (2)
하루 한 갑 초과	5.5 (28)	0.5 (3)
계	100.0 (512)	100.0 (622)

해당 부모가 조사대상 영유아를 부양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과 기타 근로 관련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2〉 부모의 근로 특성

구분	단위: %(명)			
	부	계	모	계
대상 영유아와의 동거여부				
동거	98.9 (540)	100.0(546)	99.8 (658)	100.0(659)
비동거	1.1 (6)		0.2 (1)	
비동거 이유				
이혼 및 별거	50.0 (3)	100.0(6)	100.0 (1)	100.0(1)
직장 때문에	33.3 (2)		- (0)	
건강상의 이유	16.7 (1)		- (0)	
취업여부				
그렇다	85.3 (466)	100.0(546)	25.6 (169)	100.0(659)
아니다	14.7 (80)		74.4 (490)	
종사상 지위				
정규직/상용직	57.5 (268)	100.0(466)	26.0 (44)	100.0(169)
비정규직중 임시직	19.1 (89)		37.9 (64)	
비정규직중 일용직	22.3 (104)		35.5 (60)	
자영업	1.1 (5)		0.6 (1)	
근무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73.8 (344)	100.0(466)	75.1 (127)	100.0(169)
불규칙하게 출퇴근	25.5 (119)		21.3 (36)	
재택근무	0.6 (3)		3.6 (6)	

부의 경우 98.9%가 대상 영유아와 동거를 하며 양육을 하고 있었으며 동거하고 있지 않은 1.1%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이혼 및 별거가 50%, 직장 때문이 33.3%, 건강상의 이유가 16.7%였다. 모의 경우 99.8%가 영유아와 동거하고 있어 영유아와의 높은 밀착도를 보였으며 동거하지 않고 있는 한 명은 이혼 및 별거 때문이었다.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85.3%, 어머니의 25.6%가 취업 중이었고, 취업중인 부모의 종사상 지위는 아버지의 57.2%가 정규직/상용직에 종사하고 있어 41.4%의 비정규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용 상 안정을 누리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경우 정규직/상용직은 26%에 그치고 비정규직 임시직이 37.9%, 일용직이 35.5%에 달해 우리 사회가 아직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노동자로서 대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투영되었다.

영유아와의 대면접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직장에서의 근무형태를 보면 부의 73.8%, 모의 75.1%가 규칙적인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재택근무(3.6%)가 아버지(0.6%)보다 많은 점은 육아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 특성

가) 가족유형

본 조사대상 가구의 가족유형을 알아본 결과, 부부와 영유아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75.4%이고, 한부모와 영유아로 이루어진 가정이 22.7%, 조부모와 손영유아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1.9%였다. 이는 친인척과 영유아로 이루어진 가정 등 기타 가족유형은 제외한 비율이다(표 V-1-3 참조).

〈표 V-1-3〉 가족유형 및 소득계층

구분	비율(수)	계
양부모가정	75.4 (476)	
한부모가정	22.7 (143)	100.0(631)
조손가정	1.9 (12)	

나) 경제적 특성

가구의 소득계층, 월평균 근로소득, 월평균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4 참조). 가구의 소득계층을 알아본 결과, 전체 669명 중 소득계층을 모르는 126명을 결측 처리하여 총 543명이었다. 차상위층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계층이 31.3%, 3층이상이 12.9%를 차지하였다.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을 조사한 것으로서, 100~150만원 미만인 34.8%, 150~200만원 미만인 27.7%, 50~100만원 미만인 15.7%, 50만원 미만이 14.2% 등 월평균 근로소득 150만원 가구의 분포가 92.4%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월평균 지출액은 100~150만원 미만이 41.7%로 가장 많았고, 50~100만원 미만이 31.7%, 150~200만원 미만이 13.8%, 50만원 미만이 9.1% 등으로 나타나 소득과 지출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표 V-1-4 참조). 이는 저축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저소득 가정의 어려운 경제생활을 예상할 수 있다.

가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월·전세금 등 주거관련 비용으로 인해 23.6%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V-1-5>에 제시한 조사대상자의 가구 특성상 전·월세 거주자의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부담스러운 지출항목은 영유아의 보육비 및 사·공교육비 19.1%,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16.9%, 각종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관리비 등) 14.9%, 식비 14.5%, 교육비를 제외한 영유아양육비 7.6%, 의료비 2.8%, 보험료, 차량유지비가 각각 0.3%, 0.1% 순으로 나타났다(표 V-1-4 참조).

<표 V-1-4> 경제적 특성

구분	비율(수)	계
소득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	31.3 (170)	100.0(543)
차상위	55.8 (303)	
3층 이상	12.9 (70)	
월평균 근로소득		
50만원 미만	14.2 (95)	100.0(669)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5.7 (105)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4.8 (233)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7.7 (185)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5.2 (35)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6 (11)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0.4 (3)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0.3 (2)	

(표 계속)

구분	비율(명)	계(명)
월평균 지출액		
50만원 미만	9.1 (61)	100.0(669)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1.7 (212)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41.7 (279)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3.8 (92)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3.1 (21)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0.4 (3)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0.1 (1)	
가장 부담스런 지출항목		
주거비(월세, 전세금 등)	23.6 (158)	100.0(669)
영유아의 보육비 및 사·공교육비	19.1 (128)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16.9 (113)	
각종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관리비 등)	14.9 (100)	
식비	14.5 (97)	
영유아양육비(교육비 제외)	7.6 (51)	
의료비	2.8 (19)	
보험료	0.3 (2)	
차량유지비	0.1 (1)	

다) 주택 특성

다음은 조사대상 가구의 주택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V-1-5〉 주택 특성

구분	비율(명)	계(명)
주택소유 형태		
자가	14.5 (97)	100.0(669)
전세	32.1 (215)	
보증금 있는 월세	33.5 (22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2.5 (17)	
영구 임대 아파트	8.8 (59)	
가족 및 친척의 소유(무상)	6.1 (41)	
가족 및 친척의 소유(유산)	1.5 (10)	
모자원(무상) 시설	0.4 (3)	
친구소유 무상	0.1 (1)	
종교단체건물 무상	0.3 (2)	

(표 계속)

구분	비율(명)	계(명)
주택 유형		
단독주택	21.8 (146)	
아파트	28.1 (188)	
연립주택	5.4 (36)	100.0(669)
다세대주택 및 빌라	42.2 (282)	
영업용 건물 내 주택	2.5 (17)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월세와 전세 등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33.5%로 가장 많았고, 전세 32.1%, 자가 주택 소유 14.5%, 이밖에 다양한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19.7%로 나타났다. 월세나 전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2~3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표 V-1-5 참조).

거주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 및 빌라가 42.2%, 아파트 28.1%, 단독주택 21.8%, 연립주택 및 영업용 건물 내 주택이 각각 5.4%, 2.5% 순으로 나타났다(표 V-1-5 참조).

3) 영유아 특성

다음은 조사대상 영유아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영유아의 연령을 보면, 만5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만2세, 만4세 순으로 많았다. 또한 성별은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전체의 91.6%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93.9%가 질병이 없다고 답해 대부분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 다수인 97.8%는 장애가 없다고 답했으나 2.2%는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장애를 가진 영유아 중에는 지체장애가 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언어장애(0.6%)와 발달장애(0.4%) 순으로 나타났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정서·언어장애는 각각 1명(0.1%)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장애등급은 1등급과 3등급이 각각 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각 1명(0.1%)으로 조사되었다(표 V-1-6 참조).

〈표 V-1-6〉 영유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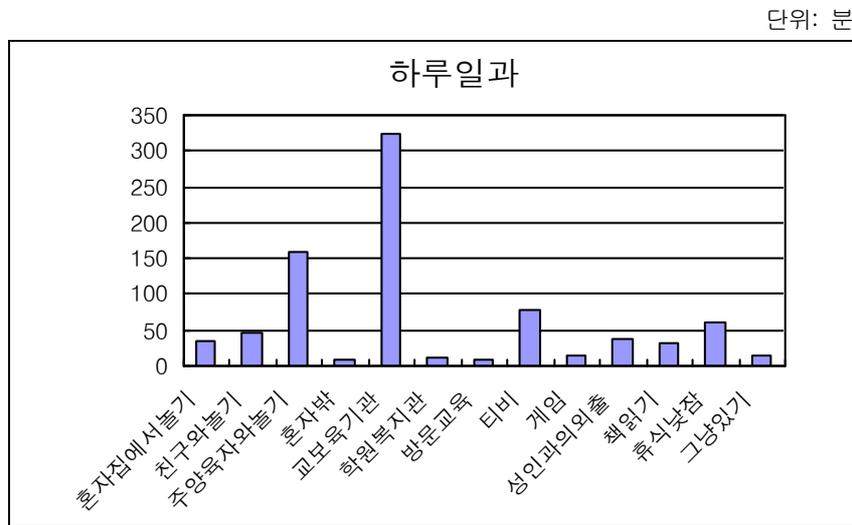
구분	비율(명)	계(명)
연령		
0세	8.2 (55)	
1세	10.9 (73)	
2세	16.3 (109)	100.0(669)
3세	12.7 (85)	
4세	15.5 (104)	
5세	21.1 (141)	
6세	15.2 (102)	
성별		
남자	52.3 (350)	100.0(669)
여자	47.7 (113)	
건강상태		
좋다	91.6 (616)	100.0(669)
나쁘다	8.4 (53)	
질병유무		
있다	6.1 (41)	100.0(669)
없다	93.9 (628)	
장애종류		
지체장애	0.7 (5)	
정신장애	0.1 (1)	
자폐성장애	0.1 (1)	100.0(669)
발달장애	0.4 (3)	
언어장애	0.6 (4)	
정서·언어장애	0.1 (1)	
장애 없음	98.0 (654)	
장애등급		
1등급	0.7 (5)	
2등급	0.1 (1)	
3등급	0.7 (5)	100.0(669)
5등급	0.1 (1)	
6등급	0.1 (1)	
장애 없음	98.2 (655)	
모름	0.1 (1)	

나. 저소득층 가정 양육실태

1) 영유아의 하루일과

가) 하루 동안의 활동 내용

조사대상 영유아들이 하루에 시간을 보내며 하는 주된 활동은 대부분의 영유아가 교육·보육기관에 다니기 때문에 교육·보육기관에서의 활동(323분)이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에서 주양육자와 놀기(158분), TV시청하기(79분), 휴식 및 낮잠(62분)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V-1-1 참조).



[그림 V-1-1] 영유아의 하루일과

가족유형별로 영유아가 하루 동안 활동하는 시간 차이를 F 검정한 결과, 친구와 놀기, 주양육자와 함께 놀기, 교육·보육기관에서의 활동, 학원, 게임, 휴식 및 낮잠의 활동시간에서 가족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조손가정의 영유아가 한부모가정의 영유아보다 친구와 노는 시간이 더 많았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영유아가 조손가정의 영유아보다 게임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다른 활동들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V-1-7 참조).

〈표 V-1-7〉 가족유형별 영유아 하루일과

단위: 분(표준편차)

	양부모 <i>M(SD)</i>	한부모 <i>M(SD)</i>	조손 <i>M(SD)</i>	<i>F</i>
혼자 집에 있기	33.2(50.8)	33.4(55.7)	15.0(27.1)	0.74
친구와 놀기	48.8(49.8)	35.9(44.2) _b	70.0(61.8) _a	5.26 ^{**}
주양육자와 함께 놀기	182.5(173.2)	97.3(120.7)	100.0(103.4)	16.13 ^{***}
혼자 밖에 있기	9.8(38.6)	4.6(17.9)	5.0(17.3)	1.31
교육·보육기관에서의 활동	280.0(209.6)	438.1(178.4)	443.3(163.8)	35.93 ^{***}
학원	7.8(21.8)	24.0(127.9)	1.7(5.8)	3.70 [*]
방문교육	7.7(16.5)	8.1(11.3)	0.8(2.9)	1.26
TV 시청	76.0(65.1)	89.9(62.1)	90.0(33.8)	2.77
게임	12.5(26.6)	20.9(39.8) _a	5.0(17.3) _b	4.89 ^{**}
성인과의 외출	40.4(40.5)	25.8(31.6)	35.0(52.5)	7.70 ^{***}
책읽기	34.2(31.0)	28.0(27.8)	35.8(20.2)	2.42
휴식 및 낮잠	72.2(88.0)	35.0(49.2)	22.5(52.9)	13.34 ^{***}
그냥 있기	17.7(56.8)	6.3(18.8)	15.0(35.0)	2.81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 < .05. *p* < .01. ****p* < .001.

〈표 V-1-8〉 소득계층별 영유아 하루일과

단위: 분(표준편차)

	기초수급 <i>M(SD)</i>	차상위 <i>M(SD)</i>	3층 이상 <i>M(SD)</i>	<i>F</i>
혼자 집에 있기	30.9(52.6) _b	33.6(52.4)	48.6(64.7) _b	2.78
친구와 놀기	39.1(47.9)	52.2(52.1)	48.1(57.1)	3.55 [*]
주양육자와 함께 놀기	138.9(163.4)	150.5(150.0)	160.7(165.2)	0.56
혼자 밖에 있기	10.8(41.9)	7.6(33.1)	8.1(22.2)	0.45
교육·보육기관에서의 활동	370.5(213.4)	331.0(195.9)	313.4(204.4)	2.83
학원	11.2(37.7)	15.7(87.4)	4.0(14.7)	0.89
방문교육	7.7(11.8)	7.1(12.7)	9.4(16.2)	0.93
TV시청	89.8(62.0) _a	72.7(55.9)	64.6(53.5) _b	6.64 ^{***}
게임	15.9(33.6)	15.8(30.7)	14.9(33.7)	0.03
성인과의 외출	26.4(34.4) _b	37.7(40.6)	43.3(36.3) _a	6.70 ^{***}
책읽기	32.4(93.0)	33.2(28.6)	37.4(26.9)	0.71
휴식 및 낮잠	41.8(63.6) _b	62.6(78.7)	64.9(82.2) _a	4.72 ^{**}
그냥 있기	9.9(32.4)	17.5(53.2)	21.6(84.8)	1.65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 < .05. *p* < .01. ****p* < .001.

소득계층별로 영유아의 하루 동안의 활동의 차이를 *F*검정한 결과를 보면, 친구와 놀기, TV시청, 성인과의 외출, 휴식 및 낮잠에서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기초수급 가정 가정의 영유아가 3층이상가정의 영유아보다 TV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과의 외출, 휴식 및 낮잠의 활동을 3층이상가정의 영유아가 기초수급가정의 영유아보다 하루일과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1-8 참조).

나) 가정에서 영유아끼리 지내는 시간

성인의 보호 없이 영유아들끼리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V-1-9>와 같다. 성인 없이 영유아들끼리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응답이 81.9%이었고, 가족유형별,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성인의 보호 없이 영유아들끼리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먼저,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손가정의 영유아들이 성인 없이 4시간 이상 지낸다는 응답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손가정의 경우 주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아동방임의 가능성을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더 많이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V-1-9> 가정에서 보호자 없이 영유아들끼리만 지내는 시간

구분	단위: %(명)					계(명)	$\chi^2(df)$
	거의없음	1시간정도	2시간정도	3시간정도	4시간이상		
전체	81.9	7.8	4.9	1.9	3.4	100.0(669)	
가족유형별							
양부모	83.8	8.2	3.8	1.7	2.5	100.0(476)	12.95(8)
한부모	74.1	9.1	7.0	3.5	6.3	100.0(143)	
조손	91.7	-	-	-	8.3	100.0(12)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78.8	7.6	5.9	2.9	4.7	100.0(170)	4.62(8)***
차상위	79.5	10.2	5.3	1.7	3.3	100.0(303)	
3층 이상	84.3	4.3	4.3	2.9	4.3	100.0(70)	

***p < .001.

다음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성인의 보호 없이 영유아들끼리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3층이상가정의 영유아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가정의 영유아들 보다 성인의 보호 없이 영유아들끼리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영유아가 방임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 일상생활 중 영유아 지도 및 관리

조사대상 가정에서 일상생활 중 부모가 영유아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V-1-10 참조).

〈표 V-1-10〉 일상생활 중 영유아 지도 및 관리

단위: 점

구분	집안청결 유지	균형 있는 식사제공	신체청결 유지	기본생활 습관지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TV 또는 비디오 시청시간제한	정해진 취침시간 지도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전체	3.8(0.8)	3.7(0.8)	4.1(0.7)	3.9(0.8)	3.6(1.0)	3.5(1.0)	3.8(0.9)
가족유형별							
양부모	3.9(0.7)	3.7(0.8) _a	4.1(0.7)	4.0(0.8)	3.7(0.9) _a	3.7(1.0) _a	3.9(0.9) _a
한부모	3.8(0.8)	3.4(0.9) _b	4.1(0.7)	3.8(0.7)	3.4(1.0) _b	3.4(1.0) _b	3.6(0.1) _b
조손	3.3(3.3)	3.3(0.8)	3.9(0.8)	3.6(0.8)	2.8(1.4) _b	2.3(1.2) _c	3.7(0.3)
<i>F</i>	3.61 [*]	10.48 ^{***}	0.69	2.61	8.24 ^{***}	14.77 ^{***}	4.44 [*]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3.7(0.9)	3.4(0.9) _a	4.0(0.7)	3.8(0.7) _a	3.4(1.1) _a	3.3(1.1) _a	3.6(1.0) _a
차상위	3.9(0.7)	3.7(0.8) _b	4.2(0.7)	4.0(0.8) _b	3.7(0.9) _b	3.6(1.0) _b	3.8(0.9) _b
3층 이상	3.8(0.7)	3.7(0.8) _b	4.1(0.7)	4.0(0.7) _b	3.7(0.8) _b	3.7(1.0) _b	3.9(0.9) _b
<i>F</i>	2.81	10.54 ^{***}	1.95	6.32 ^{**}	4.91 ^{**}	8.19 ^{***}	5.04 ^{**}

주: a, b, c 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 $p < .05$. ** $p < .01$. *** $p < .001$.

가족유형에 따른 영유아 지도·관리 수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균형 있는 식사 제공, 인스턴트 음식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TV 또는 비디오 시청시간 제한, 정해진 취침시간 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양부모가정의 부모가 한부모가정의 부모보다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도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양육자보다 제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또는 비디오 시청시간을 제한하는 정도는 양부모가정의 부모가 가장 높았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취침시간 또한 양부모가정 부모가 한부모가정 부모에 비해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른 영유아 지도·관리 수준을 알아본 결과에서는 균형 있는 식사 제

공, 기본생활습관지도, 인스턴트 음식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TV 또는 비디오 시청시간 제한, 정해진 취침시간 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차상위가정과 3층이상가정이 기초수급가정보다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더 잘하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또는 비디오 시청시간을 제한하고 정해진 취침시간을 지도하는 수준 또한 3층이상가정이 기초수급가정 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소득계층이 낮은 가정에서 일상생활 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규칙적인 식사 제공

영유아에게 일주일간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일수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에게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86.2%로 가장 높았다(표 V-1-11 참조).

〈표 V-1-11〉 영유아에게 일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일수

단위: %(명)

구분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3일이상 규칙적으로	2일이상 규칙적으로	일주일 내내 불규칙하게	계(명)	$\chi^2(df)$
전체	86.2	11.2	1.0	1.5	100.0(669)	
가족유형별						
양부모	88.9	9.5	0.8	0.8	100.0(476)	20.91(6)
한부모	75.5	19.6	1.4	3.5	100.0(143)	
조손	83.3	8.3	-	8.3	100.0(12)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80.0	14.7	2.4	2.9	100.0(170)	9.60(6) ***
차상위	87.1	11.2	0.7	1.0	100.0(303)	
3층 이상	88.6	11.4	-	-	100.0(70)	

***p < .001.

가족유형에 따른 규칙적인 식사 제공 횟수를 살펴보면,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모두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으나, 불규칙하게 제공한다는 응답은 조손가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소득계층에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 제공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

한다는 응답이 3층이상가정이 88.6%로 가장 높았고, 차상위가정이 87.1%, 기초수급가정이 80.0%순이었다. 반면, 일주일 내내 불규칙하게 제공한다는 응답은 기초수급가정이 2.9%, 차상위가정이 1.0%, 3층이상가정은 0%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에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불규칙하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시기가 양육자의 절대적인 양육지원이 필요한 때이므로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못한다는 것은 영유아가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4) 영유아와 함께 하는 활동

평소 영유아와 함께 책을 읽는 횟수에 대해서 가족유형에 따라 영유아와 함께 책 읽는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V-1-12 참조). 즉, 주 3회 이상 읽는다는 응답은 양부모가정이 48.1%로 가장 높아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영유아와 함께 책을 읽는 빈도가 높았고, 조손가정은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비해 이러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2〉 영유아와 함께 책 읽은 빈도

구분	주 3회 이상	주 1~2회	거의 안함	계(명)	단위: %(명) $\chi^2(df)$
가족유형별					
양부모	48.1	38.2	13.7	100.0(476)	59.63(4) ^{***}
한부모	27.3	45.5	27.3	100.0(143)	
조손	-	16.7	83.3	100.0(12)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34.7	39.4	25.9	100.0(170)	11.48(4) [*]
차상위	44.6	39.9	15.5	100.0(303)	
3층 이상	45.7	42.9	11.4	100.0(70)	

*p < .05. ***p < .001.

소득계층에 따른 영유아와 함께 책 읽는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 3회 이상 읽는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기에 부모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을 통해 애착을 증진할 수 있고, 정서·학습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

층의 영유아들에게 또래아들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영유아와 함께 만들거나 그리기 활동을 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거의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1%로 가장 높았고, 주 1~2회가 39.5%, 주 3회 이상이 19.6% 순으로 나타났다(표 V-1-13 참조).

가족유형에 따라 영유아와 함께 만들거나 그리기 활동을 하는 횟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손가정보다 양부모가정이 주 3회 이상 영유아와 함께 만들거나 그리기 활동을 하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조손가정에서 주 3회 이상 영유아와 만들거나 그리기 활동을 함께 한다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조손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계층에 따라 영유아와 함께 만들거나 그리기 활동을 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차상위가정과 3층이상가정은 주 1~2회, 거의 안함, 주 3회 이상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기초수급가정은 거의 안함이 절반을 차지하고 주 3회 이상도 15.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기초수급가정의 부모들이 영유아와 함께 만들기 또는 그리기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1-13〉 영유아와 함께 만들기 또는 그리기 활동 빈도

단위: %(명)					
구분	주 3회 이상	주 1~2회	거의 안함	계(명)	$\chi^2(df)$
전체	19.6	39.5	41.0	100.0(669)	
가족유형별					
양부모	22.7	40.3	37.0	100.0(476)	21.33(4) ^{***}
한부모	13.3	39.2	47.6	100.0(143)	
조손	-	8.3	91.7	100.0(12)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15.3	34.7	50.0	100.0(170)	8.70(4)
차상위	20.8	42.6	36.6	100.0(303)	
3층 이상	17.1	44.3	38.6	100.0(70)	

***p < .001.

주양육자가 직접 영유아에게 글자나 수를 가르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주 1~2회가 36.4%로 가장 높았고, 주 3회가 33.6%, 거의 안함이 30.3% 순으로 나타났다(표 V-1-14 참조). 가족유형에 따라 영유아에게 글자 또는 수를 가르치는 횟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에선 각 응답이 비교적 고르게 나왔으나 조손가정에선 거의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3.3%로 월등히 많았다. 즉,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이 영유아에게 글자나 수 등 학습지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에 따라 영유아에게 글자 또는 수를 가르치는 횟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층이상가정과 차상위가정은 거의 안함인 22.9%와 23.4%로 나타나는 등 비슷했으나 기초수급가정은 거의 안함인 41.8%로 그 다음으로 많은 31.2% 보다 약 10% 정도가 더 높았다. 3층이상가정과 차상위가정 간의 차이보다는 기초수급가정과 다른 계층 가정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에 주목할 만하다.

〈표 V-1-14〉 영유아에게 글자 또는 수를 가르치는 빈도

구분	주 3회 이상	주 1~2회	거의 안함	계(명)	$\chi^2(df)$
전체	33.6	36.0	30.3	100.0(669)	
가족유형별					
양부모	36.1	35.3	28.6	100.0(476)	17.97(4)**
한부모	30.1	37.1	32.9	100.0(143)	
조손	8.3	8.3	83.3	100.0(12)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27.1	31.2	41.8	100.0(170)	20.48(4)***
차상위	39.3	37.3	23.4	100.0(303)	
3층 이상	34.3	42.9	22.9	100.0(70)	

p < .01. *p < .001.

영유아와 함께 놀이터에 가거나 함께 신체운동을 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주 3회 이상이 42.3%로 가장 높았고, 주 1~2회가 37.8%, 거의 안함인 19.9% 순으로 나타났다(표 V-1-15 참조).

가족유형에 따라 영유아와 함께 놀이터에 가거나 함께 신체운동을 하는 횟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이 주 3회 이상 영유아와 놀이터에 가거나 신체운동을 하는 횟수가 많았다. 반면, 이러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조손가정의 응답이 83.3%로 가장 높아 주양육자가 조부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유아들이 실외활동 빈도가 적은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계층에 따라 영유아와 함께 놀이터에 가거나 함께 신체운동을 하는 횟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3회 이상 영유아

와 함께 놀이터에 가거나 신체운동을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이러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기초수급가정이 25.9%, 차상위가정이 17.2%, 3층이상가정이 11.4%로 계층이 낮을수록 높았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따라 주양육자와 영유아가 함께 외부 활동을 하는 빈도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15〉 영유아와 함께 놀이터에 가거나 신체운동을 한 빈도

					단위: %(명)
구분	주 3회 이상	주 1~2회	거의 안함	계(명)	$\chi^2(df)$
전체	42.3	37.8	19.9	100.0(669)	
가족유형별					
양부모	49.2	35.1	15.8	100.0(476)	56.76(4) ***
한부모	25.9	46.9	27.3	100.0(143)	
조손	8.3	8.3	83.3	100.0(12)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29.4	44.7	25.9	100.0(170)	18.19(4) **
차상위	46.9	36.0	17.2	100.0(303)	
3층 이상	50.0	38.6	11.4	100.0(70)	

p < .01. *p < .001.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도서관에 간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66.1%로 그렇다는 응답 33.9% 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았다(표 V-1-16 참조).

〈표 V-1-16〉 최근 6개월간 도서관에 간 경험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chi^2(df)$
전체	33.9	66.1	100.0(669)	
가족유형별				
양부모	35.3	64.7	100.0(476)	4.09(2)
한부모	32.2	67.8	100.0(143)	
조손	8.3	91.7	100.0(12)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23.5	76.5	100.0(170)	19.74(2) ***
차상위	40.3	59.7	100.0(303)	
3층 이상	50.0	50.0	100.0(70)	

***p < .001.

가족유형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도서관에 간 경험 유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은 아니오라는 응답이 그렇다는 응답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아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나 조손가정은 아니오라는 응답이 91.7%로

압도적으로 많아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이 영유아와 함께 도서관에 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소득계층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도서관에 간 경험 유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최근 6개월간 도서관에 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층이상가정에서 50.0%, 차상위가정 40.3%, 기초수급가정 23.5%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활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인형극이나 뮤지컬을 본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25.4%, 아니오라는 응답이 74.6%로서 전체적으로 영유아와 함께 인형극이나 뮤지컬 관람 등 문화활동을 즐기는 가정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표 V-1-17 참조).

가족유형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인형극이나 뮤지컬을 본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양부모와 한부모가정이 각각 그렇다 26.1%와 24.5%로 나타난 반면 조손가정에선 단 한가정도 최근 6개월간 인형극이나 뮤지컬을 보러간 경험이 없었다. 이는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도서관에 간 경험을 조사했을 때와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결과이다.

소득계층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인형극이나 뮤지컬을 본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기초수급가정, 차상위가정, 3층이상가정 계층에서 모두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인형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가지 않은 경우가 보러간 경우보다 2배 이상을 넘는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수급가정의 경우가 영유아와 함께 인형극이나 뮤지컬을 본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 V-1-17〉 최근 6개월간 인형극, 뮤지컬 관람 경험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명)	$\chi^2(df)$
전체	25.4	74.6	100.0(669)	
가족유형별				
양부모	26.1	73.9	100.0(476)	4.27(2)
한부모	24.5	75.5	100.0(143)	
조손	-	100.0	100.0(12)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21.2	78.8	100.0(170)	5.37(2)
차상위	30.0	70.0	100.0(303)	
3층 이상	32.9	67.1	100.0(70)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미술관, 박물관, 고궁 방문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니오라는 응답이 80%에 육박해 인형극, 뮤지컬 보다 영유아와 함께 미술관, 박물관, 고궁 등을 견학 또는 관람하는 가정이 더욱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표 V-1-18 참조).

가족유형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미술관, 박물관, 고궁 방문 경험 유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인형극, 뮤지컬 관람 경험 조사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에서 그렇다는 답변이 각각 24.8%, 15.4%로 아니오라는 답변보다 훨씬 적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고 조손가정에선 그렇다는 답변이 하나도 없다는 점도 같았다. 즉,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최근 6개월간 미술관이나 박물관, 고궁 방문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미술관, 박물관, 고궁에 방문한 경험 유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와 함께 미술관, 박물관, 고궁에 방문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8〉 최근 6개월간 미술관, 박물관, 고궁 방문 경험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명)	$\chi^2(df)$
전체	21.8	78.2	100.0(669)	
가족유형별				
양부모	24.8	75.2	100.0(476)	9.12(2)*
한부모	15.4	84.6	100.0(143)	
조손	-	100.0	100.0(12)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13.5	86.5	100.0(170)	15.93(2)***
차상위	27.1	72.9	100.0(303)	
3층 이상	34.3	65.7	100.0(70)	

*p < .05. ***p < .001.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간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인데 그렇다는 대답이 52.6%,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47.4%로 비슷했다(표 V-1-19 참조).

가족유형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간 적이 있는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에 비해 영유아와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간 적이 있

는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경제력이 양호할수록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간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V-1-19〉 최근 6개월간 놀이공원, 동물원에 간 경험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명)	$\chi^2(df)$
전체	52.6	47.4	100.0(669)	
가족유형별				
양부모	57.6	42.4	100.0(476)	22.82(2) ***
한부모	44.8	55.2	100.0(143)	
조손	8.3	91.7	100.0(12)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38.2	61.8	100.0(170)	23.90(2) ***
차상위	59.1	40.9	100.0(303)	
3층 이상	65.7	34.3	100.0(70)	

***p < .001.

이와 같이 영유아와 함께 하는 활동이나 문화체험 등의 경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조손가정의 양육환경이 열악함을 짐작할 수 있다. 영유아가 성장과정 중 다양한 체험에 의해 지식을 습득하고,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점과 조손가정 특성상 조부모가 겪는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해하여 국가에서 이러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 및 조부모를 위한 부모·양육교육 등의 가족 지원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양육관

주양육자가 현재 양육을 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와 향후 양육에 대한 기대감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V-1-20>과 같다. 가족유형에 따라 현재 영유아 양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양부모가정의 양육자가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양육자보다 현재 영유아 양육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양육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양육자가 조손가정의 양육자보다 향후 양육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라 현재 양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3층이상가정의 부모가 기초수급가정의 부모보다 현재 양육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양육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V-1-20 참조).

〈표 V-1-20〉 양육에 관한 인식 및 기대

단위: 점

구분	현재 양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 <i>M(SD)</i>	향후 양육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i>M(SD)</i>
전체	2.7(0.7)	3.0(0.7)
가족유형별		
양부모	2.7(0.7) _a	3.1(0.7) _a
한부모	2.5(0.7) _b	3.0(0.7) _a
조손	2.3(0.8) _b	2.4(0.5) _b
<i>F</i>	8.62 ^{***}	6.37 ^{***}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2.6(0.7) _a	3.0(0.7)
차상위	2.7(0.6)	3.0(0.7)
3층 이상	2.9(0.7) _b	3.2(0.7)
<i>F</i>	4.22 [*]	1.92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 < .05. ***p < .001.

6) 육아 정보 습득 경로

영유아 양육 시 필요한 육아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습득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주양육자의 친구·이웃·동료로부터 제공 받는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영유아가 다니는 교육·보육기관의 원장이나 교사로부터 제공 받는다가 18.2%, TV, 인터넷, 미디어매체로부터 제공받는다가 16.0%, 복지관, 동사무소, 보건소, 지역 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가 10.8%, 주양육자의 형제자매로부터 받는다가 7.8%, 영유아의 외조부모로부터 제공받는다가 4.2%, 육아관련서적에서 제공받는다가 3.3%, 육아정보를 제공 받는 곳이 없다는 응답이 2.1%, 그 밖에 영유아의 친조부모, 종교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가 각각 0.7%, 0.1% 순으로 나타났다(표 V-1-21 참조).

또한 어디에서 제공 받은 육아정보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분석 결과, 주양육자의 친구·이웃·동료로부터 받은 정보가 유용하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영유아가 다니는 교육·보육기관의 원장이나 교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20.8%, 복지관, 동사무소, 보건소, 지역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가 14.8%, TV, 인터넷, 미디어매체로부터 받은 정보가 1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유용한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표 V-1-21 참조).

주양육자가 영유아 양육 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장 많이 도움을 제공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영유아의 외조부모가 2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양육자의 친구·이웃·동료 20.3%, 주양육자의 형제자매 19.0%, 도움을 제공해줄 사람이 없다고 13.3%, 영유아의 친조부모 13.2%, 공공기관(복지관, 동사무소 등) 5.8%, 영유아가 다니는 교육·보육기관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V-1-21 참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양육 시 긴급 도움 요청은 가족이나 친구 등 개인적인 친밀감이 우선시되며, 개인적으로 부탁할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위급한 상황에서 영유아 양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V-1-21〉 육아정보 제공자 및 습득경로

구분	가장 유용한 육아정보제공자		계
	가장 유용한 육아정보제공자	긴급상황시 육아지원제공자	
영유아의 외조부모	4.0	22.8	100.0(669)
영유아의 친조부모	1.3	13.2	
주양육자의 형제자매	7.0	19.0	
주양육자의 친구·이웃·동료	32.0	20.3	
공공기관(복지관, 동사무소 등)	14.8	5.8	
영유아가 다니는 교육·보육기관	20.8	5.5	100.0(669)
TV, 인터넷, 미디어매체	13.9	-	
육아관련서적	3.9	-	
종교기관	0.1	0.1	
없음	2.1	13.3	

7) 영유아의 연령별 주양육자

조사대상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누가 주양육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돌 전에는 부모가 94.0%로 월등히 많았고, 그 다음 조부모 5.4%, 친인척 0.6%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에는 부모가 85.7%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 5.1%, 친인척 0.6%, 어린이집이 0.4%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에는 부모가 60.5%, 조부모 3.4%, 유치원 0.4%, 친인척 0.1% 순으로 나타나 영유아가 성장할수록 부모가 주양육을 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기관에 위탁하는 비율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표 V-1-22 참조).

〈표 V-1-22〉 영유아의 연령별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조부모	친인척	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해당 없음	계
돌 전	5.4	0.6	94.0	-	-	
영아기	5.1	0.6	85.7	0.4	8.2	100.0(669)
유아기	3.4	0.1	60.5	0.4	35.4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 이외에 어디에서 양육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돌 전에는 그래도 영유아 양육은 부모만 가능하다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조부모가 34.8%, 친인척이 6.6%, 놀이방에 위탁이 2.8%, 어린이집이 1.6%, 잘 모름이 0.4%, 유치원, 기타가 각각 0.1% 순으로 나타났다(표 V-1-23 참조). 영아기에도 부모만 가능하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가 28.1%, 놀이방에 위탁이 12.9%, 어린이집이 10.5%, 친인척이 6.0%, 잘 모름이 0.6%, 선교원 0.4%, 탁아 등 비혈연이 0.3%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에는 유치원이 3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어린이집이 24.1%, 부모만 가능하다는 응답이 14.6%, 조부모 13.5%, 놀이방에 위탁이 3.3%, 친인척이 2.1%, 선교원이 1.9%, 잘 모름이 0.4%, 학원이 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단계에 따라 영아기까지는 부모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유아기로 성장함에 따라 부모 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기관에서 필요한 양육을 지원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3〉 영유아의 연령시기에 따라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자

단위: %(명)

구분	조부모	친인척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	비혈연	학원	부모만 가능	기타	잘모름	계
돌 전	34.8	6.6	2.8	1.6	0.1	-	-	-	53.4	0.1	0.4	
영아기	28.1	6.0	12.9	10.5	1.0	0.4	0.3	-	40.2	-	0.6	100.0(669)
유아기	13.5	2.1	3.3	24.1	39.9	1.9	-	0.1	14.6	-	0.4	

8) 영유아 양육의 어려움

조사대상 부모가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하여 중요도 순으로 두 가지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한 대답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¹⁸⁾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V-1-24>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들은 영유아의 교육·보육비 납부가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였으며, 영유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 사·공교육비를 제외한 대상아동 양육비 납부, 주거공간 협소 및 설비 미흡, 영유아 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어려움 순으로 양육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4> 영유아를 양육하면 느끼는 어려움

가중치 순위	구분
1	대상 영유아 교육·보육비가 부담스러움
2	대상 영유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
3	대상 영유아 양육비가 부담스러움(사공교육비 제외)
4	주거 공간 협소 및 설비 미흡(방, 목욕시설 등)
5	대상 영유아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이를 가족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양부모가정은 교육·보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27.3%로 가장 많았으나, 한부모가정은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7.3%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응답도 11.2%이었다. 조손가정은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41.7%였으며, 학습지도 방법을 몰라서 어렵다는 응답이 33.3%로 나타나 가족유형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유형에 따른 지원이 다르게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부표 V-1-1 참조).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기초수급 가정은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보육비가 부담스럽다, 양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의 순이었다. 차상위 계층은 교육·보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상 영유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 양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순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에 따라 양육의 어려움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부표 V-1-2 참조).

18) 1순위,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므로 1순위에 200%, 2순위에 100%의 가중치를 부여한 값으로 계산하였음.

9)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

조사대상가족이 직면한 어려운 점에 대하여 중요도 순으로 두 가지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한 대답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V-1-25>에 제시하였다. 1순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영유아 양육 및 교육, 주택 및 주거관련 문제, 여가 및 문화활동 부족, 환자의 간병 및 치료, 일상생활에서 삶의 의욕상실, 좌절감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25>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

가중치 순위	구분
1	경제적 어려움
2	대상 영유아 양육 및 교육
3	주택 및 주거관련 문제
4	여가 및 문화활동 부족
5	환자의 간병 및 치료
6	일상생활에서 삶의 의욕상실, 좌절감

이에 대해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부록 표 V-1-3 참조). 소득계층에 따라서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저소득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비율은 기초수급 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부표 V-1-4 참조).

다. 어머니와 영유아의 특성 및 모형 검증

1) 어머니 정신건강

<표 V-1-26>은 소득계층에 따른 조사대상 영유아 어머니의 정신건강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어머니의 자존감, 우울감,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기초수급가정의 어머니 집단과 차상위가정의 어머니 집단, 기초수급가정의 어머니 집단과 3층 이상 가정의 어머니 집단 간의 정신건강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기초수급가정의 어머니보다 차상위가정과 3층이상가정의 어머니가 자신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우울감이 낮았고, 배우자가 남편·영유아의 양육자로서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육이나 환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V-1-26〉 소득계층에 따른 어머니의 자존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점수의 차이

단위: 점

구분	자존감 <i>M(SD)</i>	우울감 <i>M(SD)</i>	결혼만족도 <i>M(SD)</i>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2.7(0.4) _a	2.9(1.0) _a	3.0(1.0) _a
차상위	2.8(0.4) _b	2.4(1.1) _b	3.4(0.8) _b
3층 이상	2.9(0.4) _b	2.3(1.0) _b	3.5(0.9) _b
<i>F</i>	10.53 ^{***}	13.29 ^{***}	11.00 ^{***}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 < .001.

〈표 V-1-27〉은 소득계층에 따른 조사대상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가정이 가장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층이상가정, 차상위가정 순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1-27〉 소득계층에 따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점수의 차이

단위: 점

구분	양육스트레스(총점) <i>M(SD)</i>	일상적스트레스 <i>M(SD)</i>	부모역할스트레스 <i>M(SD)</i>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3.1(0.8)	3.0(0.8)	3.1(0.8)
차상위	2.9(0.7)	2.9(0.7)	3.0(0.7)
3층 이상	3.0(0.7)	3.0(0.8)	3.0(0.7)
<i>F</i>	1.42	0.75	2.14

소득계층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온정·격려, 한계설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V-1-28 참조).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온정·격려에서는 기초수급가정 어머니와 차상위가정의 어머니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한계설정에서는 기초수급가정의 어머니와 차상위가정의 어머니, 기초수급가정의 어머니와 3층이상가정의 어머니 간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수급가정의 어머니보다 차상위가정의 어머니가 영유아에 대한 수용, 애정표현, 필요한 도움 제공, 자율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 등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수급가정의 어머니보다 차상위 가정의 어머니와 3층이상가정의 어머니가 영유아의 일상생활에서 규칙을 정해 지키도록 하며,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보호·허용의 양육행동과 거부·방임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소득계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V-1-28〉 소득계층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점수의 차이

단위: 점

구분	온정·격려 <i>M(SD)</i>	한계설정 <i>M(SD)</i>	과보호·허용 <i>M(SD)</i>	거부·방임 <i>M(SD)</i>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24.8(4.0) _a	20.1(3.9) _a	10.9(2.9)	17.8(4.1)
차상위	25.9(3.8) _b	21.5(3.5) _b	10.3(3.3)	18.2(3.9)
3층 이상	25.2(4.3)	21.6(3.9) _b	10.0(3.4)	19.1(3.9)
<i>F</i>	5.0 ^{**}	8.6 ^{***}	2.3	2.7

주: a, b 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 < .01. *p < .001.

2) 영유아의 발달

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

부모가 인지하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이 또래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발달영역은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V-1-29).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조손가정의 양육자가 다른 집단의 양육자보다 영유아가 또래에 비해 신체발달과 사회성발달 수준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다른 집단의 부모보다 영유아가 또래에 비해 인지발달과 언어 발달, 정서발달 수준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양육자가 양부모가정의 양육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라 부모의 또래와 비교한 영유아의 발달수준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성발달과 정서발달수준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차상위가정 부모와 3층이상가정 부모 간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상위가정부모가 3층이상가정 부모보다 영유아의 사회성 및 정서발달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9〉 부모가 인지하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 인식의 차이

단위: 점

구분	신체발달 <i>M(SD)</i>	인지발달 <i>M(SD)</i>	언어발달 <i>M(SD)</i>	사회성발달 <i>M(SD)</i>	정서발달 <i>M(SD)</i>
가족유형별					
양부모	3.5(0.9)	3.5(0.9)	3.5(1.0)	3.6(0.9)	3.6(0.8)
한부모	3.5(0.9)	3.7(0.7)	3.6(0.9)	3.7(0.8)	3.7(0.8)
조손	3.7(1.1)	3.6(1.1)	3.3(1.1)	4.0(0.7)	3.6(0.9)
<i>F</i>	0.36	1.85	0.80	1.18	0.37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3.5(0.9)	3.6(0.8)	3.4(0.9)	3.6(0.8)	3.6(0.9)
차상위	3.5(0.9)	3.6(0.9)	3.6(1.0)	3.7(1.0) _a	3.8(0.8) _a
3층 이상	3.4(0.9)	3.5(0.9)	3.5(0.9)	3.4(0.9) _b	3.5(0.9) _b
<i>F</i>	0.04	0.72	1.94	4.01*	4.89**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 $p < .05$. ** $p < .01$.

또한 가장 걱정되는 영유아의 발달 영역에 대하여 조사대상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걱정되는 영역이 없다는 응답이 29.2%, 정서발달 20.2%, 사회성발달 18.2%, 신체발달 13.4%, 언어발달 12.0%, 인지발달 7.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가정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발달 영역에 비해 영유아의 정서·사회성발달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걱정되는 발달영역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양부모가정의 부모는 사회성발달이 2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정서발달이 17.3% 순이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정서발달 28.6%, 사회성발달과 신체발달이 13.5% 순이었다. 조손가정의 양육자는 정서발달과 언어발달을 걱정하는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아 다른 발달보다 월등히 걱정되는 발달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종합적으로 부모들이 영

유아의 발달영역 중 가장 걱정하는 영역은 정서·사회성발달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걱정되는 발달영역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기초수급가정은 정서발달 31.4%, 언어발달 16.6%, 사회성발달 13.6% 순으로, 차상위가정과 3층 이상가정은 걱정하는 발달영역이 각각 사회성발달 19.3%, 28.6%, 정서발달 15.6%, 20.0%, 신체발달 14.3%, 18.6%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영유아의 정서·사회성발달에 대한 염려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았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 부모들은 영유아의 정서·사회성발달 지원을 돕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V-1-30〉 걱정되는 영유아 발달 영역

단위: %(명)

구분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정서	없음	계(명)	$\chi^2(df)$
전체	13.4	12.0	7.1	18.2	20.2	29.2	100.0(665)	
가족유형별								
양부모	13.5	12.0	6.7	20.0	17.3	30.5	100.0(475)	18.82(10)*
한부모	15.0	10.0	6.4	15.0	28.6	25.0	100.0(140)	
조손	-	33.3	8.3	8.3	33.3	16.7	100.0(12)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13.0	16.6	3.6	13.6	31.4	21.9	100.0(169)	36.61(10)***
차상위	14.3	11.0	7.6	19.3	15.6	32.2	100.0(301)	
3층 이상	18.6	5.7	10.0	28.6	20.0	17.1	100.0(70)	

*p < .05. ***p < .001.

나) 영유아의 문제행동

유아행동평가척도(CBCL 1.5~5)로 조사대상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여 내재화, 외현화, 총 문제행동척도에서 임상범위(T점수 65점 이상)에 속한 영유아의 수를 사업수혜별, 가족유형별, 소득계층별로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V-1-31). 조사대상자의 영유아 중 총 21명이 내재화 문제행동을, 26명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23명이 문제행동증후군의 임상범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1〉 영유아 문제행동

단위: %(명), 점

구분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문제행동증후군	
	비율	M(SD)	비율	M(SD)	비율	M(SD)
가족유형						
양부모	66.7	72.7(9.0)	73.1	70.5(7.4)	65.2	73.9(9.9)
한부모	33.3	76.3(6.2)	26.9	75.0(7.8)	34.8	76.3(9.2)
계(명)	100.0(21)		100.0(26)		100.0(23)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42.1	72.3(7.9)	34.8	72.5(8.6)	30.0	76.2(10.9)
차상위	42.1	75.9(8.2)	39.1	73.9(9.5)	50.0	76.5(9.4)
3층 이상	15.8	67.3(1.5)	26.1	66.8(1.5)	20.0	67.0(1.4)
계(명)	100.0(19)		100.0(23)		100.0(20)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V-1-32 참조). 먼저, 영유아의 성, 가계 월소득, 어머니의 취업유무, 아버지의 직업 등 사회경제적 변인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하지 않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모형 1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거부·방임이 유의하였으며, 이는 전체 변인의 7%를 설명하였다. 모형 2에 어머니가 인지한 영유아의 발달수준을 투입한 결과 인지발달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모형3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이존 중감, 우울 등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 4에서 유아의 하루일과를 투입한 결과, 주양육자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전체 변량의 16%를 설명하였다. 영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영유아를 거부하거나 방임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며, 어머니가 인지한 영유아의 발달영역 중 인지발달이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정신건강이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유아의 하루일과 중 주양육자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은 설명력은 크지 않으나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주양육자가 영유아와 함께 놀이를 하며 보내는 것이 유아의 건전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와 관련된 요인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적절한 양육행동과 어머니 자신의 건전한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1-32〉 영유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B	β	B	β	B	β	B	β
어머니 양육행동	거부·방임	4.73***	0.76	4.30***	0.25	3.12***	0.18	3.03***	0.79
영유아 발달수준	인지발달			-3.00***	-0.22	-2.81***	-0.21	-2.71***	-0.20
어머니 정신건강	우울					2.04**	0.18	2.07**	0.18
유아의 하루일과	주양육자와 놀이하는 시간(분)							-0.01**	-0.12
F-test		38.594***		33.576***		27.911***		23.138***	
R ² (수정된 R ²)		0.07(0.07)		0.12(0.12)		0.15(0.14)		0.16(0.16)	
ΔR ²				0.5		0.3		0.1	

p < .01 *p < .001.

3) 모형의 검증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우울을 지적하는 연구들은 어머니의 우울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남소현·김영희, 2000; 황혜원, 2004; Davies & Dumenci, 1999; Downey & Coyne, 1990). 또한 우울증이 있는 부모 중 68%가 부모 역할에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Miller, Birnbaum, & Durbin, 1990). 공적 복지 수혜자 아동을 둔 저임금의 모자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Jackson, Brooks-Gunn, Huang과 Glassman(2000)의 연구에서도 위와 유사한 경로 관계를 밝히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머니의 건강과 스트레스는 높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우울은 양육의 질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양육의 질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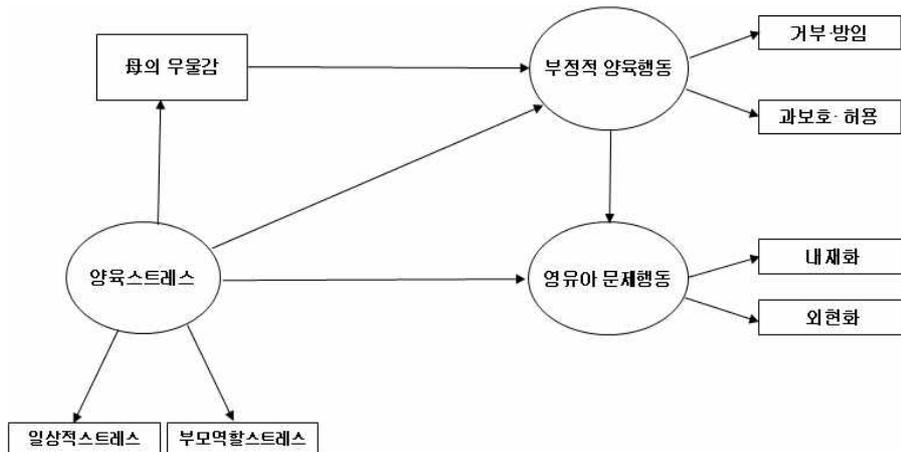
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로부터 부모의 우울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및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Crnic & Greenberg, 1990),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고, 더 우울하며, 아동에 대해 더 부정적이고 통제적인 부모 역할을 보인다고 하였고(Bigars, Lafreniere & Dumas, 1994),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ick & Booth,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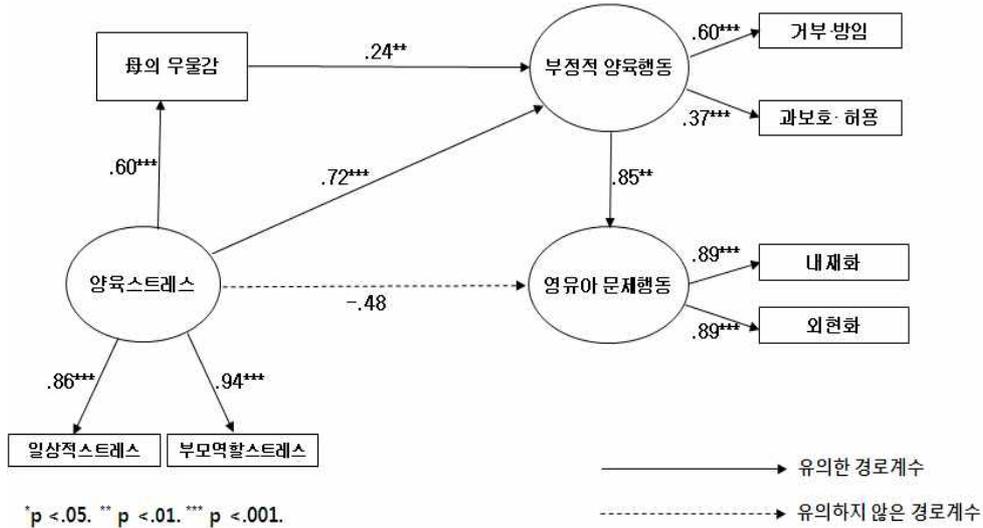
이상에서 검토하였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예측되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우울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V-1-2]의 이론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검토된 이론 모형에 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표-V-1-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TLI는 .988, CFI는 .996으로 1에 가깝고 RMSEA는 .034로 0에 가까워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3>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

이론모형	χ^2	<i>df</i>	NFI	TLI	CFI	RMSEA
적합도지수	17.728	10	.990	.988	.996	.034



[그림 V-1-2]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론모형



[그림 V-1-3]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최종모형: 경로와 표준화 계수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나타난 변인들 간의 경로를 위의 [그림 V-1-3]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 모형의 분석결과 본 모형의 경로들을 통해 영유아의 문제행동은 25% 설명되었다. 영유아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에 관해서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고,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의 간접경로로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우울감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결국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감이 커지고, 어머니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의 간접적인 경로로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

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부정적이 되고,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영유아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부모역할 수행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정신건강을 가장 잘 예측한다는 연구(Crnic & Greenberg, 1990)에서 밝히는 결과와 일치된 것으로, 부모-영유아 체계의 중심인 어머니가 과도한 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하면 부모로서의 유능감에 회의를 느끼고 이에 따라 영유아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영유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영유아의 정서나 행동상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민현숙·문영경, 2009). 또한 위의 결과는 우울한 어머니는 영유아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적게 하고 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으며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통제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한 연구 결과(Cummings & Davies, 1994)와 일치된 결과로써, 우울한 어머니의 영유아는 흔히 어머니로부터 방임되고 적대감을 경험하며 거부당하므로 애정을 충족시킬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받아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 조기에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영유아에게 적절하고 민감하고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고, 방임이나 거부 혹은 무조건적인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연령과 상황에 적합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양육기술 및 방법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어머니가 영유아를 양육함에 있어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이 매우 필요함이 입증되었다.

라. 육아지원기관

1) 교육·보육기관

가) 교육·보육기관 종류

본 조사대상 영유아들은 대부분 보육시설(52.9%)과 유치원(42.9%)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 양부모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들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에 다니는 유아의 비율이 50.3%, 45.6%이었으며, 한부모가정의 영유아들은 63.4%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으며, 34.1%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손가정의 영유아들은 보육시설에 50%, 유치원에 37.5%, 종교재단 시설에 12.5%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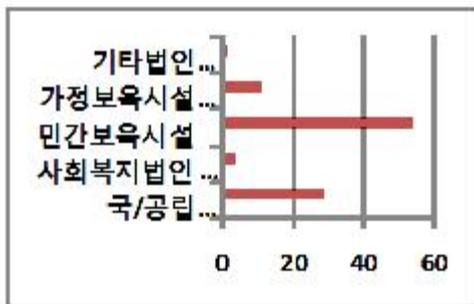
소득계층별로 이용하고 있는 교육보육기관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초수급 가정의 영유아들은 65.0%가 보육시설에, 30.7%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차상위가정 영유아들은 유치원에 52.3%, 보육시설에 44.4%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층이상가정의 영유아들은 보육시설에 53.7%, 유치원에 44.4%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가 더 많으며, 상대적으로 유치원에 재원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4〉 교육·보육기관 이용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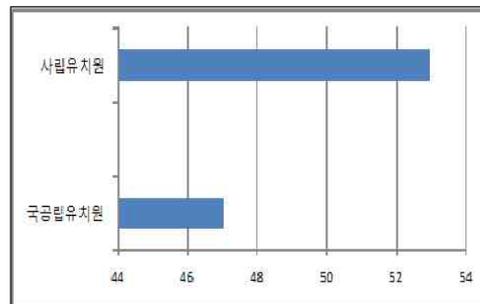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종교재단 교육/보육시설	학원 반일반 이상	계(명)	χ ² (df)
전체	52.9	42.9	3.6	0.6	100(503)	
가족유형별						
양부모	50.3	45.6	3.6	0.6	100(338)	8.80(6)
한부모	63.4	34.1	2.4	-	100(123)	
조손	50.0	37.5	12.5	-	100(8)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65.0	30.7	4.4	-	100(137)	20.54(6)**
차상위	44.4	52.3	2.1	1.3	100(239)	
3층 이상	53.7	44.4	1.9	-	100(54)	

**p < .01.



[그림 V-1-4] 이용 보육시설 종류



[그림 V-1-5] 재원 유치원 종류

나) 교육·보육기관 이용시간

교육·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이 기관이용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관 재원시간을 알아보았다(표 V-1-35 참조). 보육시설의 경우 7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4%로 가장 많았으며, 9시간 미만과 8시간 미만이 19.9%, 17.3%의 순이었다. 유치원의 경우 8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3.1%로 가장 많았으며, 6시간 미만이 19.4%, 9시간 미만이 15.7%이었다. 종교재단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7시간미만과 9시간 미만이 22.2%로 가장 많았다. 교육·보육기관을 합하여 영유아들이 기관에 재원 하는 시간은 8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다.

〈표 V-1-35〉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재원시간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종교단체기관	반일제학원	계(명)
5시간 미만	4.9	8.9	5.6	-	100.0(33)
6시간 미만	10.2	19.4	11.1	33.3	100.0(72)
7시간 미만	21.4	12.5	22.2	33.3	100.0(89)
8시간 미만	17.3	23.1	16.7	-	100.0(99)
9시간 미만	19.9	15.7	22.2	33.3	100.0(93)
10시간 미만	15.8	12.0	16.7	-	100.0(71)
10시간 이상	10.5	8.3	5.6	-	100.0(47)

다) 교육·보육기관 실제 납부비용

기관유형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는 유아의 수업료의 평균비용을 살펴보면, 종교단체기관의 수업료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반일제 학원, 유치원, 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표 V-1-36 참조).

급간식비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급간식비 평균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교단체, 유치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총합계에서는 종교단체기관의 수업료 평균 금액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치원, 반일제 학원, 보육시설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의 유형에 따라 가정에서 실제 납부하는 영유아의 월 평균 교육·보육기관의 교육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유형에 따라 유아의 수업료, 급간식비 및 총합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6〉 기관별 교육비 실제 납부비용

단위: 원

구분	수업료	교재· 교구비	급간식비	차량 운영비	특기 적성비	현장 학습비	종일반비	기타	계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보육 시설	30263.1 (49672.2)	10527.0 (19474.7)	5488.7 (13601.5)	720.7 (3825.8)	7211.7 (25180.4)	6747.8 (13471.9)	3630.6 (15674.8)	1779.3 (20604.2)	66368.9 (71433.6)
유치원	45678.2 (91546.6)	17600.3 (73830.2)	23789.3 (72718.9)	6066.0 (71329.8)	13852.8 (73554.3)	12152.3 (71596.5)	12200.0 (73579.0)	5076.1 (71247.0)	100882.0 (104353.0)
종교단 체기관	78857.1 (119646.8)	17857.1 (26941.1)	3357.1 (10043.0)	-	7642.9 (15959.6)	5000.0 (13445.0)	6428.6 (24053.5)	357.1 (1336.3)	119500.0 (106971.4)
반일제 학원	48666.7 (53528.8)	46666.7 (50332.2)	-	-	26666.7 (25166.1)	26666.7 (25166.1)	-	-	84235.5 (90793.1)
F	2.92*	1.06	4.95**	0.45	0.66	0.58	1.01	0.17	6.52***

*p < .05. **p < .01. ***p < .001.

라) 교육·보육기관의 비용 부담정도

교육·보육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의 부담정도에 대하여 전체 35.9%가 부담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적당하다와 매우 부담된다가 17.9%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교육·보육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보육시설은 22.1%, 유치원은 12.2%로 나타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표 V-1-37〉 교육·보육기관의 비용 부담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다	적당하다	부담되는 편이다	매우 부담된다	비용부담 안한다	계(명)
보육시설	3.2	9.9	18.5	28.8	17.6	22.1	100.0(222)
유치원	0.5	9.1	20.3	39.6	18.3	12.2	100.0(197)
종교재단시설	-	2.4	7.1	57.1	14.3	14.3	100.0(14)
반일제 학원	-	-	-	66.7	33.3	-	100.0(3)
전체	1.6	8.5	17.9	35.9	17.9	18.3	100.0(669)

마)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대상 영유아가 다니는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만족여부에 대해 전체의 59.1%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보육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38〉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구분	단위: %(명)					계(명)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보육시설	0.5	4.1	19.8	59.0	16.7	100.0(222)
유치원	0.5	4.1	20.3	58.4	16.8	100.0(197)
종교재단시설	-	-	21.4	71.4	7.1	100.0(14)
반일제 학원	-	-	33.3	66.7	-	100.0(3)
전체	0.4	4.2	20.4	59.1	15.9	100.0(504)

바) 교육·보육기관 선택 시 고려점

교육·보육기관 선택 시 고려하는 점에 대해 고려하는 중요도 순으로 1, 2순위로 응답한 문항에 대해 순위에 따라 다르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표 V-1-39>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교육·보육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점은 집에서 근접성이었으며, 두 번째가 비용의 문제였다. 또한 그 다음으로 정규교육내용의 선호도, 원장·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그 뒤를 이었으며, 시설환경, 형제자매가 같은 곳에 다니는 점도 선택 시 고려하는 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주변의 평판과 대상아동의 적응 때문에 기관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계속 보내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V-1-39〉 교육보육기관 선택 시 고려점

가중치 순위	내용
1	집에서 가까워서
2	비용이 저렴해서
3	정규 교육내용이 좋아서
4	원장, 교사가 좋아서
5	시설환경이 좋아서
6	형제자매가 같이 다니고 있어서
7	주변 평판이 좋아서
8	기관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대상아동의 적응 때문)

2) 교육·보육기관 외 이용하는 교육 (학원, 학습지, 방문교육 등)

교육·보육기관에 다니는 교육 이외에 조사대상 영유아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수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V-1-40 참조). 정규 교육기관 외에 받는 교육의 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가족유형별, 소득계층별 모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40〉 교육·보육기관외 이용 교육 수

단위: %(명)

구분	없다	1	2	3	4	5	8	$\chi^2(df)$
가족유형								
양부모	61.3	21.6	12.6	3.4	0.6	0.2	0.2	8.30(12)
한부모	58.7	18.9	15.4	4.2	2.1	0.7	-	
조손	83.3	16.7	-	-	-	-	-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57.6	20.0	20.0	2.4	1.2	0.6	0.6	9.30(12)
차상위	60.1	21.1	21.1	4.0	1.3	0.3	-	
3층 이상	61.4	21.4	10.0	7.1	-	-	-	

한편 교육·보육기관 외에 이용하고 있는 기관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대부분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교구놀이는 77.8%, 한글은 58.8%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교육·보육기관 외 이용하는 기관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체육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1〉 교육·보육기관 외 이용 하는 기관 교육 프로그램 정부 지원 여부

단위: %(명)

구분	음악	미술	체육	수·과학	한글	영어	교구놀이	기타
지원받음	17.4	15.8	30.0	44.4	58.8	16.7	77.8	71.4
지원받지않음	82.6	84.2	70.0	55.6	41.2	83.3	22.8	28.6
계	100.0(23)	100.0(19)	100.0(30)	100.0(9)	100.0(17)	100.0(6)	100.0(9)	100.0(7)

〈표 V-1-42〉 교육·보육기관 외 이용 하는 방문 교육 프로그램 정부 지원 여부

단위: %(명)

구분	음악	미술	체육	수·과학	한글	영어	교구놀이	기타
지원받음	50.0	100.0	-	20.8	54.0	41.7	73.7	87.5
지원받지않음	50.0	-	100.0	79.2	46.0	58.3	26.3	12.5
계	100.0(2)	100.0(1)	100.0(1)	100.0(77)	100.0(163)	100.0(12)	100.0(19)	100.0(32)

교육·보육기관 이외에 이용하는 방문 교육 프로그램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술, 한글, 교구놀이가 지원받고 있다는 응답이 100%, 73.7%, 54.0%이었으나 방문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적으나, 방문교육 중 한글과 수·과학의 방문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총교육비

영유아의 교육·보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와 기관 및 방문교육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총 가계소득대비 총교육비의 지출비율로 알아본 결과, 가족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교육비 지출비율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양부모가정이 가장 많았으며, 5%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조손가정이 많았다. 5~10%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양부모가정이 많았다. 30%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한부모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영유아를 맡길만한 곳이 없어 영유아에게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으나, 한부모가정의 경우 소득이 많지 않아 소득대비 지출이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소득계층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43〉 총 교육비 지출비율

구분	단위: %(명)								계(명)	χ^2 (df)
	없다	5% 미만	5~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25% 미만	25~30% 미만	30% 이상		
가족유형별										
양부모	41.7	15.8	18.6	11.6	7.5	2.8	0.2	1.7	100.0(424)	44.85 (14) ^{***}
한부모	26.2	15.1	12.7	15.9	14.3	3.2	3.2	9.5	100.0(126)	
조손	36.4	27.3	9.1	9.1	18.2	-	-	-	100.0(11)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34.2	13.2	13.8	15.1	10.5	3.9	2.6	6.6	100.0(152)	20.02 (14)
차상위	30.2	19.6	20.8	14.0	8.3	3.8	0.4	3.0	100.0(265)	
3층 이상	39.1	9.4	25.0	10.9	9.4	1.6	-	4.7	100.0(64)	

***p < .001.

마. 육아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

1)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육아지원정책

조사대상 영유아가 이용하는 교육·보육기관에 대해 정부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표 V-1-44 참조). 3~4세아 차등교육비 및 만5세아 무상교육비, 종일반비를 지원받는다는 응답이 각각 73.6% 및 57%로 지원받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많았고,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및 장애아 무상교육비는 지원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63.3% 및 95.7%로 지원받는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표 V-1-44〉 정부로부터 교육·보육기관 교육비 지원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두자녀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종일반비 지원
받음	73.6	57.0	36.7	4.3	65.3
받지 않음	26.4	43.0	63.3	95.7	34.8
계	100.0(390)	100.0(405)	100.0(324)	100.0(253)	100.0(400)

가족유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육·보육기관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지원 도움 정도의 차이를 *F*검정한 결과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종일반 지원의 도움 정도에서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정한 결과 종일반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조손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두 영유아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및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가족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육·보육기관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도움 정도의 차이를 *F*검정한 결과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의 도움 정도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두 영유아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및 종일반비 지원은 소득계층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V-1-45〉 정부로부터 교육·보육기관 교육비 지원 도움 정도

단위: 점

구분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i>M(SD)</i>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i>M(SD)</i>	두자녀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i>M(SD)</i>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i>M(SD)</i>	종일반비 지원 <i>M(SD)</i>
가족유형					
양부모	4.2(0.8)	4.4(0.7)	4.4(0.8)	4.0(1.1)	4.3(0.7) _a
한부모	4.4(0.7)	4.5(0.7)	4.7(0.6)	4.0(.82)	4.4(0.9)
조손	5.0(0.0)	4.3(0.6)	4.5(0.7)	-	4.9(0.4) _b
<i>F</i>	3.05*	0.41	1.25	-	2.60 [†]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4.5(0.8)	4.5(0.6)	4.6(0.6)	3.8(1.0)	4.4(0.8)
차상위	4.2(0.8)	4.4(0.7)	4.3(0.8)	4.9(1.0)	4.3(0.8)
3층 이상	4.3(0.8)	4.3(0.8)	4.4(0.8)	5.0(-)	4.1(1.1)
<i>F</i>	4.24*	0.90	1.20	0.65	0.89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 < 1.0. *p < .05.

가족유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육·보육기관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F*검정한 결과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및 종일반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육·보육기관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F*검정한 결과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기초수급가정과 차상위가정이 3층이상가정보다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에 대해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차등 교육비 지원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및 종일반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V-1-46〉 정부로부터 교육·보육기관 교육비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구분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i>M(SD)</i>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i>M(SD)</i>	두자녀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i>M(SD)</i>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i>M(SD)</i>	종일반비 지원 <i>M(SD)</i>
가족유형					
양부모	3.6(0.1)	3.8(1.0)	3.8(1.0)	4.0(1.1)	3.9(0.9)
한부모	3.9(1.0)	3.9(1.1)	4.1(0.9)	3.5(1.0)	3.9(1.0)
조손	4.7(0.6)	4.0(0.0)	4.0(1.4)	-	4.5(0.8)
<i>F</i>	3.69*	0.05	0.36	0.53	1.63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4.1(1.0) _a	3.9(1.0)	4.0(1.0)	3.5(1.0)	4.0(1.0)
차상위	3.6(1.0) _b	3.9(1.0)	3.9(1.0)	3.8(1.1)	3.9(0.9)
3층 이상	3.5(1.0) _b	3.8(1.0)	3.7(1.2)	5.0(-)	3.7(1.1)
<i>F</i>	6.92***	0.26	0.64	0.81	0.81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 < .05.

2) 영유아 지원 서비스

조사대상 가정 및 영유아가 정부·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표 V-1-47 참조).

가족유형에 따른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지원서비스 수혜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 조손가정보다 영유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수혜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지원서비스 수혜 여부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기초수급가정이 차상위가정, 3층이상가정보다 수혜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47〉 정부·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지원 서비스 수혜여부

단위: %(명)

구분	받음	받지 않음	계(명)	$\chi^2(df)$
가족유형				
양부모	22.7	77.3	100.0(476)	21.40(2)***
한부모	42.0	58.0	100.0(143)	
조손	16.7	83.3	100.0(12)	

(표 계속)

구분	받음	받지 않음	계(명)	$\chi^2(df)$
소득계층별				
기초수급	45.3	54.7	100.0(170)	28.30(2)***
차상위	24.8	75.2	100.0(303)	
3층 이상	17.1	82.9	100.0(70)	

***p < .001.

한편, 수혜 받고 있는 영유아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가 55.4%, 바우처 26.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7.2%, 희망유아교육사 6.7%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 가정이나 영유아가 실제로 사업수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사업수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업의 확대뿐 아니라 기존의 사업수혜 대상에게 수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V-1-48〉 받고 있는 영유아 지원 서비스 종류

구분	단위: 명, %	
	빈도	비율
드림스타트	108	55.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14	7.2
희망유아교육사	13	6.6
바우처	51	26.2
기타	9	4.6
합계	195	100.0

한편, 영유아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57.8%가 서비스 관련 정보를 몰라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사업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사업수혜인지여부와도 관련되며, 각 사업에 대해 대상가정 및 영유아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V-1-49〉 영유아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구분	단위: 명, %	
	빈도	비율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37	7.6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서	6	1.2
가정방문의 부담감 때문에	23	4.7

(표 계속)

구분	빈도	비율
서비스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4	0.8
서비스제공자와 관계가 불편해서	7	1.4
서비스 관련 정보를 잘 몰라서	283	57.8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24	4.9
위의 시선이 불편해서	4	0.8
사업대상자(지역)가 아님	66	13.5
기타	36	7.3
합계	490	100.0

3) 육아정책 필요도

조사대상이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48.4%가 유아교육·보육비 지원확대라고 응답하였으며,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 아동대상 바우처 서비스의 확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V-1-50 참조).

〈표 V-1-50〉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내용	빈도	비율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	76	11.4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324	48.4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81	12.1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27	4.0
교사의 전문성 향상	35	5.2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7	1.0
영유아발달계좌	25	3.7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	26	3.9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21	3.1
아동대상 바우처 서비스의 확대	43	6.4
기타	4	0.6
계	669	100.0

이를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양부모가정은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의 확대,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가정은 유아교육보육비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아동대상 바우처 서비스 확대, 교육·보육기관

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요구도 순이었다. 조손가정은 유아교육보육비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도, 영유아발달계좌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부표 V-1-5 참조).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초수급가정은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상위가정은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3층이상가정은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아동대상 바우처 서비스 확대,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부표 V-1-6 참조).

한편,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수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표 V-1-51 참조).

〈표 V-1-51〉 사업수혜별 육아지원 서비스 필요도

단위: 점

항목	교복투 <i>M(SD)</i>	희망 <i>M(SD)</i>	드림 <i>M(SD)</i>	일반 <i>M(SD)</i>	<i>F</i>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언어·인지)	3.8(1.0) _a	4.3(0.8) _b	4.2(0.8)	3.9(1.0)	8.30 ^{***}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사회·정서)	3.9(1.0)	4.0(1.0)	4.2(0.8)	4.0(0.9)	2.70 [*]
대상아동 지도를 위한 교사 가정 방문	3.7(0.9)	3.9(1.0)	3.9(0.9)	3.7(1.0)	1.58
가정방문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3.6(1.0)	3.8(1.0)	3.7(0.9)	3.5(1.0)	1.40
가정방문 1:1 학습지원	4.2(0.9)	4.2(0.7)	4.4(0.8) _b	3.9(0.8) _a	12.02 ^{***}
아동의 특기적성 지원	4.1(0.9)	4.1(0.9)	4.4(0.7)	4.2(0.8)	3.55 [*]
멘토링 프로그램	3.7(0.9)	3.6(0.9)	3.8(0.8)	3.8(0.9)	0.41
부모교육	3.6(0.8)	3.7(1.0)	3.7(0.9)	3.8(0.9)	1.94
부모면담/상담	3.6(0.8)	3.8(0.9)	3.7(0.9)	3.9(0.9)	4.81 ^{**}
부모참여	3.7(0.8)	3.7(1.0)	3.6(0.9)	3.9(0.9)	4.52 ^{**}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견학	4.0(0.8)	4.1(0.9)	4.0(0.9)	4.2(0.8)	3.09 [*]
가족대상 서비스	3.8(0.9) _a	3.6(1.1) _a	3.7(0.9) _a	4.0(1.0) _b	5.83 ^{***}
건강, 의료서비스	4.3(0.8)	4.2(0.9) _a	4.5(0.7) _b	4.1(0.9) _a	8.50 ^{***}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	3.8(0.9)	3.5(1.1) _a	3.9(1.0)	4.0(0.9) _b	2.49
지역사회 연계	3.6(1.0)	3.4(1.2) _a	3.7(1.0) _a	3.9(0.9) _b	5.67 ^{***}
맞춤형 유아교육기관	4.0(0.9)	3.9(1.1)	4.2(0.7)	4.2(0.9)	2.74 [*]
놀이방운영	4.2(0.9)	4.1(1.0)	4.3(0.8)	4.2(0.9)	1.30

주: a, b 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 $p < .05$. ** $p < .01$. *** $p < .001$.

사업수혜별 육아지원 서비스 필요도의 차이를 F검정한 결과,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언어, 인지),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사회, 정서), 가정방문 1:1 학습지원, 아동의 특기적성지원, 부모상담, 부모참여, 가족문화 체험, 가족대상 서비스, 건강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유아교육기관의 필요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이 대상아동에 맞는 언어, 인지 교육지원 활동이 타 사업수혜 가정보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방문 1:1 학습지원, 건강·의료서비스에 대해 타 사업수혜가정보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일반 저소득가정들은 가족대상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이나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현재 각 사업별로 수행중인 사업에게서 수혜 받고 있는 대상이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유형별에 따라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F검정한 결과, 가정방문 1:1 학습지원, 건강의료서비스, 놀이방운영의 필요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건강의료서비스에 대해 조손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필요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2〉 가족유형별 육아지원 서비스 필요도

단위: 점

	양부모 <i>M(SD)</i>	한부모 <i>M(SD)</i>	조손 <i>M(SD)</i>	<i>F</i>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언어·인지)	3.9(1.0)	4.1(0.8)	4.1(0.9)	1.70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사회·정서)	4.0(0.9)	4.1(0.8)	4.1(0.9)	0.71
대상아동 지도를 위한 교사 가정 방문	3.7(0.9)	3.7(0.9)	4.0(1.0)	0.50
가정방문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3.6(1.0)	3.6(0.9)	4.0(1.0)	1.05
가정방문 1:1 학습지원	4.1(0.9)	4.3(0.8)	4.4(0.8)	4.49*
아동의 특기적성 지원	4.2(0.8)	4.3(0.8)	4.2(0.8)	1.44
멘토링 프로그램	3.7(0.9)	3.8(0.8)	3.8(0.9)	0.33
부모교육	3.7(0.9)	3.7(0.9)	3.8(0.9)	0.19
부모면담/상담	3.8(0.9)	3.7(0.9)	3.8(0.9)	0.76

(표 계속)

	양부모 <i>M(SD)</i>	한부모 <i>M(SD)</i>	조손 <i>M(SD)</i>	<i>F</i>
부모참여	3.8(0.9)	3.6(0.9)	3.5(0.9)	4.67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견학	4.1(0.8)	4.1(0.9)	3.7(1.0)	1.67
가족대상 서비스	3.8(1.0)	3.8(0.9)	3.5(0.9)	1.03
건강, 의료서비스	4.2(0.8) _a	4.5(0.7)	4.8(0.6) _b	6.26 ^{**}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	3.9(1.0)	4.0(1.0)	3.6(1.0)	1.23
지역사회 연계	3.7(1.0)	3.6(1.0)	3.6(1.0)	0.49
맞춤형 유아교육기관	4.1(1.0)	4.2(0.7)	4.1(0.9)	1.08
놀이방운영	4.2(0.9)	4.4(0.8)	4.3(0.9)	3.58 [*]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 $p < .05$ ** $p < .01$

소득계층에 따른 육아지원 서비스 필요도의 차이를 F검정한 결과,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언어/인지),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사회/정서), 가정방문 1:1 학습지원, 아동의 특기적성지원, 부모참여, 가족문화체험, 건강의료서비스의 필요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기초수급 계층이 차상위가정 계층이나 3층이상보다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언어·인지),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사회·정서), 가정방문 1:1 학습지원, 아동의 특기적성지원, 가족문화체험, 건강의료 서비스 등 전 서비스 항목에 대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수급가정이 다른 계층에 비해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더 많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계층의 요구에 따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V-1-53〉 소득계층별 육아지원 서비스 필요도

	기초수급 <i>M(SD)</i>	차상위 <i>M(SD)</i>	3층 이상 <i>M(SD)</i>	<i>F</i>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언어·인지)	4.2(0.9) _a	3.9(0.9)	3.7(1.1) _b	8.60 ^{***}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사회·정서)	4.2(0.8) _a	4.0(0.9)	3.8(1.0) _b	5.87 ^{**}
대상아동 지도를 위한 교사 가정 방문	3.8(0.9)	3.7(0.9)	3.7(1.0)	0.52
가정방문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3.7(1.0)	3.6(1.0)	3.7(1.0)	0.87
가정방문 1:1 학습지원	4.4(0.8) _a	4.1(0.8)	3.9(0.9) _b	11.64 ^{***}

단위: 점

(표 계속)

	기초수급 <i>M(SD)</i>	차상위 <i>M(SD)</i>	3층 이상 <i>M(SD)</i>	<i>F</i>
아동의 특기적성 지원	4.4(0.7) _a	4.2(0.8)	4.0(0.9) _b	6.15**
멘토링 프로그램	3.8(0.8)	3.8(0.9)	3.7(0.9)	0.19
부모교육	3.6(0.9)	3.8(0.9)	3.7(0.9)	2.29
부모면담/상담	3.6(0.9)	3.8(0.9)	3.8(0.8)	1.35
부모참여	3.6(0.9)	3.8(0.9)	3.8(0.9)	4.17 [†]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견학	3.9(0.9) _b	4.2(0.8) _a	4.0(0.9)	6.11**
가족대상 서비스	3.7(0.9)	3.8(1.0)	3.9(1.0)	1.06
건강, 의료서비스	4.5(0.8) _a	4.3(0.8)	4.1(0.9) _b	5.87**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	3.9(1.0)	3.8(1.0)	3.8(0.9)	0.17
지역사회 연계	3.6(1.0)	3.8(1.0)	3.7(0.9)	0.91
맞춤형 유아교육기관	4.2(0.8)	4.1(1.0)	4.0(1.0)	0.87
놀이방운영	4.3(0.8)	4.2(0.9)	4.0(1.1)	2.41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 < .05. **p < .01. ***p < .001.

4) 영유아 지원 사업 수혜여부에 따른 육아지원 사업 요구도 조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희망유아교육사, 드림스타트 등 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여부에 따라 사업의 수혜를 받는 가정과 수혜를 받지 않는 비수혜가정 이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1-54).

사업 수혜가정의 경우 52.5%가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의 확대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며,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 아동대상 바우처 서비스의 확대,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순으로 육아지원정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수혜가정의 경우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 교육·보육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교사의 전문성 향상,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의 순으로 정부에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가정과 비수혜가정 모두 교육비를 지원 받고 싶다는 요구가 가장 높지만 수혜가정의 경우 교육·보육기관의 질,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 대한 요구도도 높은 편이었다. 비수혜가정의 경우 국공립 시설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다.

〈표 V-1-54〉 수혜여부별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내용	수혜가정	비수혜가정	단위: %
			$\chi^2(df)$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	8.5	17.6	36.31(11)***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52.5	39.5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0.5	15.7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5.0	1.9	
교사의 전문성 향상	3.9	8.1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1.1	1.0	
영유아발달계좌	4.4	2.4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	2.8	6.2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3.3	2.9	
아동대상 바우처 서비스의 확대	7.4	4.3	
기타	0.6	0.5	
계	100.0(459)	100.0(210)	

***p < .001.

또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필요도에 대해 영유아 지원 사업 수혜를 받은 가정과 비수혜가정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언어/인지), 가정방문 1:1 학습지원, 부모교육, 부모면담 및 상담, 부모참여, 가족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견학, 가족대상 서비스, 건강의료서비스, 빈곤탈출 기반조성 사업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언어/인지)과 가정방문 1:1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비수혜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과 가족대상의 건강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비수혜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수혜가정의 경우 부모교육, 부모면담/상담, 부모참여, 가족문화 체험, 가족대상 서비스, 빈곤탈출 조성사업, 지역사회 연계 등에 있어서 수혜가정보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 영유아에 대한 사업 지원의 필요도를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비수혜가정의 경우 부모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 영유아에게 주는 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수혜 받고 있어 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수혜가정의 경우 부모들이 양육이나 가족관계 등에 대해 교육이나 상담, 참여 등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따라서 비수혜가정의 부모들에게 부모교육이나 상담 및 참여 등의 폭넓은 기회가 제공되어 할 것이다.

〈표 V-1-55〉 사업수혜여부별 육아지원 서비스 필요도

단위: 점

내용	수혜가정 <i>M(SD)</i>	비수혜가정 <i>M(SD)</i>	<i>t</i>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언어·인지)	4.0(0.9)	3.9(1.0)	1.98*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사회·정서)	4.0(0.9)	4.0(0.9)	0.60
대상아동 지도를 위한 교사 가정 방문	3.8(0.9)	3.7(1.0)	0.93
가정방문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3.7(1.0)	3.5(1.0)	1.44
가정방문 1:1 학습지원	4.3(0.8)	3.9(0.8)	5.17***
아동의 특기적성 지원	4.2(0.8)	4.2(0.8)	0.58
멘토링 프로그램	3.7(0.9)	3.8(0.9)	-0.62
부모교육	3.7(0.9)	3.8(0.9)	-2.30**
부모면담/상담	3.7(0.9)	3.9(0.9)	-3.38**
부모참여	3.7(0.9)	3.9(0.9)	-3.41**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견학	4.0(0.9)	4.2(0.8)	-3.00**
가족대상 서비스	3.7(0.9)	4.0(0.9)	-3.98***
건강, 의료서비스	4.4(0.8)	4.1(0.9)	3.53**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	3.8(1.0)	4.0(0.9)	-1.99*
지역사회 연계	3.6(1.0)	3.9(0.9)	-3.69***
맞춤형 유아교육기관	4.1(0.9)	4.2(0.9)	-1.40
놀이방운영	4.2(0.9)	4.2(0.9)	0.52

*p < .05. **p < .01. ***p < .001.

바. 저소득층 지원 전문인력의 사업 운영실태 및 요구

본 절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와 부모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인력들의 경험적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 지원의 실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정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보고자 한다.

1) 전문인력 특성

조사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 우편 설문과 면담을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들과 정부지원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그간 시행해 왔던 가정 지원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설문을 우편 발송 후 회수하였고, 일부는 본 연구의 연구진이 직접 전문인력이 소속된 영유아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및 가정 지원 사업의 전반적 현황과 영유아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프로그램 실시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전문인력이 속해 있는 아동지원사업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를 포함한 저소득가정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문인력들의 의견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정 지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부록 3참조).

설문대상자들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소속 유아교육복지전문가,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소속 희망유아교육사,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의 보육교사 등 총 13명 중 여성이 12명이었고, 남성은 1명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9명, 대학원 졸업이 2명, 2년제 전문대 졸업이 1명, 3년제 전문대 졸업이 1명이었다. 이 중 6명이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2명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고, 5명이 기타 전공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소지하고 있는 자격은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가 7명,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가 2명, 유치원교사 1급 자격 소지자가 1명, 유치원교사 2급 자격 소지자가 1명,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소지자가 1명, 자격증 비소지자가 1명이었다. 각 사업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은 6개월~1년 미만인 5명, 3년 이상이 3명, 1~2년 미만인 2명, 2~3년 미만이 2명, 6개월 미만이 1명이었다.

〈표 V-1-56〉 전문인력의 일반적인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	소지자격	소속사업 근무경력
1	여	39세	2년제 전문대	유아교육학	유치원2급	3년 이상
2	여	36세	3년제 전문대	유아교육학	유치원2급	1~2년 미만
3	여	38세	대학교	유아교육학	유치원2급	2~3년 미만
4	남	33세	대학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1급	2~3년 미만
5	여	26세	대학교	유아교육학	유치원2급	6개월~1년 미만
6	여	42세	대학교	교육학	보육교사1급	1~2년미만
7	여	35세	대학원	유아교육학	유치원1급	3년 이상
8	여	31세	대학교	유아교육학	유치원2급	6개월~1년 미만
9	여	27세	대학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1급	6개월~1년 미만
10	여	35세	대학교	간호학	간호사 면허	6개월~1년 미만
11	여	41세	대학교	교육학	보육교사1급	6개월미만
12	여	38세	대학원	교육학	정교사	6개월~1년 미만
13	여	38세	대학교	유아교육학	보육교사1급	3년 이상

2) 영유아 및 부모 지원 실태

가) 영유아 지도의 일반적인 상황

전문인력들이 수행하는 영유아 지원은 주로 인지·언어·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이 지도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연령은 대부분 취학전 이었고, 지도 장소는 직접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유치원이나 사회복지관 또는 전문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의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담당하고 있는 가정 수는 평균 3가정이었으며, 주 2회 정도 방문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는 15가정을 각각 주1회씩 방문한다는 응답도 있어 사업특성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 한 명에게 할애하는 지도 시간은 평균 30~40분정도였으며, 많은 경우는 1시간씩 할애하기도 하였다.

나) 영유아 구성 및 지원형태

이들이 영유아를 어떻게 구성하여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기본적인 형태는 영유아 발달증진을 위해 각 가정에서 개별지도를 하였고, 기관이나 복지관 등의 장소에서 집단지도를 실시하였다. 소속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도 대상 영유아의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기관의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대상 영유아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북한이탈주민 혹은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직접 지도 외에 지역사회 또는 전문기관 연계 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서는 영유아의 인지학습을 돕기 위해 인지발달지원 자원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하여 지역 내 자원봉사자와 영유아를 연계하거나 정서지원이 필요한 영유아는 전문인력이 1차 관찰 후 교사 면담과 심리검사를 통하여 단계별로 연계하기도 하였다.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영유아나 의뢰 받은 영유아 중 개별적으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 멘토링 지원을 하고, 그림책을 매개로 지역 내 시민단체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유아를 1:1로 연계하여 그림책 지원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3) 부모 및 가정 지원 실태

부모 및 가정 지원은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형태에 차이가 있었는데, 교육복

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경우 부모 개인의 역량 강화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경우는 사업 특성상 발달지연아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모나 가정까지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부모교육 뿐 아니라 가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경우 부모교육 및 상담, 가족캠프 등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경우 전적으로 희망유아교육사 개인의 역량으로 영유아를 지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및 가정 지원까지 해내기는 여건상 힘들어 보였다. 그들이 부모 및 가정 지원이 필요하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시행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부족, 영유아의 부모가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아동·부모·가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상 활발한 부모 및 가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각 지역 센터별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에게 정신건강 증진, 부모역량 강화, 육아지원 등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1:1 부모상담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에게 취업정보를 알선하고 경제적인 연계 및 지원도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나 가정 지원은 전문인력 개인의 역량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풀(pool)제공 등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도움이 필요한 각 가정에 적절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프로그램 실시 관련

전문인력이 대상 영유아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소속된 사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유무와,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3명 중 7명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부분 기존의 여러 프로그램 중 영유아 전문인력의 판단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대상 영유아의 수준과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제시 되어 있는 상황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서라고 하였다.

각 사업의 전문인력이 대상 영유아 지도 및 프로그램 수행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대상 영유아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자료 제작 준비가 가장 많았

고, 가정방문 시 대상 부모와 연락 및 시간 배치가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가정 환경이 열악하여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들이 영유아 지도 프로그램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대상 가정 및 부모 지원을 위해 각 소속 사업을 통해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영유아 지도 프로그램 중 보완되길 원하는 내용은 영유아의 연령 및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 및 지도안(지침서)과 정서·인지·언어 등 분야별 적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특히 영유아의 다양한 수준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지도하기가 어려워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지도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에서 제공 받기 원하는 프로그램은 대상 영유아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다양한 교구와 교재를 필요로 하였으며, 대상 영유아의 가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관리 매뉴얼, 부모교육과 상담 매뉴얼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5) 영유아 및 가정 지원 사업 수행 관련

각 전문인력들이 소속된 사업에서 최근 1년간 영유아와 부모 및 가정 지원을 위해 실시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경우 영유아에게는 개별사례관리를 포함하여 개별지도 및 집단지도, 부모에게는 부모교육과 상담, 가족 캠프 등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각 지역 청별로 활성화 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컸다.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지원사업의 경우 희망유아교육사 개인이 개별적으로 영유아를 지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대상 영유아에게 건강, 보육 등 사례관리를 포함한 개별 방문지도와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가족 지원 차원의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센터별로 차이가 있었다.

전문인력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도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점으로 나타나는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경우 저소득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에 편성되기를 꺼려하는 등 부모의 인식부족으로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기관과 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대상 영유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환경과 부모 인식의 변화가 부재하여 영유아의 변화가 회귀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과 부모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속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문제수준과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

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희망유아교육사들은 사업에서의 제공하는 지원 없이 개인이 준비하여 교육하는 시스템이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점과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 소속 인력들은 더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이미 수혜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중복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이 부족하여 현장 담당자들이 상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점이 어렵다고 하였다.

6) 저소득 가정 영유아와 부모 및 가족 지원을 위해 강화해야 할 점

각 전문인력들은 저소득 가정 영유아와 부모 및 가족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강화해야 할 프로그램이나 보완책으로 부모의 인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부모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요구하였다.

사. 요약 및 시사점

1) 실태조사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크게 영유아와 부모에 관한 것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각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해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영유아와 관련된 결과로써, 저소득가정 주양육자들은 가족유형이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영유아의 발달 영역을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저소득 가정 주양육자들은 영유아들의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저소득가정 영유아를 위한 정서·사회성발달 프로그램의 제공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한편 회귀분석을 통해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 변인으로는 영유아의 인지발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영유아의 인지적인 발달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인지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개념학습 프로그램 등의 인지발달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 가정 영유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위한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저소득 가정의 주양육자의 양육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이 이를 가장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에서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양육자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양육자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양육자의 거부적이거나 방임하는 태도, 혹은 지나치게 허용하거나 과보호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영유아를 온정적으로 대하고, 적절하게 한계설정을 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기술이나 정보가 부족할 때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교육의 내용에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양육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지원으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때 부모의 우울감도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한 반면,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유형별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조손 가정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영유아 지도 및 영유아 관리, 영유아와 함께 하는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조손가정의 경우에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은 다른 가족유형과는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보다 세부적으로 가족유형별에 따른 다른 내용의 부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소득수준별로 가장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에 속하는 가정의 경우 영유아를 위한 지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예: 신체운동, 도서관 방문

등)과 자녀와의 문화체험활동(예: 인형극, 뮤지컬, 박물관 등)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활동이나 경험을 적게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할 때에도 이러한 계층을 위해 보다 세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가족유형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모든 저소득 가정은 육아 교육·보육비에 대한 확대를 가장 많이 원하였으나, 양부모 가정은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그 다음으로 원하였으며, 한부모가정은 아동 바우처 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해 가족유형에 따라 정부에 바라는 정책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수혜를 받은 가정과 사업수혜를 받지 않고 있는 일반 저소득가정에서 요구하는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 영유아에 대한 사업의 필요도를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일반 저소득가정의 경우 부모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저소득가정의 경우 부모들이 영유아 양육이나 가족문제 등에 대해 교육이나 상담, 참여 등에 대한 욕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가정의 부모들에게도 부모교육이나 상담 및 참여 등의 폭넓은 기회가 제공되어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를 위해서 질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고, 가족유형별, 소득수준별에 맞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2) 전문인력 설문조사 요약 및 시사점

영유아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들의 영유아 및 가정 지원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의 역할은 영유아 지원과 부모·가족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영유아 지원 형태는 대상 영유아에게 교육 및 발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고, 지역사회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부모 및 가정 지원 형태는 각 사업별로 특성에 의해 직접 부모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가족캠프 등 가족대상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사업 내 프로그램 제공이 없는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부모교육 실시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방문 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문인력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제공

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나름대로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료제작 및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영유아의 수준과 상황이 너무 다양하여 그에 맞는 영유아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또한 대상 영유아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구와 교재를 제공받기를 원하였고, 영유아 뿐 아니라 부모 및 가족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 매뉴얼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특히, 영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식 변화가 매우 절실히 필요하여 사업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가정에서 그 부모에게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직접 1:1 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스스로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가정의 특성상 필요한 내용의 부모교육 자료가 있다면 전문인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교육을 위해 개발한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과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형한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을 각 전문인력을 통해 시범실시 하였으며, 시범실시 종결 후 사업에 참여한 전문인력들에게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가족유형이 점차 세분화되고 지역 간의 특성 차이가 두드러짐에 따라 가족유형별 적용 프로그램과 도시형·농어촌형·공장밀집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 양육실태 및 요구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실태 및 요구조사를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 및 아동특성

1) 어머니(주양육자) 특성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 대상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고찰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167명은 주양육자인 어머니들로서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었다.

가) 남한 입국 전까지 경로

어머니들이 탈북한 시기를 보면, 1995년~1999년이 42.0%로 가장 많으며 2000년~2004년이 37.6%, 2005년~2008년이 18.6% 순으로 응답하였다. 어머니 연령별로 보면, 현재 30대의 어머니는 1995년~1999년에 탈북한 경우가 49.5%로 가장 많았지만, 20대 이하 어머니와 40대 어머니는 2000년~2004년에 탈북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1995년~1999년은 34.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표 V-2-1 참조).

〈표 V-2-1〉 어머니 탈북년도

단위: %(명)

구분	1995년 이전	1995년~ 1999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8년	모름/ 무응답	계(명)
전체	1.2	42.0	37.6	18.6	0.6	100.0(167)
어머니연령별						
20대이하	-	14.3	42.5	38.1	4.8	100.0(21)
30대	1.8	49.5	34.2	13.4	-	100.0(111)
40대이상	-	34.3	45.7	20.0	-	100.0(35)

1990년대 중후반에 탈북한 사례가 많은 것은 북한의 당시 '고난의 행군'시기와 연결지어 볼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약 300만 명 주민들이 아사하는 등 경제난이 가중되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란 구호를 채택하여 김일성의 항일 활동 시기 어려웠던 상황을 상기시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은 도리어 북한주민에게는 북한을 이탈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한편,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은 남한에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남한에 입국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제3국을 거치는데 이들 국가로는 중국이 83.8%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태국 21.6%, 몽골 21.0%, 캄보디아 13.8%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는 중국에서의 체류경험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20대 이상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중국 외의 태국, 몽골, 캄보디아 등의 체류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시기별로 보면, 중국의 경우, 1995년 이전에 탈북한 어머니들-2사례에 불과하지만-이 체류한 유일한 국가였고 이후에도 가장 많이 체류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부터는 제3국 체류국가가 태국, 몽골, 캄보디아 등지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태국의 경우 1995년~1999년에 탈북한 여성의 14.3%정도가 체류했다면, 2005년~2008년에 탈북한 여성의 48.4%가 체류하는 등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로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탈북 여성들이 남한 입국 전에 태국에서 체류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V-2-2 참조).

〈표 V-2-2〉 어머니 제3국 체류경험

단위: %(명)

구분	중국	태국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기타 ¹⁹⁾	계(명)
전체	83.8	21.6	21.0	13.8	9.0	6.6	100.0(167)
모연령별							
20대이상	71.4	33.3	23.8	28.6	14.3	9.6	100.0(21)
30대	85.6	17.1	19.8	11.7	6.3	6.3	100.0(111)
40대이하	85.7	28.6	22.9	11.4	14.3	11.4	100.0(35)
탈북시기							
95년 이전	100.0	-	-	-	-	-	100.0(2)
95~99년	87.1	14.3	22.9	17.1	15.7	1.4	100.0(70)
00~04년	87.3	17.5	23.8	12.7	6.3	11.2	100.0(63)
05~08년	71.0	48.4	12.9	9.7	-	12.9	100.0(31)
모름/무응답	-	-	-	-	-	100.0	100.0(1)

북한을 탈출한 후부터 남한에 입국까지 제3국에서의 총 체류기간은 4년 이상~6년 미만이 22.0%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이 20.4%, 6개월 이상~2년 미만이 18.0%로 순으로 나타났다. 탈북 여성의 60.4%가 약 5년 이내에 남한에 입국한다고 하겠다. 남한 입국 전 제3국에서 6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도 24.6%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별로 체류기간의 응답 분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어머니가 6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기간과 10년 이상의 최대 장기체류기간 모두 다른 연령대의 어머니들 보다 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30대 어머니들의 체류기간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응답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40대 이상 어머니의 체류기간은 2년 이상~4년 미만의 기간이 31.4%, 4년 이상~6년 미만의 기간이 31.4%로 동물로 집계되어 전체보다 많았다.

탈북시기별로 보면, 2005년 이후 탈북한 경우 입국 전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 71.0%로 월등히 많았다. 1995년 이전에 탈북한 경우 남한입국까지 4년~8년 정도 걸렸던 것에 비해 시간이 흐르면서 탈북 후 남한 입국까지의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V-2-3 참조).

19) 기타는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임.

나) 북한에서의 학력과 직업

북한이탈주민 가정 어머니의 북한에서의 학력은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74.9%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학교 또는 단과대학 중퇴 또는 졸업이 19.2%, 대학 중퇴 또는 졸업이 4.8%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와 학제가 달라서 단순비교를 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대졸의 고학력의 여성들보다는 우리의 중·고등학교 정도 이하의 학력을 지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탈북 전 북한에서의 마지막 직업으로는 단순노무가 27.5%로 가장 많았고, 주부가 16.8%, 사무직 12.0%, 기술직 10.8% 순이었다. 학력이 높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직업에 있어서도 전문직보다는 단순노무직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부의 비율이 북한에서는 16.8%였지만 지금 남한에서는 93.4%로 대조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의 분포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단순노무가 25.2%, 기술직 9.8%, 사무직 8.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V-2-5 참조).

〈표 V-2-5〉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북한에서의 학력과 직업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학력별		
소학교 중퇴 및 졸업	0.6	-
중학교 중퇴 및 졸업	74.9	43.1
전문학교·단과대학 중퇴 및 졸업	19.2	6.5
대학 중퇴 및 졸업	4.8	11.4
해당없음	0.6	39.0
계	100.0(167)	100.0(123)
직업별		
단순노무	27.5	25.2
기술직	10.8	9.8
판매/서비스	9.0	0.8
사무직	12.0	8.1
학생	6.0	2.4
주부	16.8	-
군인	4.8	6.5
기타	12.6 ²⁰⁾	8.0 ²¹⁾
관리자	-	3.3
해당없음	0.6	39.0
계	100.0(167)	100.0(123)

20) 어머니 직업의 기타는 실직 3.6(6), 농업인 3.6(6), 자영업 3.0(5), 관리자 1.2(2), 예술인 0.6(1), 운동선수 0.6(1) 이다.

21) 아버지 직업의 기타는 자영업 1.6(2), 실직 0.8(1), 농업인 2.4(3)이다.

다)북한에서의 양육경험

북한이탈주민 부모 자신의 영유아기의 주양육자, 탁아소 및 유치원 경험 여부를 알아보았다(표 V-2-6 참조). 주양육자는 어머니의 76.6%, 아버지의 48.0%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로 양육을 담당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에서도 영유아기의 주양육자는 대부분이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이용을 보면, 탁아소를 다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어머니는 75.4%, 다니지 않았다가 24.0%로 탁아소를 많은 어머니들이 다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경우도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탁아소를 다닌 적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북한에서의 탁아소는 의무기관이 아니고, 유치원의 높은 반 1년은 의무교육이다.²²⁾

〈표 V-2-6〉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북한에서의 양육경험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 주양육자		
부	13.8	7.3
모	76.6	48.0
친조부모	5.4	3.3
외조부모	0.6	-
부모형제자매	1.8	1.6
기타친인척	0.6	-
해당사항없음	1.2	39.8
계	100.0(167)	100.0(123)
탁아소 경험여부		
있다	75.4	43.9
없다	24.0	11.4
해당사항없음	0.6	44.7
계	100.0(167)	100.0(123)
유치원 경험여부		
있다	95.8	53.7
없다	3.6	4.1
해당사항없음	0.6	42.3
계	100.0(167)	100.0(123)

22)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장 제3조에 “어린이들이 비록 탁아소에 갈 나이라 하더라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것은 그들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4장 제36조에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의 높은 반에서 1년 동안의 학교 전 의무교육을 준다.”라고 되어 있다.

라) 남한에서의 취업현황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93.4%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아버지는 45.5%만이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2-7 참조).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직업 활동을 통해 가구소득을 획득하는 남한사회 구조에서 아버지의 절반이 넘는 54.5%가 직업이 없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경제수준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기준 월평균 급여수준도 상당히 낮는데 51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37.5%, 101에서 150만원 사이는 26.8%로서 월평균 급여가 150만원 이하가 약 64%를 차지하며, 50만원 이하도 23.2%나 되었다.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11명의 어머니의 월평균 급여도 5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근로형태로 부모 모두 일용직이 가장 많다는 사실에서 낮은 월평균 급여조차도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평균이하의 낮은 급여수준과 더불어 불안한 수입원은 자본주의체제의 남한 사회에서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높은 심리적 박탈감도 쉽게 짐작된다.

〈표 V-2-7〉 북한이탈주민 부모 취업상황(현재)

구분	단위: %(명)	
	어머니	아버지
직장있음	6.6	45.5
정규직(상근직)	9.1	23.2
비정규직(임시직)	27.3	30.4
일용직	54.5	42.9
자영업	9.1	3.6
월평균급여(세전)		
50만원 이하	63.6	23.2
51~100만원 이하	36.4	37.5
101~150만원 이하	-	26.8
151~200만원 이하	-	10.7
301~350만원 이하	-	1.8
직장없음	93.4	54.5
구직노력 중	6.0	35.0
구직노력안함	1.8	14.6
전업주부 또는 학생	85.6	4.9
계	100.0(167)	100.0(123)

마) 현재 가구 유형 및 특성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퇴소이후 거주지를 배정(본인이 희망한 지역을 최대한 반영함)받으면서 그 지역에 임대아파트 한 채가 나온다. 주택소유형태로 임대아파트가 96.4%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표 V-2-8 참조).

어머니 연령별, 탈북시기, 취업여부 등에 관계없이 현재 주택소유형태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최근 5년 이내에 탈북한 경우에 정부가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93.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93.5%라는 수치는 총 사례 수 31명에서 2명만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나머지 29명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수치이므로 여기서 탈북시기를 주요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

〈표 V-2-8〉 주택소유형태

단위: %(명)

구분	임대아파트	보증금 있는 월세	가족 및 친척의 소유(무상)	계(명)
전체	96.4	3.0	0.6	100.0(167)
어머니연령별				
20대 이하	95.2	-	4.8	100.0(21)
30대	96.4	3.6	-	100.0(111)
40대 이상	97.1	2.9	-	100.0(35)
탈북시기				
95년이전	100.0	-	-	100.0(2)
95~99	98.6	1.4	-	100.0(70)
00~04	95.2	3.2	1.6	100.0(63)
05~08	93.5	6.5	-	100.0(31)
모름/무응답	100.0	-	-	100.0(1)
어머니취업여부				
직장있음	100.0	-	-	100.0(11)
구직노력중	80.0	20.0	-	100.0(10)
구직노력안함	66.7	33.3	-	100.0(3)
전업주부/학생	97.9	1.4	.7	100.0(143)

북한이탈주민가정의 88.6%인 대다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다(표 V-2-9 참조). 어머니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어머니들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90.5%, 90.1%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어머니 탈북시기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탈북시기 정도와는 상관없이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취업여부별로 보면, 직장이 있

는 어머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정도가 63.6%로 가장 낮으나 이는 사례수가 7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표 V-2-9〉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단위: %(명)

구분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계(명)
전체	88.6	11.4	100.0(167)
어머니연령별			
20대이하	90.5	9.5	100.0(21)
30대	90.1	9.9	100.0(111)
40대이상	82.9	11.4	100.0(35)
탈북시기			
95년이전	50.0	50.0	100.0(2)
95~99	87.1	12.9	100.0(70)
00~04	88.9	11.1	100.0(63)
05~08	83.9	16.1	100.0(31)
모름/무응답	100.0	-	100.0(1)
어머니 취업여부			
직장있음	63.6	36.4(4)	100.0(11)
구직노력중	90.0	10.0	100.0(10)
구직노력안함	66.7	33.3	100.0(3)
전업주부/학생	90.0	9.1	100.0(14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결혼 상태는 여느 집단에 비교해 보더라도 복잡하다. 탈북 이전에 가정을 꾸리더라도 탈북 이후 남한 입국까지 또 다른 배우자와 동거 내지는 결혼을 하는 사례도 많으며, 남한 입국 이후에도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결혼 상태가 존재한다. 존재하는 결혼 상태별 조사결과를 모두 조합하면 다음 <표 V-2-10>과 같다.

가장 많은 결혼 상태별 응답은 제3국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2.8%로 가장 많았다. 제3국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제3국 배우자는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인이란 한족뿐 아니라 조선족도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는 북에서 배우자와 현재 살고 있다가 18.6%로 처음의 결혼 상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남한에서 처음 결혼하는 경우도 18.0%로 세 번째로 많은데 이 때 배우자는 남한사람일 수도 있고, 북한사람 내지는 다른 국적의 사람 등 모두 경우가 포함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결혼 상태는 법적으로는 미혼이지만 동거 상태인 가정이 13.8%나 된다는 점과 사별 및 이혼·별거로 한부모가정의 비율도 합치면 13.8%로 적지 않다는 점이다.

〈표 V-2-10〉 결혼상태

단위: %(명)

구분	비율
결혼상태	
미혼(동거)	13.8
남한에서 처음결혼	18.0
북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현재 살고 있음	18.6
북에 배우자 있으나 남한에서 재혼	5.4
북에 배우자 있고 현재 혼자 살고 있음	3.0
제3국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	22.8
제3국 배우자 있으나 남한서 재혼	0.6
제3국 배우자 있고 현재 혼자 살고 있음	4.2
사별	2.4
이혼/별거	11.4
계(명)	100(167)

한편,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수는 본인(응답자)을 포함하여 3명이 44.9%로 가장 많으며 4명인 가족이 25.7%, 2인 가족이 18.0% 순이다(표 V-2-11 참조).

어머니 연령별로 보더라도 3인 가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인 가족, 2인 가족 순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 탈북·입국 시기별에 따른 두드러진 차이는 없고, 다만 최근 5년 동안 남한에 입국한 어머니의 경우 동거 가족 수가 6명 내지는 7명의 대가족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V-2-11〉 동거 가족 수(본인 포함)

단위: %(명)

구분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계(명)
전체	18.0	44.9	25.7	9.6	1.2	0.6	100.0(167)
어머니연령별							
20대 이하	4.8	57.1	33.3	4.8	-	-	100.0(21)
30대	19.8	47.7	24.3	7.3	-	-	100.0(111)
40대 이상	20.0	28.6	25.7	20.0	5.7	-	100.0(35)
어머니탈북시기							
95년 이전	50.0	50.0	-	-	-	-	100.0(2)
95~99	18.6	44.3	25.7	10.0	-	1.4	100.0(70)
00~04	15.9	38.1	33.3	12.7	-	-	100.0(63)
05~08	19.4	58.1	12.9	3.2	6.5	-	100.0(31)
모름/무응답	-	100.0	-	-	-	-	100.0(1)
어머니입국시기							
00~04년	20.0	36.3	30.0	12.5	-	-	100.0(80)
05~09년	16.3	51.2	22.1	6.9	2.3	1.2	100.0(86)
모름/무응답	-	100.0	-	-	-	-	100.0(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및 아동 특성

설문조사 대상 영유아 및 아동의 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남한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경험이 있는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아동 42명을 포함하여 총 220명이다. 영유아의 특성을 고찰하는 항목에서는 초등학생 42명을 제외한 178명의 아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들 중 초등학교에 입학할 연령이 지났으나 미취학인 만 7세 이상 아동 12명을 포함하였다.

아동의 특성으로는 출생국가, 입국시기, 북한 및 제3국에서의 탁아소 및 유치원 경험 여부와 아동의 양육현황, 건강 및 발달 정도 등을 알아보았다.

가) 연령·성별·출신국가

220명 아동의 출생년도는 다음 <표 V-2-12>와 같다. 2008년도가 2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6년 12.7%, 2007년 12.3%, 2005년, 2009년 9.1%, 2004년 8.2%, 2001년과 2002년 7.7%, 2003년 5.9%, 2000년 4.1%, 1999년 0.9%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출생국가별로 보면,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2008년도가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6년과 2007년 16.2%, 2009년도 현재 13.5% 순으로 나타났다. 남한 정착이후 출산하는 사례가 2006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12>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출생년도(220명)

단위: %(명)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전체	0.9	4.1	7.7	7.7	5.9	8.2	9.1	12.7	12.3	22.3	9.1	100(220)
출생국가												
남한	-	-	0.7	1.4	2.0	6.1	11.5	16.2	16.2	32.4	13.5	100(148)
북한	5.6	5.6	22.2	25.0	16.7	16.7	2.8	-	5.6	-	-	100(36)
중국	-	21.2	24.2	18.2	12.1	6.1	6.1	9.1	3.0	-	-	100(33)
기타 ²³⁾	-	-	-	-	-	33.3	-	-	33.3	33.3	-	100(3)

북한 태생 아동들을 보면, 2002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2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1년 22.2%, 2003년과 2004년 16.7%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출생한 경우는 2001년도가 24.2%로 가장 많았고, 2000년 21.2%, 2002년 18.2%, 2003년 12.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를 보면, 각각 1명씩인데 태국은 2008년도에, 캄보디아는 2007년도에, 기타는 2004년도 태어났다(표 V-2-12 참조).

23) 기타는 태국, 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것임.

초등학생을 제외한 178명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의 출생년도는 다음 <표 V-2-13>과 같다. 220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8년생이 27.5%로 가장 많으며, 06년생 15.7% 2007년생 15.2% 2005년생 11.2%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국가별로 보면, 2008년도에 남한에서 태어난 경우가 32.9%로 가장 많으며 북한 태생 아동은 그보다 이른 2003년생, 2004년생이 각각 37.5%로 가장 많다. 중국 태생 아동은 2003년생이 30.8%, 2005년생 23.1%, 2004년생 15.4% 순으로 보고되었다.

<표 V-2-13>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의 출생년도(178명)

단위: %(명)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전체	0.6	0.6	0.6	7.3	10.1	11.2	15.7	15.2	27.5	11.2	100(178)
출생국가											
남한	-	-	0.7	2.1	6.2	11.6	16.4	16.4	32.9	13.7	100(146)
북한	-	6.3	-	37.5	37.5	6.3	-	12.5	-	-	100(16)
중국	7.7	-	-	30.8	15.4	23.1	7.7	-	-	-	100(13)
기타	-	-	-	-	33.3	-	-	33.3	33.3	-	100(3)

아동의 성별을 보면 전체 중 남아가 52.2%이었고, 여아가 47.8%로 남자아이가 더 많았다(표 V-2-14 참조). 아동 연령별로는, 영아, 유아, 아동 모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더 많았다. 출생국가별로는 전체와 연령별과 마찬가지로 남한 태생 영유아는 남아가 52.1%로 여아 47.9%보다 더 많았지만, 중국태생 영유아는 여아가 53.8%로 남아보다 많았다. 북한 태생 영유아의 성별은 반반씩 동일하며, 태국, 캄보디아 등 기타 태생 영유아 3명 모두는 남아들이었다.

<표 V-2-14>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의 성별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계
전체	52.2	47.8	100.0(178)
연령별			
영아(만3세미만)	51.9	48.1	100.0(106)
유아(만3~만6세)	51.7	48.3	100.0(60)
미취학아동(만7세 이상)	58.3	41.7	100.0(12)
출생국가별			
남한	52.1	47.9	100.0(146)
북한	50.0	50.0	100.0(16)
중국	46.2	53.8	100.0(13)
기타	100.0	-	100.0(3)

주: 여기서 아동은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아동을 의미함(이하 동일)

다음 <표 V-2-15>는 남한에서 태어난 아동을 제외한 북한 태생 16명, 중국 태생 13명, 기타 3명을 합친 32명 영유아의 남한 입국 시기이다. 영유아의 남한 입국 시기는 2008년이 3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7년 28.1%, 2006년 18.8%, 2004년 9.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3년 동안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들이 남한에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표 V-2-15>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의 남한 입국시기

단위: %(명)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전체	9.4	3.1	18.8	28.1	34.4	6.3	100.0(32)
연령별							
영아	-	-	-	25.0	50.0	25.0	100.0(4)
유아	11.1	5.6	22.2	27.8	33.3	-	100.0(18)
미취학아동	10.0	-	20.0	30.0	30.0	10.0	100.0(10)
출생국가별							
북한	18.8	-	6.3	31.3	37.5	6.3	100.0(16)
중국	-	-	30.8	30.8	30.8	7.7	100.0(13)
기타	-	33.3	33.3	-	33.3	-	100.0(3)

아동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4사례밖에 되지 않지만, 만3세 미만의 영아가 남한에 온 시기는 2008년도가 2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도와 2009년도 각각 1명이었다. 유아의 남한 입국 년도는 2008년도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2007년 27.8%, 2006년 22.2% 순이었다. 아동의 남한 입국 시기는 2007년과 2008년이 각각 30.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6년 20.0%, 2004년과 2009년이 각각 10.0% 순이었다.

아동 출생국가별로 살펴보면, 북한에서 출생한 아동의 남한 입국 시기는 2008년도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7년 31.3%, 2004년 18.8%, 2006년과 2009년 6.3% 순이었다. 중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2006년, 2007년과 2008년도 각각 30.8%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009년도 7.7% 순이었다. 태국에서 출생한 아동과 캄보디아 출생 아동, 기타 국가에서 출생한 아동은 각각 2008년과 2006년, 2005년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부터 북한이나 중국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이 남한에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한 입국 시 어머니와 함께 한 경우는 71.9%, 어머니와 입국 시기가 다른 경우가 28.1%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시기별로 살펴보면, 1명의 영아는 남한 입국 시 어머니와 함께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는 77.8%가 어머니와 입국 시기가 같으며, 아동은 50%가 어머니와 동반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2-16 참조).

〈표 V-2-16〉 남한 입국 시 어머니 동반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머니와 함께 입국시기가 같음	어머니와 입국시기가 다름	계(명)
전체	71.9	28.1	100.0(32)
연령별			
영아	100.0	-	100.0(4)
유아	77.8	22.2	100.0(18)
미취학아동	50.0	50.0	100.0(10)
출생국가별			
북한	87.5	12.5	100.0(16)
중국	46.2	53.8	100.0(13)
기타	100.0	-	100.0(3)

출생국가별로 살펴보면, 북한에서 출생한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입국한 경우가 87.5%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중국에서 출생한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입국한 경우가 46.2%로 나타나서 어머니와 함께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남한 입국 전 기관 경험 여부

북한 태생 16명의 영유아의 북한에서의 탁아소 및 유치원 이용 여부를 물어본 결과, 탁아소를 다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전체의 9.4%, 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전체의 6.3%로 극소수 영유아만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2-17 참조).

아동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는 탁아소 경험 여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 북한에서 탁아소 경험을 한 경우가 22.2%, 미취학 아동의 경우 20.0%가 탁아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을 다닌 경험은 영아와 유아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7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의 20.0%가 유치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7〉 북한에서 탁아소 및 유치원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탁아소 경험		계(명)	유치원 경험		계(명)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	9.4	90.6	100.0(16)	6.3	93.8	100.0(16)
연령별						
영아	-	100.0	100.0(2)	-	100.0	100.0(2)
유아	22.2	77.8	100.0(9)	-	100.0	100.0(9)
미취학아동	20.0	80.0	100.0(5)	20.0	80.0	100.0(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제3국에서의 탁아소 또는 유치원 경험 여부로는 경험이 없는 경우가 81.3%, 경험이 있다가 18.8%로 경험이 없는 아동들이 더 많았다(표 V-2-18 참조).

아동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제3국에서 탁아소 및 유치원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는 11.1%, 아동의 40.0%가 제3국에서 탁아소 및 유치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 국가별로 살펴보면, 북한에서 태어난 아동은 6.3%가 제3국에서 탁아소 및 유치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38.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과 캄보디아 등 기타 국가 출생의 경우 탁아소 및 유치원에 다닌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8〉 제3국에서 탁아소 및 유치원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경험있음	경험없음	계(명)
전체	18.8	81.3	100.0(32)
연령별			
영아	-	100.0	100.0(4)
유아	11.1	88.9	100.0(18)
미취학아동	40.0	60.0	100.0(10)
출생국가별			
북한	6.3	93.8	100.0(16)
중국	38.5	61.5	100.0(13)
기타	-	100.0	100.0(3)

다) 남한 입국 이후 기관 이용 여부

(1) 하나원 시기

남한 태생 아동을 제외한 32명에게 하나원에서 유아방(영아보육실)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이용 경험이 없다가 50.0%로 이용 경험이 있는 46.9%보다 더 높게 나왔다. 아동 연령시기별로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25.0%, 유아 55.6%, 아동 40.0%가 유아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에 비해 유아나 아동이 하나원 내 유아방(보육실)의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출생국가별로 살펴보면, 북한에서 태어난 아동의 37.5%, 중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61.5%가 하나원 내 유아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9〉 하나원에서 유아방(보육실)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경험있음	경험없음	해당없음	계(명)
전체	46.9	50.0	3.1	100.0(32)
연령별				
영아	25.0	75.0	-	100.0(4)
유아	55.6	38.9	5.5	100.0(18)
미취학아동	40.0	60.0	-	100.0(10)
출생국가별				
북한	37.5	56.3	6.3	100.0(16)
중국	61.5	38.5	-	100.0(13)
기타	33.3	66.7	-	100.0(3)

하나원에서 유아들은 하나원 인근의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닐 수 있다. 이에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닌 경험을 물어본 결과, 경험 없음이 84.4%, 경험 있음이 9.4%로 경험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왔다.

출생국가별로는 북한 태생 아동의 18.8%가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닌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국 등 기타 국가 태생 아동들 3명 모두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V-2-20〉 하나원에서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경험있음	경험없음	해당없음	계(명)
전체	9.4	84.4	6.3	100.0(32)
연령별				
영아	-	75.0	25.0	100.0(4)
유아	5.6	88.9	5.6	100.0(18)
미취학아동	20.0	80.0	0.0	100.0(10)
출생국가별				
북한	18.8	81.3	-	100.0(16)
중국	-	84.6	15.4	100.0(13)
기타	-	100.0	-	100.0(3)

(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의 발달 정도

지난 1년간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아동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머니들은 좋다는 응답이 52.2%, 매우 좋다가 29.2%로 응답하여, 영유아들의 건강에 대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영아보다는 유아, 유아보다는 미취학 아동이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생국가별로는 남한 태생보다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남한 태생 영유아들은 지난 1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매우 좋지 않다 포함)를 합쳐서 17.8% 정도인데 반해, 북한 태생 영유아들은 25.0%, 중국 태생 영유아들은 23.1%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태국 등 기타 국가에서 태어난 영유아 3명은 모두 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V-2-21〉 지난 1년간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의 건강상태

단위: %(명)

구분	매우 나쁘다	나쁘다	좋다	매우 좋다	계(명)
전체	5.6	12.9	52.2	29.2	100.0(178)
연령별					
영아	5.7	10.4	57.5	26.4	100.0(106)
유아	6.7	13.3	45.0	35.0	100.0(60)
미취학아동	-	33.3	41.7	25.0	100.0(12)
출생국가별					
남한	6.2	11.6	53.4	28.8	100.0(146)
북한	-	25.0	37.5	37.5	100.0(16)
중국	7.7	15.4	53.8	23.1	100.0(13)
기타	-	-	66.7	33.3	100.0(3)

선천성 기형과 같은 장애와 질병을 갖고 태어난 지를 알아본 결과, 96.1%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표 V-2-22 참조). 연령별로는 유아의 경우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여부가 있다는 응답이 5.6%로 영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미취학 아동 12명 모두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국가별로는 중국 태생 영유아의 7.7%가 선천성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남한 태생 영유아의 4.1%가 장애나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북한 태생 영유아 16명 모두는 건강하게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명)
전체	3.9	96.1	100.0(178)
연령별			
영아	3.8	96.2	100.0(106)
유아	5.6	95.0	100.0(60)
미취학아동	-	100.0	100.0(12)

(표 계속)

구분	있다	없다	계(명)
전체	3.9	96.1	100.0(178)
출생국가별			
남한	4.1	95.9	100.0(146)
북한	-	100.0	100.0(16)
중국	7.7	92.3	100.0(13)
기타	-	100.0	100.0(3)

부모가 인지한 아동의 발달단계 정도는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라도 대부분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건강,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등의 발달영역은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중에서 신체발달과 언어발달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달단계 중 가장 우려되는 영역에 대한 응답으로는 없다가 48.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있다는 응답은 신체발달이 18.0%로 가장 많이 나왔다. 또한 <표 V-2-23>에서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온 사회성 발달, 정서발달이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우려되는 발달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자녀들이 남한 사회에서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부모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V-2-23〉 부모가 인지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발달 수준

단위: %(명)

구분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음	보통	좋은 편임	매우 좋음	평균	계(명)
신체발달	3.9	7.3	23.0	38.2	27.5	3.78	100.0(178)
인지발달	2.8	3.4	15.2	50.0	28.7	3.98	100.0(178)
언어발달	3.4	5.6	24.2	44.4	22.5	3.77	100.0(178)
사회성발달	2.8	6.2	23.0	39.9	28.1	3.84	100.0(178)
정서발달	2.2	3.4	18.0	43.3	33.1	4.02	100.0(178)

주: 매우 좋음 5점, 매우 좋지 않음 1점 순으로 평정한 결과임.

아동의 출생국가별로 살펴보면 남한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우려되는 발달영역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북한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 신체발달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사회성 발달이 가장 우려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표 V-2-24 참조).

〈표 V-2-24〉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가장 우려되는 발달영역

단위: %(명)

구분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없음	계(명)
전체	18.0	9.0	1.7	12.4	10.7	48.3	100.0(178)
연령별							
영아	17.0	8.5	0.9	8.5	10.4	54.7	100.0(106)
유아	15.0	8.3	3.3	20.0	11.7	41.7	100.0(60)
미취학아동	41.7	16.7	-	8.3	8.3	25.0	100.0(12)
출생국가별							
남한	15.8	6.8	2.1	11.6	11.0	52.7	100.0(146)
북한	37.5	18.8	-	6.3	6.3	31.3	100.0(16)
중국	15.4	23.1	-	30.8	7.7	23.1	100.0(13)
기타	33.3	-	-	-	33.3	33.3	100.0(3)

나.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의 양육현황 및 요구

1)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의 양육현황 및 육아지원 요구

가) 주양육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낮 시간에 돌보는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98.3%로 거의 대다수가 어머니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외의 주양육자로는 아버지 1.1%, 외조부 0.6%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표 V-2-25 참조).

〈표 V-2-25〉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주양육자

단위: %(명)

	부	모	외조부모	계(명)
전체	1.1	98.3	0.6	100.0(178)
연령별				
영아	-	100.0	-	100.0(106)
유아	1.7	96.7	1.7	100.0(60)
미취학아동	8.3	91.7	-	100.0(12)
출생국가별				
남한	-	100.0	-	100.0(146)
북한	-	93.8	6.3	100.0(16)
중국	15.4	84.6	-	100.0(13)
기타	-	100.0	-	100.0(3)

주양육자의 대부분이 어머니라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취업정도와 연결지어 살펴볼 대목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현재 취업현황을 묻는 항목을 보면, 직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6.7%(12명), 직장이 없다는 응답이 93.3%(166명)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현재 직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2-7 참조). 이에 어머니의 미취업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V-2-26 참조).

〈표 V-2-26〉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미취업 이유(1순위)

단위: %(명)

	일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일이 없어서	안심하고 맡길 기관/사람 없음	자녀 양육과 가사일 이 더 중요함	근무 시간이 맞지 않아서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육아 병행 어려움	기타	계(명)
전체	0.6	17.5	24.7	15.1	8.4	16.9	5.4	11.4	100.0(166)
연령별									
영아	1.0	11.8	28.4	15.7	6.9	15.7	7.8	13.7	100.0(102)
유아	-	22.2	18.5	16.7	11.1	18.5	1.9	11.1	100.0(54)
미취학아동	-	50.0	20.0	-	10.0	20.0	-	-	100.0(10)
출생국기별									
남한	0.7	11.4	25.7	17.9	7.9	16.4	6.4	14.3	100.0(140)
북한	-	57.1	14.3	-	14.3	14.3	-	-	100.0(14)
중국	-	40.0	30.0	-	-	30.0	-	-	100.0(10)
기타	-	50.0	-	-	50.0	-	-	-	100.0(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미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기관이 없어서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의 이유로가 16.9%, 자녀양육과 가사 일이 중요해서가 15.1%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취업의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가 여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이 나온 점이 눈에 띈다. 탈북과 남한입국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담보로 상당 시간을 보낸 만큼 건강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누적된 심리적 압박감까지 겹쳐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건강 문제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가정의 건강지원에 관심이 가져야 할 대목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안심하고 맡길 기관/사람이 없어서가 28.7% 유아와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적당한 일이 없어서가 22.2%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자녀 연령에 따라 미취업 이유가 달랐다.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12명에게 대상아동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을 질문한 결

과, 근로 시간과 아동을 맡기는 기관의 시간이 맞지 않음이 50.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아동을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들과 아동을 믿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이 마땅치 않음 모두 16.7%로 동일하게 나왔다(표 V-2-27 참조).

〈표 V-2-27〉 모 취업 시 자녀양육의 어려움(1순위)

단위: %(명)

	아동을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듦	믿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이 마땅치 않음	근로 시간과 맡기는 기관의 시간이 맞지 않음	직장일로 아동과 시간을 보낼 수 없음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	계(명)
전체	16.7	16.7	50.0	8.3	8.3	100.0(12)
연령별						
영아	-	50.0	50.0	-	-	100.0(4)
유아	33.3	-	33.3	16.7	16.7	100.0(6)
미취학아동	-	-	100.0	-	-	100.0(2)
출생국가별						
남한	-	33.3	33.3	16.7	16.7	100.0(6)
북한	-	-	100.0	-	-	100.0(2)
중국	33.3	-	66.7	-	-	100.0(3)
기타	100.0	-	-	-	-	100.0(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이 보육시설이란 사실과 결부지어 보면, 이용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12명 취업모의 근무시간 동안 보육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직업 대부분이 일용직의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예: 식당일) 보육시설의 운영 시간과 부모의 근무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녀연령별로는 영아는 비용보다는 기관의 신뢰와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유아는 이외의 다른 항목에서 골고루 응답하였다.

육아정보 습득 경로는 주양육자의 이웃·친구·동료가 3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TV·인터넷·미디어 매체가 16.3%, 자녀가 다니는 교육·보육기관 15.2%, 종합사회복지관이 11.8% 순으로 나타났다(표 V-2-28 참조). 여타 집단과 다르게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

년도부터는 몇몇 복지관에서 하나센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연령별로 보면, 유아와 미취학 아동의 경우 다니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으로부터 육아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표 V-2-28〉 육아정보 습득 경로

단위: %(명)

	이웃 친구 동료	보육 교육 기관	종합 사회 복지관	육아 관련 서적	공공 기관	TV, 인터넷 미디어 매체	기타	계(명)
전체	38.2	15.2	11.8	3.9	7.3	16.3	7.3	100.0(178)
연령별								
영아	36.8	8.5	12.3	4.7	11.3	17.9	5.5	100.0(106)
유아	41.7	25.0	8.3	3.3	1.7	13.3	6.7	100.0(60)
미취학아동	33.3	25.0	25.0	-	-	16.7	-	100.0(12)
출생국가별								
남한	39.0	9.6	12.3	4.1	8.9	17.8	8.3	100.0(146)
북한	37.5	43.8	6.3	-	-	12.5	-	100.0(16)
중국	38.5	38.5	15.4	-	-	-	7.6	100.0(13)
기타	-	100.0	-	-	-	-	-	100.0(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거나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본 결과, 없다가 32.6%로 가장 많았다(표 V-2-29 참조). 다음으로 긴급한 경우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는 남편의 형제자매 19.7%로 많았으며, 이웃·친구·동료 16.9%, 친정부모 1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틀어 긴급할 때,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경우가 43.3%(시부모, 부인형제자매 포함)에 이른다는 점에서 가족 단위 탈북-탈북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이 꽤 많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9.1%로 나온 점도 눈에 띄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남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주요 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의지하는 경우가 타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에는 종교단체 지인과 어린이집 교사가 각 1명씩 포함되어 있었다.

〈표 V-2-29〉 긴급한 경우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

단위: %(명)

	시부모	친정부모	남편 형제 자매	부인 형제 자매	이웃 친구 동료	사회 복지사	없음	기타	계(명)
전체	3.9	14.6	19.7	5.1	16.9	6.2	32.6	1.2	1000(178)
연령별									
영아	5.7	14.2	15.1	4.7	17.0	6.6	36.8	-	1000(106)
유아	1.7	16.7	23.3	5.0	18.3	6.7	25.0	3.3	1000(60)
미취학아동	-	8.3	41.7	8.3	8.3	-	33.3	0.1	1000(12)
출생국가별									
남한	4.8	15.8	17.1	4.8	17.1	6.2	33.6	0.6	1000(146)
북한	-	18.8	37.5	12.5	18.8	12.5	-	-	1000(16)
중국	-	-	23.1	-	15.4	-	53.8	7.7	1000(13)
기타	-	-	33.3	-	-	-	66.7	-	1000(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나)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178명 중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또는 학원 등의 기관을 이용한다가 68.5%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31.5%보다 많았다(표 V-2-30 참조). 자녀 연령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영아는 기관 미이용이 50.9% 과반이 넘었으나, 유아 96.7%, 미취학 아동 100%가 기관을 다니고 있었다.

어머니 취업 여부로는 직업이 있는 12명의 경우 100% 자녀를 기관에 보내고 있었으며, 전업주부와 같은 비취업모의 경우에도 66.3%가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표 V-2-30〉 현재 육아지원기관 이용여부

단위: %(명)

	이용	미이용	계(명)
전체	68.5(122)	31.5(56)	100.0(178)
연령별			
영아	49.1(52)	50.9(54)	100.0(106)
유아	96.7(58)	3.3(2)	100.0(60)
미취학아동	100.0(12)	-	100.0(12)
$\chi^2(df) = 46.18(2)***$			
모직업여부			
있음	100.0(12)	-	100.0(12)
없음	66.3(101)	33.7(56)	100.0(166)
$\chi^2(df) = 5.91(1)$			

***p < .001.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종류를 살펴보면,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경우가 96%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반일제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는 각각 3.2%, 0.8%에 불과했다(표 V-2-31 참조).

자녀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육시설 대신 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취업모의 경우 100%로 기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취업모가 유치원 이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표 V-2-3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

단위: %(명)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 학원	계(명)
전체	96.0	3.2	0.8	100.0(122)
연령별				
영아	100.0	-	-	100.0(52)
유아	94.8	5.2	-	100.0(58)
미취학아동	83.4	8.3	8.3	100.0(12)
모직업여부				
있음	66.7	25.0	8.3	100.0(12)
없음	94.6	2.7	2.7	100.0(11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기관은 대부분 장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시간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57.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3.6%가 하루 5시간 이상~8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대부분 8시간 이상의 종일제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시간 이상 맡기는 경우도 7.4%나 되었다(표 V-2-32 참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하루 8시간 이상~10시간 이용이 가장 많고, 5시간 이상~8시간 미만인 구간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10시간 이상 기관을 이용한다가 25.0%로 장시간 기관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V-2-32〉 육아지원기관 하루 이용시간

단위: %(명)

	5시간미만	5시간이상~ 8시간미만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10시간 이상	일정치 없음	계(명)
전체	0.6	33.6	57.4	7.4	0.8	100.0(122)
연령별						
영아	1.9	28.8	59.6	7.7	1.9	100.0(52)
유아	-	36.2	56.9	6.9	-	100.0(58)
미취학아동	-	41.7	50.5	8.3	-	100.0(12)

(표 계속)

	5시간미만	5시간이상~ 8시간미만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10시간 이상	일정치 없음	계(명)
모직업여부						
있음	-	41.7	33.3	25.0	-	100.0(12)
없음	0.9	23.7	60.0	5.5	0.9	100.0(11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으로 는 집과의 거리가 52.5%로 절반 이상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프로그램 13.1%, 원 장·시설장, 비용이 각각 9.0%로 응답하였다.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인 북한 이탈주민가정에서 비용을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다(표 V-2-33 참조).

자녀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많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집과의 거리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으며 영아는 특히 비용 측면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시설에서 영아 중심으로 비용지원이 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겠다.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가 집과의 거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좀 더 높았으며 운영시간을 기관 선택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8.3%).

아동의 출생국가별에 따라 기관 선택 기준이 달랐는데, 북한 태생 아동의 경우 비 용 측면을 주요 고려 항목으로 응답한 비율이 31.3%나 되어 전체 평균 보다 3배 이 상 많았다. 또 운영시간, 주변평판, 기타(실내외 환경, 평가인증여부, 종교단체 운영 등) 항목에서는 무응답으로 나왔다. 이에 비해 중국 태생 아동은 운영시간, 주변평 판, 기타(실내외 환경, 평가인증여부, 종교단체 운영 등) 항목에 골고루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V-2-33〉 육아지원기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점(1순위)

단위: %(명)

	집과의 거리	프로 그램	시설장/ 원장	비용	건강/ 안전 관리	운영 시간	주변 평판	기타	계(명)
전체	525	131	90	90	6.6	3.3	1.6	4.9	100.0(122)
연령별									
영아	538	135	115	19	9.6	3.8	-	5.9	100.0(52)
유아	534	138	69	155	3.4	1.7	1.7	3.6	100.0(58)
미취학아동	41.7	83	83	83	8.3	8.3	8.3	8.5	100.0(12)

(표 계속)

	집과의 거리	프로 그램	시설장/ 원장	비용	건강/ 안전 관리	운영 시간	주변 평판	기타	계(명)
모직업여부									
있음	667	83	-	8.3	-	8.3	-	8.4	100.0(12)
없음	509	136	10.0	9.1	7.3	2.7	1.8	4.6	100.0(110)
출생국가별									
남한	560	132	11.0	5.5	6.6	2.2	1.1	4.4	100.0(91)
북한	375	188	6.3	31.3	6.3	-	-	-	100.0(16)
중국	538	77	-	-	7.7	7.7	7.7	15.4	100.0(13)
기타	-	-	-	50.0	-	50.0	-	-	100.0(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초등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가 39.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 주고 싶어서가 32.9%, 집에서의 양육이 힘들어서가 13.7% 순으로 나타났다(표 V-2-34 참조).

자녀 연령별로 보면, 유아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가 전체 평균 보다 높은 각각 46.6%, 66.7%로 응답하였다. 취학을 앞둔 연령일 수록 초등학교 적응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의 주된 이유라 하겠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모는 기관 선택의 주요 이유로 초등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와 취업으로 인한 자녀양육 순으로 두 항목에 집중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미취업모의 경우는 기관 선택의 주요 이유가 집에서의 자녀양육이 힘들어서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초등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 주고 싶어서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녀 출생국가별로는 북한, 중국 태생 아동에게서 초등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가 높은 비율이 나왔으며, 말씨, 남한 문화 등 교육을 위해서라는 항목은 예상외로²⁴⁾ 남한 태생 아동에게서만 2.2% 나왔다.

24)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에서 북한 태생 아동은 북한 사투리를 구사해서, 중국 태생 아동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남한의 또래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는데 본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음.

〈표 V-2-34〉 육아지원기관에 보내는 이유(1순위)

단위: %(명)

	자녀에게 친구를 시켜게 해주려고	취업으로 인한 자녀 양육으로	초등학교 가서 잘 적응하게 하려고	집에서 아동의 양육이 어려움	기관 이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서	말씨 남한문화 등의 자녀교육을 위해	기타 ²⁵⁾	계(명)
전체	32.0	5.7	39.3	13.1	3.3	3.8	4.9	100.0(122)
연령별								
영아	25.0	7.7	25.0	23.1	7.7	3.8	7.7	100.0(52)
유아	39.7	3.4	46.6	6.9	-	-	3.4	100.0(58)
미취학아동	25.0	8.3	66.7	-	-	-	-	100.0(12)
모직업여부								
있음	-	41.7	58.3	-	-	-	-	100.0(12)
없음	35.5	1.8	37.3	37.4	14.5	1.8	5.4	100.0(110)
출생국가별								
남한	31.9	5.5	35.2	15.4	4.4	2.2	5.5	100.0(91)
북한	37.5	-	50.0	6.3	-	-	-	100.0(16)
중국	30.8	7.7	53.8	7.7	-	-	-	100.0(13)
기타	-	50.0	50.0	-	-	-	-	100.0(2)

현재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에 대해서 만족한다가 52.5%, 매우 만족한다가 11.5%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4.0%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표 V-2-35 참조). 그러나 보통이다도 29.5%로 적지 않았다.

자녀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기관 이용이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어머니 취업 여부에서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출생국가별로는 2사례인 기타 국가 태생을 제외하고는 북한 태생 아동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를 합친 75.1%가 기관 이용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V-2-35〉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만족도

단위: %(명)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명)
전체	6.6	29.5	52.5	11.5	100.0(122)
연령별					
영아	1.9	36.5	48.1	13.5	100.0(52)
유아	10.3	22.4	58.6	8.6	100.0(58)
미취학아동	8.3	33.3	41.7	16.7	100.0(12)

25) 기타에는 '다른 기관에 비해 비용을 절감해 주어서', '어머니 몸이 불편해서'가 포함됨.

(표 계속)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명)
모직업여부					
있음	-	33.3	58.3	8.3	100.0(12)
없음	7.3	29.1	51.8	11.8	100.0(110)
출생국가별					
남한	4.4	33.0	49.5	13.2	100.0(91)
북한	12.5	12.5	68.8	6.3	100.0(16)
중국	15.4	30.8	46.2	7.7	100.0(13)
기타	-	-	100.0	-	100.0(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 어려움 및 육아지원요구

가) 남북한 양육방식의 차이

본 장에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 겪게 되는 육아에 관한 어려움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육아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크게 남북한 양육방식의 차이에 대한 질문과 현재 이들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 직면한 어려움,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양육지원 서비스와 이들이 남한 정부에 바라는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북한이탈주민 양육자들이 지각하는 남한과 북한의 양육방식 차이를 보기 위해 각 양육방식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바움린드(Baumling)의 4가지 분류를 근거로 하였다.²⁶⁾ 권위주의적(엄격한) 양육방식과 권위적(민주적) 양육방식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어감을 내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바움린드의 용어를 차용하기로 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용어 옆에 의미를 함께 제시하여 응답자가 의미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은 엄격한 양육방식으로, 권위적 양육방식은 민주적 양육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위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북한에서의 양육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엄격한 양육방식이라는

26) 바움린드(Baumling)는 애정과 통제라는 두 가지 차원에 따라 부모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정옥분, 2005, 제인용). 엄격한 통제와 설정해놓은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태도는 '권위주의적(authoritative) 양육방식'으로, 애정표현을 자주하고, 될 수 있으면 아동의 요구를 들어주고 통제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은 '허용적 양육방식'으로, 아동과 인격적 대화를 하며, 아동이 결정한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은 '권위적(authoritarian) 양육방식', 그리고 아동의 모든 문제는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아동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는 '무관심한 양육방식'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응답률이 75.4%로 가장 높았다(표 V-2-36 참조).

어머니 연령에 따라 양육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는 66.7%가 엄격한 양육방식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0대의 경우 85.7%가 엄격한 양육방식이라고 응답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엄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36〉 북한에서의 아동양육방식

단위: %(명)

구분	권위주의적 (엄격한) 양육방식	허용적 양육방식	권위적 (민주적) 양육방식	무관심한 양육방식	계(명)
전체	75.4	7.8	7.8	9.0	100.0(167)
어머니 연령					
20대 이하	66.7	14.3	14.3	4.8	100.0(21)
30대	73.9	7.2	8.1	10.8	100.0(111)
40대	85.7	5.7	2.9	5.7	100.0(35)
	$\chi^2 (df) = 5.61(6)$				
어머니입국시기					
00-04년	78.8	8.8	6.3	6.3	100.0(80)
05-09년	73.3	7.0	8.1	11.6	100.0(86)
	$\chi^2 (df) = 1.86(3)$				

어머니가 남한에 입국한 시기에 따라서 북한에서의 양육방식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엄격한 양육방식에 대해서도 각각 2000~2004년 입국한 어머니들과 2005~2009년에 입국한 어머니들 78.8%, 73.3%가 대부분 북한의 양육방식을 엄격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남한의 아동양육방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허용적 양육방식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게 나왔다(표 V-2-37 참조). 이는 북한에 비해 아동에게 애정표현을 자주 하고, 아동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남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허용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양육방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20대는 66.7%, 30대는 45.0%, 40대는 48.6%가 허용적인 양육방식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입국시기에 따라 남한의 양육방식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입국한 어머니들은 허용적이라고 지각하는 비율이 50%, 민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8%였으며,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입국한 어머니

들도 남한의 아동양육방식이 허용적이라는 응답이 45.0%, 민주적이라는 응답은 28.3%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37〉 남한에서의 아동양육방식

단위: %(명)

구분	권위주의적 (엄격한) 양육방식	허용적 양육방식	권위적 (민주적) 양육방식	무관심한 양육방식	계(명)
전체	16.8	48.5	33.5	1.2	100.0(167)
어머니 연령					
20대 이하	9.5	66.7	23.8	-	100.0(21)
30대	18.9	45.0	34.2	1.8	100.0(111)
40대	14.3	48.6	37.1	-	100.0(35)
	$\chi^2 (df) = 4.55(6)$				
어머니입국시기					
00~04년	21.3	50.0	28.8	-	100.0(80)
05~09년	12.8	46.5	28.4	2.3	100.0(86)
	$\chi^2 (df) = 4.86(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는 북한과 남한에서의 아동양육방식을 각각 엄격한 양육방식과 허용적 양육방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자신의 아동양육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서는 민주적 양육방식이 40.1%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허용적 양육방식이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라고 답한 사람들도 각각 29.9%와 28.1%로 유사한 응답률을 보였다(표 V-2-38 참조).

〈표 V-2-38〉 자신의 아동양육방식

단위: %(명)

구분	권위주의적 (엄격한) 양육방식	허용적 양육방식	권위적 (민주적) 양육방식	무관심한 양육방식	계(명)
전체	29.9	28.2	40.1	1.8	100.0(167)
어머니 연령					
20대 이하	14.3	38.1	47.6	-	100.0(21)
30대	34.2	26.1	36.9	2.7	100.0(111)
40대	25.7	28.6	45.7	-	100.0(35)
	$\chi^2 (df) = 5.87(6)$				
어머니입국시기					
00~04년	28.8	36.3	32.5	2.5	100.0(80)
05~09년	31.4	19.8	47.7	1.2	100.0(86)
	$\chi^2 (df) = 6.93(3)$				

입국 시기에 따라 자신의 양육방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입국시기가 이른 경우 36.3%가 자신의 양육방식을 허용적 양육방식이라고 답한 반면, 입국 시기가 늦은 경우, 47.7%가 자신의 양육방식을 민주적 양육방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현재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답률이 77.8%에 달했다(표 V-2-39 참조). 그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로 꼽은 것은 아동양육 및 교육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과 아동 양육에 관한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연령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지만 20대는 66.7%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반면, 40대는 68.6%로 20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39〉 현재 가족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1순위 기준)

단위: %(명)

구분	경제적 어려움	아동양육 및 교육	환자의 간병 및 치료	주택/주거 관련 문제	가족 갈등, 대화 단절	여가/문화 활동 부족	기타	없음	계(명)
전체	70.1	15.6	1.8	3.6	0.6	6.0	1.2	1.2	100(167)
어머니연령									
20대 이하	66.7	9.5	-	9.5	-	9.5	-	4.8	100(21)
30대	71.2	13.5	2.7	2.7	0.9	6.3	1.8	0.9	100(111)
40대	68.6	25.7	-	2.9	-	2.9	-	-	100(35)
$\chi^2 (df) = 12.31(14)$									
입국시기									
00~04년	63.8	20.0	3.8	3.8	-	7.5	-	1.3	100(80)
05~09년	75.6	11.6	-	3.5	1.2	4.7	2.3	1.2	100(86)
$\chi^2 (df) = 9.27(7)$									

또한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아동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동양육의 어려움으로 4.10으로 낮은 경제력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며, 아동학습지도의 어려움도 3.98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V-2-40 참조). 이는 위의 표에서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응답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양육에 있어서 다른 문제보다도 경제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동양육 중 아동의 남한말 구사능력으로 인한 어려움의 평균점은 2.56으로, 다른 양육 어려움에 비해서 높지 않게 나타났다(표 V-2-40 참조).

〈표 V-2-40〉 아동양육의 어려움

단위: 점

구분	아동의 남한말 구사능력	낮은 경제력	양육방식 관련 가족갈등	북한이탈 주민이탈 선입견	남한친구 사귀기 어려움	민고맡길 사람/시설없음	아동학습 지도의 어려움	계(명)
전체	2.56	4.10	2.90	3.47	2.99	3.44	3.98	100.0(167)

어머니 연령에 따라 아동의 남한말 구사능력으로 인한 부담에 대해 20대는 2.71, 30대는 2.24, 40대는 2.54로 나타나 20대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입국시기에 따라 아동의 남한말 구사능력에 대한 어려움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입국시기가 오래된 경우 아동의 남한말 구사 능력에 대한 어려움을 덜 느끼지만 최근에 입국한 경우는 아동의 남한말 구사능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에 입국, 정착한 기간이 길수록 남한말 구사능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결혼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경우에 비해서 이혼이나 별거를 한 경우에 아동양육에서 아동의 남한말 구사 능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표 V-2-41〉 아동양육의 어려움_아동의 남한말 구사 능력

단위: %(명)

구분	평균	전혀 어려움 없음	어려움 없는 편임	보통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	계(명)
전체	2.56	24.0	24.6	29.9	14.4	7.2	100.0(167)
어머니 연령							
20대이하	2.71	23.8	19.0	28.7	19.0	9.5	100.0(21)
30대	2.24	24.3	25.2	29.8	13.5	7.2	100.0(111)
40대	2.54	22.9	25.7	31.4	14.3	5.7	100.0(35)
$\chi^2 (df) = 1.01(8)$							
입국시기							
00~04년	2.23	35.0	26.3	26.3	6.3	6.3	100.0(80)
05~09년	2.87	14.0	23.3	32.5	22.1	8.1	100.0(86)
$\chi^2 (df) = 15.73(4)$							

(표 계속)

구분	평균	전혀 어려움 없음	어려움 없는 편임	보통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	계(명)
결혼상태							
미혼(동거)	2.65	8.7	34.8	43.5	8.7	4.3	100.0(23)
남한에서처음결혼	2.40	30.0	23.3	26.7	16.7	3.3	100.0(30)
북한에서결혼	2.65	22.6	22.6	32.2	12.9	9.7	100.0(31)
북한배우자/남한재혼	1.89	55.6	22.2	11.1	-	11.1	100.0(9)
제3국배우자와결혼	2.71	15.8	28.9	28.9	21.1	5.3	100.0(38)
제3국배우자/남한재혼	1.00	100.0	-	-	-	-	100.0(1)
북한배우자/혼자	1.80	60.0	-	40.0	-	-	100.0(5)
제3국배우자/혼자	2.43	28.6	28.6	14.2	28.6	-	100.0(7)
사별	1.25	75.0	25.0	-	-	-	100.0(4)
이혼/별거	3.21	10.5	15.8	36.7	15.8	21.1	100.0(19)
$\chi^2 (df) = 40.60(36)$							

**p < .01.

아동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아동의 사교육비나 양육비를 부담하기에는 낮은 경제력이라고 꼽았다(표 V-2-42 참조).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88.6%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있어 다른 어떤 어려움보다도 경제력으로 인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이나 입국시기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주양육자의 결혼 상태에 따라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부모가정의 특성을 보이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중 사별(3.25점)을 제외하고는, 북한 배우자였으나 현재 혼자가 된 경우(5.0점), 제3국 배우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혼자인 경우(4.71점), 이혼/별거의 경우(4.37점) 모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높았다. 이에 반해 남한에서 처음 결혼한 경우(3.77점)나 사별한 경우(3.25점)에는 상대적으로 보통정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2〉 아동양육의 어려움_사교육비/양육비를 부담하기에는 낮은 경제력

단위: %(명)

구분	평균	전혀 어려움 없음	어려움 없는 편임	보통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	계(명)
전체	4.10	1.8	4.2	16.8	37.1	40.1	100.0(167)
어머니 연령							
20대 이하	4.14	-	4.8	14.2	42.9	38.1	100.0(21)
30대	4.09	2.7	3.6	17.2	35.1	41.4	100.0(111)
40대	4.09	-	5.7	17.2	40.0	37.1	100.0(35)
$\chi^2 (df) = 2.43(8)$							

(표 계속)

구분	평균	전혀 어려움 없음	어려움 없는 편임	보통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	계(명)
입국시기							
00~04년	4.20	1.3	3.8	15.0	33.8	46.3	100.0(80)
05~09년	4.00	2.3	4.7	18.6	39.5	34.9	100.0(86)
$\chi^2 (df) = 15.73(4)$							
결혼상태							
미혼(동거)	4.09	-	4.3	17.4	43.5	34.8	100.0(23)
남한에서처음결혼	3.77	-	6.7	26.6	50.0	16.7	100.0(30)
북한에서결혼	4.16	-	9.7	12.9	29.0	48.4	100.0(31)
북한배우자/남한재혼	4.22	-	-	22.2	33.3	44.4	100.0(9)
제3국배우자와결혼	4.08	2.6	-	18.5	44.7	34.2	100.0(38)
제3국배우자/남한재혼	1.00	100.0	-	-	-	-	100.0(1)
북한배우자/혼자	5.00	-	-	-	-	100.0	100.0(5)
제3국배우자/혼자	4.71	-	-	-	28.6	71.4	100.0(7)
사별	3.25	25.0	-	25.0	25.0	25.0	100.0(4)
이혼/별거	4.37	-	5.3	10.5	26.3	57.9	100.0(19)
$\chi^2 (df) = 97.86(36)^{***}$							

***p < .001.

양육방식에 관련해서 배우자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점이 2.90점으로, 어려움 없거나 보통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243 참조). 어머니의 연령이나 입국시기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전반적으로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에 대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결혼 상태에 따라서도 아동양육방식에 있어서 배우자나 가족과의 갈등을 빚는 어려움에도 차이를 보였다. 제3국 배우자와 결혼 후 현재 혼자인 가정의 어머니들이 가장 갈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제3국 배우자와 결혼한 가정의 어머니들도 갈등이 다른 가정보다 높았다. 즉, 북한이나 남한에서 결혼한 가정보다는 제3국 배우자와 결혼한 가정에서의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V-2-43〉 아동양육의 어려움_양육방식 관련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

단위: %(명)

구분	평균	전혀 어려움 없음	어려움 없는 편임	보통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	계(명)
전체	2.90	15.6	22.2	26.9	26.9	8.4	100.0(167)
어머니 연령							
20대 이하	3.14	4.8	19.0	38.1	33.3	4.8	100.0(21)
30대	2.94	16.2	19.8	27.1	27.9	9.0	100.0(111)
40대	2.66	20.0	31.4	20.0	20.0	8.6	100.0(35)
$\chi^2 (df) = 6.73(8)$							
입국시기							
00~04년	2.96	13.8	23.8	25.0	27.4	10.0	100.0(80)
05~09년	2.84	17.4	20.9	29.1	25.6	7.0	100.0(86)
$\chi^2 (df) = 1.27(4)$							
결혼상태							
미혼(동거)	3.04	13.0	17.4	34.9	21.7	13.0	100.0(23)
남한에서처음결혼	2.90	16.7	13.3	40.0	23.3	6.7	100.0(30)
북한에서결혼	2.42	25.8	35.5	12.9	22.6	3.2	100.0(31)
북한배우자/남한재혼	2.44	11.1	44.4	33.3	11.1	-	100.0(9)
제3국배우자와결혼	3.26	5.3	15.8	31.6	42.1	5.3	100.0(38)
제3국배우자/남한재혼	1.00	100.0	-	-	-	-	100.0(1)
북한배우자/혼자	3.20	40.0	-	-	20.0	40.0	100.0(5)
제3국배우자/혼자	3.43	-	28.6	28.6	14.3	28.6	100.0(7)
사별	1.25	75.0	25.0	-	-	-	100.0(4)
이혼/별거	3.21	5.3	26.3	21.1	36.8	10.5	100.0(19)
$\chi^2 (df) = 59.04(36)$							

**p < .01.

아동양육의 어려움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부모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이하의 경우 3.29로 가장 낮은 평균점이 나온 반면, 30대, 40대는 각각 3.50점, 3.46점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부모라는 선입견 때문에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는 2000~2004년 사이에 들어온 경우 3.40이고, 2005~2009년 사이에 들어온 경우 3.51로 입국시기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2-44 참조).

그러나 결혼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한부모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이 '어려운 편임'이라고 응답하여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일반 양부모가정에 비해서 더 크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남한에서 처음 결혼을 한 경우, 남한에서 재혼을 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4〉 아동양육의 어려움_북한이탈주민 부모라는 선입견

단위: %(명)

구분	평균	전혀 어려움 없음	어려움 없는 편임	보통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	계(명)
전체	3.47	10.2	13.2	18.0	37.0	21.6	1000(167)
어머니 연령							
20대 이하	3.29	14.3	14.3	14.3	42.9	14.3	1000(21)
30대	3.50	9.9	13.5	15.3	38.7	22.5	1000(111)
40대	3.46	8.6	11.4	28.6	28.6	22.9	1000(35)
		$\chi^2 (df) = 4.89(8)$					
입국시기							
00~04년	3.40	11.3	12.5	22.5	32.5	21.3	1000(80)
05~09년	3.51	9.3	14.0	14.0	41.9	20.9	1000(86)
		$\chi^2 (df) = 2.87(4)$					
결혼상태							
미혼(동거)	3.48	-	17.4	21.8	56.5	4.3	1000(23)
남한에서처음결혼	3.13	23.3	13.3	10.1	33.3	20.0	1000(30)
북한에서결혼	3.23	12.9	9.7	32.2	32.3	12.9	1000(31)
북한배우자/남한재혼	3.11	-	11.1	66.7	22.2	-	1000(9)
제3국배우자와결혼	3.76	5.3	15.8	7.9	39.5	31.6	1000(5)
제3국배우자/남한재혼	1.00	100.0	-	-	-	-	1000(38)
북한배우자/혼자	4.20	20.0	-	-	-	80.0	1000(1)
제3국배우자/혼자	4.14	-	14.3	-	42.9	42.9	1000(7)
사별	4.25	-	-	25.0	25.0	50.0	1000(4)
이혼/별거	3.47	10.5	15.8	10.5	42.1	21.1	1000(19)
		$\chi^2 (df) = 67.99(36)^{**}$					

**p < .01.

아동의 특이한 말씨 등으로 인해 남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도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에 따라서도 20대 이하, 30대는 2.95점, 40대는 3.11점으로 보통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표 V-2-45 참조).

그러나 입국시기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다. 2000~2004년 사이에 입국한 경우에는 2.75점, 2005~2009년 사이에는 3.21점으로 최근 입국한 경우 아동의 특이한 말씨

로 남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하는 것을 양육의 어려움으로 꼽는 경향이 높았다.

결혼 상태를 중심으로 보면 제3국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남한에서 재혼했거나(3.42점), 제3국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한부모가정이 된 경우(3.57점)에는 상대적으로 특이한 말씨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북한이탈주민가정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어린 나이에 중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또래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중국어 억양이나 독특한 말투로 인해 놀림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남한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표 V-2-45〉 아동양육의 어려움_특이한 말씨 등으로 인해 남한친구 사귀기 어려움
단위: %(명)

구분	평균	전혀 어려움 없음	어려움 없는 편임	보통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	계(명)
전체	2.99	19.8	16.2	22.2	29.3	12.6	1000(167)
어머니 연령							
20대 이하	2.95	19.0	14.3	28.6	28.6	9.5	1000(21)
30대	2.95	19.8	17.1	22.5	28.8	11.7	1000(111)
40대	3.11	20.0	14.3	17.1	31.4	17.1	1000(35)
		$\chi^2 (df) = 1.85(8)$					
입국시기							
00~04년	2.75	27.5	17.5	17.5	27.5	10.0	1000(80)
05~09년	3.21	12.8	15.1	25.6	31.4	15.1	1000(86)
		$\chi^2 (df) = 6.97(4)$					
결혼상태							
미혼(동거)	2.91			8.7			30.4
남한에서처음결혼	2.70			30.0			10.0
북한에서결혼	3.00			12.9			19.4
북한배우자/남한재혼	2.33			44.4			11.1
제3국배우자와결혼	2.80			13.2			7.9
제3국배우자/남한재혼	3.42			100.0			-
북한배우자/혼자	1.00			40.0			20.0
제3국배우자/혼자	3.57			14.3			14.3
사별	2.25			25.0			50.0
이혼/별거	3.05			21.1			15.8
		$\chi^2 (df) = 40.50(36)$					

주변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는 것도 이들의 아동양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V-2-46 참조).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이하는 3.33점, 30대는 3.47점, 40대는 3.40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입국시기에 따라서도 2000~2004년 입국한 어머니와 2005~2009년 입국한 어머니가 각각 3.59점, 3.30점으로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아동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북한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가 지금은 혼자가 된 경우(4.20점), 제3국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가 지금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4.43점), 사별(4.50점) 등 한부모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주변에 친척이나 이웃, 친구 같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에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재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동원 가능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를 더욱 큰 어려움으로 느끼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2-46〉 아동양육의 어려움_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음

단위: %(명)

구분	평균	전혀 어려움 없음	어려움 없는 편임	보통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	계(명)
전체	3.44	10.8	14.4	22.8	24.6	27.5	100.0(167)
어머니연령							
20대 이하	3.33	14.3	9.5	23.8	33.3	19.0	100.0(22)
30대	3.47	9.0	16.2	24.3	19.8	30.6	100.0(111)
40대	3.40	14.3	11.4	17.1	34.3	22.9	100.0(35)
$\chi^2 (df) = 6.63(8)$							
입국시기							
00~04년	3.59	10.0	13.8	18.8	22.5	35.0	100.0(80)
05~09년	3.30	11.6	15.1	25.6	26.7	20.9	100.0(86)
$\chi^2 (df) = 4.29(4)$							
결혼상태							
미혼(동거)	3.17	-	34.8	26.1	26.1	13.0	100.0(23)
남한에서처음결혼	3.40	13.3	10.0	23.3	30.0	23.3	100.0(30)
북한에서결혼	3.19	19.4	19.4	9.7	25.8	25.8	100.0(31)
북한배우자/남한재혼	3.11	22.2	11.1	22.2	22.2	22.2	100.0(9)
제3국배우자와결혼	3.76	-	10.5	31.6	28.9	28.9	100.0(38)
제3국배우자/남한재혼	5.00	-	-	-	-	100.0	100.0(1)
북한배우자/혼자	4.20	-	-	40.0	-	60.0	100.0(5)
제3국배우자/혼자	4.43	-	-	14.3	28.6	57.1	100.0(7)
사별	4.50	-	-	-	50.0	50.0	100.0(4)
이혼/별거	2.84	31.6	10.5	26.3	5.3	26.3	100.0(19)
$\chi^2 (df) = 51.06(36)$							

*p < .05.

아동양육으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 마지막으로 아동의 학습지도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도 높은 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 사회에서 아동을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부모가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표 V-2-47 참조).

어머니 연령에 따라 비교해보았을 때, 40대는 4.20점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으며, 20대 이하는 4.05점이었으며, 어머니가 30대인 경우 아동 학습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3.89점이었다. 입국시기에 따라서는 2000~2004년 입국자와 2005~2009년 입국자 각각 4.00점, 3.94점으로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유형인 사별이나, 결혼 후 혼자가 되어 혼자 자녀 양육을 감당하는 경우, 남한의 교육방식이나 학습지도 방법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적자본이나 환경이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아 부모에게 아동 학습지도가 더욱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표 V-2-47〉 아동양육의 어려움_아동의 학습지도 어려움

단위: %(명)

구분	평균	전혀 어려움 없음	어려움 없는 편임	보통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	계(명)
전체	3.98	4.2	6.6	16.2	33.5	39.5	100.0(167)
어머니연령							
20대 이하	4.05	-	4.8	23.8	33.3	38.1	100.0(21)
30대	3.89	5.4	8.1	16.2	32.4	37.8	100.0(111)
40대	4.20	2.9	2.9	11.4	37.1	45.7	100.0(35)
$\chi^2 (df) = 4.51(8)$							
입국시기							
00~04년	4.00	6.3	5.0	13.8	32.5	42.5	100.0(80)
05~09년	3.94	2.3	8.1	18.6	34.9	36.0	100.0(86)
$\chi^2 (df) = 3.24(4)$							
결혼상태							
미혼(동거)	3.74	4.3	13.0	8.7	52.2	21.7	100.0(23)
남한에서처음결혼	3.80	10.0	-	23.3	33.3	33.3	100.0(30)
북한에서결혼	4.03	-	12.9	16.1	25.8	45.2	100.0(31)
북한배우자/남한재혼	3.44	22.2	-	11.1	44.4	22.2	100.0(9)
제3국배우자와 결혼	4.18	-	5.3	15.8	34.2	44.7	100.0(38)
제3국배우자/남한재혼	1.00	100.0	-	-	-	-	100.0(1)
북한배우자/혼자	4.60	-	-	20.0	-	80.0	100.0(5)
제3국배우자/혼자	4.17	-	-	-	28.6	71.4	100.0(7)
사별	4.50	-	-	25.0	-	75.0	100.0(4)
이혼/별거	3.89	-	10.5	21.1	36.8	31.6	100.0(19)
$\chi^2 (df) = 62.83(36)$							

**p < .01.

다) 육아지원 서비스 수혜 실태 및 요구

하나원에서의 양육관련 부모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20.4%만이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표 V-2-48 참조). 이는 남한사회에서 새롭게 부모로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부모 또한 교육받지 못하고 남한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연령과 입국시기에 따라 하나원에서의 양육관련 경험을 보면, 연령이나 입국시기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이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8〉 하나원에서의 양육관련 부모교육 경험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명)
전체	20.4	79.6	100.0(167)
어머니연령			
20대 이하	28.6	71.4	100.0(21)
30대	18.0	82.0	100.0(111)
40대	22.9	77.1	100.0(35)
$\chi^2 (df) = 1.38(2)$			
입국시기			
00~04년	20.0	80.0	100.0(80)
05~09년	20.9	79.1	100.0(86)
$\chi^2 (df) = 0.02(1)$			

다음은 하나원에서 부모교육을 받은 34명의 어머니들이 어떠한 부모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빈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하나원에서 받은 양육관련 부모교육의 내용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분야는 남북의 양육방식 차이를 다루는 것이었다는 응답은 23명이었고, 다음으로는 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제공이 각각 8명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시간 내에 교육이 이뤄진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양육방식이나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다루는 방식으로 부모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V-2-49 참조).

〈표 V-2-49〉 하나원에서의 양육관련 부모교육 내용(복수응답 기준)

							단위: 명
구분	남북, 양육방식 차이	가족 갈등해결 방법	아동의 진학진료 관련정보	학습 프로그램 관련정보	아동의 건강, 영양 관리 방법	아동의 친구관계 도와줄 방법	정부 육아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전체	23	4	3	8	5	5	8

하나원에서 양육에 관련된 부모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표 V-2-50 참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7.1%였고, 평균점도 3.50점으로 대부분이 하나원에서 받은 부모교육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양육자의 입국시기에 따라서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주양육자가 입국한 시기에 따라서는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고, 비슷한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하나원에서 양육에 관련된 부모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가 더 높았다.

〈표 V-2-50〉 하나원에서의 양육관련 부모교육 도움정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명)
전체	3.50	8.8	38.2	47.1	5.9	100.0(34)
어머니 연령						
20대 이하	3.17	16.7	50.0	33.3	-	100.0(21)
30대	3.50	10.0	35.0	50.0	5.0	100.0(111)
40대	3.75	-	37.5	50.0	12.5	100.0(35)
$\chi^2 (df) = 2.70(6)$						
입국시기						
00~04년	3.50	12.4	31.3	50.0	6.3	100.0(80)
05~09년	3.50	5.6	44.4	44.4	5.6	100.0(86)
$\chi^2 (df) = 0.91(3)$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9%가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감안했을 때, 서비스의 수혜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서비스 수혜 빈도에도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23.8%만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데 반해서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30대는 36.9%, 40대는 45.7%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머니의 입국시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입국한 경우나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입국한 경우의 수혜 정도가 각각 37.5%와 37.2%로 상당히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보아 입국 시기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서비스를 받는

다고 답한 사람이 27.3%이고, 직장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경우와 전업주부/학생인 경우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응답률로 각각 33.3%와 35.7%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70.0%로 상당히 높은 수혜율을 보이고 있다(표 V-2-51 참조).

〈표 V-2-51〉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수혜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명)
전체	37.1	62.9	100.0(167)
어머니연령			
20대 이하	23.8	76.2	100.0(21)
30대	36.9	63.1	100.0(111)
40대	45.7	54.3	100.0(35)
	$\chi^2 (df) = 2.70(2)$		
어머니입국			
00~04년	37.5	62.5	100.0(80)
05~09년	37.2	62.8	100.0(86)
	$\chi^2 (df) = 11.53(10)$		
어머니취업여부			
직장 있음	27.3	72.7	100.0(11)
구하고 있음	70.0	30.0	100.0(10)
구하지 않음	33.3	66.7	100.0(3)
전업주부/학생	35.7	64.3	100.0(143)
	$\chi^2 (df) = 5.24(3)$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받고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그동안 받은 서비스 종류를 모두 체크하라는 문항을 통해서 이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에는 사례관리와 공부방,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취업교육, 부모참여 프로그램, 가족대상 서비스, 부모교육, 주 1회 방문교육, 독서 프로그램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공부방,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응답한 사람이 38명, 부모교육이라 응답한 사람은 32명으로 공부방,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V-2-52 참조). 이러한 서비스는 대체로 일반 저소득층 대상 육아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표 V-2-52〉 현재 지원받고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 종류(복수응답 기준)

단위: 명

구분	사례 관리	공부방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 그램	취업 교육	부모 참여 프로 그램	가족 대상 서비스	부모 교육	주1회 방문 교육	독서 프로 그램	기 타 (27)
전체	7	38	7	3	7	3	32	2	2	4

현재 제공받고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육아지원서비스의 수혜자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받고 있는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V-2-53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입국시기에 따라 만족도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2000~2004년 사이에 입국한 경우에는 3.87점이며, 2005~2009년 사이에 입국한 경우에는 3.78점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만족도 평균점이 3.33점으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4.00)이거나 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4.00), 전업주부이거나 학생인 경우(4.8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심층면담 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직장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육아지원서비스가 있어도 충분히 이용하기 어렵거나 취업모에게 적합한 육아지원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V-2-53〉 아동육아지원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
전체	3.82	1.6	29.1	54.8	14.5	100.0(62)
어머니연령						
20대 이하	3.40	20.0	40.0	20.0	20.0	100.0(21)
30대	3.88	-	26.9	58.5	14.6	100.0(111)
40대	3.81	-	31.2	56.3	12.5	100.0(35)
			$\chi^2 (df) = 13.07(6)^*$			
입국시기						
00~04년	3.87	3.3	20.1	63.3	13.3	100.0(80)
05~09년	3.78	-	37.5	46.9	15.6	100.0(86)
			$\chi^2 (df) = 3.52(3)$			
어머니 취업여부						
직장 있음	3.33	-	66.7	33.3	-	100.0(3)
구하고 있음	4.00	-	14.3	71.4	14.3	100.0(7)
구하고 있지 않음	4.00	-	-	100.0	-	100.0(1)
전업주부/학생	4.82	2.0	29.4	52.9	15.7	100.0(51)
			$\chi^2 (df) = 4.14(9)$			

*p < .05.

27) 기타의 세부 사항은, 피아노 교습과 학습지, 보건소 영양 플러스 교육, 구민 체육센터 체육 배우처가 각각 1.6%(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 육아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서비스 관련된 정보를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V-2-54 참조). 이 밖에도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13.3%, 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응답도 11.4%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이 육아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이러한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V-2-54〉 육아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비용 부담	가정 방문의 부담감	서비스 관련된 정보를 몰라서	이용이 어렵거나 원하지 않아서	주위 사람의 시선이 불편함	이용 하기에 거리가 멀어서	아이가 어려서	기타 28)	계
전체	13.3	11.4	3.8	43.8	5.7	3.8	3.8	9.5	4.8	100(105)
모연령										
20대이상	18.8	12.5	-	50.0	-	-	-	18.8	-	100(16)
30대	11.4	12.9	5.7	41.4	2.9	4.3	5.7	10.0	5.7	100(70)
40대	15.8	5.3	-	47.4	21.1	5.3	-	-	7.2	100(19)
$\chi^2 (df) = 22.45(20)$										
입국시기										
00~04년	14.0	6.0	4.0	54.0	8.0	6.0	8.0	6.0	6.0	100(50)
05~09년	13.0	16.7	3.7	38.9	7.4	1.9	3.7	13.0	5.7	100(54)
$\chi^2 (df) = 8.70(10)$										

육아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서비스를 받을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본 문항에 대해서는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5.8%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V-2-55 참조). 어머니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이하보다는 어머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0대와 40대의 어머니들이 아동 육아관련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입국시기에 따라서는 입국시기가 빠른 경우보다 최근에 입국한 경우에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혜 의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먼저 입국한 경우에는 93.8%가 수혜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최근 입국한 경우에는 97.7%가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8) 기타의 세부 사항은 '프로그램이 맘에 안 들어서' 1.9%, '프로그램 제공자와 관계가 불편해서' 1.9%, '대기자가 많아서' 1.0%가 있다.

〈표 V-2-55〉 육아지원 서비스 수혜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전체	95.8	4.2	100.0(167)
어머니연령			
20대 이하	85.7	14.3	100(21)
30대	97.3	2.7	100(111)
40대	97.1	2.9	100(35)
$\chi^2 (df) = 6.10(2)^*$			
입국시기			
00~04년	93.8	6.2	100.0(80)
05~09년	97.7	2.3	100.0(86)
$\chi^2 (df) = 1.58(1)$			

*p < .05.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지원받기를 원하는 육아지원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양육비 보조(62.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 지원 다음으로 높게 나온 것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13.8%의 응답률을 보였다(표 V-2-56 참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육아지원으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도 매우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과 입국시기에 따른 응답률을 통해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대부분이 희망하는 서비스가 양육비 보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재혼 가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이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보다 북한에서 결혼했으나 남한에서 재혼한 경우에 훨씬 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2-56〉 희망하는 육아지원서비스 종류

단위: %(명)

구분	양육비 보조	맞춤형 유아 교육 기관	교육 지원	부모 교육	부모 및 아동 상담	아동가족 건강의료 지원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	계
전체	62.3	10.2	13.8	1.8	3.0	2.4	3.0	3.6	100(167)
어머니연령									
20대 이하	66.7	14.3	4.8	9.5	4.8	-	-	-	100(21)
30대	61.3	10.8	15.3	-	3.6	1.8	4.5	2.7	100(111)
40대	62.9	5.7	14.3	2.9	-	5.7	-	8.6	100(35)
$\chi^2 (df) = 21.41(14)$									

(표 계속)

구분	양육비 보조	맞춤형 유아 교육 기관	교육 지원	부모 교육	부모 및 아동 상담	아동가족 건강의료 지원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	계
입국시기									
00~04년	68.8	8.8	15.0	1.3	1.3	-	1.3	3.8	100.0(80)
05~09년	55.8	11.6	12.8	2.3	4.7	4.7	4.7	3.5	100.0(86)
$\chi^2 (df) = 8.78(7)$									
결혼상태									
미혼(동거)	60.9	17.4	13.1	-	4.3	-	-	4.3	100.0(23)
남한에서처음결혼	46.6	16.7	20.0	10.0	6.7	-	-	-	100.0(30)
북한에서결혼	48.4	12.9	25.8	-	3.2	3.2	-	6.5	100.0(31)
북한배우자/남한재혼	88.9	-	11.1	-	-	-	-	-	100.0(9)
제3국배우자와 결혼	78.9	7.9	5.3	-	-	2.6	5.3	-	100.0(38)
제3국배우자/남한재혼	-	-	100.0	-	-	-	-	-	100.0(1)
북한배우자/혼자	80.0	-	-	-	-	-	20.0	-	100.0(5)
제3국배우자/혼자	71.4	-	-	-	-	-	-	28.6	100.0(7)
사별	25.0	-	25.0	-	25.0	25.0	-	-	100.0(4)
이혼/별거	68.3	5.3	5.3	-	-	5.3	10.5	5.3	100.0(19)
$\chi^2 (df) = 90.86(63)^*$									

*p < .05.

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인력 면담조사 결과²⁹⁾

1)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 실태 및 문제점

가) 북한이탈주민 전문인력 특성

본 조사는 담당기관 방문과 본 시범적용에 참여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 담당기관 방문 및 시범적용에 참여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현재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종류와 지역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참여,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및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참여 상황, 또한 북한이탈주민 전문인력으로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요구 사항에 대한 것이었다.

29) 본 절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인력들을 방문하여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임.

면담 대상자들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담 사회복지사들로 이루어졌다(표 V-2-57 참조). 일반적으로는 한 기관 마다 평균 5명의 담당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총 36명 중 31명이 사회복지사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전담인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심리상담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따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전담 심리상담사를 두지는 않고, 해당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일반 심리상담사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업무까지도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57〉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인력 현황

사업명	지역	담당기관 명칭	전담인력 수	총인원
하나센터	서울	노원구 공릉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6명 심리상담사 1명 북한이탈주민직원 1명	8명
		경기	부천시 덕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명
	대구	북한이주민 지원센터	사회복지사 6명 심리상담사 1명	7명
종합 사회복지관	서울	양천구 한빛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7명 심리상담사 1명	8명
		강서구 방화6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2명	2명
		강서구 가양7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3명 심리상담사 1명	4명
	인천	부평구 삼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2명	2명
합계	4지역	7개 기관	사회복지사 31명 심리상담사 4명 기타 1명	36명

주: 2009년 11월 6일 기준

나)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및 부모 지원 실태

(1)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지원 대상의 특수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주기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반복되는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된다. 특히, 삼죽초등학교 병

설유치원의 경우, 처음에는 지정된 교사 1명이 모든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매 기수 별로 아이들이 새로 들어오면 신발장이나 교구에 이름 붙이는 것부터 각 아동에 따라서 학습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매번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보조교사를 두기는 했으나 이는 아직까지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경우, 하나원에 있는 동안은 영유아 교육에 관해서 교사와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다. 부모가 하나원에 입소하고 있는 동안에는 외부로 나갈 수 없으며, 외부인과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외부기관의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교사는 아동의 생년월일, 비보호 아동 여부, 어머니의 이름 등 아동에 관련된 기본 정보만을 제공받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아동을 지도하게 되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 또한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이나 남한에서 교사와 어머니 간의 의사전달과정에 대해 사전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을 전담하는 체계, 기관의 부재

정착지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기관이 통일부, 하나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정착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들의 정착에 관련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부재하다. 현재 이들의 정착과 복지를 돕는 역할을 민간단체나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원치 않거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게다가 하나원 퇴소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 전달이나 업무를 총괄하는 체계나 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이들에 관한 정보나 요구사항과 같은 데이터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가 부재하여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북한이탈주민 전문 실무자 부족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관련 실무자의 부족이다. 한 예로 대구 지역에서는 실무자 7명이 정착도우미 50명과 북한이탈주민 45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소한 이 정도의 실무자는 있어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이나 인천, 경기의 경우, 대구보다 더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수는 그만큼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일례로 “정착도우미의 경우 2008년 4월 전국에 1천860

명에 불과하고, 신변보호 담당 보안경찰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704명에 그치고 있다. 보안경찰 1인당 평균 12.6명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연합뉴스, 2008. 8. 27).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더 증가할 것이고, 집중 대상도 성인에서 영유아까지 확산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실무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시범적용은 영유아를 담당할 실무자의 부족으로 하나센터의 실무자와 희망유아교육사들이 시범적용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센터에서 영유아 및 부모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양성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 이후 생활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복지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고정적인 북한이탈주민 전문 실무자가 부족한 상태이다. 절대적으로 세대수가 많은데 비해 담당자, 전문가의 수가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어느 정도 일에 전문성을 띠게 될 때쯤에는 인사이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사업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와 부모 및 가족 지원을 위해 강화해야 할 점

(1) 영유아 관련 지원 사업 확장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 사업은 성인을 중심으로 취업이나 경제적인 측면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어 최근에는 학업이나 학교 적응 문제를 비롯하여 청소년과 학령기 이동에 대한 연구나 지원 사업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유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남한 입국 연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내의 0세부터 6세 사이의 영유아 수는 319명이고, 현재 나이로 영유아에 해당하는 총 인원은 122명에 불과하다(통일부 내부자료, 2008).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원 대상으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영유아 관련 지원은 가정의 문제와도 연결되며, 특히 탈북과정이나 정착 후에 출산한 가정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비보호 아동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들 또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와 부모, 가정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실무자의 양성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달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영유아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실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양적인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또한 이들 실무자들이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각 하나센터의 실무자들은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일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영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반면, 희망유아교육사나 영유아 관련 전문가들은 영유아의 전문가이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실무자 양성이 시급하다.

(3) 전문가 간의 연계

현재 인천의 한 복지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의 20여개의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 단체 등이 모여 각 단체에서의 지역 사회 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의 진행 상황, 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현재 이 실무 협의체의 참여 기관에는 지역 내의 새터민 지원센터, 종합고용지원센터, 인근 지역 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 교회, 경찰서, 성당, 주민 센터, 새터민 자립후원회, YMCA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초등학교, 여성문화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복지재단의 복지센터, 사회복지센터 등이 있으며, 현재 9~10개 기관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1달에 1회 이상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유치원, 법률, 의료에 관한 자문기구는 갖춰지지 않았지만 지역 사회 내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담당형사-지자체-담당사회복지관 간의 연계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들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이나 업무가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각 분야에 제한되어 있는 시각으로 이들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간의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전담기관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수이다.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착하기 이전 하나원에서 정

착지 이후에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이나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고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한 후에 이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나센터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에 그치고 있고, 지역사회적응교육을 담당하는 위탁개념의 기관이기 때문에 전담기관으로 기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하나센터의 체계 자체가 의무기간 3주 동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총 1년의 시범기간 동안 지역 사회 내에서 이들이 적응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즉, 기존의 각 센터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총합해서 만든 시범사업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

라. 요약 및 시사점

1) 실태조사 요약 및 시사점

본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들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가정의 양육 실태와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이 결과를 요약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대부분 남한에서 태어났으며 2006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한 정착이후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이 남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영유아 출산에도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발달에 대해 부모들은 대부분 건강하거나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영역의 발달단계에서 대체로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영역과 언어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남한 태생의 영유아가 많음에도 상대적으로 신체와 언어영역의 발달이 낮다고 인지하는 원인을 찾는다면, 주양육자는 어머니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탈북에서부터 남한 입국에서까지 극도로 긴장된 환경에 노출되어 지내면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은 영유아의 신체건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문제 역시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의는 같지만 표상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컨대 남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북한에서는

‘얼음 보숭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등 남북한의 언어사용의 이질성은 심화되어 왔고 이것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양육에 있어 어려움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셋째, 남한 입국 이전에 북한 또는 제3국에서의 탁아소나 유치원의 경험이 있는 영유아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나원에서 유아방이나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경험 아이들도 적었다. 그렇지만 하나원 퇴소 이후 남한사회에 정착하면서 영유아들을 육아지원기관에 대부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설을 유치원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넷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이용방식은 하루 8시간 이용의 종일제가 대부분이었다.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대부분 미취업모란 점에서 영유아의 기관이용 시간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다섯째, 기관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집과의 거리이며 비용측면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이 대부분이므로 보육료를 거의 전액 지원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관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초등학교 가서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와 그 다음이 또래 친구를 사귀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앞으로 영유아가 다닐게 될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여 공부도 잘하고 또래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어울리기를 바라는 여타 부모들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의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를 읽을 수 있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직면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1순위인 가장 큰 어려움을 경제적 어려움(70.1%)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5.6%가 아동 양육 및 교육을 가정이 직면한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비단 북한이탈주민 가정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낮고 불안한 가구수입원을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은 대단히 높다고 하겠다. 특히, 한부모가정에서 혼자 영유아 양육을 감당하는 경우, 남한의 교육방식이나 학습지도 방법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적자본이나 환경이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아 부모에게 아동 학습지도가 더욱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영유아 양육에 국한하여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5점 척도에서 낮은 경제력이 4.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아동학습 지도의 어려움이 3.98,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선입견 3.47, 민고 맡길 만한 사람이나 시설 없음이 3.44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정책은 부모의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과 영유아 교육이라 하겠다. 직업과 영유아 교육의 어

려움을 겪는 데에는 북한에서부터의 낮은 학력과 직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학력과 직업경험으로는 남한사회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급여의 직업을 얻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전문인력 면담조사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설문조사 결과 및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인력과의 면담내용을 정리,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전문인력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문화된 지원기관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저소득층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과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둘째, 하나원 퇴소 이후 정착지부터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전담하는 체계적인 기관이나 시스템이 미비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담당 전문인력의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대구 지역의 경우 실무자 1명이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가 60개이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남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남한의 일반적인 영유아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에는 부모가 응답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실제로 이들 가구를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시범사업으로 가구방문을 하고 있는 희망유아교육사에 의하면 똑똑한 아이들이 많으며,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아이라고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둘째, 부모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집에 있는 이들 부모들을 되도록 세상과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가 직업이기는 하지만, 실제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구직의 노력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에 비해 영유아 교육만큼은 큰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나원이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앞으로도 지원받을 의사가 높게 나온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부모 대상의 육아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

지 직업교육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영유아 양육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시간에 할애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다른 집단에 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복지관의 육아지원 관련 정보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육아지원의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육아관련 정보 등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이 이들 가정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결과에서 다문화 가정과 같은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 사업은 성인을 중심으로 취업이나 경제적인 측면 위주로 지원을 해왔다. 이제부터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육아지원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이들 가정은 정착이후 출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들 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된 육아지원제도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일곱째, 인천의 S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처럼 각계 전문가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모여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장(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VI.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1.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가.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방향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내실 있게 취약계층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내외 사업 분석, 취약계층 가정의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 분석, 심층 면담 분석 등을 통하여 추출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전달체계와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정부부처 사업 외에도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서비스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정부부처의 추진 사업 및 그 전달체계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추진력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부처 사업의 영유아 담당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전문성 제고 및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연수를 지원한다.

둘째, 영유아 및 부모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선행연구 분석 및 국내외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서, 영유아기의 중요성 및 영유아기의 양육과 지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교육 및 참여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내 사업의 내실화 방안에서 부모 자신의 정신건강 및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었다. 이에 영유아는 물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네트워크 자원을 연계하여 영유아를 둘러싼 가족의 문제를 해결·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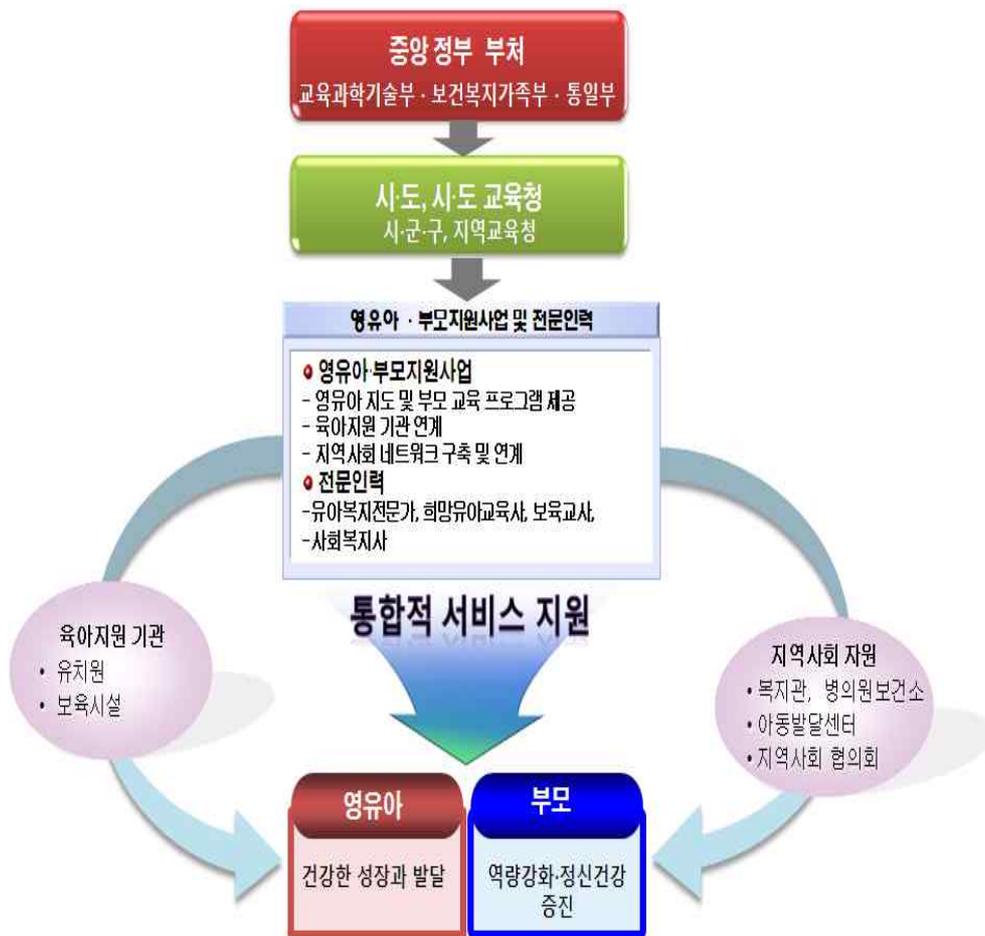
셋째, 통합적 육아지원 기본 모형을 개발한 후, 가정유형별 특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취약계층 중 저소득층 가정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일차적으로는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특성화를 모색하였다. 즉, 기본 모형의 구성 요소는 전달체계, 프로그램,

전문인력, 사업간 연계를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구성요소별로 저소득층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 방안을 구안하였다.

나.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VI-1-1]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핵심은 정부부처 사업의 전달체계 내에서의 활동하는 전문인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전문인력은 영유아와 부모를 동시에 직접적으로 지도·지원하며, 필요시 육아지원 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을 시의적절하게 연계 하여 지원하는 모형이다.

중앙부처는 교육 및 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지원하는 통일부가 해당한다. 전달체계 측면에서 중앙부처의 행정 지시사항, 상호 업무 분담 및 협조하는 곳이 시·도청(시·군·구청 포함) 또는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이며, 여기서 담당 학교, 센터 및 기관을 이용하여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체계 내에 사업 담당자 및 관리자가 유아교육·보육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사업 추진 총괄책임을 맡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은 교육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유아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이 해당되며,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통일부의 하나센터 사업이 포함된다.

각 사업의 전문인력으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유아교육복지전문가,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희망유아교육사, 드림스타트 사업의 보육교사, 하나센터 사업의 사회복지사를 들 수 있다. 전문인력에게는 전문성 제고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적용을 위하여 주기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으로는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동화책을 이용한 개념학습 활동, 부모 양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와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전문인력은 영유아 및 부모를 직접 지도·지원하는 전문가로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전공자가 적합하며, 그 외에 영유아 사업을 포괄하여 여러 지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조정하는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며 공동 작업을 해야 한다.

단, 모든 사업에 전문인력이 모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업 간에 상호 연계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하나센터와 같이 사회복지사만이 배치되어 영유아 및 부모를 직접적으로 지도·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희망유아교육사를 연결시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경우도 유아교육복지전문가가 모든 지역에 배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시에 희망유아교육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지역 내 영유아들이 재원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유치원, 보육시설)의 원장 및 교사와 연계하여 기관과 가정이 연계된 일관성 있는 지도가 되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

회내의 다양한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취약계층 가정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영유아의 교육·보육, 건강, 영양, 안전 측면에서도 통합적 지원이 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부모의 문제나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지원 또한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간에 협조 및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의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다. 각 사업들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영유아 및 그 가정에 더욱 적합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상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적용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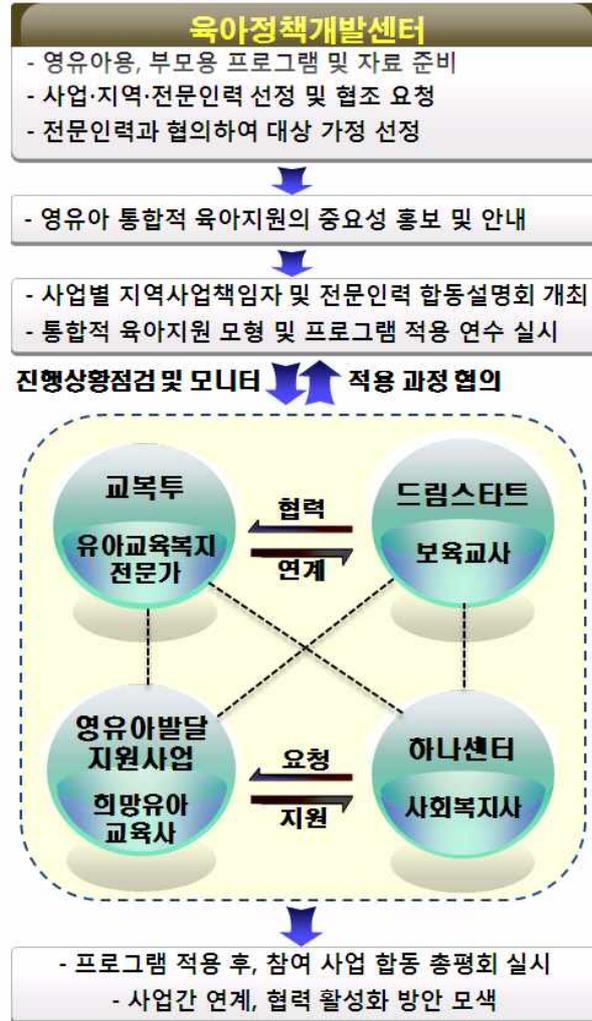
먼저, 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연구팀이 영아용 및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자료들을 준비한다. 또한 정부부처의 대상 사업 중 본 연구 추진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이후 전문인력과 협의하여 대상가정을 선정하고 섭외를 한다.

다음 단계에는 정부부처의 담당자와 중앙 지원센터 및 사업추진단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안내한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적용 전 사업별 지역사업 책임자 및 참여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구한다. 이와 함께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실제 프로그램의 실시 방법, 프로그램 적용 방법 및 주의사항, 평가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이후 지역 내 현장에서 전문인력이 각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는데, 사업들 간의 관련 정보·자료 연계·협력 및 인력 요청·지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연구팀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전문인력 및 지역사업팀은 현장 적용상의 과정과 문제점 등을 연구팀과 협의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적용이 끝나면, 참여 사업들의 전문인력 또는 지역사업 책임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합동총평회를 실시하고, 향후 개선점과 사업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그림 VI-1-2]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절차

2. 통합적 육아지원 프로그램 시범적용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그리고 하나센터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영유아와 부

모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유아 지도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육아지원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범적용을 8주간 실시하였다. 시범적용 후 전문인력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수정·보완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 시범적용 대상 선정

1) 저소득층 가정

취약계층 가정의 육아지원 모형 사업의 시범적용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의 수행기관별로 시범적용에 대해 참여 협조를 구한 후 이에 동의를 한 8개 지역의 기관 및 담당자를 선정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경우 경기 지역은 참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지역교육청에 유아담당 복지전문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범적용을 수행할 인력이 부재하여 본 시범적용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시범적용에 참여한 전문인력은 <표 VI-2-1>과 같이 8명이었으며, 이들이 시범적용 참여를 희망하는 영유아와 그 부모에게 동의를 받은 후, 각 전문인력별로 2~3명의 영유아와 그 부모를 담당하여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저소득층 가정 참여 영유아는 총 22명이었다.

〈표 VI-2-1〉 시범적용 전문인력 및 참여 영유아(저소득 가정)

사업명	지역	전문인력	담당영유아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서울	유아교육 복지전문가	유아3명
	인천	영유아 프로젝트조정자	유아2명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지원사업	서울	희망유아교육사	유아3명
	경기	희망유아교육사	유아2명
	인천	희망유아교육사	유아2명
드림스타트 사업	서울	보육교사	영아2명 유아1명
	경기	보육교사	영아1명 유아3명
	인천	보육교사	영아1명 유아2명

2)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지원모형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해 하나센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센터 중 시범적용 참여에 동의한 서울과 대구지역의 하나센터와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 중 시범적용 참여에 동의한 인천지역 사회복지관의 전문인력이 본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하나센터와 사회복지관의 경우 전문인력이 대부분 사회복지사이며, 영유아 대상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 기관에서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서울 지역 하나센터 한 곳을 제외하고, 지역 교육청에 의뢰하여 하나센터와 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지역교육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희망유아교사의 협조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부처 사업의 담당자들이 실제로 통합적인 육아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또한 본 시범적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센터 사회복지사가 참여하여 영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나센터 소속 사회복지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시범적용에 참여하기로 한 북한이탈주민 가정 대상의 전문인력들이 결정된 다음, 각 기관에 속한 영유아 중 시범적용에 참여를 희망하는 영유아와 그 부모에게 동의를 받은 후, 전문인력별로 1~2명의 영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8주간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표 VI-2-2 참조).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전문인력은 총 5명이며, 영유아 6명과 그 부모이다.

이 중 희망유아교육사 1명은 저소득 가정 시범적용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 전체 시범적용에 참여하한 인력은 총 12명이며, 전체 25가정(한 가정에 형제가 포함된 경우가 있음)의 영유아 28명과 그 부모가 참여하였다.

〈표 VI-2-2〉 시범적용 전문인력 및 참여 영유아 (북한이탈주민가정)

사업명	지역	전문인력	담당영유아수
하나센터	서울	사회복지사	유아 2명
		희망유아교육사	유아 1명
	인천	희망유아교육사 (저소득수행인력과 동일)	유아 1명
	대구	희망유아교사 2명	유아 2명

나.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에 대한 사전연수 실시

영유아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성 및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에 대한 설명을 위해 2009년 4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지원을 위한 희망유아교육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한 장단점 설명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 취약계층 영유아의 지원방안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가정 이해 및 부모상담기법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 8월 서울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유아교육복지 전문가 대상 연수에 참여하여 영유아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장단점 소개와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설명 및 시범적용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다. 전달체계 관계자 합동 설명회

시범적용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연수실시 전에 각 전문인력이 속해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하나센터 사업 등 전달체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원활한 시범적용의 전개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통합적 육아지원의 취지와 시범적용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또한 합동 설명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전달체계로서 실제 현장의 요구를 각 사업별로 알아보았다.

라. 시범적용 전문인력 대상 설명회 및 연수 실시

시범적용 실시 전, 전문인력을 대상 시범사업의 실시 방법과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 및 연수회를 개최하여 통합적 육아지원 연구개요, 영아용 및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특성 및 실시 방법에 대한 소개와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시범적용 절차 및 방법 소개, 그리고 발달검사 도구 및 실시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전문인력이 시범적용 대상 영유아 및 부모의 가정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개별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발달검사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마. 적용기간 및 방법

시범적용은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총 8주간 실시³⁰⁾되었다. 전문인력이

시범적용 참여 가정을 주 1회 방문하거나 기관(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또는 센터)을 방문하여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차시별로 프로그램을 8주간 실시하였다. 주 1회 방문마다 대상연령에 따라 영아용 및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2개 활동과 개별지도용 부모교육을 제공하였으며, 활동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회 방문시마다 평균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유아의 경우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지도 프로그램과 동화책을 이용한 개념학습 활동이 포함되었다. 영아용 및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과 개별지도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가정 및 기관에서 1:1 개별 지원상의 적절성과 전문인력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수행상의 적절성 등 개발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점검 및 검토를 위해 8주간의 차시를 구성하였다.

시범적용 실시 전 전문인력이 시범적용에 참여하는 대상 영유아 및 가정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유아행동평가척도(K-CBCL 1.5-5)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내용과 검사결과를 토대로 참여 영유아들에게 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 영역 중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의 활동을 보장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부모 및 가정의 특성에 대한 전문인력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강조한 개별지도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여 맞춤형 부모교육이 되도록 하였다(표 VI-2-3, VI-2-4 참조). 그리고 집단부모교육용으로 개발한 책자를 부모에게 배부하여 영유아 양육과 부모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적용의 첫 차시와 마지막 차시에 전문인력들이 대상 영유아 및 부모를 교육하기에 앞서 그들을 진단하기 위해 영유아 대상의 덴버검사, K-ASQ와 부모대상의 부모양육수준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영유아 및 부모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전문인력이 본 시범적용에서 뿐 아니라, 각 인력이 속한 사업에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앞서 직접 진단검사를 실시해 볼 수 있기 위함이다. 덴버검사와 K-ASQ를 통해 시범적용에 참여한 영유아들이 위험군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 시범적용 참여 영유아 모두 발달지연이나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일반 영유아였으며, 부모들의 양육수준 자가 검사결과 부모들은 각 영역별로 전반적으로 양육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30) 프로그램은 20차시로 계획되었으나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8차시동안 실시되었다.

〈표 VI-2-3〉 영아 및 부모 프로그램 적용 실제 차시의 예

주 별	영아용	부모용 (개별지도)	부모용 (집단지도)
1	진단검사 기본생활습관(1)*	프로그램 소개 및 첫 인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상식: 국경일
2	언어인지(2) 사회정서(3)	적절한 운동	내 아이 나이에 맞는 운동법
3	기본생활습관(4) 기본생활습관(5)	적절한 의복	내 아이에 맞는 놀잇감: 놀이는 아이의 모든 것
4	사회정서(1) 사회정서(5)	수학적 기초개념	수학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5	기본생활습관(3) 언어인지(9)	적절한 음식	기분 잘 다스리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6	언어인지(1) 기본생활습관(2)	지역사회 기관 정보	형제끼리 싸우는 내 아이들 가르치기
7	언어인지(3) 언어인지(4)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맞벌이 가정에서 꼭 알아야할 몇 가지
8	언어인지(8) 언어인지(5)	과학적 기초개념	엄마의 행복은 온 가족의 행복

* 괄호 안의 번호는 각 활동의 번호를 의미함.

〈표 VI-2-4〉 유아 및 부모 프로그램 적용 실제 차시의 예

주 별	유아용	부모용 (개별지도)	부모용 (집단지도)
1	진단검사, 정서(9)	프로그램 소개 및 첫 인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상식 : 기념일과 명절
2	개념 ³¹⁾ (달1), 정서(5)	타인과의 관계	사고 없는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
3	개념(달2), 사회(11)	적절한 놀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 이것만 꼭!
4	개념(고양이1), 언어(3)	예절지도	책 많이 읽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5	개념(고양이2), 인지(6)	안전한 주거환경	아이 성격 알면 쉬워지는 아이 키우기
6	개념(우산1), 정서(6)	바람직한 학습환경	남 때리고 욕하는 내 아이 가르치기
7	개념(우산2), 언어(10)	건강습관과 예방접종	맞벌이 가정에서 꼭 알아야할 몇 가지
8	사회(13), 인지(9),	자연과 문화 경험	지역사회 100% 활용법

31) 개념(달, 고양이, 우산)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활동으로 취약계층 유아의 개념습득 및 발달을 돕기 위한 동화책을 이용한 활동이다. 개발된 동화명은 '달달 무슨 달', '어디로 숨을까', '우산이 필요해' 3종이다.

바. 시범적용 프로그램

다음은 본 시범적용에 사용된 프로그램에 관한 총괄표이다. 국내 정부주도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를 위한 지도 프로그램(기관용), 유아를 위한 개별 지도 프로그램(개별용),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별 및 집단용, 양육수준검사)이 부족하였고, 이에 본 연구에서 영아와 유아를 위한 지도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 변형하거나 새로 개발하였으며, 취약계층 유아를 위해 취학전 준비를 위한 개념학습 활동을 개발하였다.

영아용과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개발자 모두 현장에서 수년간 영아와 유아를 지도하고 교육한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 전문가로, 영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활동에 대해 변형 및 수정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안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 교육 및 발달 관련 전문가들에게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지,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영역별로 적절히 포함된 활동인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확인받았다.

〈표 VI-2-5〉 프로그램 총괄표

구분	특성	비고	
지도 프로그램	영아용	취약계층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만1세와 2세를 구분하여 연령에 따라 기본생활습관, 인지·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의 세 영역으로 구분	만1세: 20개 기본생활습관 5개 언어인지발달 8개 사회정서발달 7개 만2세: 20개 기본생활습관 5개 언어인지발달 10개 사회정서발달 5개
	유아용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개발한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의 활동을 취약계층 유아와 교사가 가정이나 기관에서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형. 취약계층 가정은 놀잇감이나 유아를 위한 책이 많지 않고 풍부한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가정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소품이나 교구를 이용하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	언어영역: 25개 인지영역: 30개 사회영역 ³²⁾ : 8개 정서영역: 20개

32) 사회영역은 개별활동으로 변형하지 않고 발달지원 프로그램에 있는 활동 중 개별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표 계속)

구분	특성	비고	
동화를 이용한 개념학습 활동(유아용)	취약계층 유아의 개념습득을 돕기 위해 동화를 매개로 교사와 상호작용하여 동화를 통해 개념 습득 및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동화와 이와 관련된 활동지 개발	달달 무슨 달 어디에 숨을까 우산이 필요해	
부모 교육	개별 지도용 프로그램	취약계층 가정의 부모에게 양육지원을 위해 기본적 욕구 충족, 발달지원 및 교육, 사회연계 등 3개 역할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영유아에게 하는 활동에 대해 시범을 보인 후 부모가 영유아와 함께 실시해 볼 수 있도록 20차시 프로그램으로 개발	저소득 가정 부모용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용으로 구분
	집단용 프로그램	취약계층 부모들을 집단으로 교육하기 위해 저소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의 특성을 조사 한 후 8개 영역의 주제를 선정하여 30개 내용으로 구성	집단으로 교육 시 참여부모에게 책자를 배부하며,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위해 어휘와 개념 소개
	양육 수준 검사지	14개의 양육역할 지표를 근거로 부모의 양육 수준을 검사하는 영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 개발	간단형과 심층형으로 구분

1)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목적

취약계층 가정 및 영아 특성에 기초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며, 영아는 주로 보육시설이나 가정에 있게 되므로, 보육교사 혹은 가정방문 지원교사 등 관련 현장 전문가에게 필요한 양질의 영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생활습관, 인지·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세 영역의 활동을 개발하여 구성하였으며(표 VI-2-6 참조), 각 하위 영역에 대한 활동은 <표 VI-2-7>, <표 VI-2-8>, <표 VI-2-9>에 제시되어 있다.

나) 활동방향

취약계층 영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생활습관이 바르게 형성되도록 하며, 영

아의 흥미를 유도하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이 안정적으로 형성 되도록 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영유아의 경우 언어발달이 또래보다 늦는 발달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친숙하고 흥미로운 그림과 사진, 인형, 까꿍 놀잇감 등과 같이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대화를 나누어 언어발달을 지원해 주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활동 실시 후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확장활동으로 제시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VI-2-6〉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의 구성

단위: 개

	만1세	만2세
기본생활습관	5	5
언어인지발달	8	10
사회정서발달	7	5
계	20	20

〈표 VI-2-7〉 영아용 기본생활습관

연령	번호	내용범주	활동명	연계활동
만1세	1	건강한 생활	손을 깨끗이 씻어요	비누 거품 놀이
	2		거울 보며 로션을 발라요	엄마처럼 화장을 해봐요 로션 그림을 그려요
	3		즐거운 식사시간	아기 인형에게 밥 먹여주고 정리해요
	4		응가하자 끄꿍	까꿍 응가 놀이를 해요 화장실에 누가 있을까?
	5	바른생활	발자국 위에 서요	한 줄 서기를 해요
만2세	1	건강한 생활	쓱쓱 싹싹 이를 닦아요	스스로 이를 닦아보아요
	2		목욕놀이를 해요	깨끗하게 변해요
	3		단추기차를 연결해 보아요	친구의 잠옷 단추를 채워주어요
	4	안전한 생활	신호등 놀이를 해요	큰 자동차를 만들어 보아요 친구(동생)와 자동차를 타요
	5	바른생활	자동차를 제자리에 주차시켜요	차고에 같은 색 자동차를 넣어요

〈표 VI-2-8〉 영아용 언어인지발달

연령	번호	내용범주	활동명	연계활동
만1세	1	듣기	다양한 소리를 들어요	마라카스 끝차를 끌어보아요 귀로 소리를 들어보아요
	2	말하기	동물 카페트에서 놀이해요	동물 까꿍 놀이를 해요
	3	쓰기	색 밀가루 풀 그림을 그려요	다양한 종이를 탐색해 보아요 모자이크 전지를 긁적여요 색풀로 그림을 그려요
	4	탐구적 태도	신문지 놀이를 해요	신문지 옷을 입어요 신문지 공을 굴려봐요
	5		동물흉내를 내어보아요	동물을 알아보아요
	6		다양한 곳을 걸어요	맨발로 느껴보아요
	7		수박을 먹어요	수박 부채를 만들어요
	8		재미있는 형질 공놀이	축구 골대에 공을 넣어요 친구와 함께 큰 공을 굴려요
만2세	1	듣기	주방 악기를 연주해 보아요	방울주걱 흔들며 노래 불러요
	2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엄마가 들려주시는 동화를 들어요 전화로 목소리를 들어요
	3	말하기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음식발판 위를 걸어요 식판에 음식을 담아 보아요
	4	읽기	재미있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주어요 ○○반 활동 동영상을 보아요
	5	쓰기	부모님께 그림편지를 보내요	친구에게 편지 보내기 놀이를 해요
	6	탐구적 태도	색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요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를 해요
만2세	7	탐구적 태도	토마토를 길러요	토마토 요리를 해 보아요 「멋쟁이 토마토」에 맞춰 울동을 해 보아요
	8	수학적 탐구	상자에 선물을 넣어요	케이크 상자에 선물을 담아주어요
	9		모양 따라 단추를 붙여요	몇 개의 단추를 붙일까요? 친구의 옷에 있는 단추를 세어요
	10	과학적 탐구	감각 물놀이를 해요	촉감 길을 걸어요

〈표 VI-2-9〉 영아용 사회정서발달

연령	번호	내용범주	활동명	연계활동
만1세	1	자기존중	내 얼굴을 꾸며 보아요	얼굴을 만들어보아요 내 모습을 꾸며요
	2		나를 찾아보아요	거울 보며 내 얼굴을 탐색해 보아요 하루일과 책에서 나를 찾아요
	3	정서인식과 조절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사진을 찍어요
	4		엄마와 기분 좋게 헤어져요	가족 사진을 보아요 가족 액자를 꾸며요
	5	사회적 관계	친구 얼굴을 찾아보아요	비디오로 친구를 보아요
	6		친구와 함께 기차를 타요	내 자동차에 친구를 태워줘요
	7		형님과 손잡고 가을나들이를 가요	낙엽봉지 놀이를 해요
만2세	1	자기존중	손바닥 나무를 만들어요	형님과 손바닥, 발바닥을 대어보아요
	2	정서인식과 조절	표정 까꿍 놀이	「재미있는 내 얼굴」 동화책을 보아요 거울을 보며 표정을 지어보아요
	3		손가락 인형 움직이며 노래 불러요	친구야 고마워, 친구야 미안해
	4		달팽이에게 먹이를 줘요	동물 인형에게 먹이를 주어요
	5	사회적 관계	어미동물, 아기동물을 짝지어 보아요	「엄마랑 뽀뽀」 동화책을 보아요 어미동물이 되어 보아요

다) 활동예시

다음은 <표 VI-2-7>에 제시되어 있는 '단추기차를 연결해 보아요' 활동의 예이다.

기본
2. 만 2세 영아를 위한 활동 | 기본생활습관

03 단추기차를 연결해 보아요

생활주제	친구 (기본생활습관 - 건강한 생활)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추 채우기 자조기술을 익힌다. • 단추를 채워주며 친구를 도와주는 경험을 해본다.
활동대상	만2세
활동형태	개별, 소집단 (2명)
준비물	단추 달린 촉감기차 모형



활동방법

* 단추 기차를 연결해 보아요.

본
활동

- 1 기차의 나무 단추를 연결하여 기차를 움직여 본다.



나무 단추를 채워 기차를 연결해 보았구나.
정말 기다란 기차가 완성되었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기차가 출발합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 2 다른 종류의 단추를 끼워 기차처럼 연결해 본다.



이 단추는 어떤 모양 같니?
고리를 걸어 끼워보자.



길게 끼우니까 어떻게 되었니?
기차처럼 길어졌구나.

62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연계 활동

☆ 친구의 잠옷 단추를 채워주세요.

낮잠 자기 전 잠옷을 갈아입을 때 영아들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의 단추나 단추 채우기에 능숙치 못한 친구의 단추를 서로 채워준다.



친구 손이 닿지 않는 어깨에 단추가 있네. 단추 채우기를 도와줄 수 있겠나?



친구잠옷의 단추 채우는 걸 도와주는구나. 친구를 도와주니 친구가 매우 기뻐하는구나

참/고/사/항

- 영아가 단추에 대해 첫 관심을 보이는 시기에는 비교적 활동하기 편한 큰 단추부터 제시하여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 역할영역의 다양한 의상을 이용하여 단추 채우기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 다양한 모양의 단추는 영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활동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가정지원을 위한 안내

- 집에 있는 가족들의 옷을 활용해서 단추 채우기 활동을 해본다.
- 교사 혹은 영아가 집에 있는 옷을 입어보고 서로 단추를 채워준다.

[그림 VI-2-1] 영아 지도 프로그램 활동 예시

2)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목적 및 활동방향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은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개발한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교육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활동을 취약계층 유아와 교사가 가정이나 기관에서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변형한 것이다. 발달지원 프로그램은 유아교육기관의 유아 중 발달이 지연된 유아의 발달을 돕기 위해 일반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활동이다. 따라서 본 시범적용을 위해 취약계층 가정 및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와 개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형하였다.

취약계층 가정은 환경적으로 영유아를 위한 놀잇감이나 동화책들이 많지 않고,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풍부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해 주기 어려우며, 주거환경 또한 협소한 경우가 많다. 이에 유아와 개별적으로 활동이 용이하고, 가정방문 시 활용 가능해야 하므로 지도 프로그램은 움직임이 너무 크지 않은 활동으로 개발하였으며, 가정에서 간단한 소품이나 교구를 이용하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미 제작되어 배부된 CD와 홈페이지(www.ybl.kicce.re.kr)에 첨부된 자료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의 구성과 각 영역별 활동명이다(표 VI-2-10, 표 VI-2-11, 표 VI-2-12, 표 VI-2-13 참조).

〈표 VI-2-10〉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구성

활동영역	개수
언어활동	25
인지활동	30
사회활동	8
정서활동	20

〈표 VI-2-11〉 유아용 언어영역

활동 번호	발달지원 프로그램 활동명	변형활동	비고
언어-1	어떤 동물의 소리일까요?	1. 가족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2. 같은 물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소리가 달라져요, 어떤 소리일까요?	

(표 계속)

활동 번호	발달지원 프로그램 활동명	변형활동	비고
언어-2	딱따구리는 어떤 나무에 있을까?	1. 핸드폰이나 알람시계 소리를 듣고 찾아보세요.	
		2. 어떤 컵에 숨어 있을까? 찾아보세요.	
		3. 손뼉 소리를 듣고 친구를 찾아보세요.	
언어-3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해요.	1. 동화책에 썸여림 표시를 하여 목소리를 조절하면서 읽어보세요.	
		2. 악보에 기호를 붙여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놀이를 해 보세요.	
언어-4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1. 사진을 보고 말풍선에 들어 갈 이야기를 해 보세요.	
		2. 상황을 보고 어떤 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언어-5	나의 이름표를 찾아주세요.	1. 과자 봉지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찾아주세요.	
		2. 같은 글자지만 다른 느낌이죠? 같은 글자를 모아보세요.	
		3. 나만의 포장지를 만들어 보세요.	
		4. 집안에 있는 물건에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CD 언어 16활용
언어-6	무지개 막대가 하는 말은?	1. 일주일 동안 무지개 막대가 하는 말을 실천해보세요.	CD 언어 9활용
		2. 무지개 막대를 완성해 보세요.	
언어-7	유치원 가는 길을 찾아 주세요.	1. 색깔 풀을 문질러 보세요. 어떤 그림, 어떤 글자가 숨어 있나요?	CD 언어 7활용
		2. 땅 속에는 어떤 모양, 어떤 글자가 숨어 있을까요?	
언어-9	무엇을 드실까요?	1. 여러 가지 그림을 이용해서 음식점 놀이를 해 보세요.	CD 언어 9활용
		2. 나만의 음식 책을 만들어 보세요.	CD 언어 9활용
언어-10	사자왕의 대행진	1. 같은 동물인데 소리가 달라요, 어떤 상황일까요?	
		2. 음악 감상을 하면서 반복되는 소리를 찾아 보세요.	

(표 계속)

활동 번호	발달지원 프로그램 활동명	변형활동	비고
언어-11	글자 요술통	1. 같은 그림을 기억해서 카드를 뒤집어 보세요	CD 언어 11활용
		2. 여러 가지 그림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보 세요	CD 언어 11활용
언어-12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말해주세요	1. 오늘 선생님께 소개하고 싶은 물건은 무엇 인가요?	
언어-14	이렇게 말해요	1. 그림을 보고 어떤 말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세요	CD 사회 16활용
언어-17	글자 로울러	1.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그 림인가요?	
언어-18	반짝이는 모래상자	1. 손바닥에 어떤 모양(글자)을 썼을까요? 읽 어보세요	
		2. 글자판을 보고 모래 위에 순서대로 써보세요	
언어-19	무지개 글자	1. 색깔물이 글자로 변했어요	CD 언어 19활용
		2. 글자 홈을 따라 점토를 넣어 보세요	
언어-20	점을 따라가 보세요.	1. 손가락으로 모래 자국을 따라 써보세요	
		2. 초들이 놀다간 자리를 이어 생각나는 그림 을 그려 보세요	
언어-21	재미있는 박수놀이	1. 나뭇잎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아요	
언어-22	토끼를 찾자	1. 비슷한 사진(그림)이 있네요, 선생님의 말씀 을 잘 듣고 어떤 것인지 찾아보세요	
언어-23	이야기 듣고 꾸며보세요	1. 그림을 활용하여 동화책을 만들어 보세요	CD 언어 23활용
언어-25	글자 꽃	1. 도장을 찍으며 글자를 읽고 이름을 완성해 보세요.	
언어-26	어떤 이름일까요?	1. 유리창에 비춰진 이름은 무엇의 이름일까 요? 읽어보세요	
언어-27	친구 이름으로 글자 만들기	1. 동화를 읽고 동화 속에 나오는 단어를 찾아 보세요	
		2. 동화 속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 새로운 단어 를 만들어 보세요	

(표 계속)

활동 번호	발달지원 프로그램 활동명	변형활동	비고
언어-28	핀으로 그려요	1. 글자의 형태를 따라 핀으로 자국을 내어 글자를 만들어 보세요	
		2. 여러 가지 모양을 따라 지철기를 찍어 선을 만들어 보세요	
언어-29	비치는 글 상자	1. 기름종이에 비춰진 그림과 글자를 따라 써 보세요	
		2. 보드마카를 이용해 여러 가지 글자를 써 보세요	
언어-30	내가 만든 책	1. 특정한 단어를 넣어 그림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표 VI-2-12〉 유아용 인지영역

활동 번호	발달지원 프로그램 활동명	변형활동	비고
인지-1	유치원에서의 나의 하루	1. 어떤 놀이를 할 지 맞춰 봐요	
		2. 내가 만든 하루 시간표	
인지-2	같은 것끼리 모아요	1. 집안에서 같은 모양과 색의 물건을 찾아라!	
		2. 모양이 연상되는 물건 가져오기 게임	
인지-3	여러 가지 물체를 굴려보아요	1. 짐볼에 바람 넣어 굴려 봐요	
		2. 공을 막대기로 쳐서 길 안내해요	
인지-4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	1. 운동선수처럼 해봐요	
		2. 내가 훌라후프를 얼마나 잘 돌리나!	
인지-5	구슬 목걸이를 만들어요	1. 칭찬 목걸이 만들어줘요	
		2. 가족 신발을 줄 세워 봐요	
인지-6	위치놀이	1. 인형이 어디에 있나요?	
		2. 쪽지 지령대로 마음을 전해요	
인지-7	유치원에 있는 물건의 길이를 재요	1. 내 몸으로 집안 바닥 길이를 재어 봐요	
		2. 집안에서 사인펜으로 길이를 재어 봐요	

(표 계속)

활동 번호	발달지원 프로그램 활동명	변형활동	비고
인지-8	내 몸에서 모양을 찾아요	1. 모양 몸 2. ○□△ 모양물건으로 꾸며줘요	
인지-9	종이컵 숫자놀이	1. 물병에 고무줄을 끼워요 2. 주사위 수만큼 인형에게 과자를 줘요	
인지-10	우리 반에서 제일 큰 친구는?	1. 재활용 종이로 키를 재어 봐요 2. 장난감 인형 키를 재어 봐요	
인지-11	숲 속 친구들이! 불을 끄자	1. 몇 ml 마시고 싶어요 2. ml까지 손가락으로 담아줘요	
인지-12	내가 되고 싶은 무늬 토끼는?	1. 연상되는 무늬로 토끼를 꾸며줘요 2. 모양도장으로 나를 꾸며줘요	CD 인지 12활용
인지-13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1. 책 속 주인공이 되어 역할극을 해봐요 2. 친구가 이럴 때 화나요	
인지-14	패턴이 있는 무지개 물고기	1. 무지개 뱀 2. 몸짓 패턴 만들어 따라 해봐요	
인지-15	자동차가 잘 굴러가게 하려면?	1. 휴지 속대로 굴려 봐요 2. 바퀴 크기가 다른 자동차로 굴려 봐요	
인지-16	피아노 숫자 건반을 밟아요	1. 멜로디언 2. 실로폰	
인지-17	숲 속 마을을 꾸며요	1. 숲 속 어디에 누가 있나? 2. 심부름해요	CD 인지 17활용
인지-18	표정동전을 분류해요	1. 표정동전을 보고 말해요 2. 표정나무 완성해요	CD 인지 18활용
인지-19	내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1. 체중계에 올라가 봐요 2. 3.2kg이 얼마만큼의 무게일까?	
인지-20	단추를 달아주세요	1. 단추 합이 6, 8, 10! 2. 네모 칸 안에 단추를 놓아 주세요	배부된 교구활용

(표 계속)

활동 번호	발달지원 프로그램 활동명	변형활동	비고
인지-21	숫자게임	1. 감을 따자!	CD 인지 21활용
		2. 수박을 따자!	CD 인지 21활용
인지-22	그림에서 모양을 찾고 다시 그려봐요	1. 나도 몬드리안!	
		2. 돌맹이로 명화 속 부분을 표현해요	
인지-23	공룡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1. 내가 공룡이 되어 특징을 표현해요	
		2. 공룡 모형을 놓으며 이야기지어 말해요	
인지-24	많이 먹을 수 있는 쿠키	1. 점토로 무게가 다른 쿠키 만들어요	
		2. 요리저울을 활용하여 무게를 재어 봐요	
인지-25	칠교놀이	1. 모양조각을 맞춰 함께 완성해요	CD 인지 25활용
		2. 모양 조각을 맞추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까?	CD 인지 25활용
인지-26	똑같이 나누려면?	1. 오늘 간식은 한 줌!	
		2. 똑같은 개수로 나눠 가져요	
인지-27	함께 모양을 맞추자	1. 모양 종이를 똑같이 나눠 가져요	
		2. 세모 조각보 만들어요	
인지-28	숫자 목걸이 짝짓기	1. 덧신 바닥 수를 합해라!	
		2. 숫자에 맞는 양만큼 집게를 집어주세요	
인지-29	같은 그림 속 다른 곳 찾기	1. 그림 속 여러 곳에 그려 넣어요	CD 인지 29활용
		2. 소품을 여러 곳에 놓아보아요	CD 인지 29활용
인지-30	시계 바늘이 되어 봐요	1. 긴 바늘이 어느 숫자에 갈 때까지 할까요?	
		2. 모래시계로 활동소요시간을 알아봐요	

〈표 VI-2-13〉 유아용 사회영역

활동번호	발달지원 프로그램 활동명	비고
사회-11	내 손과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CD자료 활용
사회-13	알려줄게	
사회-17	우리끼리 약속해요	CD자료 활용
사회-18	내 물건과 모두 함께 사용하는 물건	CD자료 활용
사회-19	큰 인형친구를 만들어요.	
사회-21	멋진 내 이름	
사회-22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사회-23	우리 가족 신문을 만들어요	

〈표 VI-2-14〉 유아용 정서영역

활동번호	발달지원 프로그램 활동명	변형활동	비고
정서-2	얼굴 표정 카드 게임	1. 얼굴을 오려 붙이고 생각을 적어보세요 2. 피터의 기분을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CD 정서 2활용
정서-4	빨래집게 인사	1. 다같이 인사해요 2. 춤추며 인사해요	
정서-5	종이공 눈싸움	1. 신문지 비를 내려요 2. 신문지 공을 넣어요	
정서-6	작은 동물원	1. 동물 가면을 만들어요 2. 동물 발자국을 따라가요	
정서-8	손가락으로 쓱쓱	1.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요 2. 점토로 내 얼굴을 만들어요	
정서-9	똑같아요	1. 노래에 맞춰 따라해 보세요 2. 신문, 잡지에서 여러 가지 표정을 찾아보세요	
정서-10	오늘 기분은 3이에요	1. 색깔로 마음을 표현해요 2. 종이비행기를 날릴 때의 기분을 알아보아요	CD정서 2활용
정서-11	분무기 물총	1. 물총을 쏘아 신문을 찢어보세요 2. 샌드백을 만들어요	
정서-13	글자 나르는 기차	1. 나를 소개하는 책을 만들어 보세요 2. 마음에 어울리는 물건을 찾아보세요	CD 정서 13활용

(표 계속)

활동번호	발달지원 프로그램 활동명	변형활동	비고
정서-14	하트 붙이기	1. 그림편지를 서서 마음을 전해요 2. 가족을 위해 꼬치를 만들어요	
정서-17	씨앗 심고 가꾸기	1. 나의 감정을 신문지로 표현해 보세요 2.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를 찾아라	
정서-19	김밥말기	1. 이불 속에서 숨바꼭질 놀이하기 2. 얼굴 표정을 보고 걸음걸이로 표현해 보세요	
정서-22	친구에게 어떻게 말할까?	1. '예의바른 네 마디'말을 들었을 때 나의 기분을 표현해요 2. 악기로 연주해요	
정서-23	스마일 빙고	1. 오늘 나의 기분 흐름을 순서대로 놓고 이야기해요 2. 오늘의 우리가족 기분을 알아보아요	CD 정서13, CD 정서2 활용 CD정서 23활용
정서-24	몸으로 이야기해요	1. 입모양으로 가위바위보 놀이해요 2.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서-25	재미있는 얼굴	1. 풍선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해요 2. 손거울을 보면서 다양한 감정을 지어보세요	CD정서 25활용 CD정서 25활용
정서-26	바람을 마셔봐	1. 바람을 그림과 몸으로 표현하기 2. 바람으로 스티로폼 공 들어올리기	
정서-28	벌들의 비행	1. 지시어에 따라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기 2. 잡았다, 놓쳤다	
정서-29	길 안내	1. 시각적 움직임과 감각적 느낌으로 리듬 따라하기 2. 시각장애친구 이해하기-감각체험을 통해 감정이입하기	
정서-30	쏘피에게 편지쓰기	1. 내가 화났을 때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2. 비밀의 통을 열어 보세요	

나) 활동예시

다음은 전문인력이 가정방문하여 유아와 개별적(1:1 지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변형한 '가족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와 '같은 물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소리가 달라져요, 어떤 소리일까요?' 활동의 예이다.

언어-1 변형활동

활동 1

가족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 다양한 방법(성대 모사, 노래...)으로 가족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누구의 소리인지 찾아봐요.

활동 2

같은 물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소리가 달라져요, 어떤 소리일까요?



◆ 상황에 따른 소리의 변화를 탐색하고 들어본다(예: 종이 구기는 소리, 손가락으로 뽕기는 소리, 펠러이는 소리, 찢는 소리, 접었다 폈다하는 소리).

[그림 VI-2-2]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활동 예시

3) 동화를 이용한 개념학습 활동

동화를 이용한 개념학습 활동은 취약계층 유아의 개념이해 습득을 돕기 위해 취학전 유아들이 습득해야 할 개념들을 간단한 동화와 더불어 교사의 지도로 유아와 함께 하는 활동이다. 취약계층 영유아의 경우 또래에 비해 인지, 언어발달이 늦으며 이는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장명림·서영숙·신지현, 2006). 또한 저소득 가정 유아들의 학습 준비도를 위해 문해, 수리력의 교육내용을 강조하여 유아들에게 수리력과 과학적 탐구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좋은 출발, 영리함 키우기(Good Start, Grow Smart)와 영국의 정책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취학준비를 위해 취학전 유아들에게 개념습득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장영희·김희진, 엄정애·권정윤, 2007).

동화를 이용한 개념학습 활동은 유아들이 책읽기 경험과 더불어 놀이와 활동을 통해 개념습득 및 이해를 위해 개발되었다. 본 시범적용을 위해 개발된 개념학습 활동 동화는 ‘달 달 무슨 달’, ‘어디로 숨을까?’, 그리고 ‘우산이 필요해’이다. 다음은 동화책들과 활동지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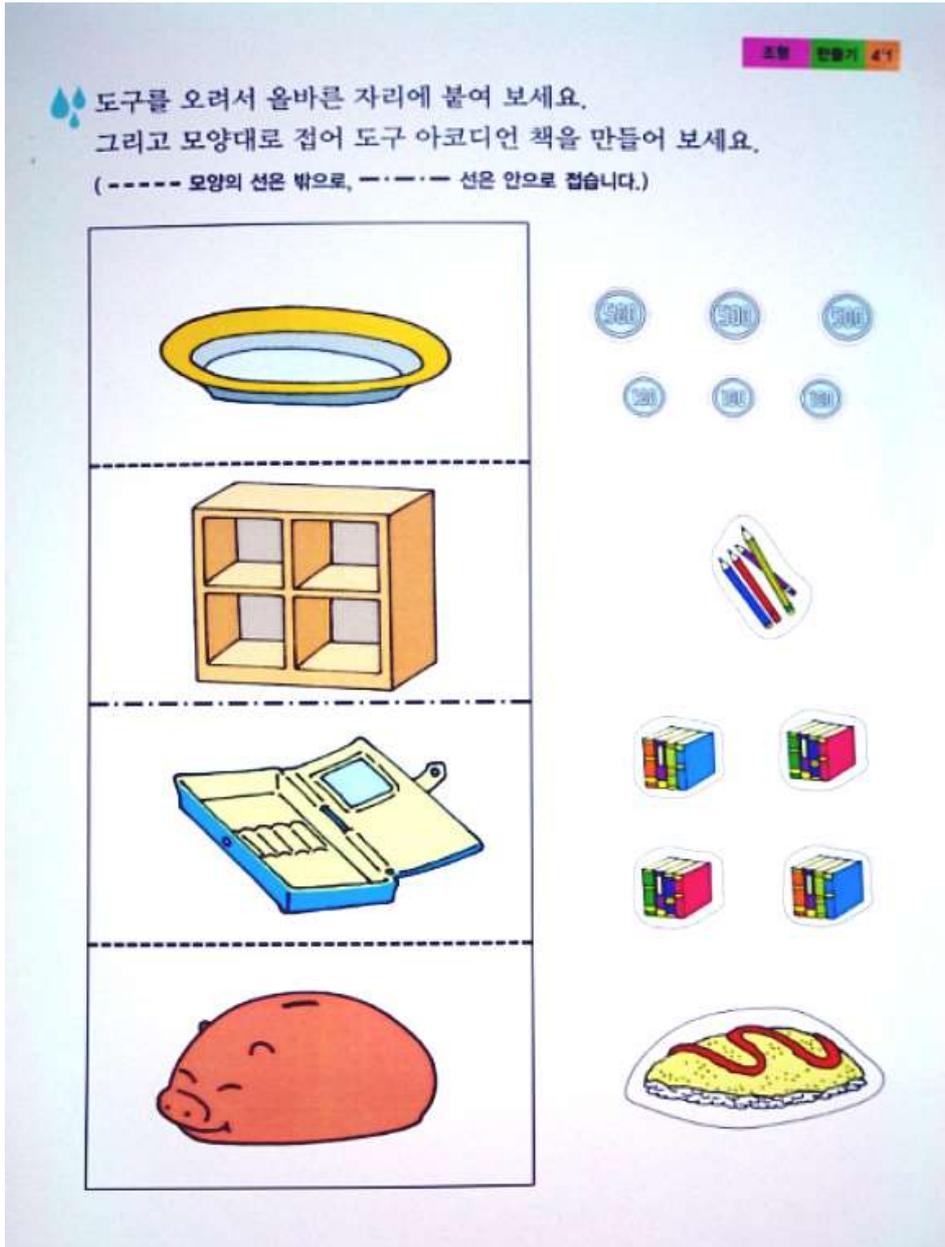
[그림 VI-2-3] 동화책



[그림 VI-2-4] 달 달 무슨 달 활동지의 예



[그림 VI-2-5] 어디로 숨을까 활동지의 예



[그림 VI-2-6] 우산이 필요해 활동지의 예

4)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14개의 부모 양육 역할 지표를 근거로 부모의 양육수준을 살펴보는 부모 양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와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에게 영유아 양육 지도 방법을 교육하는 개별지도용 부모교육 프로그램, 비슷한 연령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집단으로 모집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집단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구성하였다.

부모 양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를 개발한 목적은 0~만5세 영유아를 가진 저소득 또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일반 부모가 자신의 양육 역할 수행 수준을 점검해 봄으로써 양육 역할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각 가정의 부모들마다 특성과 양육수준이 다양하므로 양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의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영역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모 양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는 간단형과 심층형으로 구분 하였는데, 부모에 따라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부모 양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VI-2-15 참조).

〈표 VI-2-15〉 부모 양육역할수행 수준 검사지의 구성

유형	간단형		심층형	
핵심 내용	부모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적 (기본적) 역할 중심		부모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 중심	
항목 수	영아 부모 (0~만1세)	걸음마기/유아기 부모(만2~만5세)	영아 부모 (0~만1세)	걸음마기/유아기 부모(만2~만5세)
	40	45	110	145
응답 척도	·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 ·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역할 수행수준 높음을 의미			
검사결과 산출	영아 부모 (0~만1세)	걸음마기/유아기 부모(만2~만5세)	영아 부모 (0~만1세)	걸음마기/유아기 부모(만2~만5세)
	121~160점: + 81~120점: 0 40~80점: -	136~180점: + 91~135점: 0 45~90점: -	331~440점: + 221~330점: 0 110~220점: -	436~580점: + 292~435점: 0 145~290점: -

(표 계속)

유형	간단형	심층형
실시장소	각 가정	
실시시기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	
가정방문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지 항목을 상세히 읽고 각 항목의 핵심 내용을 숙지 · 부모와 신뢰감이 형성된 후에 검사지를 작성함 · 부모의 기능적 문해 능력 수준에 따라 부모가 혼자 작성하거나 가정방문자와 함께 작성 · 각 문항을 읽고 평소 부모 행동을 가장 잘 묘사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안내 	
검사결과 산출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점과 양육 역할 분야별 총점을 산출: 전반적인 양육역할 수행수준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수행수준도 점검 가능 · 부모가 역할 수행을 잘 하고 있는 분야와 부족한 분야 파악 · 역할 수행을 잘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모를 격려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부모가 향상되도록 가정방문자가 염두에 둬 	

개별지도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 욕구충족의 역할, 발달지원 및 교육의 역할, 사회연계의 역할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해당 프로그램을 시범적용 전문인력(보육교사, 유아교육복지전문가, 희망유아교육사, 사회복지사 등)이 저소득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영아와 유아에게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동을 시범 보인 후 부모가 영유아에게 실시해 보도록 한다. 개별지도용 부모교육 프로그램 책은 부모용과 가정방문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모용 책자는 저소득 부모와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용으로 별도 구성되어 있다. 즉, 부모용 책자는 영유아에게 필요한 양육지원을 비롯하여 부모가 알아야 할 다양한 내용을 활동과 함께 구성되어 있고, 가정방문자용의 내용은 부모용 활동 자료를 부모에게 소개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전략,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취약계층 부모의 경우 영유아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태도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건강, 청결, 안전에 무신경하며, 영유아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실천방법을 몰라 불안해하는 등의 특성(김희진, 2005)이 있다. 또한 탈북가정 부모들은 탈북 시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로의 적응 정도의 편차가 매우 크며, 탈북 부모가 자라온 환경과 한국의 환경, 특히 영유아 양육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혼돈을 겪기도 하는 등의 특성들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부모를 위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탈북 가정 부모의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과 다른 어휘나 개념을 소개하였다.

집단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도 저소득 가정과 탈북 가정의 부모의 특성을 조사하여 주제를 선정한 다음, 국가와 문화, 신체·건강·안전, 놀이와 학습, 인지와 언어 발달, 사회 및 정서 발달, 훈육, 다양한 가족, 정신 건강 및 지역 사회 기관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대상이나 주제에 따라 달리 구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의 <표 VI-2-16>과 <표 VI-2-17>은 가정방문 개별지도용 및 집단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다.

<표 VI-2-16> 개별지도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부모 양육 역할	하위 역할	활동명
기본적 욕구 충족의 역할	의복 제공	적절한 의복
	음식 제공	적절한 음식
	주거 제공	안전한 주거환경
	건강 유지	건강습관과 예방접종 청결습관
발달 지원 및 교육의 역할	신체적 지원	적절한 운동
	인지적 지원	수학적 기초개념
		과학적 기초개념
	언어적 지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사회적 지원	타인과의 관계
	정서적 지원	감정표현과 조절
	사회적 규범/ 가치형성 지원	예절지도
		바람직한 훈육
놀이 지원	적절한 놀이	
	적절한 놀잇감	
학습 지원	바람직한 학습 환경	
사회 연계의 역할		지역사회 기관 정보
		자연과 문화 경험
		부모의 정신건강

<표 VI-2-17> 집단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영역	내용
국가와 문화	1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상식: 국경일] 2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상식: 기념일과 명절]

(표 계속)

영역	내용
신체, 건강, 안전	3 [지나치기 쉬운 발달문제: 조기발견이 치료의 첫걸음] 4 [알아두면 아이 살리는 응급조치] 5 [안 맞히면 큰일 나는 예방접종: 언제, 무엇을] 6 [사고 없는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 7 [내 아이 나이에 맞는 운동법]
놀이와 학습	8 [내 아이에 맞는 놀잇감: 놀이는 아이의 모든 것] 9 [알고 보면 쉬운 공부법] 10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서로 다릅니다] 11 [초등학교 입학 준비: 이것만 꼭!]
인지와 언어 발달	12 [책 많이 읽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13 [수학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14 [영어 즐기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사회 및 정서 발달	15 [기분 잘 다스리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16 [예절 바른 아이로 키우는 비법] 17 [친구에게 인기 있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18 [아이 성격 알면 쉬워지는 아이 키우기]
훈육	19 [부모의 이런저런 양육태도 - 영유아의 모습은?] 21 [잔소리 않고 아이 버릇들이기] 22 [남 때리고 욕하는 내 아이 가르치기] 23 [형제끼리 싸우는 내 아이들 가르치기] 24 [텔레비전과 컴퓨터: 알맞게 사용하기]
다양한 가족	25 [맞벌이 가정에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26 [한부모가정에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27 [조부모께 영유아 맡기는 부모를 위한 안내] 28 [손주 키우는 조부모님을 위한 완벽 생존법]
정신건강 및 지역 사회 기관	29 [엄마의 행복은 온 가족의 행복] 30 [지역사회자원 100% 활용법]

나) 활동예시

다음은 저소득과 탈북주민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별지도용(부모용, 가정방문 자용), 집단용 부모교육 활동의 예이다.

(1) 개별지도용 만2세 부모교육 활동지 예(부모용)

2세 (18개월~24개월)
적절한 음식

알아두면 좋아요

- 가능한 가족과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 국에 말거나 모두 섞어서 비벼 주기 보다는 따로 줍니다.
- 지게분해지더라도 스프로 먹고 싶어 하면 허용합니다.
- 2세 영아가 사용할 수 있는 수저를 줍니다.
- 다양한 음식을 주어 편식을 예방합니다.
- 자신의 그릇과 수저를 정해주면 먹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 한 번에 먹는 양이 적으니 너무 많이 주기 보다는 간식을 줍니다.
- 인스턴트 음식이나 단 음식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 음식을 너무 짜거나 맵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동아디나며 먹게 하거나, 따로 다니며 먹여 주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먹게 하지 않습니다.

지녀와 함께

일상생활예시

- 음식 고유의 맛과 행정을 알게 따로 줍니다.
- “○○야 이번에는 무엇을 먹을까? 시금치를 먹을까?”
- 가능한 가족과 함께 식사합니다.
- “아빠, 엄마와 함께 먹으니 더 맛있지?”
- 가능한 스프로 먹게 합니다.
- “네 숟가락 여기 있네, 혼자 먹어보자.”

영유아의 연령과 부모역할

부모의 양육역할이나 활동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제시

영유아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소개

지녀와의 놀이에서 피자 샌드위치 만들기

- 네모나 동그라미 모양의 피자와 썬(치즈)이 있을 때 합니다.
- 자녀와 함께 피자에 썬을 발라 피자도 덮어 피자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 간식으로 1-2개만 만들어 우유와 먹도록 합니다.



다음 만날 때 까지

- 일상생활에서 일주일 동안 태도로 잘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잘 했다면, 빈칸에 표시(○) 하세요, 자녀에게 해명되는 것만 하세요.

	☐
우리 아이에게 맞는 크기의 수저가 있다.	
자신의 그릇과 수저를 마련해 주었다.	
음식의 간을 세게 하지 않았다.	
기본 중계 밥을 먹었다.	
가능한 간식으로 피자를 많이 주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재자리에 앉아서 먹게 하였다.	

- 어릴거나 궁금한 것은 적어놓았다가 방문자에게 물어보세요.

영유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소개

다음 주 만나는 날까지 해야 하는 활동 제시

[그림 VI-2-7] 개별지도용 만2세 부모교육 활동지 예(부모용)

(2) 개별지도용 만2세 부모교육 활동지 예(가정방문자용)

지난주 활동 알아보기

- 지난 주 정년 * 매뉴얼 읽고
- 아빠에 대해나 알아보기
- 아빠에 활동했나 알아보기

금주의 활동

- 제시된 정보의 중요성 및 후기 정보**
 - 제시된 정보의 중요성
 - [예] 개인적인 기호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 활동에 관련된 좋은 놀이책 활동을 방해하지/ 가족성이 증진되는 시기이므로
 - 이 가족에게 필요한 후기 정보
 - [예] 영아 활동에 관련 중인 항목(예: 운동화, 벨트 없는 바지, 워터 입술 수 있는 티셔츠)
- 활동소개**
 - [일상생활에서]**
 - 제시된 정보 중 영아의 연령에 맞는 것을 연령대에 맞게 설명
 - 연령에 맞지 않은 선택할 기회를 주거나 벗은 옷을 착용해 주는 시범 보임
 - 부모가 능숙하면 앞에서 말로 설명해 줄
 - [자녀와의 놀이에서: 행동강령 놀이]**
 - 활동방법 소개
 - 행위해 높은 것이 없을 때 웃기위해서 구르거나 던지거나 놀이할
 - 활동목표 소개
 - 웃을 부르기 다 디르디는 것을 알게 될
 - 웃을 던지고 웃 위해서 구르며 신체가 발달할

추후활동소개: 다음 방문까지 부모가 해야 할 일 설명

- 스트레스가 해소됨
- 강조할 내용**
 - 간단한 선택할 주기와 간단한 의무부담의 하도록 권유함
 - 매일 의지해 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쁨이 있을 때 하도록 강조함
- 추후활동 소개**
 -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일상생활에서 자녀가 또 선택하기와 빠른 후 채우기 등 어떤 것을 더 쉽게 선택하기 ()에 표시하도록 안내함
- 확인할 내용**
 - 행위해 웃을 던지며 노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가족이라면, 아들이나 것을 걸음 행에서 날기 전에 하도록 제안함
 - 부모가 활동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 억지로 하지 보다는 놀이 위기 조성할 후 실시함
 - 부모의 스트레스의 걱정을 들어주고 유감하여 정신건강 유지 지원
 - 다른 기관 연계가 필요한 사안인지 확인함

확인할 내용: 활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 타 기관 연계 필요성 등 방문자가 항상 확인

[그림 VI-2-8] 개별지도용 만2세 가정방문자용 활동지 예(가정방문자용)

(3) 집단용 부모교육 활동지 예

집단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소책자 형식으로 제시되었고, 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소책자 마지막에 [용어 사진]을 추가하고 남북한이 달리 사용하는 어휘나 문화 차이를 글 또는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소책자는 30개의 주제에 따라 개별 책자로 분리하였고, 1개의 주제는 6~14쪽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각 주제의 내용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VI-2-9] 집단용 부모교육 활동지 예

사. 결과보고 및 총평회 개최

시범적용을 마친 후 전문인력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보고 및 총평회를 개최하여 차시별 실시상의 의견, 영아용 및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수정·보완 및 요구 사항 등 전반적인 시범적용에 관한 의견교환 및 평가회를 하였다.

1) 시범적용상의 전반적인 의견

대상 영유아의 연령층이 다양하고, 교육을 받는 영유아의 거주지, 소속도 다르기 때문에 교구의 준비가 어렵고 공간이 상당히 열악하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각 사업별로 영유아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별 지도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영유아 및 부모 대상의 교육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해서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와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경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번 시범적용 대상 영유아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아닌 곳에서 출생한 경우에 의사소통과 이해력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인력이 보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 출생한 영유아들은 일반 저소득 가정 영유아와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인 어머니들은 저소득 가정 어머니들과 유사한 경향이나, 우리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역사회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는 등의 특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즉,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저소득 가정 부모와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에 따라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실시가 차이가 나기 보다는 참여 부모의 관심과 열의 정도에 따라 달라졌다고 하였다.

또한 1회 방문 시 몇 개의 활동이 적절한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1차시분과 함께 영유아용 2~3개의 활동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부모교육과 영유아 지도를 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대부분이 가정에 교구나 간단한 재료, 놀잇감이 없어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활동자료를 더욱 간단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2) 영유아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가)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1) 활동수준

대상 영아에 따라 적절하다는 의견과 만 1세를 갓 지난 영아의 경우 적용하기 어

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2) 활동방법

영아가 자신의 사진을 보는 활동을 통해 흥미를 보이며, 자신의 사진에서의 웃는 모습을 보며 웃는 모습을 흉내내는 등 직접 영아가 관련된 자료의 제시와 영아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신체적인 활동은 영아에게 효과적이었다. 영아 지도 프로그램의 경우 기관중심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활동의 종류에 따라 가정에서 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교구의 크기나, 재료에 따라 부모가 가정에서 꺼려하는 활동이 있었다(예: 물감활동). 사회정서 영역에 관련된 활동으로 음악활동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활동이 포함되기를 희망하였다.

(3) 자료제작 및 준비의 용이성

교사가 직접 제작해야 하는 활동이나 교구가 큰 활동에 대해서 교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한편, 교사가 직접 제작해야 하는 활동의 경우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대체해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4) 사진, 삽화의 적절성

사진 자료가 있어 준비자료 제작 시 도움이 되었으며, 사진과 삽화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활동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개의 사진의 경우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으므로 사진이 변경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5) 영아의 이해 및 참여정도

활동내용에 따라 이해도와 참여정도가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보통 또는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아가 활동하기 어려워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참여도가 낮다는 평가도 있다.

(6) 기타 전반적인 의견 및 개선요구 사항

재료활용에 대해 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미 제공된 CD에 음악이나 노래와 그 밖의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기를 희망하였으며, 영아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팁 제공을 요청하였다.

영아와의 활동은 어머니의 참여로 놀이 활동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가정에서 여러 주방기구를 제공해주는 경우 활동이 확장이 됨), 반대로 부모가 공개한 장소이외에서 하는 활동(예: 화장실, 주방 용품의 이용)을 꺼려하시는 경우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 프로그램이 기관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개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한 팁을

요청하였다. 또한 활동별로의 서술보다는 발달에 대한 연계를 가지고 일정에 대한 제시를 건의하였다.

나)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1) 활동수준

활동의 종류와 유아의 발달정도에 따라 활동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활동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2) 활동방법

학습이나 인지적 측면이 포함되어 정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유아들의 흥미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활동방법이 게임이나 신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경우 유아들이 재미있어하고 흥미가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료를 교사와 유아가 같이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유아가 매우 즐거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정서영역 활동의 경우 그림을 그리거나, 말로 표현하는 등의 활동으로 유아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할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3) 자료제작 및 준비의 용이성

CD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작이 어렵지 않으나 직접 제작해야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었으며, 활동에 따라 CD에 있는 여러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고 비슷한 자료로 대체하여 활동했다고 응답하였다.

(4) 사진, 삽화의 적절성

사진과 삽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자료 제작 시 사진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몇 개의 사진은 어둡고 실물자료보다 배경이 두드러진 사진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5) 유아의 이해 및 참여정도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이해 및 참여도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활동이 인지적인 활동(글자 점선 따라 쓰기 등의 학습활동으로 유아가 느끼는 활동)의 경우 이해도에 의해 참여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해여부와 관련없이 참여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평가하였다. 한편, 제시된 자료가 유아의 흥미를 끄는 경우 유아들이 집중을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6) 기타 전반적인 의견 및 개선요구사항

유아 지도 프로그램은 활동안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인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활동의 유형, 주제, 활동방법, 준비물 등에 대한 것이었다. 자료제작에 교사가 따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도록 세트화에 대한 요구와 자료제작에 대한 노하우나 팁 제공을 원하였다.

또한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취약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별 활동으로 변형한 활동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의 유의점, 활동의 목표, 연계영역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활동목표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적용한 활동들에 대한 대상연령의 구분, 활동목표, 준비재료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제시된 활동 이외에 준거가 될 수 있는 사전 활동, 확장활동, 난이도에 따른 활동설명을 요청하였다.

다) 동화를 이용한 개념학습 활동

(1) 활동수준

만3세 중 일부 유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아 활동수준에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2) 활동방법

동화책을 교사와 같이 읽은 후 가정에 동화책을 두고 오기 때문에 어머니와 가정에서 읽을 기회도 얻게 되며, 활동지를 가지고 교사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사와 유아, 부모의 만족도가 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하나의 동화와 관련된 활동을 2주에 걸쳐 하기 때문에 동화에 대한 이해와 습득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3) 자료제작 및 준비의 용이성

교사가 자료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아서 대부분 반응이 좋았다. 그러나 몇몇 교사의 경우 활동지에 있는 그림들을 오려가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의견이 있었다.

(4) 사진, 삽화의 적절성

동화책의 그림과 활동지의 오려서 붙이는 그림이 작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동화책의 다채로운 색에 유아들이 흥미를 보여 채워기 활동을 좋아하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5) 유아의 이해 및 참여정도

동화책의 내용이 짧아 유아의 읽기능력 향상 및 이해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활동지의 경우 유아의 개념형성 여부에 따라 이해도가 차이가 있으

나,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이 잘되는 경우 확장활동까지도 가능하였다는 의견이 많았다(예: 수 개념, 위치개념 등). 그리고 반복된 읽기와 다양한 활동으로 유아들이 위치개념, 수 등에 대한 개념 획득에 상당한 도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6) 기타 전반적인 의견 및 개선요구사항

유아들이 개념학습 동화책에 흥미를 많이 갖고 있고 동화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념학습 활동 구성이 유아들의 집중력을 높였으며, 교육활동에 대한 부모와 유아의 만족도가 큰 편이었다. 또한 동화책의 길이가 길지 않아 유아의 읽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3)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가) 개별지도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 활동수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동이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전문인력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2) 활동방법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주제 중 적절한 음식 섭취에 대한 지도 활동은 많은 양의 쌀을 이용해야 해서 부담스럽다는 지적과 저소득층 가정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하는 활동의 경우 조심스러워서 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일부 부모들은 가정으로 방문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 활동 내용을 각 가정의 특성에 맞게 변형 할 수 있도록 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자료제작 및 준비의 용이성

대부분 인쇄된 종이에 부모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팁을 제공하거나 가정에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준비하는 시간이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다는 평가를 하였다.

(4) 사진, 삽화의 적절성

개별지도용 부모교육 프로그램 책자 내에 사진이나 삽화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었으며, 일부 삽입된 사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사진보다는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5) 부모의 이해 및 참여정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특히 개별지도라는 특성상 부모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아동지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평소 궁금하였던 점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구하는 부모들에게는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받았다.

(6) 기타 전반적인 의견 및 개선요구 사항

전반적으로 주제별 활동수준은 적절하였으나, 활동방법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했다. 활동에서 각 가정의 상황과 환경이 다양하여 부모교육을 전달하는 인력의 응용과 변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자료의 제작 및 준비는 대부분 용이하였으며, 부모의 참여도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편이었다. 다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나) 집단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 활동수준

집단용 프로그램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기초로 영유아의 연령과 관계없이 30개의 주제를 선택하였다. 가장 긍정적인 주제는 영유아의 학습지도에 관한 영역과 아동과 함께 놀이하는 방법에 대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제공하는 주제에 대한 깊이가 없다는 평가도 있었다.

(2) 활동방법

활동방법에서도 영유아 학습지도와 관련하여 제시한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즉, 영유아에게 글자를 알게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팁이나 영유아와 함께 책을 선택하는 방법 등 평소 학습지도에 관심은 많았으나 방법을 몰라서 힘들었다는 부모들이 더 다양한 방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3) 자료제작 및 준비의 용이성

집단용 프로그램은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되어 일부 전문인력은 부모에게 교육 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참고하여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 제공하기도 하였다. 포켓형식이라 크기가 작고 각 주제별로 각각 만들어져 있어 필요한 부분만 보고자할 때 용이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문인력이 집단용 부모교육을 위해 따로 제작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4) 사진, 삽화의 적절성

삽입되어 있는 삽화가 흑백으로 처리되어 있고, 그림이 주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좀 더 다양하고 주제와 일치되는 그림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요구되었다.

(5) 부모의 이해 및 참여정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다. 특히 평소 궁금했었던 주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 쉽게 이해하는 편이었다.

(6) 기타 전반적인 의견 및 개선요구사항

본 프로그램은 집단용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교육대상 부모들을 대규모로 모집하기 어려워 우선 전문인력이 지도하는 대상아동의 부모에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집단에서 교육할 때 필요한 교육방법에 대한 팁이나 좀 더 다양한 주제선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회성 교육이 아닌 차시별 교육이 필요한 경우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요구된다.

다) 부모 양육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에 대한 의견

부모 양육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인력들은 부모들의 자기 보고형식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높게 응답하여 실제 전문인력이 관찰한 것보다는 자신의 양육 수준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부모를 교육하는 전문인력이나 관찰자가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이 부모 양육 수준에 대해 평가한 후 본인의 부족한 영역을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경우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심층형 질문지의 경우 질문 문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부모를 첫 회기에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아. 소결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을 위해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통합적 육아지원의 모형은 전달체계, 프로그램, 전문인력, 사업간 연계를 통한 지역 사회 자원 활용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요소에 따라 시범적용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달체계

본 시범적용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영유아 기본 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하나센터)의 전달체계를 이용하였다. 정부 부처 주도의 사업은 추진상의 협조가 용이하고 공신력이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시범적용을 실시하기 전에 각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자 및 중앙 지원센터(추진단)의 책임자들을 방문하여 본 취약계층 영유아의 통합적 육아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국내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 대상 사업의 특성 및 현황을 설명하였다.

2) 프로그램

국내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을 고찰하고, 각 사업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유아와 그 부모를 직접 지도할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조기 중재효과에 대한 연구(Ramey & Ramey, 1992)에서도 영유아와 그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및 중재가 간접적인 지원보다 효과적이며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영유아와 그 부모를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영아와 유아 지도 프로그램, 동화를 이용한 개념학습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적용과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8주간 시범적용을 하였다. 시범적용 후 시범적용에 참여하였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총평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진행시의 어려움과 개발된 프로그램들 내용의 활동수준, 활동방법, 자료제작 및 준비 용이성, 사진 삽화의 적절성, 적용대상자의 이해 및 참여도, 기타 의견 등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프로그램을 내년도 시범사업의 확대 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동화를 이용한 개념학습 활동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에 내년 확대 실시할 전국 시범적용에서는 금년도에 개발한 동화 외에 기존에 출판된 동화를 활용하여 유아들의 개념습득을 돕기 위한 활동을 추가로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개별지도 부모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나, 전문인력들은 취약계층 가정의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주제가 더 보완되기를 희망하였다.

본 시범적용 대상은 저소득층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와 그 부모였다. 저소득 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발달특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 출생한 영유아인 경우는 언어적인 이해력이 떨어져 이를 위한 언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3국 출생 영유아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용 프로그램 이외에 언어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들은 단어나 어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북한이탈주민 부모 대상의 가정방문자용 책자와 부모용 자료에 단어 및 어휘 설명을 추가한 것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문인력

본 시범적용에는 기존의 사업에 속한 전문인력(보육교사, 유아교육전문가, 희망유아교육사,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였는데 유아교육, 보육, 사회복지, 교육학 등을 전공하여 다양한 교육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먼저 각 사업의 전문인력들에게 시범적용과 관련하여 영유아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취약계층 가정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 영유아 및 부모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약계층 부모를 대상으로 개별 지도를 실시해야 하는 전문인력들에게는 취약계층 가정의 특성 및 부모상담 기법 등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영아와 그 부모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나 이들에게는 영유아와 부모교육을 위한 별도의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인력이라 할지라도 영유아가 갖는 특성과 취약계층의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주체는 다르지만, 하나센터처럼 영유아와 부모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구해서 희망유아교육사를 연계·활용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4)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

본 시범적용에서는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1:1 영유아 지도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금년도에 개발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2차년도 사업에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일반화를 위한 사업간 연계 및 이를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적용 기간 동안 어느 한 유아교육복지전문가의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어머니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우울증 치료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다. 이렇듯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영유아 양육에 대한 기술을 지원을 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개별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한 결과 부모와 전문인력 간에 신뢰감이 충분히 형성되어, 이차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볼 때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와 부모의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인력과 영유아, 전문인력과 부모 간에 충분한 라포(rapport)가 형성이 되어야만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연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취약계층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평가를 통해 이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신뢰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인력이 자신의 사업 내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지역 내 영유아를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동일한 네트워크를 이중적으로 구축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 내 영유아 사업들 간에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을 좀 더 폭넓게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II.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이론 검토, 국내외 사례 분석, 실태 및 요구 조사를 통하여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을 개발한 후, 현장에 시범적용 하였다. 본 장에서는 저소득층과 북한이탈 가정을 구분하여 통합적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1.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첫째,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의 건전한 전인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저소득 가정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을 예방함은 물론 이후의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정서, 언어 및 인지 발달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급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정신건강과 영유아 양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영유아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동시에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영유아시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인 부모 및 가정환경 문제를 반드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 가정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유아를 위한 양육기술 및 정보 지원은 물론 부모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모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또한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층 가정 유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영유아 지도시의 강조점이나 부모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은 가족유형에 따라서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손가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담당해야 할 영유아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한부모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영유아 양육 지원에 대한 도움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의 영유아 및 부모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가족 유형에 따른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층에 속하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에 속하는 가정의 부모들이 영유아를 위한 지도 관리가 다른 소득수준에 비해 매우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을 위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부모 지원 프로그램 및 건강한 영유아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의 영유아들은 건강과 관련된 관리 및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문화적 체험의 결핍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대상 유아에 맞는 발달 지원 활동은 물론 가정방문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건강 및 의료서비스,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견학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층에 속하는 가정의 부모를 위한 건전한 정신건강, 긍정적인 자아개념 및 자존감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과의 연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영유아를 직접 지도하는 전문인력들은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매뉴얼들을 원하고 있었다. 전문인력이 스스로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교구를 직

접 제작할 시간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제작에 교사가 따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지 않도록 자료 세트를 완전히 준비·제공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자료제작에 대한 노하우나 도움말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가정 방문 시 가정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활동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일반적이고 간단한 것을 포함시키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첫째,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육아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통일부이지만, 통일부는 유아교육, 보육 중심의 육아지원 부서와 인력이 부재하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을 위해 현재 영유아 육아지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와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원 체계 하에서 각 서업들 간의 연계 협력을 활성화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할 전문기관 및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앞에서도(5장) 언급했듯이 현재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책의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가 담당 인력풀이 적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이들을 하나원 퇴소 이후 정착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북한이탈주민 전문 실무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매해 3,000여 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착 이후 결혼과 출산을 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영아의 출생에서부터 육아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인 하나센터 내에 영유아 가정 지원 사업을 특성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때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할 교육사가 하나센터 자체사업에는 없으므로 지역 내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여 영유아 기

본 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희망유아교육사를 연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범사업에서 희망유아교육사 인력을 지원받아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파견하여 육아지원프로그램(영유아용, 부모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센터와 가정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지원사업이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과 같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을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연계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들은 구직보다는 영유아 양육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들이 앞으로 남한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원의 교육과정이나 하나센터의 사업에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를 위한 남한에서의 성공적인 영유아 양육을 포함하는 부모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일반 저소득층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포함되는 부문도 있겠지만, 탈북 가정 및 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주제나 활동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의 취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는 특정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 이는 하나원을 퇴소하면서 제공받는 임대아파트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직업을 구해야만 한다. 그런데 영유아 영유아가 있는 여성은 구직도 어려울뿐더러, 직업을 구했다 하더라도 육아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하기가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최초의 집단 교육 장소인 하나원에서부터 영유아에

게 전문적인 교육과 지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처음으로 적응 생활하는 하나원에서부터 질 높은 육아 지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하나원 내에는 영아들을 보육하는 곳으로 '유아방'과 유아들이 주변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녀온 후에 생활하는 '유치부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유아방은 미인가 보육시설이란 문제점이 있으며, 유치부 방과후 교실은 유아들이 방과 후에 보다 심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적 경험을 하기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에 와서 처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하나원에서부터 보다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정책 제언

첫째, 정부부처의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 지원 사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부처 사업 4가지(교육 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하나센터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시범적용에 포함하였다.

이들 사업들 중에는 지역 내 센터나 복지관 등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전달체계가 중앙부처로부터 지역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전문인력 측면에서도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관리자만이 있는 경우와 영유아를 1:1로 직접 지도하는 교육자만이 있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상하는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은 물리적 공간, 위계적인 전달체계, 사업 관리자와 교육자 등이 모두 보유한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서 이러한 요소를 완벽하게 갖출 수 없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사업들 간의 특징과 장점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하나센터의 물리적 공간을 타 사업의 소집단 교육 시에 빌려주거나, 직접적인 지도교육사가 없는 하나센터는 희망유아교육사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업간 협력을 통해 이미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육아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그 외의 북한이탈주민 가정 거주 지역에 한하여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과 영유아를 가정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그 외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도 그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 유형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향후에는 가정유형별로 보다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자료가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모든 사업에서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필요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공신력 있으면서도 우수한 프로그램들의 활동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여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개발 시에 기존에 개발되어 있었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지도 프로그램’의 좋은 활동과 자료를 활용하여 변형된 활동으로 구안하였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셋째,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의 일반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전국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상과 지역을 포함하는 현장 적용과 효과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내년도에 2차년도 연구로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모형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다 구체적인 사업 간의 연계, 전문인력 간의 연계 활성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단계적 추진과 함께 보다 많은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와 부모들, 그리고 담당 전문인력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미경(2008).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지원사업 현황과 전망.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아동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9-26.
- 곽은정(2003).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8a). **오늘부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보도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_____ (2008b).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_____ (2008c).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08년 계속사업지역 지원계획 (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_____ (2009a). **2009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_____ (2009b).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추진 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권현자(2007). 포괄적 보육서비스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필요성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순(2001).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삼성복지재단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제9회 학술대회 자료집: 보육시설에서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33-50.
- 김명순·김길숙·이명신(2008).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 복지, 보건의 통합적 조기 개입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비교 고찰. **아동권리학회**, 12(2), 161-187.
- 김명순·이미화(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아동교육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 김미숙·조애저·배화옥·최현수·홍미·김효진(2007).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 지원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정·정계숙(2007). 유아기 영유아를 둔 새터민 부모의 양육 이야기. **아동학회지**, 28(1), 1-24.

- 김영미(2002). 탈북유아의 남한생활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수(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사회과학연구회**, 9, 102-117.
- 김인숙(1999). IMF 이후 빈곤가족 해체의 현황과 대안. **사회복지리뷰**, 4(1), 35-63.
- 김정원·김성식·박인심·김도희(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과: 종단 효과분석 1차년도 연구에 기초하여**(OR2009-3-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인(200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평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섭(2004). 탈북아동의 남한사회에서의 초기적응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이(1999).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보육욕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영(1994). 저소득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향숙(2001).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지(1998).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 및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진(2004).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읽기동기와 읽기이해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효정(1991).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유아의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진(2005). **현대 부모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포괄적 관점**. 서울: 창지사.
- 나정·문무경·심은희(2004).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분석: OECD의 관점**.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남소현·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0), 199-21.
- 노인철(1995).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 자활지수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농림수산물식품부(2009).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서울: 농림수산물식품부.
-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2008). **2008 드림스타트사업 교육매뉴얼**(정책자료 2008-01).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 류안진(1992). **아동교육론**. 서울: 창지사.
- 민경화(2000). 빈곤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현숙·문영경(2009).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3, 137-158.
- 박모란(2002). 탈북아동의 남한 사회 적응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선희(2006). 영국의 국가아동보육전략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 Sure Start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7, 79-113.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변종임·고영상·고혜원·강창현·이희수·채재은(2007). **사회통합을 위한 학습 노동 복지 연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변희순(2001). 저소득지역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삼성복지재단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제9회 학술대회 자료집: **보육시설에서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51-71.
- 보건복지가족부(2008a).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_____ (2008b). **2009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_____ (2008c).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북한인권정보센터(2005). **새터민 정착실태연구**.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2006). **포괄적 보육 서비스: 지역사회연계, 삼성 영유아 프로그램 2**. 서울: 다음세대.
- 서울북부 하나센터(2009). 내부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2009). **2009교육지원우선지구(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평가매뉴얼**.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송종직(2002). 남북한 가정생활에 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연진(2002).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문화특성에 관한 질적연구. 기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2008).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사례집**. 서울: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 위스타트운동본부(2009). **창립 5주년 기념 We Start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세계의 스타트 프로그램: 빈곤아동을 위한 혁신적 접근**. 서울: 위스타트운동본부.
- 위영희(1991).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로서의 탁아. 양옥승(편), **탁아연구**. 서울: 양서원.
- 유선옥(2002). 포괄적 보육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희정(1997). 빈민지역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한국영유아보육학**, 9, 93-121.
- 장명립(2009).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취학전 영유아 통합 지원을 위한 2009 희망유아교육사 연수 자료집**, 39-40.
- 윤미량(2009). 하나원 10년 회고와 향후 과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 자료집**, 101.
- 윤성아(2004).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교육실태 및 문제해결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여상(1998). **중국에 있는 탈북자 실태보고서**. 서울: 생명과 인권.
- 윤여상·이금순·한선영(2007). **하나원 운영혁신을 위한 진단 및 장기발전 방향보색**.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이경열(2005). 저소득 가정 어머니-유아의 그림책읽기 상호작용과 유아의 언어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금순(1999).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1999-02)**. 서울: 통일연구원.
- 이명숙(2009).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제 2회 국정과제 세미나: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114-143.
- 이미화·이운진·이정립(2009).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방안(연구과제 2009-02)**.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봉주(2009). 위 스타트 프로그램의 성과: 메타분석. **창립 5주년기념 위스타트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3-23.
- 이봉주·양수·김명순(2006).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길잡이: 최종보고서.
- 이부미(2003). 탈북가정 유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현장연구: 탈북적응교육 훈련원(하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3(2), 115-145.
- 이상선(2004).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보호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영(2000). 저소득층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분석을 통한 보육정책 방향: 부산광역시 보육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희·유미숙(2000). **아동복지**. 서울: 형설출판사.
- 이은주(2007). 저소득지역 아동방임 실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97-400.
- 이은혜·김명순·전혜정·이정림(2008).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중단적 효과 연구: 제 3차년도 결과 보고서**. 서울: 삼성복지재단.
- 이지혜(2003).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명림(2009).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 정책. **2009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유아지원사업 연수집**, 3-35.
- 장명림 외(2008).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장영희·김희진·엄정애·권정윤(2007). **생애초기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발달지원 프로그램 개발방향**.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장명림·서영숙·신지현(2006). **영·유아 교육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장혜경(2008). **새터민 가족의 문제와 정책방향**. 서울: 한반도 평화연구원.
- 전익수(2001). 탈북청소년 초기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문자·어주경(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2), 21-40.

- 정미라·곽은순·윤장숙(2007). 저소득층과 일반계층의 아동의 양육 실태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347-369.
- 정병호(2001). **탈북학생 사회,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개발연구** (2001-1-05).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정영선(2000). 탈북난민들의 인권문제와 국내외적 대응. **호남정치학회보**, 12.
- 정옥분(2005). **영유아 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원식(1991). 아동의 창의성 요인과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변인간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익중(2009). 위스타트 복지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창립 5주년기념 위스타트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93-117.
- 조소연(2001). 북한이탈아동의 사회적응 멘터링 프로그램 기초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은경·김은영(2008).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5: 미국의 육아정책**.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조운영·김정호(2008). **영유아보육, 정부의 역할은?**.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조천현(2002). 탈북경로의 유형의 실태와 현황: 생계형 탈북에서 삶의 질 향상 위한 형태로 급증. **북한**, 10, 65.
- 조홍식(1996). 빈곤가족없는 21세기 한국. **가족관련학술단체협의회주최 정책토론회 자료집**.
- 주경민(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 불안정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대현·이인수·김현아(2007). 새터민 아동·청소년의 적응력향상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학회**, 16(2), 277-291.
- 최명선·최태산·강지희(2006). 탈북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놀이치료연구**, 9(3), 23-34.
- 최보가·전귀연·정정희·김수영(2005). 포괄적인 장애아 통합보육 서비스 모형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3(4), 79-95 .
-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백서 2003-200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허인영(1999). 빈곤결손가정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연구: 가출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주은(2003). 북한이탈부모의 영유아양육변화와 문제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원(2004). 가정빈곤과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9(1), 219-229.
- SB7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2008). **공청회 자료집**. 서울: 시소와그네.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00). *FACES findings: New research on Head Start outcomes and program qualit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03). *FACES findings: New research on Head Start outcomes and program qualit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05a). *Biennial report to Congres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05b). *Head start impact study first year findings. executive summar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06). *FACES findings: New research on Head Start outcomes and program qualit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 Allen. B. (2008). Evaluating sure start, head start, and early head start: Finding their signals amidst methodological static. *NHSA DIALOG*, 11(2), 110-132.
- Brooks-Gunn, J. (2003). Do you believe in magic?" What we can expect from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Social Policy Report*. 12(1). 3-16.
- Cazen, A. (1968). *Day Car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 Greenberg, M. (1987). Mater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 Influences on early mother-child relationship. In C. F. Z. Boukydis (Ed.), *Research on support for parents and infants in the postnatal periods* (pp. 25-40). Norwood, NJ: Ablex.
- Davies, P. T., & Dumenci, L. (1999). The interplay betwee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distres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38-254.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1), 50-76.
- Ferguson, R. (1991). Paying for public education: New evidence of how and why money matters,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28, 465-498.
- Halpern, R. (2000).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for low-income children and families. In J. P. Shnokoff, & S. J. Meisels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 361-386.)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kson, A. P., Brooks-Gunn, J., Huang, C., & Glassman, M. (2000). Single mothers in low-wage Jobs: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 *Child development*, 71(5), 1409-1423.
- Melhuish, T., & Belsky, J. (2008). *The impact of Sure Start Local Programmes on three year olds and their families*. London: Institute for the study of Children, Families and Social Issues, Birkbeck, University of London.
- Melhuish, E. (2009). Sure start in England and results of evaluation. 창립5주년 기념 위스타트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세계의 스타트 프로그램: 빈곤아동을 위한 혁신적 접근, 136-159.
- Miller, S. M. Birnbaum, A., & Durbin, D. (1990) Etiologic perspectives on depression in childhood. In M. Lewis, & S. Miller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 311-325). New York: Plenum.
- NESS Research team (2005). *Early impacts of sure start local programmes i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London: DfES.
- NESS Research team (2008). *The impact of sure start local programmes on three years olds and their families*. London: DfES.

- OECD (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Author.
- Parrott, S. (2008). *2008 omnibus appropriations bill cuts funding for Head Start: Bipartisan reauthorization bill enacted two weeks before omnibus was completed called for increased investment*. Washington D.C.: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 Pyatskowitz, R. (2009). Early Head Start/Head Start 평가, 프로그램 실천, 스태프/교사교육 그리고 정책방향. 창립 5주년기념 위스타트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93-221.
- Raban, B., Nolan, A., Semple, C., Dunt, D., Kelaher, M., & Feldman, P. (2006). *Statewide evaluation of best start final report*. Melbourne: University of Melbourne Press.
- Ramey, S. L., & Ramey, C. T. (2006). Early educational intervention with disadvantaged children to what effect.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 131-140.
- Roopnarine, J. L., & Johnson, J. E. (2005). *Approach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4th ed.). NJ: Pearson Education.
- Sure Start Unit (1998). *Sure start: Guide for trailblazer programmes*.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 Schweinhart, L. J., Montie, J., Xiang, Z., Barnett, W. S., Belfield, C. R., & Nores, M. (2005). *Lifetime effec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40*. Monographs of the 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14. Ypsilanti, MI: High/Scope Press.
- Youth and Families Head Start (2005). *Biennial report to congress: The status of children in Head Start programs*. Washington D.C.: Office of Head Start Youth and Families Head Start.
- Zigler, E., & Styfco, S. J. (1993). *Head start beyond national plan for extended childhood intervention*. New York: Vail-Ballou Press.
- <http://www.cbpp.org/CBPPAnnualReport-sm.pdf>.
- <http://www.beststart.vic.au>
- <http://westart.joins.com>

<http://www.acf.hhs.gov/programs>

<http://www.surestart.gov.uk>

<http://cafe.daum.net/sbseven7>

<http://www.gongneung.or.kr>

<http://nkpeople.or.kr>

<http://www.gayang7.or.kr/gayang7.jsp>

<http://www.21csw.or.kr>

<http://www.samsanwelfare.or.kr>

<http://www.han-bit.or.kr>

<http://dukyu.bucheon4u.kr/index.do>

부 록

부록 1. 부록표

부록 2. 저소득 가정 양육현황 및 요구조사 질문지

부록 3. 저소득 가정 시범사업 참여 인력 면접 조사 설문지

부록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양육현황 및 요구조사 질문지(부모용)

부록 5. 북한이탈주민 가정 양육현황 및 요구조사 질문지(아동용)

[부록 1] 부록표

〈부표 V-1-1〉 가족유형에 따른 대상 영유아 양육의 어려운 점

내용	양부모	한부모	조손	$\chi^2(df)$
영유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	22.3	27.3	41.7	
유치원/보육시설 등 육아지원기관이 부족함	5.7	1.4	-	
교육/보육비가 부담스러움	27.3	18.9	8.3	
사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움	10.9	8.4	-	
양육비가 부담스러움(사/공교육비 제외)	12.6	14.0	16.7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음	1.5	3.5	-	65.76(20)***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5.0	4.9	33.3	
주거공간의 협소 및 설비 미흡	6.9	7.7	-	
건강관리가 어려움	2.3	2.1	-	
취업으로 인해 영유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함	1.7	11.2	-	
없음	3.8	0.2	-	
계	100.0(476)	100.0(143)	100.0(12)	

***p < .001.

〈부표 V-1-2〉 소득계층에 따른 대상 영유아 양육의 어려운 점

내용	기초수급	차상위	3층 이상	$\chi^2(df)$
영유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	23.5	20.5	21.4	
유치원/보육시설 등 육아지원기관이 부족함	2.9	5.6	4.3	
교육/보육비가 부담스러움	17.6	30.0	35.7	
사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움	8.2	8.3	22.9	
양육비가 부담스러움(사/공교육비 제외)	16.5	12.5	4.3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음	2.4	3.0	-	42.75(20)**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7.6	5.3	4.3	
주거공간의 협소 및 설비 미흡	11.2	5.9	2.9	
건강관리가 어려움	3.5	2.3	2.9	
취업으로 인해 영유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함	4.1	3.3	1.4	
없음	2.4	3.3	2.9	
계	100.0(170)	100.0(303)	100(70)	

**p < .01.

〈부표 V-1-3〉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

내용	양부모	한부모	조손	$\chi^2(df)$
경제적 어려움	77.5	79.7	91.7	7.34(14)
대상아동 양육 및 교육	13.7	12.6	8.3	
환자의 간병 및 치료	1.7	0.7	-	
주택 및 주거관련 문제	4.2	6.3	-	
가족 간의 갈등이나 대화단절	0.4	0.7	-	
일상생활에서 삶의 의욕상실, 좌절감	0.2	-	-	
여가 및 문화활동 부족	1.5	-	-	
없음	0.8	-	-	
계	100.0(476)	100.0(143)	100.0(12)	

〈부표 V-1-4〉 소득계층에 따른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

내용	기초수급	차상위	3층 이상	$\chi^2(df)$
경제적 어려움	87.6	76.9	62.9	27.17(14)*
대상아동 양육 및 교육	7.1	14.5	24.3	
환자의 간병 및 치료	1.2	1.7	1.4	
주택 및 주거관련 문제	2.9	4.3	7.1	
가족 간의 갈등이나 대화단절	1.2	0.7	-	
일상생활에서 삶의 의욕상실, 좌절감	-	0.3	-	
여가 및 문화활동 부족	-	1.0	1.4	
없음	-	0.7	-	
계	100.0(170)	100.0(303)	100.0(70)	

*p < .05.

〈부표 V-1-5〉 가족유형별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내용	양부모	한부모	조손	$\chi^2(df)$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	12.6	9.1	8.3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48.7	38.5	58.3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2.8	12.6	8.3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2.3	10.5	-	
교사의 전문성 향상	5.9	4.2	-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1.1	0.7	-	46.05(22)**
영유아발달계좌	3.2	4.9	16.7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사업	4.4	3.5	-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3.4	2.8	8.3	
아동대상 바우처 서비스 확대	4.8	13.3	-	
기타	0.8	-	0	
계	100.0(476)	100.0(143)	100.0(12)	

**p < .01.

〈부표 V-1-6〉 소득계층별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내용	기초수급	차상위	3층 이상	$\chi^2(df)$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	7.1	12.5	11.4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49.4	45.2	55.7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0.6	14.2	7.6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8.2	4.3	-	
교사의 전문성 향상	4.7	5.3	8.6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1.8	1.3	-	35.12(20)*
영유아발달계좌	6.5	3.6	1.4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	14.3	5.3	2.9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2.9	3.6	-	
아동대상 바우처 서비스 확대	7.1	4.3	24.2	
기타	-	0.3	1.4	
계	100.0(476)	100.0(143)	100.0(12)	

*p < .05.

[부록 2] 저소득가정 영유아 양육현황 및 요구조사 질문지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영유아 양육현황 및 요구조사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리스트 번호
(면접원 기록, 일반기구 제외)

--	--	--

ID
(감독원 기록)

--	--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양육현황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정부부처 아동지원사업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영유아 가정의 양육현황을 알아보고,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다른 응답자의 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보다 나은 아동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하신 자료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며,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7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 책임자 : 장명림 연구위원
- 조사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5-1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최종인 연구원 02)3488-2739

■ 일반가구 확인 사항

가장 어린 대상아동 연령	가구원 수	월 평균 가계 소득

※ 가구원 수와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진행

※ '가장 어린 대상아동 연령'이 만5세 이하(미취학 아동)만 조사대상에 포함

■ 이후부터의 모든 문항은 귀택에서 가장 어린 대상아동(대상아동)을 기준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1. 가구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코드	2.가구원 이름	3.대상아동과의 관계	4.성별 ①남자 ②여자	5.출생년/월 주민등록 기준	6.교육정도 ①미취학 ②초등학교 재학중 ③초등학교 졸업 ④중학교 재학중 ⑤중학교 졸업 ⑥고등학교 졸업 ⑦대학 졸업(3년제 이하) ⑧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⑨대학원 이상 졸업 ⑩무학	7.장애관련		8.질병 유무 ①있음 ②없음	9.혼인 상태 ①미혼 ②유배우 ③사별 ④별거 ⑤이혼 ⑥기타	10.음주정도 (일주일 기준) ①전혀 안 마심 ②주1회 정도 ③주2~3회 정도 ④주4회 이상 ⑤거의 매일	11.흡연정도 (하루 기준) ①전혀 안 피움 ②10개피 이하 ③11~20개피(한 갑) ④한 갑 초과
						7.1.장애종류	7.2.장애등급 ①1등급 ②2등급 ③3등급 ④4등급 ⑤5등급 ⑥6등급 ⑦장애없음				
01				년 월							
02				년 월							
03				년 월							
04				년 월							
05				년 월							
06				년 월							
07				년 월							
08				년 월							
09				년 월							
10				년 월							

II. 대상아동의 주양육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 아래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항목	주양육자(남)	주양육자(여)	보기	
1. 대상아동과의 관계			① 부 ③ (외)조부 ⑤ (외)삼촌 ⑦ 비혈연	② 모 ④ (외)조모 ⑥ 이모, 고모 ⑧ 기타
2. 대상아동과의 동거여부			① 동거→ 문4로 갈 것	② 비동거
3. 비동거 이유			① 이혼 및 별거 ③ 직장 때문에 ⑤ 입대(병역의무) ⑦ 기타()	② 사망 ④ 건강상의 이유로 ⑥ 가출
4. 취업 여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7로 갈 것
5. 종사상 지위			① 정규직/상용직(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비정규직 중 임시직(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③ 비정규직 중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④ 기타()	
6. 근무형태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③ 재택근무 ⑤ 무직(전업주부 포함) ⑦ 기타()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④ 휴직 중 ⑥ 모름 ⑧ 비해당(부모부재, 미취업 등)

7. (주양육자(여)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input type="checkbox"/> ②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
| <input type="checkbox"/> ③ 대상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곳(사람)이 없어서 | <input type="checkbox"/> ④ 대상아동양육과 가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
| <input type="checkbox"/> ⑤ 주위의 반대로 | <input type="checkbox"/> ⑥ 건강상 이유로 |
| <input type="checkbox"/> ⑦ 일을 잘 해낼 자신이 없어서 | <input type="checkbox"/> ⑧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많지 않아서 |
| <input type="checkbox"/> ⑨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
| <input type="checkbox"/> ㉞ 비해당(현재 취업중) | |

8. (주양육자(여)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취업으로 인해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① 대상아동을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듦
- ② 대상아동을 믿고 맡길 곳(사람)이 마땅치 않음
- ③ 근로시간과 대상아동을 맡기는 시설의 시간이 맞지 않음
- ④ 특근이나 야근 등 과도한 직장일로 인하여 대상아동과 시간을 보낼 수 없음
- ⑤ 긴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
- ⑥ 어려움이 없음
- ⑦ 기타()
- ㉞ 비해당(현재 비취업, 전업주부)

9. 현재 귀하의 가족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경제적 어려움 | <input type="checkbox"/> ② 대상아동양육 및 교육 |
| <input type="checkbox"/> ③ 환자의 간병 및 치료 | <input type="checkbox"/> ④ 주택 및 주거관련 문제 |
| <input type="checkbox"/> ⑤ 가족 간의 갈등이나 대화단절 | <input type="checkbox"/> ⑥ 일상생활에서 삶의 의욕상실, 좌절감 |
| <input type="checkbox"/> ⑦ 여가 및 문화활동 부족 | <input type="checkbox"/> ⑧ 없음 |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

※ 대상아동과 함께 하는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25. 대상아동과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주1~2회	주3회이상	거의안함
1) 대상아동에게 책을 읽어준다	①	②	③
2) 대상아동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	①	②	③
3) 대상아동과 만들거나 그리기 활동을 함께 한다	①	②	③
4) 대상아동에게 글자, 낱말, 혹은 수를 가르친다	①	②	③
5) 대상아동과 게임을 하거나 놀잇감(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논다	①	②	③
6) 대상아동과 놀이터에 가거나 함께 신체운동을 한다	①	②	③
7) 대상아동과 우체국, 은행 또는 상점 등을 같이 간다	①	②	③
8) 대상아동과 요리, 청소, 식사준비 등 집안일을 함께 한다	①	②	③

26. 최근 6개월간 대상아동이 가족과 함께 다음의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예	아니오
1) 도서관에 간 적이 있다	①	②
2) 인형극, 뮤지컬 등을 보러 간 적이 있다.	①	②
3) 미술관, 박물관, 고궁 등에 가본 적이 있다	①	②
4)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간 적이 있다.	①	②
5) 수족관에 간 적이 있다	①	②

※ 대상아동에 대한 기대 및 신념에 관한 질문입니다.

27. 귀하는 현재 대상아동을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못하다 ② 별로 그렇지 못하다
 ③ 약간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8. 앞으로 대상아동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못하다 ② 별로 그렇지 못하다
 ③ 약간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9. 귀하는 대상아동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⑥ 기타()

III. 대상아동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대상아동의 발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매우 좋지 않음	중지 않은 편임	보통	중 편 임임	매우 좋음
1. 대상아동의 신체발달(예: 키, 몸무게, 운동능력 등) 수준은 또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대상아동의 인지발달(예: 지능 등) 수준은 또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대상아동의 언어발달(예: 읽기, 말하기 등) 수준은 또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대상아동의 사회성발달(예: 친구 사귀기 등) 수준은 또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대상아동의 정서발달(예: 감정표현, 감정조절 등) 수준은 또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대상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신체발달 ② 언어발달 ③ 인지발달
 ④ 사회성발달 ⑤ 정서발달 ⑥ 없음
 ⑦ 기타 ()

**※ 영아 대상아동의 건강·영양·식생활·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0~36개월 미만 대상아동의 부모님만 해당합니다.)**

7. 대상아동의 건강상태는 지난 1년간 어떠했습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좋다 ④ 매우 좋다

8. 지난 1년 간 대상 대상아동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영아 대상아동의 건강관리·영양·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9. 대상아동의 치아관리를 위해 치과 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②
10. 대상아동에게 알레르기 질환(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이 있습니까?	①	②
11. 지난 1년간 예방접종을 대체로 제 때에 하셨습니까?	①	②
12. 대상아동에게 모유수유를 하셨습니까?(출생 후 최소 3개월까지 수유한 경우)	①	②
13. 대상아동이 끼니 때 먹기를 싫어하거나 내던지는 등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을 자주 합니까?	①	②

※ 영아 대상아동의 안전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대상아동에게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까?(단순 타박상 제외)

① 있다 → 14-1) ~ 14-5)는 중복응답 가능

② 없다

14-1. 장소: ① 집 ② 동네 ③ 교육·보육기관 ④ 도로·차도 ⑤ 기타()

14-2. 형태: ① 교통사고 ② 화상 ③ 질식 및 이물질 흡입
 ④ 타박 또는 상해 ⑤ 기타()

14-3. 사고 후 관리: ① 집에서 처리함 ② 병원 ③ 보건소 ④ 약국 ⑤ 기타

14-4. 사고 직후 전문적인 의사의 조치나 치료를 받았습니까?
 ① 예 → 건강질문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 8-5번으로 가세요.

14-5. (사고 직후 전문적인 의사의 조치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연락할 방법을 잘 몰라서 ② 비용이 비싸서 ③ 보험처리가 안돼서
 ④ 치료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⑤ 대수롭지 않은 사고인 것 같아서
 ⑥ 기타()

※ 유아 대상아동의 건강·영양·식생활·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36개월~미취학아동의 부모님만 해당합니다.)

※ 유아 대상아동의 건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5. 대상아동의 건강상태는 지난 1년간 어떠했습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좋다 ④ 매우 좋다

16. 지난 1년간 대상아동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유아 대상아동의 건강관리·영양·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17. 대상아동의 치아관리를 위해 치과 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②
18. 대상아동에게 알레르기 질환(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이 있습니까?	①	②
19. 지난 1년간 예방접종을 대체로 제 때에 하셨습니까?	①	②
20. 대상아동이 자랄 때 모유수유를 했습니까?(출생 후 최소 3개월까지 수유한 경우)	①	②
21. 대상아동은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식품 등을 주2회 이상 먹습니까?	①	②

※ 유아 대상아동의 안전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2. 대상아동에게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까? (단순 타박상 제외)

① 있다 → 22-1) ~ 22-5)는 중복응답 가능

② 없다

22-1. 장소: ① 집 ② 동네 ③ 교육·보육기관 ④ 도로·차도 ⑤ 기타()

22-2. 형태: ① 교통사고 ② 화상 ③ 질식 및 이물질 흡입
 ④ 타박 또는 상해 ⑤ 기타()

22-3. 사고 후 관리: ① 집에서 처리함 ② 병원 ③ 보건소 ④ 약국 ⑤ 기타

22-4. 사고 직후 전문적인 의사의 조치나 치료를 받았습니까?
 ① 예 → IV 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 22-5번으로 가세요.

22-5. (사고 직후 전문적인 의사의 조치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연락할 방법을 잘 몰라서 ② 비용이 비싸서 ③ 보험처리가 안돼서
 ④ 치료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⑤ 대수롭지 않은 사고인 것 같아서
 ⑥ 기타()

IV.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1. 이 아동은 어떠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국·공립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부모협동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민간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가정보육시설(놀이방)	<input type="checkbox"/> 직장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법인·단체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국공립유치원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input type="checkbox"/> 종교재단 교육·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선교원	<input type="checkbox"/> 포교원	
<input type="checkbox"/> 학원 반일반 이상 (유아교육·보육기관을 대신하여 반나절이상 이 용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영어학원(유치원)	<input type="checkbox"/> 미술학원	<input type="checkbox"/> 놀이학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타	()		

2. 평상시에 이 아동이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이용시간은 실제 이용시간입니다.)

예: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인 경우, 07시 30분 ~ 19시 30분

()시 ()분 ~ ()시 ()분

3.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① 비용이 저렴해서 | ② 집에서 가까워서 |
| ③ 정규 교육내용이 좋아서 | ④ 형제자매가 같이 다니고 있어서 |
| ⑤ 기관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대상아동의 적응 때문) | ⑥ 운영시간이 적절해서 |
| ⑦ 원장, 교사가 좋아서 | ⑧ 원하는 특기교육을 해줘서 |
| ⑨ 교육·보육기관 차량 이용이 편해서 | ⑩ 시설환경이 좋아서 |
| ⑪ 주변 평판이 좋아서 | ⑫ 종교적인 이유로 |
| ⑬ 종일반을 운영해서 | ⑭ 기타() |

4. 귀하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 본적이 있는 경우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항목	인지여부		수혜 여부		가정경제에 도움을 준 정도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				
	예	아요	받음	받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거의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두 영유아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종일반비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농어업인 대상아동 교육·보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에서 교육·보육기관에 실제 납부하는 월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납부 내용		납부 금액
1)	수업료	원
2)	교재교구비(재료비)	원
3)	급간식비	원
4)	차량운영비	원
5)	특기적성비(특별활동비)	원
6)	현장학습비	원
7)	종일반비	원
8)	기타()	원
9)	합계	총 원

6. 귀댁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대상 대상아동을 위해서 매월 교육 또는 보육 기관에 내는 비용이 부담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되는 편이다 ③ 적당하다
- ④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⑥ 비용부담안함

7. 귀하는 대상아동이 다니는 기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②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8. 대상아동이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환경이 바뀌면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 ②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③ 원하는 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워서(기관 운영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④ 등하원이 용이하지 않아서
- ⑤ 기관의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서
- ⑥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 ⑦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 ⑧ 주변에 믿고 맡길만한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 ⑨ 원하는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 ⑩ 교육·보육기관에 보낼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⑪ 기타()
- ⑫ 비해당

8. (아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면) 현재 지원 받고 계신 아동 지원 서비스가 대상아동에게 도움이 된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 정도를 √표 해 주십시오.

항목	도움 정도					만족도				
	전혀 도움 안됨	거의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프로그램 진행 방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프로그램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교사와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교육 환경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 받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응답 후 문10으로 갈 것

9. (아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②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서
- ③ 가정방문의 부담감 때문에
- ④ 서비스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⑤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가 불편해서
- ⑥ 서비스 관련된 정보를 잘 몰라서
- ⑦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 ⑧ 주위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서(또는 신경이 쓰여서)
- ⑨ 사업 대상자(지역)가 아님
- ⑩ 기타()

10.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교육·보육기관의 확충
- ②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 ③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 ④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 ⑤ 교사의 전문성 향상
- ⑥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 ⑦ 영유아발달계좌: 미래 대상아동교육을 대비하여 국가와 가정
이 함께 적금을 불입하는 정책
- ⑧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희망유아교육사업, 드림스타트 등)
- ⑨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 ⑩ 아동대상 바우처 서비스의 확대
- ⑪ 기타()

※ 주양육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1.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난 한 달 동안 불안하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한 달 동안 무기력하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한 달 동안 안절부절 못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한 달 동안 매사에 힘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한 달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의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유배우자만 해당).

문항	매우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1) 귀하는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의 배우자가 아이들의 주양육자(아버지 혹은 어머니)로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 돌보는 일 중에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에게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수면시간이 불규칙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가 생긴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집을 너무 어지럽힌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를 돌보느라 집안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이를 챙기는 일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의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외출했을 때 아이 다루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요즘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여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8)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2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1) 아이가 태어난 후 집안일이 짜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2)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양육비용, 교육비용이 부담된다	①	②	③	④	⑤
24) 아이 수가 많아서 양육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평소 양육행동과 가장 비슷한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이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계속해서 대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이가 정해진 곳에서 식사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스스로 해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집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이라도 밖에서는 아이와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이의 기분이 나쁠 때 이유를 물어 보고 기분을 풀어 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이가 하는 일이 다소 서툴더라도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가 버릇없이 굴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다른 일을 핑계로 혼자 놀게 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에게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 두고 이를 반드시 지키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야단치다가도 아이가 울면 얼른 그만두고 달래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화를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는 그 고집을 꺾고 결국 내 말을 듣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아이의 나쁜 점을 지적할 때보다 좋은 점을 칭찬할 때가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간혹 아이를 때리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아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면 결국에는 사 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아이가 놀고 난 후에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에게 한번 안 된다고 말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아이가 실수를 해도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아이가 정해진 취침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아이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이 스스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도록 격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아이에게 성을 내거나 큰 소리를 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만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말로 위협하는 편이다 (예: 너 자꾸 이러면 하고 싶은 것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아동의 주양육자 입장에서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소유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자가 →문3으로 갈 것 | <input type="checkbox"/> ② 전세 | <input type="checkbox"/>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 <input type="checkbox"/>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input type="checkbox"/> ⑤ 영구 임대 아파트 | <input type="checkbox"/> ⑥ 가족 및 친척의 소유(무상) |
| <input type="checkbox"/> ⑦ 가족 및 친척의 소유(유상) |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 |

2. (자가 주택인 경우를 제외) 주양육자(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따로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 귀댁의 월평균 근로소득(세금 공제 전)은 얼마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50 만원미만 | <input type="checkbox"/> ② 50 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③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④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⑤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⑥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⑦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⑧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⑨ 400만원 이상 | |

4. 귀댁의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50 만원미만 | <input type="checkbox"/> ② 50 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③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④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⑤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⑥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⑦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⑧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⑨ 400만원 이상 | |

5. 귀댁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식비
- ② 의료비
- ③ 대상아동의 보육비 및 사·공교육비
- ④ 대상아동 양육비(교육비 제외)
- ⑤ 주거비(전세금, 월세 등)
- ⑥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주택 구입 대출금 상환 포함)
- ⑦ 각종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관리비 등)
- ⑧ 기타()

6. 귀하의 가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층 | <input type="checkbox"/> ② 차상위층 |
| <input type="checkbox"/> ③ 3층 | <input type="checkbox"/> ④ 4층 |
| <input type="checkbox"/> ⑤ 5층 | <input type="checkbox"/> ⑥ 6층이상 |
| <input type="checkbox"/> ⑦ 모름 | |

7. 현재 응답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단독주택 | <input type="checkbox"/> ② 아파트 | <input type="checkbox"/> ③ 연립주택 |
| <input type="checkbox"/> ④ 다세대 주택 및 빌라 | <input type="checkbox"/> ⑤ 영업용 건물 내 주택 |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무엇:)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3] 저소득 가정 시범사업 참여 전문인력 질문지

취학전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면접 실시일자		면접장소	
면접시간		면접원	
특이사항			

I. 일반적 특성

1.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	<input type="checkbox"/> 2) 여	2.연 령	만	세
3. 근무지역	<input type="checkbox"/> 1) 서울	<input type="checkbox"/> 2) 경기도	<input type="checkbox"/> 3) 인천	4) <input type="checkbox"/> 기타()	
4.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1) 고등학교 졸	<input type="checkbox"/> 2) 전문대학(2년제) 졸	<input type="checkbox"/> 3) 전문대학(3년제) 졸		
	<input type="checkbox"/> 4) 대학교 졸	<input type="checkbox"/> 5) 대학원 졸	<input type="checkbox"/> 6) 기타()		
5. 전공	<input type="checkbox"/> 1) 유아교육학	<input type="checkbox"/> 2) 보육학	<input type="checkbox"/> 3) 사회복지학		
	<input type="checkbox"/> 4) 아동학	<input type="checkbox"/> 5) 가정(관리)학	<input type="checkbox"/> 6) 기타()		
6. 소지자격	<input type="checkbox"/> 1) 보육교사 1급	<input type="checkbox"/> 2) 보육교사 2급	<input type="checkbox"/> 3) 보육교사 3급		
	<input type="checkbox"/> 4) 유치원 1급	<input type="checkbox"/> 5) 유치원 2급	<input type="checkbox"/> 6) 사회복지사 1급		
	<input type="checkbox"/> 7) 사회복지사 2급	<input type="checkbox"/> 8) 사회복지사 3급	<input type="checkbox"/> 9) 기타()		
7. 사업 종사경력	<input type="checkbox"/> 1)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2) 6개월~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 1년~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4) 2년~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6) 기타()		
8. 근무시간	1일 평균 _____시간	일주일당 평균 근무시간	평균 _____시간		

9. 지도하고 있는 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학령기 아동 포함)

총 _____명이며, 이중 미취학 아동 수는 _____명 이다.

10. 현재 귀하가 지도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

11. 귀하께서는 이상적인 담당 아동의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

12. 귀하는 현재 아동을 어디에서 지도하고 계십니까?

13. 귀하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아동을 어떻게 구성하여 지도하고 계십니까?

14 귀하는 현재 가정방문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담당하고 있는 가정수와 주당 방문회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15. 귀하께서 지도하는 아동의 1인당 주당 횟수와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 ()회 1회 담당시간 () 분

16. 귀하가 아동을 지도하기 위해 소요되는 주당 총 시간은 어떠합니까?

1) 아동지도시간	총 () 시간
2) 방문을 위한 이동시간	총 () 시간
3) 교육활동 및 준비 및 계획시간	총 () 시간
4) 기타 부모상담 시간	총 () 시간
5) 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	총 () 시간
6) 기타 업무(구체적으로:)	총 () 시간

II. 프로그램 관련 사항

1. 귀하께서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귀하가 속한 사업에서 제공된 프로그램 매뉴얼이 있습니까?

1-1. 있다면 제공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1-2. 귀하께서 제공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귀하가 속한 사업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3. 귀하는 아동대상의 교육적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공받게 된다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길 희망하십니까?

4. 귀하가 대상아동에게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5. 귀하는 아동과 함께 그 부모들도 지원하십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5-1. 부모를 지원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II. 사업수행 관련 사항

1. 최근 1년간 실시한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2. 귀하께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귀하가 현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4. 귀하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6. 귀하는 아동의 발달과 부모를 성공적으로 돕기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V. 연수교육

1. 귀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1) 최근 1년간 연수교육을 받은 경험의 여부와 (2) 실제 직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 1-1. 연수를 받으셨다면 구체적으로 받은 연수 명은 무엇입니까?
2. 귀하는 앞으로 받고 싶은 연수내용은 무엇입니까?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북한이탈주민 가정 양육현황 및 요구조사(부모용)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ID

--	--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센터에서는 2009년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양육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의 양육실태와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자료 및 개인정보는 연구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7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 장 조 복 희

※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 책임자 : 장명림 연구위원
- 조사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5-1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최종인 선임연구원 02)3488-2739

■ 조사대상자 구성

문1)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수 : _____명

문2) 조사대상자 명단(아동 성명은 '문1)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에 대해서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응답자(보호자) 성명 (부모용 설문)	
<input type="checkbox"/> 첫 번째 아동 성명 (아동용 설문)	
<input type="checkbox"/> 두 번째 아동 성명 (아동용 설문)	
<input type="checkbox"/> 세 번째 아동 성명 (아동용 설문)	
<input type="checkbox"/> 네 번째 아동 성명 (아동용 설문)	
<input type="checkbox"/> 다섯 번째 아동 성명 (아동용 설문)	

※ '문1)에 응답한 아동 수'와 '문2)에 응답한 아동 성명 수'가 같아야 합니다.

☞ 귀하께서는 '부모용' 설문지 1부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 수만큼의 '아동용'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I. 육아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 남한과 북한의 양육방식의 차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북한에서 대부분의 부모의 아동양육방식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엄격한 양육방식(엄격한 통제와 설정해놓은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 ② 허용적 양육방식(애정표현을 자주하고 될 수 있으면 아동의 요구를 들어주고 통제는 거의 하지 않는다)
 - ③ 권위적 양육방식(아동과 인격적 대화를 하며 아동이 결정한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게 한다)
 - ④ 무관심한 양육방식(아동의 모든 문제는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아동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한다)
2. 남한에서 대부분의 부모의 아동양육방식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엄격한 양육방식(엄격한 통제와 설정해놓은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 ② 허용적 양육방식(애정표현을 자주하고 될 수 있으면 아동의 요구를 들어주고 통제는 거의 하지 않는다)
 - ③ 권위적 양육방식(아동과 인격적 대화를 하며 아동이 결정한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게 한다)
 - ④ 무관심한 양육방식(아동의 모든 문제는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아동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한다)
3. 자신의 아동양육방식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엄격한 양육방식(엄격한 통제와 설정해놓은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 ② 허용적 양육방식(애정표현을 자주하고 될 수 있으면 아동의 요구를 들어주고 통제는 거의 하지 않는다)
 - ③ 권위적 양육방식(아동과 인격적 대화를 하며 아동이 결정한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게 한다)
 - ④ 무관심한 양육방식(아동의 모든 문제는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아동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한다)

※ 남한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하나원에서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부모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p>1-1. 하나원에서의 부모교육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① 남한과 북한 간의 양육방식의 차이 <input type="checkbox"/> ② 가족 내 갈등 해결 방법 <input type="checkbox"/> ③ 아동의 진학 및 진로에 관한 정보 제공(학교정보) <input type="checkbox"/> ④ 아동의 학습지원 프로그램(학습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input type="checkbox"/> ⑤ 아동의 건강 및 영양 관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⑥ 아동의 친구관계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input type="checkbox"/> ⑦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 제공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p>1-2. 하나원에서의 부모교육이 아동양육에 도움이 되셨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④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input type="checkbox"/> 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	---

2. 현재 귀하의 가족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① 경제적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환자의 간병 및 치료 <input type="checkbox"/> ⑤ 가족 간의 갈등이나 대화단절 <input type="checkbox"/> ⑦ 여가 및 문화활동 부족 <input type="checkbox"/> ⑨ 없음 | <p>1순위 , 2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② 아동양육 및 교육 <input type="checkbox"/> ④ 주택 및 주거관련 문제 <input type="checkbox"/> ⑥ 일상생활에서 삶의 의욕상실, 좌절감 <input type="checkbox"/> ⑧ 남한이웃과의 불화, 마찰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
|--|--|

9. 앞으로 양육지원 서비스 중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는 무엇인지 √표 해 주십시오(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

- ① 양육비 보조
- ② 맞춤형 유아교육기관(24시간 보육, 야간보육, 주말보육 등)
- ③ 교육지원(언어·인지·사회·정서발달, 교사 가정 방문)
- ④ 부모교육
- ⑤ 부모 및 아동상담(성격, 정서문제 등)
- ⑥ 아동 및 가족 대상 건강 의료 지원 서비스
- ⑦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문화유산답사, 공연관람, 견학 캠프 등)
- ⑧ 가족 지원 서비스(취업정보제공 및 자립지원, 아동양육지원 등)
- ⑨ 없음
-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I. 부모 및 가구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어머니는 아동의 어머니이며, 아버지는 현재 배우자를 기준으로 응답하십시오.)

※ 귀하의 개인적인 배경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거나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1. 현재 아동거주지	_____ 시(도) _____ 구(군) (아동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기준)		
	어머니	아버지	
2. 생년월일(연령)	_____ 년 _____ 월 (연령: _____)	_____ 년 _____ 월 (연령: _____)	
3. 탈북시기(최종)	_____ 년 _____ 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_____ 년 _____ 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4. 입국시기	_____ 년 _____ 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_____ 년 _____ 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5. 제3국 체류 경험 (복수응답)	<input type="checkbox"/> ① 태국 <input type="checkbox"/> ② 몽골 <input type="checkbox"/> ③ 중국 <input type="checkbox"/> ④ 캄보디아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① 태국 <input type="checkbox"/> ② 몽골 <input type="checkbox"/> ③ 중국 <input type="checkbox"/> ④ 캄보디아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 해당없음	
6. 체류기간(총합)	_____ 년 _____ 개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_____ 년 _____ 개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7. 최종학력	7-1. 북한	<input type="checkbox"/> ① 소학교(인민학교) 중퇴 또는 졸업 <input type="checkbox"/> ② 중학교(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input type="checkbox"/> ③ 전문학교 또는 단과대학 중퇴 또는 졸업 <input type="checkbox"/> ④ 대학 중퇴 또는 졸업 <input type="checkbox"/> ⑤ 박사원 중퇴 또는 졸업 <input type="checkbox"/> ⓧ 해당없음	어머니
	7-2. 남한	<input type="checkbox"/> ① 중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검정고시) <input type="checkbox"/> ③ 대학 재학 또는 졸업 <input type="checkbox"/> ④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input type="checkbox"/> ⓧ 해당없음	아버지
8. 취업상황	8-1. 취업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직장 있음 (→문 8-2, 8-3, 8-4) <input type="checkbox"/> ②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구하고 있음(직업학교) →문 9 <input type="checkbox"/> ③ 직장이 없지만 직장을 구하고 있지 않음 →문 9 <input type="checkbox"/> ④ 전업주부 또는 학생 →문 9	
	8-2. 취업종류	<input type="checkbox"/> ① 정규직, 상근직 <input type="checkbox"/> ② 비정규직 중 임시직 <input type="checkbox"/> ③ 비정규직 중 일용직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_____)	
	8-3. 근로형태	<input type="checkbox"/>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input type="checkbox"/>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input type="checkbox"/> ③ 재택근무 <input type="checkbox"/> ④ 휴직 중 <input type="checkbox"/> ⑤ 무직 <input type="checkbox"/> ⑥ 모름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 해당없음(부모부재)	
	8-4. 월평균 근로소득(세전)	<input type="checkbox"/> ① 5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51~1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③ 101~15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④ 151~2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⑤ 201~25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⑥ 251~3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⑦ 301~35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⑧ 351~4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⑨ 401만원 이상	

9. 북한의 양육현황	9-1. 북한에서 본인 출생장소	<input type="checkbox"/> ① 집 <input type="checkbox"/> ③ 조산원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② 병원 <input type="checkbox"/> ④ 이웃집 <input type="checkbox"/> ⑧ 해당없음			
	9-2. 북한에서 본인의 주양육자	<input type="checkbox"/> ① 부 <input type="checkbox"/> ③ 친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⑤ 부모의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② 모 <input type="checkbox"/> ④ 외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⑥ 아동의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⑧ 비혈연 <input type="checkbox"/> ⑩ 해당없음			
	9-3. 북한에서 탁아소경험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다닌 적이 있다. → 문9-3-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9-3-1. 몇 살 때부터 다녔습니까?(최초이용시기) _____세</div> <input type="checkbox"/> ② 다닌 적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⑩ 해당없음				
	9-4. 북한에서 유치원경험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다닌 적이 있다. → 문9-4-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9-4-1. 몇 살 때부터 다녔습니까?(최초이용시기) _____세</div> <input type="checkbox"/> ② 다닌 적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⑩ 해당없음		어머니	아버지	
10. 북한에서의 마지막 직업	<input type="checkbox"/> ① 단순노무 <input type="checkbox"/> ④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⑦ 학생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② 기술직 <input type="checkbox"/> ⑤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⑧ 실직(무직) <input type="checkbox"/> ⑩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판매/서비스 <input type="checkbox"/> ⑥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⑨ 주부	
11. 남한에서의 현재 직업	<input type="checkbox"/> ① 단순노무 <input type="checkbox"/> ④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⑦ 학생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② 기술직 <input type="checkbox"/> ⑤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⑧ 실직(무직) <input type="checkbox"/> ⑩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판매/서비스 <input type="checkbox"/> ⑥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⑨ 주부	
12. 장애 및 질병	신체적 불구나 특별한 질병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13. 현재주택 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① 자가 <input type="checkbox"/> ③ 임대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⑤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input type="checkbox"/> ⑦ 가족 및 친척의 소유(유상)			<input type="checkbox"/> ② 전세 <input type="checkbox"/> ④ 보증금 있는 월세 <input type="checkbox"/> ⑥ 가족 및 친척의 소유(무상)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		
14.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받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받고 있지 않다.					
15. 현재 결혼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미혼(동거) <input type="checkbox"/> ② 남한에서 처음 결혼 <input type="checkbox"/> ③ 북한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현재 살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④ 북한에 배우자 있으나 남한에서 재혼 <input type="checkbox"/> ⑤ 북한에 배우자 있고, 현재 혼자 살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⑥ 제3국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⑦ 제3국에 배우자 있으나 남한에서 재혼 <input type="checkbox"/> ⑧ 제3국에 배우자 있고, 현재 혼자 살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⑨ 사별 <input type="checkbox"/> ⑩ 이혼 / 별거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_____					
16. 동거가족	현재 해당 아동과 함께 사는 가족에 모두 √표 하시고, 가족 수를 적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① 응답자 본인 <input type="checkbox"/> ②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 취학전 영유아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④ 초등학교 영유아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⑤ 중학생 이상 영유아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⑥ 시부모 및 친정부모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_____명			본인을 포함한 총 가족 수	_____명	

2. 아동을 주로 돌봐주는 사람(주양육자)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 ① 부 ② 모 ③ 아동의 형제자매 ④ 부모의 형제자매
- ⑤ 친조부모 ⑥ 외조부모 ⑦ 기타 친인척 ⑧ 비혈연(친인척이 아닌 아는 사람)
- ⑨ 없음(혼자 지냄) ⑩ 기타()

3. 하루일과 중 주양육자나 다른 성인이 없이 아동이 혼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 ① 거의 없다 ② 1시간 정도
- ③ 2시간 정도 ④ 3시간 정도
- ⑤ 4시간 이상 ⑥ 기타()

4. 아동을 양육하면서 육아 정보를 어디(누구)에서 주로 제공 받으십니까?

- ① 집안어른 ② 주양육자의 형제자매
- ③ 주양육자의 친구·이웃·동료 ④ 아동이 다니는 교육·보육 기관
- ⑤ 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 ⑥ 육아 관련 서적(잡지포함)
- ⑦ 공공기관(동사무소·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⑧ TV, 인터넷, 미디어매체
- ⑨ 종교단체(교회, 성당 등) ⑩ 없음
- ⑪ 기타()

5. 어디(누구)로부터 받은 정보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집안어른 ② 주양육자의 형제자매
- ③ 주양육자의 친구·이웃·동료 ④ 아동이 다니는 교육·보육 기관
- ⑤ 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 ⑥ 육아관련서적(잡지포함)
- ⑦ 공공기관(동사무소,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⑧ TV, 인터넷, 미디어매체
- ⑨ 종교단체(교회, 성당 등) ⑩ 없음
- ⑪ 기타()

6. 아동을 양육하면서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시부모 ② 친정부모 ③ 남편 형제자매 ④ 부인 형제자매
- ⑤ 이웃, 친구, 동료 ⑥ 정착도우미 ⑦ 신변 담당 형사 ⑧ 종교단체(교회, 성당 등) 지인
- ⑨ 사회복지사 ⑩ 기타() ⑪ 없음

7. 아동이 하루(평일 기준)에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하는지 기록하여 주십시오.
(모든 항목을 응답할 필요는 없으며, 주로 많이 하는 활동 중심으로 작성하십시오.)

활동 내용	활동 시간	
1) 혼자 집안에서 놀기	시간	분
2) 친구와 놀기	시간	분
3) 주양육자와 놀기	시간	분
4) 혼자 밖에서 놀거나 돌아다니기	시간	분
5) 교육·보육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	시간	분
6) 학원, 복지관 등 기관에서의 교육	시간	분
7)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	분
8) TV, 비디오 시청	시간	분
9)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	시간	분
10) 성인과의 외출	시간	분
11) 책 읽기	시간	분
12) 휴식 및 낮잠자기	시간	분
13)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있기	시간	분
14) 기타()	시간	분

8. 어머니는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 → 문 9
- ② 취업 중이다 → 문 10

9. (어머니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답하십시오.)취업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②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 ③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이 없어서
- ④ 아동양육과 집안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 ⑤ 주위의 반대로
- ⑥ 근무시간이 아동양육 시간과 맞지 않아서
- ⑦ (북한이탈주민이라는)사회적 편견 때문에
- ⑧ 건강상 이유로
- ⑨ 아이를 맡길 만큼 수입(임금)이 많지 않아서
- ⑩ 학습지도에 신경을 써주기 위해서
- ⑪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 ⑫ 기타()

10.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에만 답하십시오.) 취업을 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아동을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듦
- ② 아동을 믿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이 마땅치 않음
- ③ 근로시간(노동시간)과 아동을 맡기는 기관의 시간이 맞지 않음
- ④ 특근이나 야근 등 과도한 직장일로 인하여 아동과 시간을 보낼 수 없음
- ⑤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
- ⑥ 어려움 없음
- ⑦ 기타()

※ 아동의 생활 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아동에게 일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날은 며칠입니까?

- ①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한다
- ② 일주일에 3일 이상 규칙적으로 한다
- ③ 일주일에 2일 이상 규칙적으로 한다
- ④ 일주일에 1일 이상 규칙적으로 한다
- ⑤ 일주일 내내 불규칙하게 한다
- ⑥ 기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집안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아동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아동이 자신의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손씻기, 목욕, 양치질 등을 잘 지도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아동이 기본생활습관(식사예절, 인사예절, 일상생활 질서)을 익히도록 잘 지도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6. 라면, 인스턴트 음식 등 아동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7. 아동이 볼 수 있는 TV 또는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8. 아동이 정해진 취침시간을 지키도록 잘 지도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II.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이 영역은 '영유아아동'을 둔 부모님(또는 주양육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님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1. 아동은 어떠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국·공립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부모협동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민간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가정보육시설(놀이방)	<input type="checkbox"/> 직장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법인·단체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국·공립유치원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input type="checkbox"/> 종교재단 교육·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선교원	<input type="checkbox"/> 포교원	
<input type="checkbox"/> 학원 반일반 이상 (유아교육·보육기관을 대신하여 만나절이상 이 용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영어학원(유치원)	<input type="checkbox"/> 미술학원	<input type="checkbox"/> 놀이학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타	()		

2.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집과의 거리 | <input type="checkbox"/> ② 교육·보육 프로그램 | <input type="checkbox"/> ③ 실내·외 환경(교재교구 포함) |
| <input type="checkbox"/> ④ 원장·시설장 | <input type="checkbox"/> ⑤ 교사 | <input type="checkbox"/> ⑥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
| <input type="checkbox"/> ⑦ 급·간식 | <input type="checkbox"/> ⑧ 운영시간 | <input type="checkbox"/> ⑨ 주변입지 |
| <input type="checkbox"/> ⑩ 차량운행 여부 | <input type="checkbox"/> ⑪ 평가(인증) 통과 여부 | <input type="checkbox"/> ⑫ 주변의 평판 |
| <input type="checkbox"/> ⑬ 건강·영양·안전관리 등 | <input type="checkbox"/> ⑭ 사회복지사의 추천 | <input type="checkbox"/> ⑮ 기타() |

3. 아동을 이 기관을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아동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 주고 싶어서 | <input type="checkbox"/> ② (부모)취업으로 인한 아동양육을 위해서 |
| <input type="checkbox"/> ③ 아동이 초등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학습적으로) | <input type="checkbox"/> ④ 집에서의 아동양육이 힘들어서 |
| <input type="checkbox"/> ⑤ 기관이용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서 | <input type="checkbox"/> ⑥ 다른 기관에 비해 비용을 절감해 주어서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

4. 평상시에 아동이 이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이용시간은 실제 이용시간입니다. 예: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인 경우, 07시 30분 ~ 19시 30분)
 ()시 ()분 ~ ()시 ()분

5. 아동이 기관을 다녀온 후 주로 생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집 | <input type="checkbox"/> ② 친척집 | <input type="checkbox"/> ③ 이웃집 또는 아동 친구의 집 |
| <input type="checkbox"/> ④ 동네골목·놀이터 | <input type="checkbox"/> ⑤ 복지관, 공부방 등 사회복지기관 | <input type="checkbox"/> ⑥ 학원 등 사교육기관 |
| <input type="checkbox"/> ⑦ 잘 모르겠음 |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 |

6. 아동이 정부로부터 교육·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있다 →
- ② 아니다
- ③ 잘 모르겠다

6-1. 유치원 교육비 또는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시면 그 이유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만 4세 이하 차등 교육·보육료

③ 만 5세아 무상 교육·보육료

④ 모·부자 가정영유아

⑤ 두 영유아 이상 교육·보육료

⑥ 농어업인 영유아 교육·보육료

⑦ 장애아 무상 교육·보육료

⑧ 기타()

7. 귀댁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을 위해서 매월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내는 비용은 가정에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 비용을 전혀 안내는 아동은 해당없음입니다.)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되는 편이다 ③ 적당하다
- ④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⑥ 해당없음(비용부담 안함)

8. 귀하는 아동이 다니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②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9. 보육시설 이나 유치원(또는 문1에서 응답한 기관)이 끝나고 집에 와서 아동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공부하기(학습지) ② TV나 비디오 보기
- ③ 어른과 놀이 및 활동(신체활동, 노래 등) ④ 친구와 놀기
- ⑤ 책 읽기 ⑥ 오락 또는 컴퓨터 게임하기
- ⑦ 학원가기 ⑧ 아무 것도 하지 않음
- ⑨ 기타()

***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님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1. 아동을 교육·보육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아동이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② 비용이 부담돼서
- ③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④ 매일 데리고 다니기가 번거로워서
- ⑤ 기관의 시설 환경이 열악해서 ⑥ 환경이 바뀌면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 ⑦ 이용 희망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⑧ 집 가까운 곳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 ⑨ 기타()

2. 아동이 낮 시간 동안 주로 생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집 ② 친척집 ③ 이웃집 ④ 친구의 집
- ⑤ 동네골목·놀이터 ⑥ 복지관 공부방 등 사회복지관 ⑦ 학원 등 사교육기관 ⑧ 잘 모르겠음
- ⑨ 기타()

3. 아동은 낮 시간 동안 주로 무엇을 합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공부하기(학습지) ② TV나 비디오 보기
- ③ 어른과 놀이 및 활동(신체활동, 노래 등) ④ 또래와 놀기
- ⑤ 책 읽기 ⑥ 오락 또는 컴퓨터 게임하기
- ⑦ 아무 것도 하지 않음 ⑧ 기타()

III. 초등학생 아동의 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이 영역은 '초등학생 1, 2학년 아동'을 둔 부모님(또는 주양육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 귀하는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②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2. 아동이 학교에 다녀온 후 주로 생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집
- ② 친척집
- ③ 이웃집 또는 아동 친구의 집
- ④ 동네골목·놀이터·학교운동장
- ⑤ 복지관, 공부방 등 사회복지기관
- ⑥ 학원 등 사교육기관
- ⑦ 잘 모르겠음
- ⑧ 기타()

3. 아동은 학교에 다녀온 후 주로 무엇을 합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공부하기(학습지)
- ② TV나 비디오 보기
- ③ 어른과 놀이 및 활동(신체활동, 노래 등)
- ④ 또래와 놀기
- ⑤ 책 읽기
- ⑥ 오락 또는 컴퓨터 게임하기
- ⑦ 아무 것도 하지 않음
- ⑧ 기타()

4. 아동이 초등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친구와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 ② 서투른 남한 말과 억양
- ③ 학습 부진
- ④ 부모와의 갈등이나 대화단절
- ⑤ 남한의 학교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 ⑥ 학교에서 전달사항(가정통신문, 알림장)을 이해하기 어려움
- ⑦ 교사와의 관계의 어려움
- ⑧ 기타 ()
- ⑨ 없음

※ 모든 아동의 부모님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5. 아동이 교육·보육기관 외에 받는 개인교육은 무엇입니까?(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① (방문)학습지 및 (방문)교구 교육
- ② 보습학원(주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학습위주로 가르치는 학원)
- ③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태권도, 영유아 체육)
- ④ 놀이학원(놀이학교, 감성놀이학교 등)
- ⑤ 복지관, 구민회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
- ⑥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교회, 성당 등)
- ⑦ 이용하지 않음
- ⑧ 기타()

IV. 아동에 대한 기대 및 신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현재 아동을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못하다
- ② 별로 그렇지 못하다
- ③ 약간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2. 앞으로 아동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못하다
- ② 별로 그렇지 못하다
- ③ 약간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3. 귀하는 아동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대학교
- ⑤ 대학원
- ⑥ 기타()

4. 귀하는 아동과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거의 만족하지 못한다
- ④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5. 귀하는 아동을 키우는 것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즐겁다
- ② 즐겁기도 하지만 힘든 점도 있다
- ③ 좋은 점 보다는 힘든 점이 훨씬 더 많다
- ④ 늘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 2009-14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발행일 2009년 12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51-6 93330

<정가: 10,000>